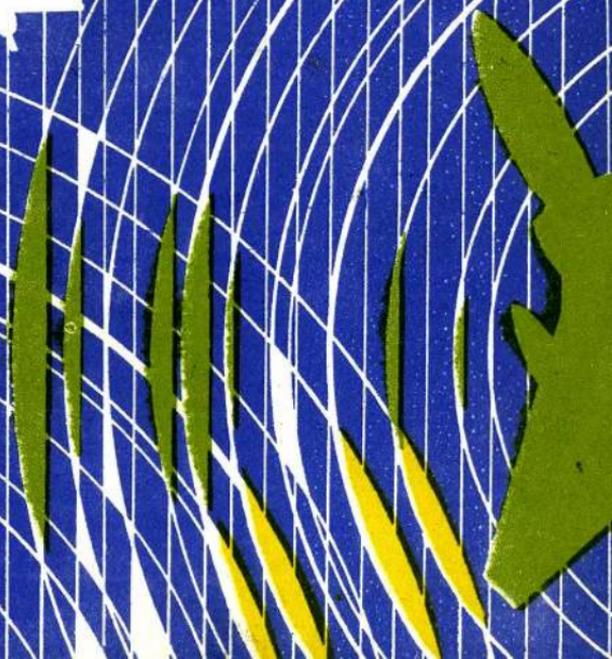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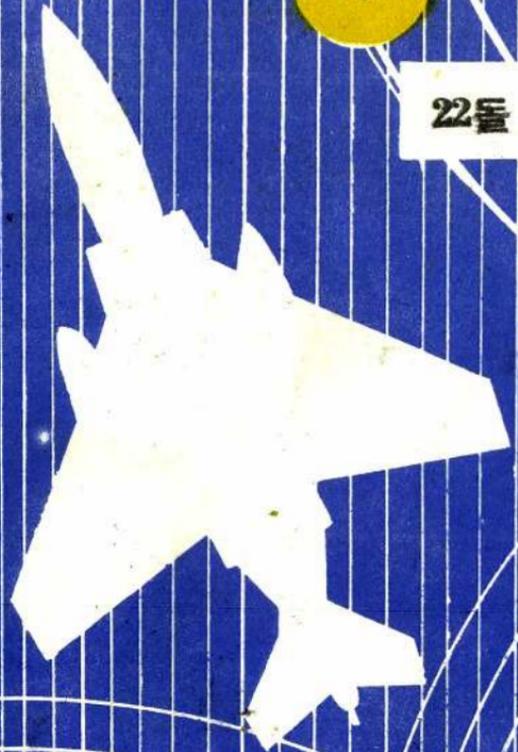


1970년 9월 28일 일제 1970년 9월 30일 발행

제118·119호 >

광산

22돌 국군의 날 기념 특집호



1970



신 상철 주일 한국대사 공본 예방

주일 한국대사 신 상철씨가 8월 17일 공군본부로 김 두만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사진; 김 총장이 신 대사에게 기념패를 증정하고 있다.)

국민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제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와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진리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중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흥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유 재홍 청와대 특별보좌관 공본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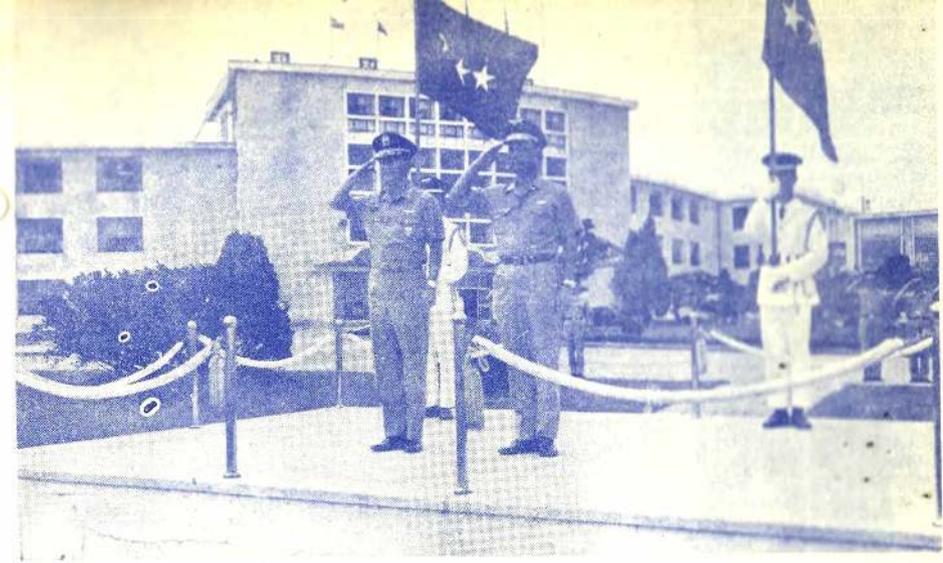
신임 청와대 특별보좌관 유 재홍씨가 인사차 9월 10일 공군본부로 김 두만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김 총장 예하부대 초도순시

김 두만 참모총장은 각 부대를 초도순시하였다(사진: 8월 14일

2765부대 초도순시 중 김대통령 등에게 사진 찍고 있다.)



심 흥신 합참의장 공본 예방

합참의장 심 흥신대장이 신임인사차 8월 20일 공군본부로 김 두만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미국 하원의원 「민셀」씨 공본 예방

미국 하원의원(세출담당 분과위원) 「민셀」씨가 9월 4일 내한

시절에 공군본부로 김 두만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공 군」 제 118·119 합병호 <국군의 날 기념특집>

<권 두 연>.....	정 훈 진	찬	(2)
기 념 사.....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김	무 단	(4)
(축)(시) 젊은 대열.....	노산 이	은 상	(6)
국군의 날에 부쳐<공군 장병에 바란다>.....	장 <small>국세관항공사 총재</small>	성 환	(8)
성년 공군과 자주국방.....	한국일보논설위원 윤	종 현	(11)

특집 전진하는 조국이 바라는 군인상

자주국방에의 투지와 군인상.....	경희대학 정치학교수 신	상 조	(22)
조국과 명예와 금지.....	전우신문논설위원 이	영 록	(31)
국군과 근대화.....	한국일보논설위원 임	방 현	(41)
민족중흥과 군인의 사명.....	신아일보논설위원 정	운 종	(47)
승공통일을 향한 군인의 자세.....	중위 송	석 훈	(58)

미국의 전략적 안정의 장래.....	박	창 열	(69)
중동분쟁의 평화전망.....	동아일보기자 서	정 균	(82)
소련의 핵전략 이론—핵시대의 소련군사독트린—	후	준 표(역)	(86)
「스위스」문제와 중동·동남아 정세전망.....	조	길	(94)
인생을 사는 지혜	덕성여대교수 지	명 판	(98)
홍무공의 인화력<난중일기에서>.....	고대교수 김	경 탁	(105)

표지화 > 진 광 선
차베위 사진화보: 표지2·3면, 차베위

우리민족의 이념과 진로.....	동대교수 정	종	(120)
민족전통과 청년.....	경희대교수 윤	영 춘	(131)
전술 항공기와 무장.....	중령 홍	성 표	(139)
집단생활 부적응자들의 지도방법.....	의대교수 성	하 원	(154)
<연재> 미사일의 역사 ②.....	문	정 식	(162)

미국의 극동 공군력..... 김 진 기 (173)

중공의 핵전략과 미 대중공 ABM.....	이	건 희(역)	(185)
미 군용기 개발현황과 그 주력기들.....	김	세 영	(199)

군종코너

과학문명과 윤리.....	김	관 석	(205)
예수의 윤리적 교훈.....	장	석 영	(211)
상황윤리 소고.....	최	원 진	(219)
역경의 감사.....	백	승 진	(225)
영혼의 수양.....	이	성 환	(227)

(단)(편) 행복으로의 의지.....	「토마스·만」(원작)	(229)	
귀 향.....	남	영 길(역)	(245)
원유회(園遊會).....	조	원 준(역)	(253)
세 시간의 비행공간.....	윌리엄·포크너(작)	(271)	
가장자리 장식.....	필·S·백(작)	(279)	

공군

<제 118 · 119 합병호
1970년 제 4호>

<비매품: 무단 전재 금>

발행처: 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경편집인: 공군대령 신찬
인쇄처: 공군교재창
인쇄인: 공군대령 예종협
편집실: TEL 206-3251, 69-3511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적 공산제열에서는 이와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서 이용코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온갖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영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 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 훈 감 실

정병강군과 임전태세 확립의 공동목표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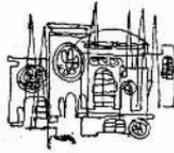
지금 우리 공군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벽찬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군전력을 증강하고 현대화하여 막강한 국방력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전 장병이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정병강군과 임전태세 확립이라는 참모총장의 자휘 지침은 우리 공군의 공동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집약적인 노력의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우리 공군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행동지침이요 강령이 되는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공군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며, 국방력의 우열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더구나 북괴의 집요한 침략도발 책동과 위협에 대처한 우리 공군으로서 정병강군과 임전태세의 완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들의 야욕



을 분쇄 좌절시키고, 일단 유사시 이들을 맞아 완전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불철주야의 노력과 결의를 거듭 다짐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장병 각자가 경계화되어야 하겠으며, 일당백, 일기당천의 강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가 공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임무와 역할을 우선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군으로서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임무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체질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투기량의 연마와 전기의 개발로써 현존전력을 극대화하는데 다같이 창의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로써 국가와 민족을 수호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에 불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실력연마와 자기 반성으로 발전을 위한 도약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군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우리의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 총매진의 결의를 굳게 다짐해야 하겠다.

22주년 국군의 날에 즈음하여

참 모 총 장

공군대장 김 두 만



친애하는 공군 장병 여러분!

오늘은 전군 22주년이 되는 『국군의 날』이자 공군 창설 21주년이 되는 뜻깊은 기념일입니다.

이날을 경축함에 앞서 공군 창설에 이바지하신 김정렬장군을 비롯한 선배동지 여러분들의 희생적 노력과 공헌에 대하여 새삼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 간에 하늘을 지키다가 애석하게도 산화한 전우들의 명복을 빌고자 웃기를 여미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에도 멀리는 월남 전선에서 가까이는 영공에서 각기지에서 산간벽지와 고도에서 오로지 말은바 임무수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 및 문관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창설된지 어언 21년의 성년기로 접어든 우리공군은 그야말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내는 숨가쁜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6·25동란 당시에 이미 전폭기로 참전하여 우방공군과 함께 공중방위의 일익을 담당하였고, 60년대에는 F-5A를 비롯한 신예 팬텀기를 도입하여 막강한 위용을 자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마침내는 북괴의 호전적인 망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전쟁 억제력으로 주요할 단계까지 자랐습니다.

뿐만아니라 월남전에 참여하여 전란중에 있는 우방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빈번한 무력도발과 무장간첩의 지·해상 침투를 봉쇄하기 위한 각종 작전에서 실질적인 방위임무를 완강히 행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급진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내의 정세를 비롯한 군사정세의 압력은 잠시 정체와 휴식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북괴는 영특하신 박대통령 각하의 「8·15선언」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무력 침공의 야욕을 재차 드러내 보이고 있거니와 1961년에 시작된 초위 7개년 경제계획을 남침을 위한 군사계획으로 변경하여 군비에 광분하고 있는 그들이, 무력적화통일의 획책을 포기할 이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짐작하지 못하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는 북괴의 기습 위협이 필요코 증대되고 있다는 징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체방위력 자력으로」라는 방향으로 급변하는 정세변동에 따라 자유우방 공군의 지원부담을 점차 자력으로 담당해 나가야 한다는 부른 꿈을 구현할 의욕과 슬기를 발휘할 때가 바야흐로 다가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로 그것은 70년대 초에 있을 지도 모를 북괴에 의한 전쟁 도발행위의 가능성이 갈다는 위기의식을 일깨워 주는 두 가지 큰 외적 요인으로서 우리에게 부과된 박찬 시련이며 고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내일의 영광된 조국을 건설하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는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지상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미 취임사에서 「정병강군」과 「임전태세 확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제시하고 그 구현을 위한 몇 가지 저침을 최근에 시달한 바 있지만 요는 외형적인 무력구조나 주체성이 결여된 해이한 정신상태에서 안이하게 사고하는 일체의 타성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구체적인 자기검토와 객관적인 평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이 되어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뚜렷한 목표를 세워서 어디까지나 자력으로 해결하려는 의욕을 발휘하여 자주국방의 터전을 바로 잡아 보자는 것이 그 거조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선행될 때 비로소 자주방공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규모까지 공군력 증강이 사실상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50년대의 요람기를 거친 60년대가 성년공군의 역사였다면 70년대를 완숙의 역사로 전환할 시대적 사명감을 이 기회에 여러분 각자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항공기를 비롯한 모든 장비는 고도의 가동수준을 유지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연중무휴의 대기태세는 높은 사기와 적개심을 수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술전기 면에서 일기당찬 할 수 있는 기술과 투격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고, 우리의 훈련수준과 교육열은, 급진적인 전력팽창이 있을 시에도 계속 높은 효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열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컨대 6·25동란을 비롯한 중동의 6일전쟁이 보여준 전사의 교훈을 거울삼아 70년대에는 기필코 우리가 주역이 되어 전쟁의 승패뿐 아니라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공군력의 투석으로서 역사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장병각자가 이 뜻깊은 날을 맞아 과거를 성찰(省察)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내일을 구상하는 뜻있는 하루를 보내 줄 것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전투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970년 10월 1일

젊은 대열

— 국군 창설 22돌에 —

노산 이 은 상

나라의 심장
역사의 심장
그러기에 나라와 역사와 함께
삶과 죽음을 같이하는
젊은 대열이 있다.

오늘도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험한 고개를 넘어가는
젊은 대열

심장의 더운 피를 바치고라도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찾는다면
아낌없이, 정녕 아낌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다 바치겠노라 맹세하는
젊은 대열이 있다.

이 어둠과 밝음의 문턱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은 누구를 위해
금욕보다 더 아까운
청춘의 나날을 바치는 것일까.

젊은이들의 목에서
피땀한 곡조로 불려 지는
자유와 평화의 군가의 뜻은
그보다 더 애달은 통일 의 군가의 뜻은

화약 냄새로 얼룩진
아름다운 조국의 푸른 하늘을
선과 사랑과 정의로써
씻기 위해서다.
거룩한 외침이다.
흔들림 없는 목표다.

제 한 몸 재물로 바치면서라도
복된 내일을 다짐하는
이 나라 젊은 대열

저 해와 달과 별들과 함께
무너지지 않더라도
조국의 성벽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
하늘을 지키는 젊은 대열
영광의 역사를 지으리라
조국을 위해
인류를 위해

1970. 1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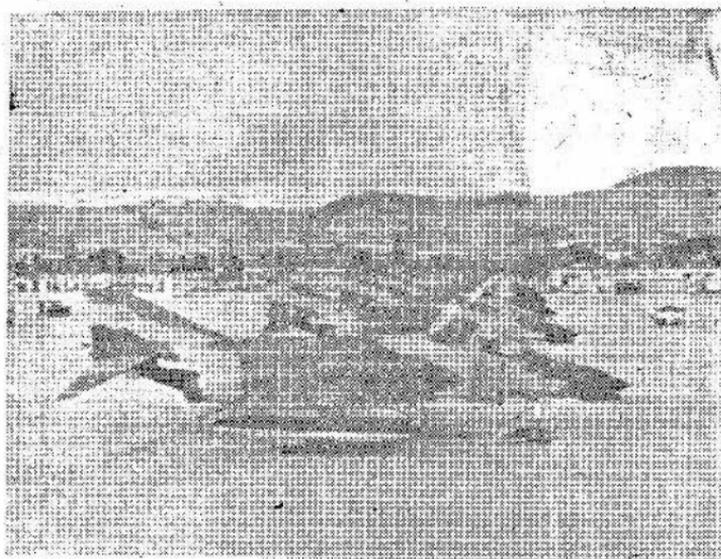
국군의 날에 부쳐



공군장병에 바란다

장 성 환

<국제관광공사 총재>



벌써 오세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1945년 9월 초 가을 하늘에는 백여대의 연합군 전투기가 편대로서 서울 상공을 저공으로 시위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을 추억한다.

나는 그 당시에 우리도 자주 독립과 국방을 위해서는 이와같은 공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였으나 언제 이러한 것이 실현될 수 있는지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그 후 우리는 국군이 창설되고 공군도 창설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공군은 경장비로 된 그리고 충분히 국방임무를 수행할만한 공군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 후 우리는 1950년 6월 25일에 불행하게도 북괴의 무력침입을 당하고 초기에는 우리 공군력이 부족하였던 탓으로 당연히 막을 수 있었던 적을 그대로 남침케하고 많은 희생과 피해를 가져 왔으며, 전술적으로는 부득이 불리한 작전을 하게 되었던 것

이다.

그후 UN군의 참전에서 많은 공군력이 투입되었고 휴전시까지 수년간은 매일 수백대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적진을 공격하고 작전지역에 대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자 북쪽의 공군은 전멸되고 적은 지상군만 가지고 전투를 하게 되었고 적에 대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적의 작전계획에 심한 차질을 가지게 한 것을 생각할 때 6·25 동안은 확실히 우리에게 공군력 증강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이 우리 공군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었던 것이다.

휴전 후 우리의 인내와 노력으로 전후 복구가 시작되고 특히 지난 10년간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국군의 현대화는 70년대를 우리의 자립경제 및 자주국방이라는 원대한 목표 계획 연대로 삼고 있는 것이며, 여러면에 어려운 일은 있으나 우리 공군력을 가지고 국방일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가지게 될 것을 기쁘게 여긴다. 공군이 창설된 지 벌써 21년이 되고 이제는 세계 일류의 「팬텀」 전투기와 여기에 필요한 우수한 전투요원을 보유하고 있고 공군작전에 필요한 고성능 장비와 완전한 시설과 공군을 운영하는 유능하고도 잘 훈련된 공군장병이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간의 공군사상 많은 발전과 번창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젊은 시절, 공군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나로서는 한가한 때면 으레 지난날의 일들을 회상해 보곤 한다.

그럴 때마다 지난날의 괴로웠던 일, 즐거웠던 일 또는 감격에 넘쳐 가슴이 뭉클해졌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진다.

또한 꾸준히 자라나고 발전하는 공군의 모습에 한결 마음 든든하고 흐뭇함을 느끼며 미소를 머금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문득 요즈음의 장병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기도 한다.

오늘의 우리 공군은 「L-5」, 「무스탕」에서 「팬텀」으로 변환한 주력 무기가 상징하고 있듯이 한결 강화된 기동력과 육중한 무력을 가진 공군이 되었으므로 공군장병은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사태에 적응하여 발전에 노력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공군장병은 무엇보다도 참변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군은 특유한 기술지능을 가져야 되느니만큼 새 과학 기술을 습득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은 물론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여 조종을 비롯 정비, 레이다

◇ 공군 장병에 바란다

조작, 보급, 관리 등에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공군에게 요구되는 것은 투철한 군인정신의 함양과 고도의 과학기술의 터득이라고 볼 수 있겠다.

현대의 공군은 아무리 완벽한 군인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도의 기술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면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제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터득했다라도 군인정신에 투철하지 못하다면 이 또한 막중한 작전임무와 국방사명을 다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인정신과 기술은 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공군력 구성의 두 가지 중요 요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완벽한 공군력은 끊임없는 교육 훈련에 의해 형성되지만 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평소 건전하고 성실한 생활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장병이 성실하고 참된 생활태도를 가질 때 그것이 곧 공군력의 강화에 직결되는 것이며 또한 영광과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이며, 공군에서의 생활을 즐기고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보람있는 삶을 갖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알찬 인간형성에 노력한다면 최후의 영광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찬 삶을 활짝 즐기기를 바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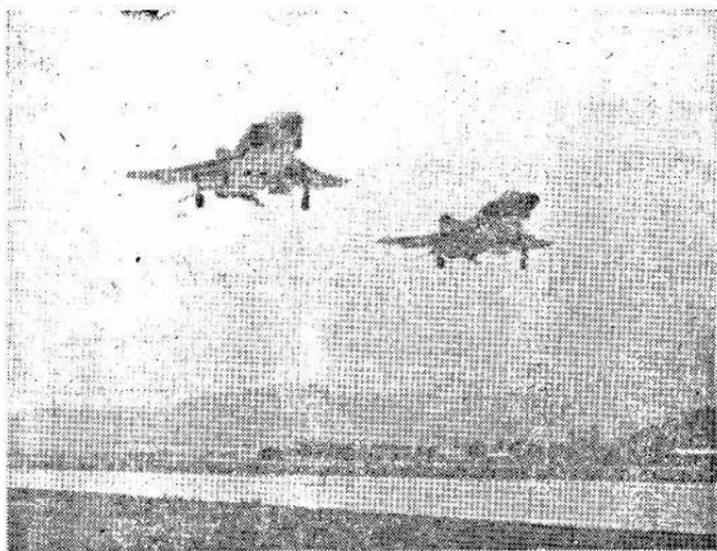
지금 우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민족의 자립 번영을 기약하는 70년대를 맞아 우리의 과업인 조국 근대화 작업을 성취시키기 위해 새로운 자세와 결의를 가다듬어야 하겠으며 시련과 대망이 교차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조, 자립, 자주, 협조정신을 기르고 항상 공군의 긍지와 명예를 높여주는 젊은 용사가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군장병은 우리공군을 오늘날 이와 같이 키워온 여러 국민의 성원에 감사하고, 선배들 뒤를 이어받아 그분들이 준 교훈을 다시금 삼기하면서 우리의 숙원인 통일을 성취할 그날까지 꾸준한 전진을 계속하여 우리 사회발전에 참다운 역군이 될 공군의 참된 상(像)을 만들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성년 공군과 자주 국방

윤 중 현

<한국일보 논설위원>



1.

스물한살— 사람으로 치면 대학 2·3학년생이다. 한평생 가장 얼굴이 빛나며 혈색이 좋은 나이다. 그는 지나온 길보다 장래를 환하게 설계한다. 온갖 일을 생각함에 무게가 생기고 지사(志士)다운 기재를 기른다. 「단테」 같은 기재(奇才)나 「바이론」, 「하이네」의 정열은 몰라도 의지의 사나이 신의(信義) 사나이로서 자기 사명을 노래하는 기백(氣魄)에 산다. 발랄한 그 정신, 무한대하려는 그 뜻과 기력 앞에 생명의 한 역사를 읽을 수 있다.

자주(自主)의 시동(始動), 바로 이 「에너지」의 발동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70년대의 공군은 나이로 보아서 적이어야 할 뿐이 아니다. 보다는 우리

를 둘러싼 주관적 또는 객관적 사정이 자주국방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현저하게 변동돼가고 있는 것이다. 68년 1월사태 이래 우리는 북괴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 우리 힘으로 주체성을 갖추어야 할 것을 뼈저리게 느꼈었다.

비정규전에 대응하는 감각이나 방법에 관한한, 우방과 우리 사이엔 위화감(違和感)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작년 7월 「닉슨독트린」을 통해서 미국은 점차 세계경쟁역할을 사양하며, 분쟁개입을 절약하려는 기색이 농후하다. 한국에서 만은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믿었으나 특례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은 주한미군 일부감축을 재빨리 기정방침으로 내세웠다. 세계적으로도 현 체제를 동결시키려는 미·소의 움직임이 엿보인다.

미·소의 이런 공존정책과 국제정치의 다원화(多元化), 군사체제의 양극화 현상외에 나날이 경제사회, 정보사회, 기술사회화하는 국제사회의 발전속에서 신형국제주의의 물결과 함께 나라마다 국민적 자아를 인식하면서 제나름대로의 「내셔널리즘」이 진행하고 있다. 우방들의 자세 중에도 이런 경향은 뚜렷하다.

하나 우리에게 대한 위협요소나 이땅의 긴장상태는 눈 앞에서 조금도 변한게 없다. 북괴의 도발과 남침계략, 폭력혁명노선은 오히려 완화된 흔적이 보이질 않는다. 1·21사태에서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 미수사건에 이르기까지 무장공비 1개 중대 이상의 동해안 침입사건을 비롯하여 끊임없는 도발은 10여건이나 꼬리를 이어 왔다. 말하자면 전쟁분위기 조성에 광분하고 있으며, 올부터는 특히 호전적인 중공권(中共權)에 밀착해서 그들의 대남침략노선을 공동지원한다는데 야합하였다.

이처럼 적은 그대로 날뛰는때 반해 우방은 오히려 퇴조(退潮)하는 것 같은 현실상황이 우리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케 하는 첫째 인소(因素)이다.

두번째는 주체적으로 생각해 볼 상황발전이 없지도 않다. 즉 자주국방의 길을 마땅히 잡아야 할 군사적, 경제적, 정신적 토대에 우리가 상당히 근

접해가고 있는 것이다. 경비대 시절로부터 따지면 전군 이미 24주년이다 (국군편입후 22주년). 그간 창군기→시련기→6·25전투기→휴전후의 증강기→60년대의 자랑스런 청년기와 성년잔치를 거쳐 자타가 공인하는 60여만 정예 국군으로서 이제 70년대의 사명기(使命期)를 맞았다. 2백50만의 예비군세가 「제2국군」으로 전력화하며, 그 존재성을 낱알이 거창하게 들어내고도 있다. 1·2차 5개년계획을 통해 경제는 놀라울게 성장하여 자립의 전망을 몇 해 안에 바라보는 위치에 섰다. 방위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연관기업들이 어깨를 들먹이며 자라 오른다. 온 국민의 공비칩입 때마다 보여준 반공정신이나 침략자와 평화파괴자를 응징하려는 결의는 철석같았다. 아울러 보다 심심한 전전사회를 실현시키려는 희망과 자신이 온갖 부정요소를 저주하면서 우리 풍토 안에 넓은 나태를 퍼려하고 있다. 20대전반의 세대는 완전히 해방동으로 교체되어 의식구조면에서 꾸밈새 없는 자주성을 갖고 자란 젊음어들이다.

2.

자연인과 조직사회인 군대의 성장과정은 생리적으로 다르다 할지라도 공군 역시 역량으로나 그 자주적 토대면에서 그간 거창하게 진보한 것은 확실하다.

49년 10월 독립군으로 발족했을 당시와 오늘의 응비상은 영(零)과 백(百)의 차이 이상이다. 48년 9월 15일 L-4 연락기 10대에 태극표지를 달고 조국 하늘을 처음 날아보던 초산(初産)단계는 물론 49년 10월 공군으로 독립한 직후 국민의 애국기 헌납운동을 벌려야만 했던 「걸음마」시절, 장병 1,897명이다 연락기, 훈련기를 합쳐 22대를 갖고 돌맞이 전에 6·25 첫 날을 맞았던 어린 전력과 장비사항은 놀이키면 영(零)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오늘은 「펜텀」시대에 산다. 비록 I개 대대 밖엔 없지만 제제 제일급의 다목적 전투기종인 것이다. 그외 F-5A, F-86F, F-86D, RF-86F, T-33, T-28, C-54, C-46 등과 더불어 전투 공군으로서의 정면장비를

일응 갖추었다. 기지의 시설과 전개도 옛날엔 어렵도 못했을 정도이다.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를 비롯하여 공군을 운영하는 모든 기술진은, 놀랍게 발전했다. 영공 방어작전권을 우리 공군이 질머진지 이미 오래며, 항로 통신통제업무, 방공관제경보업무, 기상업무도 10여년전에 모두 자체화 하였다. 66년에 수립한 3만시간 무사고비행기록은 70년들어 「5만시간의 기록」으로 갱신되었으며 개인비행 3천시간 이상의 「파이롯」은 수도룩하다. 가위백배 이상의 전투상비상태이자 발전이라고 평가되고 남을 것이다.

저창해진 이 외형적 또는 물리적 역량풀이보다도 자주국방에 접근할 중요한 정신적 뼈대가 내면에 굵게, 그리고 뿌리깊게 성장한 것을 가장 미덕운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 창군 당시부터 공군은 인화단결이 남달리 훌륭하였다. 자기 사명에 철(徹)하고 성장에 한 밀들이되려는 성(誠)과 열(熱)이 뭉쳐 있었다. 의타심에 앞서 제 할 바를 먼저 다 하려 했다. 이런 정신적 표본은 사실로써 얼마든지 보여준 것이다.

6·25 초전에서 연락기, 훈련기를 갖고 밀려오는 적의 「탱크」를 부수던 일이나 별다른 훈련교육도 안 한채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은 「무스탕」전투기를 몰고 적지공격으로 직행했던 앞다름, 경험이 없었으면서도 3년 전쟁과정에서 우방 공군부대와 함께 펼쳤던 공중 연합작전 임무의 성공적 수행은 그 실례들이다. 이런 정신구조의 자본이 없었던들 또 그것이 살지고 체질화하지 않았던들 공군이 지금처럼 현대적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을 것이다.

원조를 얻은 것도 국민의 협조가 항상 뒤따랐던 것도 정신과 몸체의 광범이 남의 신뢰를 살만한 스스로의 상태였기 때문이다.

자주국방이란 매력있는 「태머」를 갖고 오늘의 모습을 내일로 연장해 생각하면 공군처럼 먼저 자주화의 필요성이 강조돼야 할 분야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공군이 현대전력의 중핵체(中核體)임과 동시에 완전자력화를 기대하기 가장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는 까닭이다. 제공권 없이 전쟁에 이견다는 것은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시대다.

핵무기를 쓸 때를 제외하곤 공군처럼 전격적으로 전세를 좌우하는 군사

력은 없다. 또 공군의 전투처럼 한 순간 한 순간이 결전성(決戰性)을 갖는 전투양상도 드물다. 한데 값을 따지면 「팬텀」 한 대가 약 2백50만「달러」다. 육군 1개 보병사단장비를 개선하고도 남는다. 세계적으로 신예기를 목표로 기증경신경쟁을 계속하는 추세이다. 기수(機數)가 많다는 것보다 내용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공업력, 경제력, 기술과학력이 그 내용을 규정하는 요소이나 우리는 아직 초보적「타인」의 비행기도 국산(國產)할 능력은 없다. 비단 항공기뿐 아니라 기지에 소요되는 땅덩이만을 빼놓고 대부분의 기타 물량항공전력도 자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군사력에 있어서 공군이 차지하는 높은 위치에 반해 우리 공군이 전력구조면에서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이 물량적 취약성과 그에 따른 방위력 행사면에서의 제약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문제가 바로 자주 국방체제확립을 위한 공군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하겠다. 엄격히 따져보면 군용기의 국산화 문제는 국가경제력이나 과학 기술적 차원에서 공군을 훨씬 떠난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공군과 또한 밀착한 과제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처럼 민간항공 과학기술력이나 항공산업력이 불모(不毛)상태인 처지에서 이를 유도하고 자극하고 선도해야 할 기초적 추진력은 공군 영외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3.

일반적으로 자주국방이란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주적으로 검토, 판단, 결정하여 이를 실행하는 것을 뜻 한다. 즉 자국안보에 가해지는 위협요소가 무엇이며, 그 정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인식하고 그에 대비하는 방책을 주체적으로 선택(결정)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주국방에는 근본적으로 자의에 의한 결정과 방위방법의 실행에 있어서의 주체성 발휘라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가 실속 방위능력에서 완전히 자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 해도 방위방법이 다른 나라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자주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제아무리

방위방법의 판단과 결정을 자주적으로 했다 해도 자기역량이 전무하다면 실질적으로 자기의 방위의지를 떠나가는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자기 판단과 자기 손에 의해 국가방위를 실행할 수 있는 완벽한 「양수점장」 태세를 마련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최고상태이고 가장 바람직스런 일이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전개되고 있는 국제관계나 군사기술의 발달은 미·소 같은 초대국이라 해도 자력이나 단독으로 완전 자주국방을 실행치 못하게 하고 있다. 설혹 그들이 능력면에서 가능하다 할지라도 집단안보체제를 추구하는 편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실례를 들자면 미국이 소련의 핵 공격을 막는다는 자국내의 기지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세계 도처 동맹국에다 해외기지를 설치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처럼 방위에 있어서는 항상 효과의 측정이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하며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주안점도 이 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주적인 것이 비자주적인 것보다 국가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더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전제 밑에서만 자주국방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며, 단지 「슬스로진」적이거나 독립국민 심정에만 사로잡혀 배타성을 조장하기 쉬운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위해를 수반케 될 따름이다.

자주국방을 표방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공동방위·집단안보 체제를 갖추면서 여러가지 타력현상(他力現象)을 국민적 합의로 받아들여 자주국방의 개념에 용해시켜가는 경향은 이런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요는 자국민의 의사에 따라 가장 효과적 방위방법이 결정되어 국가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 그것이 훌륭한 자주국방이며 굳이 방위의 외형적 형태에 구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주국방 이념하에 공동방위체제 즉 「자력(自力)푸러스 타력(他力)」의 방위체제를 정립해 놓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자주적이라 해서 무엇이든지 전부 자기 손으로나 자기 힘으로만 「자력화」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항공과학기술의 발달이 날로 에민해지고 방위비용이 많이 들며 방위속도와 기지면적이 증시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미국의 해외 기지중에는 공군기지가 단연 많다. 이런 체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변동이 없을 것 같다. 미국이 지상군에 의한 분쟁개입을 압축한다는 「닉슨독트린」을 아시아지역에서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공중지원은 「캄보디아」, 「라오스」에까지 계속 더 뻗혀가는 동향에서 전망을 잘 헤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기반으로 서독, 불란서, 화란, 벨점, 영국, 캐나다, 미국은 대잠초계기(對潛哨戒機), 수송기, 훈련기, 지원전투기 등 여러 기종에 걸친 군용기의 개발 및 생산에 국제협동작업을 실시하고도 있다. 이웃 일본 역시 「팬텀」기를 국산화하는데 필요한 일부 기술문제를 미국업체와 당분간 제휴해 갈 계획이라 한다. 이런 공동태세 속에 자국의 의사가 통하고 자력의 면적과 부피가 길어지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거나 한 나라를 방어하는데 있어 국제적 연관이 중요한 시대이니 만큼 상호관련하고 협의하여 의사통일을 하는 것은 자주성과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외국의 실패나 해석을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주국방의 개념 안에 「자주방위 이념하의 공동 방위체제」형태를 포함시키고, 자력의 폭을 넓히면서 점차 타격을 해소하거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대등한 협력관계로 발전하려는 방향은 매우 옳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자주국방의 능력이나 체제문제와 아울러 우리 주변에서는 주체적 정신부장이 보다 강조되며, 유엔군사령부에 위임된 국군 작전지휘권과의 조화문제가 따르는 것이 특이하다. 자주국방 태세확립을 위해 정부가 지향하는 당면과제 (① 전 국민과 장병의 국가수호에 대한 정신부장의 강화 ② 일반 기간산업과 방위산업의 육성 ③ 예비군의 전투력 향상 ④ 한국실정에 맞는 국군의 교육, 편제 등의 강화 및 장기전략의 수립시행 ⑤ 외교적 실력의 강화)와 이런 특

성을 감안하면서 공군에 기대하고 싶은 자주국방의 내용 몇 가지에 접근해 본다.

첫째, 전통적인 방위의지를 더욱 개발하며 철석화(鐵石化)할 일이다. 자주 시동은 정신구조에서 주인이 되려는 사람의 의지에 근원하며, 내 나라를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에서 방위의지화 한다. 이런 의지가 결여되거나 아류적인 것이면 자주방위의 토대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

앞에 말한것처럼 공군은 이미 창군시로부터 이런 정신자본을 길러왔다. 이제는 그 의지를 확장하고 항구적으로 연장해 갈 것이 남은 과제인 따름이다. 방위 의지의 발전은 자기 위협요소와 환경정세를 똑바로 「캐취」하고 주어진 여건하에 최선을 다 하려는 심성(心性)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크게는 방위목적과 그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애국심과 충성심의 체득; 「내서나리즘」과 국가이익의 강렬한 추구로써 살이 쥘다. 또 그 의지의 주체성은 남에게 뒤진 것을 앞서려는 분발심과 의타심, 의퇴심을 즐기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창의성, 전설성, 연구심으로 키워진다.

둘째, 자력(自力)의 면적을 넓혀 갈 일이다. 작전지휘권의 이양이나 원조 장비에서 오는 제약은 있지만 이론, 전략, 전술, 편제, 교육훈련면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요소를 가급적 배합시키며,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을 강조하는 점진적 전환책을 모색해야 한다. 조종간을 잡은 한 순간의 전기(戰技)에서나, 발전(發進)준비의 한 마디에서나, 기지의 한 뼨, 시설의 한 조각, 정비의 한 부분, 감시측정의 한 수치(數值) 축에서라도 차기다운 것을 찾으며 훨씬 효율적이고 보다 숙련화하려는 노력은 모두 자기 힘의 영역을 확대하는 길이다. 그것은 곧바로 훗날 기술독립의 뿌리며 씨앗이며 싹이 될 것이다. 또 방위력 행사면에서 받고 있는 제약을 서서히 해결하는 자동장치 역할을 할 것이다.

실사 당장은 경제사정이나 과학기술력 때문에 곤란하다 하더라도 정부서 육성하는 방위산업이 70년대 후반부터 상당수준으로 발전하면 항공기의 국산문제는 반드시 제기될 것이며, 그 첫 「프로젝트」는 내외정세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반드시 군용기의 생산으로 귀착하리라고 본다. 즉 공군의 기본 병기인 항공기를 「자국병기」로 등장케 하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꿈의 실현은 자주국방의 「하이라이트」라 해도 무방하다. 아직은 작문(作文)이나 몽상단계에 불과한 상태이지만 자주국방을 지향하는 공군의 의기로서는 그 준비를 위해 자력의 터전을 다져가야 한다. 그 외의 불량전력의 자주성을 바라면서 항상 근심스럽게 여겨지는 항공기지의 노출상을 시급히 보완하고 자체군사 예산이든 군원이든 용도에 있어서는 알뜰하게 내 것과 내 힘의 토대를 쌓아 올리는 주안점을 가져야 한다. 원조에 의한 항공장비라 하여도 나 스스로가 조작할 능력을 갖고 나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실상 반자동적으로 자기 것이 된거나 다름 없으며 남의 신세를 그 만큼 줄인 것이다.

세계, 스스로 최선을 다 한 연후에도 부족한 힘은 적극 지원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의 도움을 포기하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공군 전력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 돈이 넉넉하다 해도 신예군용기 같은 것은 마음대로 사들이기 조차 힘든 세상이다. 또 워낙 오래 동안 의타성이 컸고 생산 여건이 부족한 우리로서 전천후, 초음속, 초저공, 전자방해능력이나 고가속(高加速), 고상승(高上昇) 성능을 나날이 새로 기록하며 질적으로 향상하는 미래의 공군기 수요를 감당할 가망은 좁게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적이 최신 「제트」로 초음속 침입을 하는데 「프로페터」기를 물고는 대결이 되지 않는다.

기술군인 공군이 유독 타력(他力)과의 악수(握手)를 얻어선 안 될 사유는 여기 있는 것이다. 가깝게는 주한 미 제314비행단→제5공군→태평양 공군 미국 공군과의 관계를 한몸처럼 밀착시켜야 한다. 6·25참전 16개국 중 특히 공군을 파견했던 미국, 영국, 벨기에, 캐나다, 호주, 남아연방, 회람 등 우방국가의 공군과는 특별한 교류를 도모해 둘 필요가 있다. 월남참전국의 공군이나 반공색이 짙고 세력수준이 상당한 자유중국 공군, 그리고 이웃 일본 항공자위대와외의 접촉에도 마음을 써뉘는 일이다. 옛 전우나 자유우방 중

제각기 국내사정과 노선이 변질한 나라는 있을 것이지만 방위상 이념의 공통성과 친선 협조의 요건만 갖추었으면 상관할 것이 없다고 본다. 특히 일본과의 접촉은 사전조종을 요하는 문제성이 적지 않으나 사세의 흐름을 따라 손의 거리는 한치 한치 좁혀 드는 느낌이 강해지고 있다.

이럴 때 악수의 조건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민이 그것을 바라는가를 사전 진단할 일이고 또 하나는 주체성이 뚜렷한 악수여야 한다. 국민의 합의를 토대로하여 자기 의사가 통할 수 있는 협조와 지원을 얻도록 하자는 것이다. 점차 「파워게임」이 심해지는 국제간에 이런 「스코어」를 따는 것은 물론 수월치 않을 것이나 요는 공군이 자기 주도하에 공동방위실성의 매력을 잊지말고 활용하는 일, 이것은 자주국방과 국가안보의 한 밑거름이다.

베제, 오늘의 입전태세 속에서 자주성을 발동시키며 실천화하려는 각자의 노력이 강렬해져야 한다. 노력, 체험(행동), 축적(蓄積)은 목표로의 접근 과정임과 동시에 발전의 추력이 된다. 장병 자자가 자기 힘을 창조하려는 정열, 정세화하려는 노력, 전체에 단합하려는 활동이야말로 주체성의 약동이자 자주화의 거대한 기반으로 될 것이다.

2차대전 중 「멧사 슈미트」기로서 단신 적기 1백58대를 떨어뜨려 불멸의 격추왕이 된 독일 공군의 「한스 요하임 마르세이유」대위를 비롯하여 미국의 「F.S. 가브레스키」대령, 프랑스의 「르베·무셔드」소령 영국의 기적이었던 「D.R.S. 베타」중령같은 많은 하늘의 「에이스」들이 자기 공군의 발전과 승리를 위해 평소부터 푸른 하늘에 불태운 정열과 집념은 이미 모두 청사(靑史)의 일장을 기록하였다. 장차 쓰여질 우리 공군 자주국방사의 목차(目次)는 오늘의 은익결전장(銀翼決戰場)을 담당할 장병들의 불굴의 집념과 천재적 활약상으로 장식되어야 할 것이다.

특 집

전진하는 조국이 바라는

군인상



-자위의 국방은 발전, 번영하는 내일의.....○
-조국을 이룩하는 주축이 된다.○
-더우기 격동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북.....○
-피의 야만적 침략야욕이 노골화 되고 있는.....○
-이때 우리 군에 부여된 사명은 더욱 막중.....○
-하다.○
-국민의 선두에 서서 조국을 지킬 오늘의.....○
-군인상을 부각시켜 본다.○



진

상

초

<경희대 교수>

1.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폐허로 만들었고 민족사를 피로 물들였던 처참한 한국전쟁이 발생한지도 어언 20년이 되어 온다. 이 20년이 지나는 동안, 남에서도 북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한국의 남북관계를 싸도는 국제전력정치의 정세에도 거대한 변천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남북의 절대적 대립이다.

정치적 재통일을 후일의 과제로 미루어둔 채 맺어진 한국의 휴전협정은 이미 17년이 되었건만 재통일은 여전히 아득한 앞날의 꿈으로만 간주되고 있다.

휴전동결상황이 지속하는 동안 남북간의 무력충돌은 경미한 것이었다. 하지만 남북간의 적대적 대립은 격화 일로에 있으며 지금까지 누구도 무력의 사용 없이 기막힌 상황이 타파될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었다. 한국의 휴전선은 결코 사화산이 아닌 것이요 언젠가 무서운 폭발의 기회를 노리면서 잠시 쉬고 있는 활화산으로 여겨왔다. 다만, 그것이 아직도 불을 뿜지 아니하고 소강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오늘의 국제 권력정치의 여건으로 보아 강대국이 한반도의 재전쟁에 말려들기를 원치 않고 있는데다가 남북간에 군사력의 균형이 성립되어 있어, 이를 깨치는데, 일대 모험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런 조건에 사소한 변화라도 생겨나면 그 변화는 연쇄작용을 일으켜 보다 더 큰 변화로, 그리고 나중에는 걸잡을



수 없는 상태로 번지리라는 점, 상상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휴전 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최대의 「백·보온」은 주한 미군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주한 미군은 그 병력으로 보아 불과 수만 밖에 되지 않지만 미군의 한국 주둔은 공산주의 침략을 분쇄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결의를 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괴도 그 배후 조종자(소련 아니면 중공)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전면 남침은 불가능한 것, 승산 없는 것, 무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 미군이 남북간의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인소가 되고 있음은 분명한 것이다. 그렇지만 주한 미군의 존재가치는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남침을 저지하는 군사적인 방패가 되어 있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안전방위를 하는데 불퇴전의 결의를 갖고 있다는 상징적인 역할이 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의 국제정세는 주한 미군의 장기 주둔을 무작정 바라기 어려운 형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닉슨독트린」의 선언과 그 실천적 전개는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미 군사기지 및 미군병력의 대담한 철수를 서둘게 하고 있는데 이 군사력에 의한 세력전 정책 후퇴의 일환으로서 주한 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론이 가끔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닉슨독트린」은

- ① 아시아의 지상전에는 원칙적으로 말려들지 않겠다는 경험상의 고려,
- ② 중공에 대해, 일방적으로 「디스·엔게이지먼트·포리시」를 취함으로써 미·중공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정치작업을 하겠다는 장기정책의 구상,
- ③ 아시아제국의 힘을 결합함으로써 아시아의 집단안보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판단,

④ 세계 경찰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막대한 희생과 고통과 출혈을 감수하느니보다 미국은 해외에서의 세력권 정책을 후퇴 내지 포기하고 알찬 복지국가 건설에 치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고립주의적인 여론



의 강화 등을 토대로 해서 성립된 것이다.

「닉슨독트린」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를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력에 의한 세력권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 하겠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독립과 안전을 지켜오던 국가로서는 그러한 경향이 커다란 「쇼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아시아 제국 방위능력의 성숙을 높이 평가하고 또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이 맡아오던 책임과 역할 중 큰 부분을 맡아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평가의 기대가 허황한 것이라고 하면,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 방위」란 한낱 허울좋은 구실이 되고 만다. 미국은 중공과의 관계를 개선코자 지금까지 양국관계를 악화시켜 오던 몇 가지 원인을 자진 제거해도 무방하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공의 호전주의 침략 정책이 조금도 누그러질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보면 미국의 양보나 후퇴는 중공의 팽창주의를 고무해 주는 역효과를 자아낼 것이다.

이상은 아시아 제국—그 중에서도 특히 중공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으로 보아 「닉슨독트린」을 우려하는 근본적 소이이다. 그러나 아시아 제국 그 중에서도 특히 공산주의 침략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무리 미군을 붙잡아 두고 싶어도 미국 자체가 그 국가 이익으로 보아 세력권 정책을 후퇴시키고자 하고 그 일환으로서 아시아에 주문하고 있는 방력을 감축코자 한다고 하면 이 나라들은 이를 불가피한 경향 또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작도에서 안보의 길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한 미군의 감축론, 철수론도 이런 일반론적인 견지에서 다루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은 한국이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공산주의 방파제로서의 확고한 결의를 갖고 있는데다가 미군의 철수가 한반도에서 열전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주한 미군 문제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주문하고 있는 미군 문제와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이 까닭으로 주한 미군의 감축이 본격적으로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제일



빨라야 72년 말 후가 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한국전선에 대한 특별한 고려는 물론 고마운 일이다. 그렇지만 한국전선 역시 조만간에 미군 감축의 대상이 될 지경으로 내다보고 한국 스스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안보 조치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예측할 수 있는 주한 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는 한국에서의 군사적 불안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일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논리적 근거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군의 감축 내지 철수는 결코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동방위 책임의 포기를 의미치 않는다. 북괴가 소련 및 중공을 상대로 군사동맹을 맺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북괴는 62년 쿠바 사태를 계기로 어떤 시기에는 모스크바에 의존하고 또 다른 어떤 시기에는 북평에 의존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 역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북괴가 육접(陸接)하고 있는 공산주의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사시에 그들의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안전은 대한민국 자체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국제권력 정치상 중대한 모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뿐더러 미국은 8·15해방의 주역군이 있고 또 한국전쟁 당시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면서 한국의 독립을 수호해 준 나라인데 이런 미국이 우방의 안전을 피안의 화재시키고 한국방위 책임에서 발뺌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일부 우국론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군사적 존재가치는 줄어들는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의 안보를 위해서는 한국의 안전확보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에 있어서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보루로 설정하고 있음은 구차스러운 설명이 필요치 않은데 한국의 안보는 최소한 일본안보를 위한 아시아 대륙의 전초기지로서 계속 중대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둘째, 설명 주한 미군의 대부분이 철수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에 있어서의 「힘의 진공」상태 조성을 의미치 않는다. 69년의 「포커스레티나 작전」이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본토로부터 수 개 사단의 병력을 공수 투입하여 작전 전개를 시키는 데는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전면 남침이 자행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안보를 지원해 줄 생각만 갖고 있다면 미국 본토의 병력을 가지고서도 유효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을 요하는 것은 미군의 감축론이나 철수론은 주로 지상병력에 국한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반 항구적으로 미국의 핵산하에 들어가 있어 그 보호를 받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또 만약 약에 지상병력을 대규모로 감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미군의 공군력은 대폭 강화되리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세째로, 주한 미군의 감축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한국군의 전투 역량이 감축되는 것만큼 보강해 준다는 조건하에 행해진다. 철군론, 혹은 감축론이 되풀이될 적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따위의 철군 내지 감군은 하지 않겠다고 조심스럽게 강조해 왔다. 누구의 눈으로 보더라도 주한 미군이 한국의 안보역량중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라고 하면 미군의 축소는 한국군의 증강으로 보충되어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당장에 군사력의 불균형이 조성될 것이다. 한국군의 역량 보강이 장비의 이양이나 갱신의 형식으로 행해지는가 혹은 군수기간산업 건설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행해지는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미군의 후퇴가 국군에 대한 전투 역량 보강을 전제로 해서만 실행되리라는 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이 보아 온다면 앞으로 수년 안으로 주한 미군이 대규모 철수하는 사태가 생겨난다 하더라도 한국이 군사적으로 불안을 느껴야 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조야가 미군 감축론 내지 철수론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까닭은 무



엇인가. 우리는 이 점을 냉정히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3.

주한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론을 불안하게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정신적인데 있다. 우리는 8·15해방 후 지금까지 25년을 두고 타력방위에 의존하면서 국가안전을 기해 왔었는데, 이런 사태에 습성된 나머지 그 사소한 변화도 비정상적인 것, 위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해방 후의 미군 진주, 대한민국 수립 후의 미군 철수와 6·25전쟁의 발생, 미군의 대규모 참전을 통한 국가 독립의 수호,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에 의한 휴전동결 상황의 지속 등 일련의 과정을 생각할 때, 미군의 주둔과 한국의 안보를 불가분리의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외국군대를 계속 붙잡아 두어야만 안전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그 때문에 있어서 변칙적인 것임은 부인 못한다.

왜 그런고 하니 독립국가의 기본소이는 자력으로 국가안전을 방위할 수 있다는데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고 하니 외국군의 주둔은 국가안전 방위상 만부득이한 것이었다해도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런고 하니 외국군의 주둔은 비록 그것이 피주둔국의 요청에서 나온 것이고 또 주둔하는 외국군이 제아무리 약정적, 우호적이고 신사적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 주권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왜 그런고 하니 타력 의존에 습성된 국민은 자주정신을 잃기 쉽고 노예 근성에 젖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고 하니 국가의 안전을 외국군의 주둔에 맡기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자기의 국가나 민족의 운명을 제 힘으로 결정지어 보겠다고 하는 의지와 자오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왜 그런고 하니 타력 의존에 습성하면, 자조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결과적으로는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국민이 되고 말겠기 때문이다. 왜 그런고 하니 외국의 보호 밑에 안전하게 살고 있는 나라는 아무리 세계에 웅비하



여 그렇지 아니한 국가나 민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경쟁을 전개하고 싶어도 자주독립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인정받기 어렵겠기 때문이다. 왜 그런고 하니 외국 의존에 습성하여 자립·자강을 해보지 못한 국가나 국민은 늘 절름발이의 신세를 면할 수 없고 독립에의 자신을 갖기 어렵겠기 때문이다.

이상 열거한 모든 이유는 우리가 타력의존의 안보나 외국군의 주둔은 어디까지나 변칙적인 것, 임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소이이지만 오늘의 우리 국민의 사고방식중 가장 기막힌 것은 4반세기를 두고 타력의존 방위에 습성한 결과 이를 보면 타당한 논리마저 당연치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공산당이 적화통일의 전략적 「슬로진」으로서 「외군철폐」를 늘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정부나 국민이 「외군철폐론」을 경계의 눈조리로 대하여 왔음은 불가피한 또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군 주둔을 원하는 자는 애국자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비애국자이다 하는 논은 성립되지 않는다. 앞서도 말한 바 오늘의 한반도의 정세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주관적인 생각 여하를 불문하고 조만간에 주한 미군이 감축 내지 철수할 객관적인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눈가림을 하고, 그런 가능성을 지적하는 논마저 제시하기를 꺼린다고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결정적인 압초에 부딪칠 우리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군철폐」가 공산당이 원하는 바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거리간 먼 것이다 하더라도, 「외군철폐」가 자못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실령 미군의 대부분이 철수하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심각한 정신적인 「쇼크」를 받고 허탈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확고부동한 정신적인 자세를 갖추어 두는데 있다.

타력의존 방위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신적인 면에서 또 물질적인 면에서 「자력 방위태세」를 갖추어 놓는



것이다. 이러한 「자력방위태세」를 갖추어 놓는데 우리의 국방은 아직도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아들여서 그 모자라는 힘을 신속히 충족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주로 국가의 외교, 정치, 국방활동에다가 그 해결을 기대해야 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서 자력방위의 각오를 해 나간다는 것은 개개의 국민이 해 나가야 할 일인 것이다.

자력방위의 각오란 무엇인가. 군에 적을 두고 있건 그렇지 아니 하건 온 국민이 목숨을 걸고 국가의 안전 독립을 지켜나가겠다는 기백과 용기를 갖는 것이다. 국가방위의 간성이 되어 있는 군대는 높은 사기, 혼연일체의 단결을 이룩해 가지고 족히 사지에 뛰어들만한 애국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후방에 있는 국민들은 모든 군인들이 후고(後顧)의 우려 없이 생사를 건 싸움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주력해야 한다. 군·관·민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공산당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견지하고, 자유통일을 쟁취하겠다는 의욕과 정열에 불타고 있어야 한다. 일체 패전주의 염전주의의 언동이나 사상은 엄중히 배격되어야 하며, 잔인 무도를 극한 복괴도당에 대한 어리석은 「휴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은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 국민적 단결을 해치는 모든 그릇된 요소—각종 파벌의식, 빈부의 격차, 부패와 낭비, 독선과 오만, 불평·불만의 씨는 모두 합리적으로 제거되어야 하며, 적어도 반공투쟁에 관한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단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사(私)보다 공(公)을 세울 줄 알아야 하며, 자기만이 잘 살기 위해 남에게 해를 주는 「에고이즘」을 이 땅위에서 소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적에게 편승의 기회를 주는 혼란, 무질서는 신속히 극복되어야 하며, 모든 불평·불만의 씨는 법에 따라서 원만히 제거토록 해야 한다. 자유란 「나도 살고 너도 살기 위한 광장」인 것이니, 자유의 그릇된 변질 타락, 약육강식, 퇴폐적인 자유방임 등은 각자의 자각을 가지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은 찬란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세계만방과 어깨를 겨누며 경쟁하여 나가는데 있어서 조금도 손색이 없음을 깨닫고 그릇된 열등자의식을 청산하고 항상 우수한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행동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가가 자주국방이란 표어를 대대적으로 내걸기 시작한 것은 1963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 사건이 생겨난 후부터이다.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북괴의 침략을 응징하는 데는 국제정치상 큰 제약이 있는데다가, 북괴의 무력 침투전술에 대비하면서 국가안보, 사회안보를 기하기 위해서는 「싸우면서 건설하는 태세」를 확립치 않으면 안 됐던 까닭으로 「자주국방」이란 말이 「클로즈·업」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자주국방」을 강조했다면 앞으로 좋은 성과가 많이 나타났지만 자주국방의 최종적인 목표가 「자력방위태세」의 확립에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 우리는 「자주국방」, 「자력방위」를 향해서 우렁찬 전진을 계속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 기본적 바탕이 「제 힘으로 제 나라를 지키겠다」는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숙원인 자유, 민주통일은 「내셔널리즘」의 원리를 구현해 놓자는 것인데, 「내셔널리즘」의 논리적인 귀결이 민족자결에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

민족자결의 형식은 여러가지 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의 정세발전의 추이로 보아서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민족자결이 투표가 아니라 총탄에 의해서 행해지게 되리라는 점 누구의 눈에도 명백할 줄 안다. 남북관계의 평화공존이란 지금까지도 몽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몽상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토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언젠가는 전면적으로 무력을 사용치 않으면 안 된다는 이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총탄을 가지고 민족의 운명을 자결하는데 단만한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

조국과 명예와 긍지

= 「빨간 머플러」의 멋과 긍지 =

집



이 창 록

<전우신문 논설위원>

얼마 전, 일본의 3대신문으로 꼽히는 것들을 훑어보면서 가슴이 벌룩 거릴만큼 불쾌감을 짓씌어 본 일이 있다. 악명높은 JAL기 사건이 살살이 실린 연일 기사 가운데에 승객들의 경험담이라는 것이 있었다. 폭넓은 취재원과 부피 큰 지면인지라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미처 읽어 보지 못한 사건전모가 척결되어 꽤 흥미롭기는 했으나 우리 정부가 취했던 인도주의적 해결노력에 대하여 감사할 줄을 모르는 그 논조에 우선 분격을 참지 못했으며, 다음으로는 복피집단에 대하여 일찍 돌려보내 주니 감사하다고 뇌갈인 대목에 가서는 나도 모르게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았다. 고맙다기보다는, 옛부터 지각있는 일본인 자신들이 즐겨쓰는 도국근성(섬나라 근성)이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여하튼 왜놈들과는 진실한 의미에서 친교인방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제가끔 한 마디씩 말한 귀환자 경험담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정확한 항공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얼마만큼 비행한 것인지는 몰라도 비행방향과 비행거리로 보아 38도선쯤 되리라고 짐작되는 상공에 왔을 때 미국제 제트전투기 두 대가 나타나...그것은 아마 한국 공군기인 성싶었다.....』

이 방침 적은 부분의 기사문을 놓고 나는 생각해 보았다.

왜 한 마디로 한국 공군기였다고 말할 줄을 모르는가고.

기장인 「이시다(石田)」라는 자가 한 말인데 「보잉」제트기 조종사로는 세계적인 베테랑급에 속한다는 자가 제트전투기 동체에 태극 마아크도 선명했을 우리 공군기를 분간못해서 미국제 운운해야만 속시원할게 뭐 있겠는가하는 나의 감정이었다.

그 숨막힐 정도로 긴장되었던 순간순간의 연속 속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복선이 깔려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어서 것처럼 말한 것같기도 하지만 한국 공군기라는 어휘 위에 형용사처럼 따라 붙는 미국제라는 세 글자는 송곳끝처럼 가슴이 아프기만 하다.

사실 나쁜 아니라 우리 공군을 아끼고 칭송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공군장병들의 심정을 위무해 주고 싶어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공군장병의 자세에는 조금도 구차스러운 내색이 보이지 않는다. 매년 한강 상공을 수놓는 화려한 「에어·쇼」에서 세계 일류의 비행 기술을 과시하는 우리 공군에게 은국민들은 아낌없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비록 항공기는 우방원조로 들여오지만 뛰어난 항공기술로 피원입장을 말끔히 씻고도 남는 공군장병의 눈물어린 노력과 정진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 이자 감사의 뜻이다.

1. 높푸른 창공에 몸을 담은 그 고고한 모습

같은 군복이면서도 공군 제복은 어딘지 모르게 색다른 이미지를 풍겨주곤 한다. 높푸른 창공을 포상함인지 푸른 색깔의 제복을 볼 때면 언제나 아슬하게 펼쳐진 푸른 하늘을 연상하게 된다. 푸른 하늘에 몸담아 젊음을 불태우는 사나이들——저절로 고고한 체취가 풍기는 그 모습에서 오늘과 내일의 조국의 운명을 걸어 보고픈 생각은 비단 나쁜 아녜 것으로 생각한다.

3년 전의 일로 생각킨다. 지구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호남 일각에 자리잡은 공군기지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직책상 여러 부대를 찾아다녀야 하는 나는 한 가지의 묘한 버릇을 갖고 있다. 영문을 지나면서 눈으로 그 부대의 냄새를 맡아 첫 인상을 찍치는 버릇이다.

이 날도 영문을 지나면서 눈알을 굴려 보았다. 과연 신설기지다운 활기를 띠우고 있었다. 편대비행의 이착륙이 잇달아 제트 폭음은 끊길 사이가 없었다. 한 쪽에서는 부대시설작업이 부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 안내해주는 P대위를 따라 「로트를·타워」도 견학했고 격납고도 둘러 보았다.

유달리 쾌청한 날씨여서 한없이 푸르러 퍼진 하늘에는 구름조각 한점도 없었다. 그 높푸른 하늘을 등에 업고 이제 막 활주로로 내려앉은 「F~86」기를 눈여겨 보았을 때 문득 조종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P대위에게 주선을 부탁했다.

조종사는 K소령으로서 비행시간 3천 5백시간을 마크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연세는 34세.

『매일같이 교향산천을 내려다 보겠군요?』

『반드시 그렇지는 못합니다. 임무를 먹고 날으니까 운 좋게 그 위를 지날 때면 아득하게 내려다 보기는 합니다만……』

『고도는 대개 얼마쯤이나 됩니까?』

『오늘은 약 2만 이상을 날았습니다.』

내게는 짐작도 안 가는 고도였다.

『어떻습니까? 오늘같이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는 날에 것처럼 높이 올라가면 고독감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고독감 말입니까?』

K소령은 넓은 웃음을 띠우면서

『글쎄요. 그것을 고독감이라고나할까요. 여하튼 잔잔한 기분에 잠길 수가 있기는 합니다.』

『가족 생각은요?』

『이상하게도 나지 않습니다. 나만의 세계에 아무도 꼬집어 넣고 싶지 않은 애고이즘이라고나할까, 아무도 생각나는 일이 없습니다.』

『푸른 하늘을 내 품에 안고 있다는 기분이겠군요.』

『그것보다도 푸른 하늘에 안겨든다는 기분쪽이 더 저배적입니다. 고도를 높일수록 하늘의 무한대를 한층 철감하게 되니까요.』

더러는 지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한다.

무한대로 펼쳐진 창공, 거기에는 인간심리의 진공영역이라고 한다. 비좁은 조종석이 차지하는 공간은 이 진공영역 속에서 <파일럿>들의 감성을 순화시켜서 아득하고 신비로운 영접을 영감케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가치관을 영접에 비추어 보게 되는 그들 세계는 <삶과 죽음>을 초월해 있기도 하다.

『물론 인간인지라 출격 전에는 꿈자리까지도 가리는 수가 있기는 하지만 창공에 일단 떠있게 되면 삶과 죽음의 관념은 저절로 동화되어 아주 담담한 심정으로 냉정해지곤 합니다.』

이처럼 고고해질 수 있는 다른 또 하나의 근거는 기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이라고 한다. 애기라고 부르는 하나의 기체는 완전무결한 분신이라고 한다. 발바닥이 잔지러우면 손이 저절로 가듯이 제기와 육감으로 기체의 구석구석까지 생리변화를 감촉하게 된다고 한다.

『저 친구들의 덕분입니다.』

하며, K소병은 애기를 매만지고 있는 정비병들을 가리켰다. 갓돌아온 뒤의 점검이 한창이었다. 정비병들은 정말 숨은 공로자들이다. 자기 육체를 돌본다고 해도 그렇게는 정성들이지 못할 것 같다. <파일럿>들은 그들의 정성과 기술을 무조건 신뢰하고 있다. 정비병들이 <파일럿>의 손이 되어 애기를 가꾸어 주고 있다.

『저 친구들의 정성과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에서도 비행조종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K소령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제트전투기의 이착륙은 줄곧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격납고 안팎과 활주로 끝에 준비해 있는 수많은 제트전투기들을 바라보면서 <6·25> 직후 어느 날의 일을 회상하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 정훈국에 근무하고 있던 나는 정훈국장 이 선근 장군의 명령으로 진해로 달려 갔었다. 임무는 전령이었다. 지금까지도 그 내용을 알 길은 없으나 봉투에 든 한 통의 서류를 진해 비행장에 대기하고 있는 김 정렬 장군에게 전하라는 것이었다.

부산을 거쳐 주야점 행으로 달려갔던 나는 인상적인 한 장면을 뇌리에 남기게 되었다. 김 정렬 장군은 잠초가 우겨진 격납고 옆 사무실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구 일본군이 사용했던 초라한 비행장에는 당시 전국호라고 부르던 연습기 한 대가 있을 뿐이었다.

김 장군은 의자에 기대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정말 쓸쓸하고 외로와 보이는 모습이었다. 날개 잃은 독수리가 홀로 황야에서 하늘을 그리워하는 인상을 받았다. 물밀듯이 쳐들어오는 북괴군 탱크에 수류탄 몽치를 손으로 던져야만했던 공군의 통솔자로서의 서러움을 혼자서 떠맡아 고민하는 의로운 독수리였다.

그로부터 근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공군은 소년기를 정중 뛰어넘어 단숨에 청년기를 맞은 셈이다.

2. 불굴의 의지와 희생정신의 상징—「빨간 머플러」

지금 널리 애창되고 있는 노래 「빨간 머플러」는 하늘의 사나이들을 찬양하는 어느 극영화의 주제가로 알고 있다. 그 경쾌한 멜로디에 담겨진 가사와 같이 하늘의 사나이들은 신념의 사나이들이며 또 불굴의 투사이자 자기희생을 달게 치를 줄 아는 멋진 신의의 사나이들이라고 본다.

현대 과학기술의 정수를 끌어모아 만들어 내는 최신 정예기를 내 몸과

같이 조종하며 생명을 주입시킬 수 있는 고도의 조종기술이 앞서기 때문에 「파일럿」으로 등장하기까지에는 정말 까다롭고 힘든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 줄로 안다.

그런만큼, 천부의 재질과 명석한 두뇌가 있어야 할 것이고 신념과 용기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흔히 일기당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진용은 역량과 지덕을 겸비하는 용자가 아니어서는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안다.

나는 언제나 높푸른 하늘 멀리로 사라져 가는 제트전투기를 보면서 이러한 용자의 모습을 그려 본다. 특히 일직선으로 죽 떨어가는 비행운의 컷머리에 깨알만큼 바라보이는 기체의 그 조종석에서 조국의 영광을 지켜주는 이들에게 소년과 같은 동경심을 느껴보곤 한다.

사나이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한대의 창공을 마음껏 날아보고 가는 멋——조국의 영광을, 조국의 금수강산을 한 아름으로 내려다 보면서 국방의 제1선에 설 수 있는 그 보람찬 생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멋이라고 생각키는 것이다.

그러기에 박 선국 준장과 같은 잊을 수 없는 조인이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할 수가 있는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법, 빈부위계의 차별없이 죽음 앞에서 모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가 생애의 값어치를 저울질하는 것일 것이다. 죽어 싸다는 뒷목을 훌쩍 걸머진 더러운 죽음도 많았고 아깝게 죽었다고 추모를 받는 죽음도 많았다. 파리마냥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는 죽음, 떠들썩하게 신문광고판을 부고로 독차지하는 요란한 죽음, 죽어서까지도 두고두고 말썽을 남기는 뒤통수한 죽음도 있다. 그런가하면 숨을 거두면서 빗진 닭 한 마리를 꼭 돌려 주라고 제자들에게 타이르는 태연한 죽음도 있다. 이러한 모든 죽음 가운데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입지훈을 액면 그대로 자궁하면서 생을 마치는 죽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사실 오래오래 살면서 좀더 값있는 일을 했어야 할 사람이 애석하게도



일찌기 죽었구나 하고 못사람들의 추도를 받는 죽음이란 결코 흔한 것이 못된다. 나라를 위해, 사회와 시민들을 위해, 크게는 인류를 위해 좀더 일해야 할 사람이 뜻밖에 죽었을 때 사람들의 비판은 애타게 끓어오르는 법이다. 고 박 선국 준장의 순직은 바로 이러한 죽음이었다.

그의 죽음은 한 마디로 말해서 「빨간 머플러」가 상징하는 희생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공군사에 심어는 장렬한 전사였다고 본다. 전투간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항재전장의 군 임무이고보면 평상시라도 임무수행 중에 목숨을 잃게 되면 곧 전사와 다름없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정부는 그의 죽음 앞에 일제급 특진과 충무무공훈장을 추서(1969년 4월 20일부)하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소식을 전해듣는 국민들도 고개숙여 그 거룩한 희생정신을 찬송했다. 공군은 공군장으로 그 명복을 빌었다. 이제 공군장병의 「영원한 벗」으로 आरो세겨진 고인, 그는 청평택 상공에서 휘하의 요기를 살려 놓고 그 자신은 산화했던 것이다.

1969년 4월, 청평택즐기 제곡위 상공의 기류는 고르지 못했다. 돌변하는 기류의 변화는 「F-5A」기마저 마구 삼키려 했다. 고인이 편대장으로 출격할 편대기는 임무수행상 이 제곡상공을 통과해야만 했다. 악기류에 휘말린 편대는 삼시간에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 요기 전원을 무사히 지휘하여 이 마의 제곡을 벗어나려는 편대장의 고투는 시작되었다. 그는 자기의 안전비행을 하나하나 콘트롤하면서 자신의 애기는 돌볼 겨를도 없었다.

청평택이 바라보이는 상공에까지 다달았을 때, 요기 한 대가 새로운 악기류에 휘말려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 편대장은 안전비행을 콘트롤하면서 요기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 자신의 애기는 추락직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시야에 커지는 청평택의 거대한 벽, 비상탈출의 살길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나 그대로 애기를 버리게 된다면, 기수 작도와 방향으로

보아 청평담 일각에 부딪칠 것이 뻔했다. 그 순간, 박 선국 편대장은 국가를 생각했으리라고 믿는다. 조국 근대화 작업의 중요한 일익을 맡은 이 중요한 시설을 손상케 한다면 국가에 대해, 국민에 대해 죄송할 뿐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불명예를 모면할 길이 없다는 순결성을 지켰으리라고 믿는다. 그는 제트조종 2천7백22시간40분간의 비행시간과 「F-5A」비행 5백40시간을 자랑하는 베테랑이었다. 더군다나 한국 최초로 「F-5A」기 도입을 저술했을 뿐 아니라 제2차 국제 공군사격대회에서는 13개 우방국가 최우수 「파일롯」과 겨누어 Rocketry 부문에서 발군의 최우수 사격술을 자랑했으나 우리 공군의 보배와 같은 존재였다. 또한 1967년 4월, 서해안에 침투하려던 북괴무장공비 선박을 포착 격침시켰을 때, 우리 공군으로서는 최초로 원거리 해상비행을 감행했던 기록보지자이기도 했다. 공군사관학교 제2기생으로서 최우수 성적을 마크했던 그가 악기류 때문에 정신을 잃었을리는 만무하며, 판단을 잘 못해서 비상탈출의 기회를 놓쳤을리도 만무하다. 다만 한 목숨을 버리더라도 국가시설을 건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죽어야 한다는 무인의 순결성을 욱되게 하지 않았음이라고 확신하여 마지 않는다.

널리 회자되고 있는 화랑도 오계중의 살신성인의 계율은 결코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 옥돌과 같이 묻혀진 그 광택을 스스로 닦는데서 이 계율의 소재는 영점불멸의 빛을 발산하는 것이 아닐까.

그는 희생정신의 소재를 공군사에 빛내고 호국의 신이 되었다. 영원하남을 그 이름과 더불어—

조국의 자랑, 높이든 하늘에 안겨 고고로운 자세로 1970년대 조국전진을 지켜볼 그 녀를 생각하면서 최근에 감격했던 다른 하나의 일화를 적어보기로 한다.

지난 4월 23일, ○○전투비행단소속 박 광우 중위는 일몰과 동시에 애가 「F-86F」를 몰았다. 임무는 야간 고고도 공격훈련이었다.

비행 4백시간을 전후해서 돌파해야 하는 큰 난관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



서해 〇〇기지 동북방 50마일 상공에 도달했을 때였다. 기체가 별안간 크게 흔들리더니 조종석 캐노피가 강풍에 떨어져 나갔다. 시각은 8시30분경, 고도는 3만4천피트, 비행속도는 4백50「노티컬 마일」이었다. 강풍이 휘몰아간 것은 캐노피만이 아니었다. 비행모 위의 산소마스크와 마이크도 빼앗기고 만 것이다. 급변한 조종석의 기압, 가슴을 후비는 산소부족, 순식간에 생각하는 영하 50도, 박 중위는 정신을 잃기 시작했다. 균형을 못잡는 기체는 고도를 잃어갔다. 9천 피트——그는 필사적으로 조종간을 앞당겨 고도를 유지해 보려고 했다. 허사였다. 편대장은「베일·아웃」을 외치면서 기체를 버리라고 콘트롤했다. 이 위급한 상황하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는 이 비상탈출 밖에 없다. 고도는 계속 6천피트로 줄어들었다. 그는 온갖 힘을 다해 다시 조종간을 잡아당겨 보았다. 기적적으로 기수를 되찾은 것이다. 기체가 수평을 회복하게 되자 그는 비장한 결심을 굳혔다. 편대장의 콘트롤에 거역하게는 되지만 애기를 버리기보다는 최후의 순간까지 아니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애기를 기지까지 물고 짊 결심을 굳힌 것이다. 영하 50도가 한꺼번에 닥치는 바람에 손끝이 마비되고 전신이 오물어들기는 했으나 부상입은 것도 아니고 애기의 엔진은 건재하다. 계기도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 기체가 정상이라면 나머지는 정신문제 뿐이다.

박 광우 중위는 여기서 자기자신을 강렬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사나이의 생애를 결고 이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불굴의 투지력이었다. 그것은 「빨간 머플러」가 아니고서는 맛볼 수 없는 고고한 보람이었다. 시계는 제로, 어둠 속에 갇힌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나이의 의지력을 테스트 해보고자 하는 투쟁이 계기를 놓고 벌어진 것이다. 마이크를 잃었으니 기지의 「콘트롤·타워」와의 연락도 되지 않았다. 다만 레시버를 통해 들려오는 편대장의 격려와 「콘트롤·타워」의 지시를 따라 계기비행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애기를 기지 활주로 위에 랜딩시켰다. 사나이 생애를 건 투쟁에서 사나이답게 승리한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는 생



각했다.

죽음을 초월해서 사람의 힘을 다하면 하늘의 도움이 반드시 있는 법이라고. 편대장에게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30만달러를 벌었습니다>라고. 따지고 보면 목숨걸고 한 판 치룬 큰 도박이었다.

여기에 「빨간 머플러」의 다른 한이 또 엿보인다. 그토록 죽음 직전에서 몸부림쳐야만 했던 한 고비를 결산하면서, 애기를 전질 수 있었다는 기쁨부터 보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백마디 공염불 같은 사이비 애국보다는 얼마나 말쑥하고 실속있는 애국관념이겠는가.

박 중위가 애기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두 가지의 이유가 더 있었다. 그 하나는 민가나 공공시설에 추락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소속부대의 숙원인 4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X

X

이 이상 더 사족을 붙이고 싶지가 않다.

다만 1967년의 중동 <6일전쟁>을 빌려, 우리 공군 전우들에게 성원을 보내고 싶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번개같은 승전은 오로지 그 공군의 전격적인 선제공격이 완벽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작전의 묘(妙)도 있었지만, 출격편대들의 뛰어난 기량이 「아랍」공군을 완전 제압했다고 한다. 평상시의 훈련도가 실전에서 거두는 성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본보기였다.

현대전에 있어서 공군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세삼 거론할 필요는 없을 줄로 안다. 「이스라엘」공군이 거두었던 그 경이적인 전과가 웅변해 주기 때문이다.

70년대의 어느 시점에서 국토통일의 우렁찬 민족전진이 백두산을 향하게 되는 날, 공산복괴 김 일성 일당의 너털거리는 뱃데기에 민족정기의 로케트탄을 퍼붓는 장쾌한 전야제가 공군 전우들에 의해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국군과 근대화

개발 도상국 사회에서의 군대의 역할—



입 방 현

<한국일보 논설위원>

1. 국군의 전통

국군—더 넓게는 군대에 대하여 우리들 머리 속에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의 생각과 물음이 있다고 느껴진다.

첫째는 국군의 본질론이다. 군이 자세한 설명을 요할 것도 없이, 국군은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 재산 보위를 사명으로 하는 강력한 특수 조직이라는 것이다. 더우기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것처럼 순수하고 중요한 사명을 진 군대란, 정치적 정당성에서 초연한 중립자로서 국빈이 뽑은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갖는 3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권위와 명령에 따라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국군의 본질에 관한 통념적 생각으로 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 국군은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건군 하자마자 6·25동란이라는 엄청난 도전을 받아 갖은 고초와 시련 속에서도 끝내 침략자를 물리치고 한 배 백두산 기슭까지 승리의 진군을 했던 우리 국군은 휴전 후 험난한 잔비소탕 작전에서 전공을 세웠을 뿐 아니라 오늘날 「베트남」 전선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잘 훈련된 군대로서 전투에서 그리고 매민 평정사업에서 빛나는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 더 나아가 북괴가 다시금 도발해 올지도 모를 위기에 대처하여 자주국방의 정신과 배세를 드높이며 만반 대비하고 있다. 몇 차례에 걸친 북괴 무장공비의 침투에 대응



하여 향토예비군과 더불어 전개한 조직적 소탕전은 바로 그러한 자주국방의 기상을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는 이따금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많은 국민의 이맛살을 찌프리게 하는 일부 군인의 탈선행위와 사고에 관한 문제이다. 민주국가의 군대는 국민의 군대임이 수 없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군인 중에는 일부 지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서 잘 못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민간인에게 행패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수가 있다. 이것은 유독 군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민주국가 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세에 결함이 있는 것이므로 정훈교육과 훈련을 통한 끊임 없는 교양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같은 잘못이라도 상대가 군인이라하면 군대사회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그밖에도 최근 군 당국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해 평균 군 범죄사고 발생률은 전병력의 4.15%인 약 2만건인데 그중 정신병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20.8%인 약 4천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정신병질환자는 애당초 징병 검사과정에서 과학적인 정밀검사를 받지 못한 채 입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군대생활 중 아직도 일부에 남아있는 지나친 기합이나 억압분위기로 말미암은 정신적 긴장으로 발작을 일으킨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밝고 발산적인 영내생활의 개선과 정신교육의 강화 등으로 바로 잡아나가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2. 두 지수의 차이

그리고 세번째로서는 이상 두 가지의 개념이나 문제의식 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참으로 획기적인 사건이요 커다란 변화였던 5·16군사혁명과 관련하여 어찌하여 국군이 정치에 관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벌써 5·16 혁명이 일어난지 10년째로 접어들었



으므로 그것은 이미 객관적인 역사적 기정사실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아 구 식민 통치시대로부터 군대는 그 조직성격상 절대주의적이요 권위주의 적인 것, 따라서 비민주적인 것이라는 일종의 통념이 형성 되어왔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경우는 아무리 못한 민간인에 의한 통치보다도 군대에 의한 통치는 더욱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기성관념이 특히 서구사회를 지배해 왔고, 신생 발전도상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군사혁명을 서구 선진국 지도자들은 그러한 눈으로 보아왔던 것이 많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 온 것처럼, 문민(文民) 통치에 대한 군의 개입은 자유정부와 시민의 자유에 대한 타격임이 사실인가. 혹은 군사통치가 사실은 효율적인 대의정치체제의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인가.』 신생국 정치발전문제에 연구가 깊은 미국 학자 「루시언·파이」 교수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제기했다.

또 「존·H·카우츠키」는 구 제국주의시대의 군대와 오늘날 신생 발전도상국 군대 사이의 성격의 차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 두 가지 형 사이의 유사성은 다만,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양자가 다같이 말에 탄 사람에 의하여 통솔되는 것이지만 하나의 경우 그는 다만 귀족계급이 소유하는 말을 타는 직업적 기수임에 반하여 다른 하나의 경우 그는 민족주의의 말을 타고 근대화를 향하여 달리는 사람이다.』

3. 신생국 군대의 특성

이상 두 개의 지적이 말해주는 것처럼 오늘날 신생 발전 도상국의 사회·경제 및 정치적 발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구실은 근대화혁명전개 양상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많은 국내의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신생국 정치문제연구가 「에드워드·셀즈」 교수는 신생국가사회에서 기성정치인들이 공공질서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국민대중의 원하는

경제, 사회적 개혁을 실천하지 못하고 또 근대적 기능지식층(과학자, 기술자, 의사, 변호사, 교사, 언론인, 판리, 경영자 등 분업화되고 능률화된 근대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며 만들어내는 나라살림의 실질적 중견 일꾼들)의 뿌리가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부득불 군대가, 그 중에서도 의식이 예민한 청년장교집단이 현상타개와 근대화개혁의 대안세력으로서 정치에 관여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군이 정치에 초연한 중립자로 존재해야 한다는 본질론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치가 제도로서 토착화하는데 필수조건인 경제, 사회발전이 침체하고 불안정의 악순환이 전개되는 전근대적 여건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근대화를 지향하는 몸부림이 군사혁명이라는 긴장되고 극적인 정치 변동으로 폭발하게 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민주적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 후에 국민 다수의 기대와는 달리 다시금 나타난 혼란과 불안 끝에 터지고만 5·16군사혁명은 바로 그러한 이치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생 발전도상국의 군대는 기성사회와 비교해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에 관한 연구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다음 몇 가지 점이 지적되고 있다.

① 기성사회가 근대적 개혁 발전을 갈망하는 국민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혼란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동안 군대는 그와는 일단 떨어진 조직생활 속에서 각기의 기본 생활조건이 충족되며 선진국에서 파견된 군사고분단을 통하여, 그리고 선진국가에의 유학을 통해서, 근대적인 행정, 판리 능력을 훈련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 기술과 밀접히 연결되는 현대 군사학은 그들에게 전통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씻고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새 가치에 눈을 뜨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② 신생 발전도상국 국민들에게 크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근대적 시민으로서의 공공 사회 훈련이라고 말한다면, 방대한 조직생활 단위인 영내생활



을 통하여 군인들은 이 훈련과정을 밟게 된다. 그러한 뜻에서 신생 발전도상국에서 군대생활은 정신자세 면에서나 기술 훈련면에서 방대하고 근대화 된 국민교육상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③ 신생 발전도상국 군대성원이 동원 배출되는 사회적 배경은 그 사회의 종류 또는 중하층 계층이다. 재능과 소질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자제들처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사실상 제약받았던 군인들, 그 중에서도 의식수준이 높고 예민한 청년장교들은 항상 타개되지 않는 조국의 어두운 현실과 그 책임주체인 기성정치인들에 대해서 불만과 항의를 간직하고 있다. 바꾸어 말해서 신생, 발전도상국 군대는 그 사회, 경제적 출신 배경으로 말미암아 기성사회 성원에 비하여 본능적으로 변화, 발전,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

4. 근대화의 본제도

가령 5·16군사혁명 직후 우리나라 행정에 도입되었던 새로운 제도인 「브리이핑」, 「차아트」 방식에서 그 일단이 잘 나타나 있다. 그 당시 야당 정치인을 비롯하여 많은 기성 식자층은 이를 형식주의, 시간낭비라고 하여 많이들 편찬을 퍼부었었다. 그러나 알고보면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일찍부터 행정부에서 실시되어 왔을 뿐 아니라, 그 제도의 발달은 오히려 민간기업체의 합리적 경영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민간기업이고 군대경영이고를 막론하고 주먹구구 아닌 효율성과 계획성과 성과주의를 추구하려고 하면 불가불 행정, 관리의 과학화가 요청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 제도를 갑자기 일반행정에 도입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에 형식주의적 비능률이 있었을 것은 사실이나 공정하게 평가해서 이는 종전의 무계획적 행정에 비해서는 확실히 한 걸음의 진보임에 틀림없고 이것이 더 발전하면 「컴퓨터」에 의한 대량자료처리와 성과 예측이라는 과학행정의 고도형태가 된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5·16군사혁명이 그 성공적 실패가 되듯 신생 발전도상국가의 근대화를 향한 시동은 군대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새로이 요청되는 것이 군대에 의하여 기폭된 근대화 혁명을 이제부터는 전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나가는 자발적 근대화 혁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일이다. 조건의 미숙 속에서 불가불 군대가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근대화작업은 마냥 군의 손으로만 계속될 수는 없다. 근대화 초기단계의 공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가속적으로 산출되어 나오는 새로운 사회의 역군들/합리주의와 능률주의라는 근대적 가치로 사고하고 행동할 줄 아는 기능지식층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국근대화 과업을 책임지고 떠맡아 이끌어 나가야 할 새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끌려서 따라가는 근대화가 아니라 사회 각 계층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움직이며 발전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발적,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적 근대화 운동이 70년대의 민족적 사명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70년대에 근대화 본 궤도 진입을 떠맡을 새 사회 계력의 참 모습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발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본 궤도에 올라섬으로써 군대는 다시 민주국가 군대의 본래의 사명과 위치로 되돌아가게 된다. 근대화혁명에 불을 지른군대 「엘리트」는 근대화 작업의 진전 과정에서 스스로를 정치 「엘리트」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사회, 경제적 발전이 산출해 내는 새로운 민간 「엘리트」에게 「바통」을 넘겨주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현 단계의 정치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군대사회의 체질의 하나인 피할 주의나 상명하복식 경직성이 책임있고 성숙한 대의민주정치의 제도화로 탈바꿈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과제요 목적이다.

제3공화국 대통령 취임을 앞둔 전역식에서 당시의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장 박정희 장군이 『다시는 이 나라에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은 그러한 뜻에서 되짚어 볼만한 술회였다.

특

민족중흥과 군인의 사명

—자주·자립·자조의 국방력—

집



정

운

중

<신아일보 논설위원>

1. 서

국군이 창설된지 21년이 지났다. 1949년 10월 극소수의 병력으로 미비한 장비로 전략무기로 하여 출발한 우리 국군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숭한 고난과 역경을 거처온 국군의 성장을 보고 느끼는 바가 많다. 특히 공군의 경우 창설 당시 몇 대 안 되는 경비행기였지만 오늘의 괄목할 발전으로 말하면 동남아 최강을 자랑할 수 있을만큼 막강한 그야말로 「마하 2」의 전술공군으로 비약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 오늘날 북괴의 지속적인 도전 앞에 우리의 국방력 신장은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것이며 이 점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배려는 당연하고 격동하는 극동 정세 밑에 더욱 그 필요성을 공감하게 된다.

안으로는 북괴의 도발 그 이웃한 중공과 소련의 위협적인 압력을 경계해야 하고 「닉슨 독트린」 이래 머지 않아 미군의 철수를 전망해야 하는 우려 현실은 문자 그대로 자주·자조·자립의 군방력을 신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고조된다. 박 대통령이 70년대의 국가시책을 자주와 자조, 자립에 목표를 둔 이유도 이 점에 있을 것이다. 민족중흥과 조국군대화의 역사적인 과제도 우리의 현실은 간단없이 전진해야 할 많은 필요성을 부여받고 있는 일면이 아닐 수 없다. 국군의 사명은 이러한 국가적 전진을 내외적으로 안전성 있게 보장해 줄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어떠한 외부적 침략에도 이를 격퇴시킬 의무가 국군의 양 어깨에 짊어져 있음은 물론이며, 조국군대화와 민족중흥의 대사명도 역시 튼튼한 국방력 밑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함이다. 여기에는 물량면의 수적 보강과 정신면의 질적 공고화가 절대로 수반되어야 하며, 튼튼한 경제력과 국민의 안정된 생활향상 속에서 차질없는 전진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일선에서 국방의 중역을 맡은 국군전장병의 노고가 새삼 고맙고 그들을 격려하고 후원해야 할 후원국민의 책임도 막중하다. 이는 곧 국방은 군인만이 할 수 있는 전부일 수 없다는 결론이요, 군인의 임무를 뒷받침해 줄 범국민적 방위관념을 뜻한다. 국군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민족적 자각과 자주 국방위력을 강화해가는 전위의 존재라면 국민은 이들 전위의 역할을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협력과 유배의 존재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국민이 국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군의 사명에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 전체의 국방관념이 강조되는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국군은 더욱 그 임무와 책임이 국민전체의 방위관념과 함께 강조된다.

장비면에서나 군의 사기 즉, 정신면에서나 우리는 북괴보다 월등 우월한 입장이어야 하며 그런 힘을 계속 비축한다는 것은 금후 계속된 국군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이하 필자 나름대로의 국군의 사명과 우리가 처한 국가안보상의 과제에 언급코자 한다.

2. 시대적인 사명

국군의 성장사가 곧 국가와 민족의 과거요, 수난의 기록이라면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6·25 한국동란을 거쳐 우리 국군이 겪은 시련의 고비는 북괴의 침략도발을 언제 또다시 가상할지 모르는 경계심을 더하게



한다. 비단 북괴의 군사도발만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서 야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정세의 변화는 바로 우리 국군이 시대적 사명에 민감해야 할 필요를 의미한다. 여기 그 몇 가지 우리 국군이 느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첫째로 우리는 눈 앞에 적을 두고 있는 현실이다. 북괴 바로 이 적대집단의 존재는 국군이 무엇을 앞세워야 하고 어떻게 「힘의 축적」을 강화해 가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 제기가 된다. 북괴는 금년도 군사 예산을 전체예산의 35%나 확대했다고 알려져 있다.

권위있는 영국전략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따른 북괴의 군사력도 주목되는 데 해마다 군비확장에 전 예산을 할애하다시피한 북괴의 최근 동향은 김일성이 70년대를 「무력 적화통일의 해」로 정한 저의를 가히 짐작케 할 것이다.

근년에 와서 북괴는 매우 가능할 정도의 무력도발을 휴전선 주변에서 자행해 왔다. 1·21 무장공비 남침사건이라든지 울진, 삼척지구의 공비침투 그리고 공해상에서의 미함 「푸」호 남침사건 등을 비롯해서 최근 북괴는 간첩을 남파 KAL기까지 납북해 갔던 것이다. 일부 송환되지 못한 승객과 억류된 KAL기, 얼마전 일본항공사 소속 보잉 727 「요도」호의 피납소동 문제의 독약전술도 결국은 북괴의 부단한 도발성이다.

겉으로 나타난 명백한 도발 이외에 북괴의 전쟁준비는 우리로 하여금 안일한 태평세월만을 구가할 수 없게 한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김일성은 6·25동란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 비판하면서 아직도 남한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증거가 역연하다.

1962년 12월에 있었던 북괴 노동당 중앙회의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① 전 인민을 무장화하고 ② 전국토를 요새화 ③ 당간부의 군대화 ④ 장비의 현대화 등 4대 군사노선을 채택, 무력 적화통일을 위한 장비에 광분해 온 결과 1965년 이후 북괴는 소련의 신에 「제트」 전투기인 MIG-21 60대를 비롯, 쌍발 제트폭격기인 IL-28 80대 등 공군력을 급격히 강화해왔고 최근에는 사정거리



〇〇km의 「스틱스」 미사일을 장비한 「코마」급 초계정 4척과 잠수함 4척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영국 전략문제 연구소 간 「군사균형 1969~1970에서 인용). 또한 북괴의 지상군 장비면을 보면 T-55, T-54 등 최신형을 포함하여 탱크가 9백대에 달하며 SU-76, SU-100, ZSU-57 등 자주포가 2백문, 고사포 1천 5백문, 152「밀리」 박격포 6천문, SA-2 대공 미사일기지가 60개소 3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동지발표). 그러나 우리 국군의 경우 이러한 북괴 군사력을 능히 제압할만큼 완비된 방위력이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보나 자주국방력의 신장이나 자위의 군사력 증강의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도 절실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국군의 시대적 사명감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다. 닉슨 대통령은 지난해 가을 동구순방에 앞서 「팜」도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매우 주목할 발언을 했다. 물론 닉슨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그의 선거공약 등의 하나가 월남전의 종전이었고 이에 따른 미국의 해외 주둔병력 철수 등이 조심되어 온 이야기이지만 이른바 「닉슨 독트린」은 많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미국의 세계적 역할의 관심을 갖게 한 것은 틀림이 없다. 월남전의 월남화 아시아문제를 아시아인의 손으로 라는 미국의 대외 정책은 점차 비미국화어로 경주되고 있는 미국의 정책변경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철수설이 가끔 나돌고 미국의 의회 내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닉슨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비판,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해오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런 정세변화는 머지 않아 아시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이 지역의 안보를 일본에 맡기려는 미국의 의도를 비친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미·일 안보조약을 협의하기 위해 「와싱턴」에 들렀던 사토오수상과 회담했던 「닉슨」대통령의 의향은 바로 「오끼나와」 반환문제에 따른 일본의 역할이 아시아에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 경우 우리의 자주국방력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자각하게 된다.



70년대 우리 국군은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 민족중흥의 대과업을 수행시킬 전위적 안전보장을 맡은 중대한 사명을 느껴야 한다.

이런 미국의 극동정책에 결들여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일은 일본의 대공산권 접근인 것이다. 북괴와의 추파외교, 중공과의 양두무역(仰頭貿易) 이른바 「주은래 4원칙에 따른 일본상사의 지나친 저자세외교는 일본의 정경분리외교가 이처럼 치사스러워졌는가에 실망마저 안 느낄 수 없다. 보도에서 알다시피 일본은 그동안 북괴와의 밀무역을 암암리에 허용하듯 했고 노골적인 상담(商談)을 전개, 적지않은 분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공작기계의 수출, 재일교포의 강제복송, 북괴 기술자 입국허용설 등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외교태도를 목격할 때 선린(善隣) 우방으로서 과연 일본의 역할이 아시아에서 믿을 수 있는 영향국가로 간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자주와 자조의 국방력은 절대 강화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런 외교전략이 극동의 공동번영이라는 문제에 주안을 둔 일본의 알팍한 상흔이라고 간주한 사람도 있지만 일단 유사시의 일본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일본의 경제력이 자유세계의 제2인자적 위치에 있다해서 그 나라의 군사적 역할까지 자유세계가 믿고 있는듯 보여짐은 일본을 모르는 서방의 단견일 것 같다. 「닉슨독트린」의 참다운 효과는 한반도에서의 군사균형을 미국이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집약되어 군사력 증강이 능히 북괴를 제압할 수 있을 만큼 항시 유지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여기에 자주국방의 대전제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은 북괴를 앞세운 중공과 소련의 조종에 좌우됨이 크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 와서 중공은 북괴와의 안보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인상이 짙다. 중공수상에 주은래가 4월 초에 북괴를 방문하고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중공·북괴의 공동전선을 성명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동향이다. 이 성명은 확실히 미국에 대한 도전적인

적대 감정 밑에 작성된 북괴와 중공의 야합을 뜻하는 것이다. 악명높은 중공의 문화혁명까지 두둔한 김일성의 속셈이 중공과 밀착하려는 북괴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주은래의 북괴방문은 지난해 소련의 「포드고르니」가 북괴를 다녀간 뒤를 이어 보다 북괴와 손잡으려는 중공나름의 계산이 엿보인다. 이와 같은 북괴, 중공, 소련의 유대는 그 삼각관계의 미묘한 전망을 아주 영롱한 방향으로 유도할 김일성의 오산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과의 밀착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어느 시기엔가의 호전성을 자극하여 한반도를 또다시 시끄럽게 할 우려를 불식할 수 없다는 군사전문가의 전망이 한국으로 하여금 또 다른 각도에서의 군사의교를 요구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정래혁 국방장관은 그의 국방시책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군사의교의 적극화를 다짐한 바 있다. 이 국방시책은 위에 잠깐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국방부가 국방외교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시킬 때복은 바로 북괴를 사이에 둔 중공 소련의 대외전략을 군사적 의미에서 어떻게 「커브」하느냐에 직결된다 아니할 수 없다.

3. 국방의 자주와 자립

정래혁 국방장관은 3월 25일 첫 기자회견에서 그의 국방시책을 7개 항목에 걸쳐 피력한 바 있다. ① 별공필승의 정신무장화 정책을 비롯하여 ② 입전태세의 완비 ③ 자주국방태세 확립 및 군사의교의 강화 ④ 전시동원체제의 확립 ⑤ 향토예비군의 전력화 ⑥ 경제적 군대의 육성 ⑦ 지원과 신뢰를 받는 국방행정의 구현 등이 그것인데 이 7개 국방시책은 앞으로 점차 들어들 외국원조 특히 미 군원의 삭감에 직면한 우리 국군의 기본 자세를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방의 자주와 자립 역시 이런 정책 지표 밑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 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정신태세의 확립이며 정 국방이 밝힌 30개 중목의 시정방침은 「국민적 국방력」



추구으로 통하는 군의 단결과 군사외교의 적극강화가 앞으로의 국방시책임을 말해 준다.

여기서 부연하고 싶은 것은 자주국방의 개념이다. 박 대통령의 유시를 인용한다면 우리 국토는 제1차적으로 우리 힘으로 지키다는 의식이 강렬해야 하겠으며 이것이 바로 국방의 기본 개념이며 자주국방 역시 한 마디로 이런 의미인 것이다. 우리 자체역량에 의한 국방임무 수행을 위해서 온 국민이 합심 협력하는 자세가 바로 자주국방으로 통하는 정신무장일 것이다. 국토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며 우리가 바로 국방의 주체라는 생각이 우러나야 한다.

휴전선 너머로는 북괴가 계속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부단한 도발 앞에 이를 격퇴시킬 막강한 방위력을 형성해야 한다. 국방의 주체성 문제도 강조되고 있거니와 우리가 자발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국가안전에 분발하는 노력없이 국방의 주체성은 발 불이기 힘들 것이며 군인의 사명도 이런 국민의 기본정신을 향시 잊지 않음으로써 내 조국의 평화와 안전이 장병들의 두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자주국방력이 과연 어떤 면에서 강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금후의 과제일 것이다. 그 첩은 확고부동한 국민의 정신자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방위력이 능히 북괴의 그것을 압도할 만큼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 과제가 된다.

「군사 균형」이란 말도 이런 전제하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게 마련이고 북괴가 감히 도발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막강한 군장비와 병력이 갖추어져야 할 것은 물론이다. 경제발전을 통해서 국가가 부강하는 것도 북괴로 하여금 남침야욕을 상실키 하는 국가적 관심사일 것이고 현대화된 무기 현대전에 뒤지지 않는 전술교리와 실전에 두려움 없는 부단한 훈련이 군에 요구된다 함이다.

다음으로 자주국방력은 우리 자체만의 방위력 신장이 아니라 강력한 자유

우방의 지원이 공동방위기구의 영향력 밑에 주둔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강력한 반공 보루의 첨단인 대한민국의 요구인 것이다. 확실히 지난날의 자주국방 개념이 의타적이었다면 지금의 자주국방 개념은 이런 의타적에서 떠나 자주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자발적으로 발양되도록 노력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할 것이다. 우리를 돕는 나라의 우방 입장에서든 이런 태도는 안심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자신과 효과를 인정하게 될 것임을 두 말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4. 자주국방을 가로막는 요인

① 사회악의 발호=아무리 튼튼한 군대일지라도 사회악에 물들어 있다면 그 군대는 정신적으로 썩은 군대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군인이 사회악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가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악이 자주국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악 소탕을 위해서 당국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했었다. 밀수, 마약, 폭력, 살인, 사기와 횡령, 각종 부정들을 없애야 한다는 국가적인 노력이 강력한 검찰의 수사지휘 밑에 엄격히 다루어졌고 공무원 기강을 위해 정부가 애쓴 보람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모든 악의 요소들이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군인의 탈선과 비행을 통해서 군의 신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우도 없지 않았었다. 국민의 지나친 배금사조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불합리를 합리화시키려 했고 이것이 바로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에서는 우리의 적이 70년대의 전면침략을 공언하면서 전국토의 완전요새화, 전인민의 완전무장화를 완료했다고 호언하고 있는 오늘의 정세 밑에서 자기만 편하겠다고 병역을 기피하고 교묘히 범망을 벗어나 해외로 빠져 나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한심한 이야기인 것이다. 다행히 일차 정



비작업으로 본 계도에 들어선 병무행정에도 다시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할 작오가 국민가운데 철저히 들어나야 한다는 것이 사회악을 일소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군인도 마찬가지다. 정병 육성을 위해서 아무리 애쓸 지라도 모든 병사들이 호호를 같이 하지 않고 규율을 어긴다면 유사시에 완벽한 군대로서 성장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사회악의 일소를 여기에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며 군인과 사회의 밀접한 관계가 혹시 악으로 저해되고 어느 한 쪽이 부정하고 부패할 때 그것은 상대에 정비례로 악을 과급시킬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주국방을 위협하게 할 염려가 있다.

② 부정과 부패=앞서 지적한 사회악이 곧 부정과 부패를 내포하는 것이나 이 문제를 별개로 언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렇다고 군의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것은 아니다. 부정과 부패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되고 군기를 이완시킬 위험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인사청탁, 부정휴가, 전속, 제대 등 규정된 절차와 지시를 무시한 인사관리가 혹시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능력과 자질에 맞는 인사배치를 부정하는 경우는 흔히 군의 부정부패가 뒤따른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사병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는 사고는 민주군대에서 타기돼야 한다.

서열에 의해 진급이 되고 공로가 편파나 정실에 홀려 조작된다든지 징계와 형벌이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군대사회는 청렴한 군인정신을 드높게 할 것이다. 군기의 엄정한 확립은 물론이고 국토방위라는 커다란 공동목표 앞에 장교와 사병할 것 없이 일치 단결하는 속에서 명령체통이 정립돼야 한다. 장교들의 솔선수범과 사병들의 군풍기 유지는 더욱 결실하다.

③ 군기의 확립=이 요구는 결국 정예국군의 장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신자세인 것이다. 사회악에 물들지 않고 부정과 부패에 영합하지 않는 군대는 곧 군기가 확립된 것을 뜻한다. 근자에 일부 물적지한 휴가장병이



군기를 의심할 정도로 비행을 저질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음주난행과 폭력의 행사, 심지어 총기 살상까지 자행한 동료 군인 때문에 군의 명예가 손상된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다. 개중에는 정신적으로 장애요소를 안고 있는 원인도 있지만 군의 정병화가 요구되는 차체에 군의 기강 해이를 들어 내보이는 일은 적으로 하여금 우리를 앞잡아 보게 하여 김일성의 오산을 부채질할 위험이 있을 것이다.

하기야 60 만이 넘는 군대병원 중에는 별별 사람도 다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대사회도 군법이 있고 명령과 지시가 항상 뒤따르는 특수 사회이며 하루도 마음놓을 수 없는 대북파 경제심 밑에서 군인의 일거일동은 국가의 안위와도 직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군인은 한 마디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국방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의 길」 제1항에도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막강한 군대는 군기를 보고 측정할 수 있듯이 군기가 확립된 군대는 어떠한 적 앞에도 단결되고 투지가 단만해 질 수 있다. 항상 사명감을 잊지 않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군인의 길」은 항상 명실할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5. 국군은 중흥의 간성 (결)

이제 국군은 이 시대적인 사명감 앞에 민족중흥의 내일을 걸머질 간성임에 있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재가 국군의 사명 밑에 좌우되고 또 공고해 질 수 있다는 것도 국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대함을 뜻하며 군인이 중추가 된 민족의 중흥은 방위상의 안전과 어떠한 경제 발전일지라도 이를 저해받을 염려가 없어질 것이다.

각개 병사의 계발된 아이디어가 제대 후의 국가건설에 기둥이 되고 현대



기술로 과학화된 장비를 다루던 습씨가 그대로 유능한 「엔지니어」의 구실로 전환될 때 군인이 몸담고 있는 그곳은 국력의 무한한 원천이라 해서 지나칠 바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일정한 연령이 되어 군에 입대한 남자들이 군에서 얻는 지식과 경험은 사회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이 점 장교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략적인 가치 이상으로 강조하게 된다.

군대사회와 국민생활은 이런 점에서 유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웬만한 직장이나 어떤 지역에도 예비군이 있다. 모두가 군대생활을 필한 건장한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에서 직접 과시한 방위역량을 간직하고 있다. 이들의 일거일동에도 군인의 사명에서 떠날 수 없는 복무지침이 전달되어 있는 줄 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군인은 항재전장이란 관념을 망각할 수 없듯이 전 후방 모든 국방의 중추들이 내일의 국가발전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믿을 수 있는 국방이요 자주와 자립 그리고 자조를 돕는 군인의 임무라 하겠다. 70년대의 정부 시정목표 「자주」, 「자립」, 「자조」의 의미는 군인의 사명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민족이 중흥하고 조국이 근대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기본적인 사명감이 모든 장병의 공통된 결심으로 다짐 되어야 할 것이다.

바른자세 바른경례

굳어지는 인화단결

승공통일을 향한 군인의 자세



중 위 송 석 훈

<이 원고는 당 정훈감실에서 금년 4월에 모집한

「승공 방첩 현상용모 수상 작품」임>

1. 서 언

2차 대전을 전후하여 세계의 이복은 인종과 민족의 판가름인 동서문제로부터 만성적인 빈곤의 줄달음치는 경제란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문제로 서서히 중심점을 변화시켜 왔다. 70년대의 판문을 들어서면서도 세계는 무언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여 온 것이다. 모험적인 강경노선을 취하는 중공은 시기적으로 대내적으로 반 주류세력을 한데 규합하고 조직의 재편에 나서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최근의 평화공존 노선을 취하는 소련의 대미협조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데서 추정주의와 교조주의의 대립이 가열로 중·소관계의 「밀월시대」도 끝나고 만 것 같다.

이와 더불어 공산주의의 「이테올로기」에 반하는 이념의 침투, 당 내외의 「내초널리즘」의 대두, 국제 긴장의 완화, 소련의 지도력약화 등은 공산권의 분화과정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체코」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소련 동구권의 획기적인 일대 개혁의 시도는 「당의 이념만은 언제나 온바른 것」이라는 사회주의 제국에서의 불문물에 대한 하나의 도전으로 사회주의권 전체에 커다란 파문을 던져 「레닌」 이후 신성불가침시 되었던 당의 자세에 소위 근대화 「메스」를 들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편 「제네바」 군축회의의 개막과 핵 확산금지조약으로 평화적 노력이 점철되면서도 화평은 「제스츄어」로서 운위한양 전투는 차츰 확대되어 간 것을 우리는 관심있는 우방에서 정의와 혈로서 직감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백의민족의 혈과 육을 요구한 공산도배의 만행을 우리는 피부로서 실감한게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바로 1·21사태, 「프에블로」사건,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 EC-121사건, KAL기 납북 등은 세계의 관심을 한국에 집중시키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가에서는 새로운 국가방위의 모색으로 향군의 무장강화와 신예기 「팬텀」도입 및 한·미관계의 재검토로 국내는 초긴장상태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대외적으로 수차에 걸친 UN에서의 남북문제는 더욱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집중시켜 왔으나 금년의 UN총회에서도 격동하는 70년대의 국제정세 속에서 통한 문제는 매년 연중행사처럼 또 다시 내두될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현실에 즈음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반성과 자각을 촉구하면서 반공의 의무와 승공의 자세를 제시해볼가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논자는 전장병이 무엇보다 부철한 반공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승공통일의 그날까지 사활의 전선에서 경제부흥과 국방력강화와 정신무장을 위해 합심협력함이 급선무 임을 강조하는 것을 이 글의 취지로 삼은 것이다.

2. 역사적인 제언

공산주의 사술과 허구성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보았기에 우리는 비록 당면해서 전쟁의 타결과 평화회복이 염원이라 할지라도, 만일에 성의 밑에서 비수를 겨누는 사이비 화평과 공산주의의 마(魔)의 단면을 간과한 평화옹호론에 현혹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고 있다. 해방이 되고 성인이 된 연륜을 쌓아온 현금에도 국제평화를 위

한 회의에서는 통한문제를 조상에 놓고 심각한 논쟁만 벌이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승공통일과 민족번영을 목표로 의에서 살고 의에서 죽는 진정한 평화의 사도가 될 이 나라 청년 장병들의 냉철한 비판을 기다리는 때도 오늘이요, 역사의 반사경 앞에서 엄숙한 반성과 더불어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을 때도 지금일 것이다.

세계 제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스」독일군이 프랑스의 최대의 자랑이던 「마치노」선을 격파하고 「파리」성문에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프랑스 방방곡곡에서는 유희와 도색의 「댄스」로 마취되어 있었기에 5천만 프랑스 시민은 불과 일개월만에 일조의 이슬과 같이 사라지고 개신문에는 「나치스」의 깃발이 휘날렸으며, 「히틀러」의 사열이 「파리」전체를 뒤흔들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당시의 프랑스 국민은 개인의 영화만을 위하여 사치와 호화에 눈이 어두워 애민·애국보다는 독자적인 이익에만 급급했으므로 결국은 패배했던 것이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조 500여년의 골육상쟁과 사화 또는 사색 당쟁을 일삼은 결과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었으며, 이조말 소위 양반 고관들이 매반애적하여 무고한 양민을 학대한 결과는 왜정 36년간의 노예생활이었다.

8·15해방 당시 미국 「콜럼비아」대학교수 「라이더」는 「30여년전 한국은 누란의 위기에 처하였다기보다는 민족 전체가 자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 말한 바와 같이 그 당시 일본과 합병한 것을 오히려 한민족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니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부패하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청일전쟁이 끝난 후 그토록 자력갱생을 주장하시던 도산선생은 「이것은 우리 손으로 얻은 독립이 아니고 외력에 의해서 얻은 독립인 즉, 자칫잘못하면 잃는다」고 하신 말씀은, 그후 십년이 채 못가서 독립을 잃은 우리 민족이 자유와 청의를 위해 항쟁하는 기력이 심히 부족했음을 개탄한 것이다.



해방 후 군정 3년과 대한민국 초창기에 정계의 혼란을 틈타서 탐관오리와 악질상상배와 반민자들의 농락의 결과로서 왜정 36년의 악몽도 깨기 전에 구미대륙의 자본주의란 선풍과 때를 같이하여 공산주의의 차디찬 눈보라가 우리 겨레의 머리 위에 휩쓸려들고 인간 혐오의 야만주의가 무섭게 한국을 침략했다. 전면정복이 아니면 민족분열이라는 소련정책은 처음에 남북분열을 견지하고 그동안에 공산 북한으로 하여금 동족상잔을 불교하는 무력침공 방식의 「공산주의 조선혁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은밀하게 군사력 증강을 획책해 왔으며, 그 기회를 1950. 6. 25.로 택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을 저지하고 민족적 숙원인 승공통일의 보장과 기약도 없이 평화적 해결이 성취될 때까지 일체의 무장행동을 금하는 정전협정이 1953. 7. 27.에 조인되었으나 북괴의 거듭되는 도발과 만행은 이것마저 사문화 시킨지가 오래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교훈은 많고 어려운 교비를 거쳐 알려졌으며 다음 세 가지는 특별히 명심할 가치가 있다. 첫째, 공산주의자들은 자유국가 사회 내에 군사적 약점과 경제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즉시 한국가를 침범하기 위해 군사력을 시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전쟁중 잡은 공산군 포로 75%가 북한이나 중공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것은 전쟁사상 전무 후무한 일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베를린」에다 구축하여 놓은 장벽이라든가 또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여 나오는 끊임없는 피난민의 물결 등은 「철의 장막」이나 「죽의 장막」 배후사정의 본질에 관한 응변의 증언인 것이다. 셋째, 상기한 목적이 어그러질 우려가 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투, 알해공작, 내부교란, 파괴공작, 와해공작이나 살상을 기도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는 것은 1·21사태나 KAL기 남북 등으로도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독자적인 이익에만 급급한 소아적인 습성을 버리고 동포애의 참진리를 배워야 하며, 또한 민족통일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내아에 입각한 눈물과 땀과 피의 성스러운 사랑의 희생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나라가 없고서 한 몸과 한 집이 있을 수 없고 민족이 천대받을 때 혼자만이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도산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 도산은 「개인은 제 민족을 위해 일함으로써 인류와 하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한다」고 외쳤던 것이다.

만약, 내 나라 내 민족을 지켜야 할 장병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허영에 사로잡혀 「섹스」의 범람과 「트위스트」나 「몽키」의 유행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즘」과 「이데올로기」는 필요없는 현신작 처럼 쾅개치고, 국토방위의 숭고한 목표를 망각하고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할 자 그 누가 있겠는가. 아직도 우리에게 신라의 화랑정신, 3·1의 숭고한 선열들의 영혼이 살아 있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정의를 위한 절규와 군화소리가 심장의 고동과 함께 맥동하고 있다면 우리 민족의 염원인 승공통일은 결코 우연히 될 수 없음을 명심하는 동시에 민족번영의 숭고한 대의를 본위로 하는 동포애에 입각한 구국정신으로 상호 협동해야겠다. 역경에 처할 수록 과감한 용기로 나아가 싸운 자에게 신생의 길이 열렸으며 회회적 도전으로 피한 자에게 사멸이 찾아 온 것을 우리는 다시금 반성하고 이것을 역사의 재연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3. 반공의 의무와 승공의 자세

북괴는 1970년대 의 전반기를 소위 「결정적 시기」로 정하고 남침준비에 광분하고 있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김 일성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겉」이 있을 때, 미국의 정책변환이 있을 때, 월남전의 협상에 따라 한국전선이 제2전선으로 중요성을 가질 때, 그의 오산과 더불어 전격전을 시도하려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이같은 북괴의 일연 속셈은 그간 1966. 8.에 내건 소위 「자주노선」에 이어 동년 10월



「당 대표자 회의」에서 「전 인민 무장화」, 「전 국토 요새화」, 「전 인민군대 간부화」로 전쟁준비를 강화하고, 67년 12월 「제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담적 화공작을 주축으로 한 「10대 강령」을 발표한 것으로서도 심본 뒷받침 된다.

북괴는 국내외정세 및 조건변화를 내다보면서 소련의 「스타하노브」운동, 중공의 「대약운동」과 같은 「천리마 작업반」, 「근위칭호」, 「열성자 대회」, 「청산리 방법」, 「셋별보기 운동」 등 온갖 문구와 온갖 방법을 있는대로 동원하여 생산경쟁의 분류 속에 노동자를 투입시켜 진퇴양난의 현실 모면과 전쟁준비에 인간 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삼」의 법칙이 오늘날 북한에서는 감 일성을 퍼수로 하는 일당들이 우직한 농민들의 양심을 구축하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만인주주의 사실이다.

특히, 북괴는 6·25당시 제공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얻은 패배의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최근에도 기지개발 및 기존기지에 대한 환주로 및 유도로의 복수화와 주요장비, 시설물들의 엄체화 내지 지하화를 서두름으로써, 7백여대의 각종 항공기를 가진 그들이 일시에 보다 많은 항공기로서 기습공격을 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일찌기 미국의 「레드포드」제독이 말한 바와 같이 오늘날 공군력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요소이며, 공격과 방어 양면에서 또한 타군을 지원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북괴에 대비한 우리 공군으로서도 전력의 양적, 질적면에서 정예스럽고 자주적, 현대적인 「마히2」의 공군으로서의 성숙기를 맞이하는 결정적인 태세로 돌입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대전의 성격이 사상전이며 과학전인 동시에 총력전이라는 것을 상기할 때 우리는 전술 전기를 체득한 정예 공군이면서도 반공정신에 투철하고 정신무장을 갖춘 군인이어야 하겠다. 오늘의 조국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하는 것은, 목숨을 전 투쟁을 자오하고 내 조국 내 향토를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자주국방의 태세와 역량을 비축해야만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한국의 작전계획은 전쟁발발 후에 미군이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과연 미국이 즉각 군사행동을 취해 줄 것이냐 하는 것과 전격전으로 한국의 영토가 상당히 상실되었을 경우 미·소의 상호 독립으로 인해서 야기될 문제와 포기할 극단의 경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에 말이다. 이러한 경우에, 「드골」은 프랑스의 핵무장을 내세우면서 미국이 아무리 많은 핵폭탄을 가져도 프랑스로서는 소용이 없다고 강조한 것을 상기해 봐야 할 것이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국가이익에 상충이 있을 때 항상 약소국만이 손해를 입기 쉬우며 「이테올로지」는 국가이익의 시비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테올로지>보다는 <내쇼널리즘>이 강하다」는 「리셀」의 말로도 아울러 입증된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아랍」 민족과 「시오니스트」의 숙명적 대립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숫적으로 우세한 「아랍」군이 아니라 정예를 자랑하는 「이스라엘」군이었음을 재인식해야 한다. 북괴가 두려워 하는 것은 그들 45만에 비한 남한의 60만 대군이 아니라 강병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무장과 숙련된 전투훈련이며 전국민의 반공 방첩태세 임을 알아야 한다. 또 여기에 결사반공의 힘을 기르고 승공의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는 선도적 역할의 책임은 곧 이 나라의 청년 장병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헤에겔」이 「진실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자」고 외친 것도 바로 독일청년들 앞에서였다. 패망한 독일을 구한 것은 머리 위를 지나가는 적의 포탄 아래서 열혈철인 「피히테」의 피 토하는 열혈을 들은 청년들이었고, 남침해 오는 잔학무도한 공산권을 썩멸하는데 십혈을 다한 전사들도 혈육을 같이 한 이 나라의 젊은이였으며, 자유수호를 위해 월남에 참전하여 지난해 전사한 그 청년은 바로 나의 죽마고우였다.

어제는 오늘의 전통이요 오늘은 내일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들의 앞에는 조국통일과 국가부흥의 지상과제가 가로 놓여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더우기 이역만리의 월남전에서 우리장병들이 생명



과 바꾸어야 했던 평화와 자유를 되찾아 보더라도, 우리가 그토록 갈구해 오는 승공통일은 생취로서 이루어질 산물이며 부강과 번영은 피와 땀의 결정으로 얻어질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 승공통일과 국가부강을 지향하는 심적 자세와 심적 방향계수를 바로 잡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현실의 고달픈 여전과 제반 악조건을 극복하면서 찬란한 민족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해 들어가는 「밀거름」의 의지를 간직하고서 남은 우리의 정열과 저력을 그리고 우리의 충성을 조국의 자주와 자립과 「동일성취」의 과업을 위해 바칠려고 다짐하는 귀중한 시간의 화살을 잡고 있음을 명심해야 될 줄 믿는다.

4. 우리의 각오

70년대에는 힘의 다원화 현상이 더욱 깊어지고 「이베올로기」에 의한 결속보다는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현상이 현저해 질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지역 국가간의 협력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더우기 70년대는 세계의 이복을 집중시켜 온 월남전이 여하한 형태든지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농후하므로, 남침기도에 혈안이 된 북괴는 비정규전을 격화시켜 한국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고 변천하는 국제 및 군사정세의 허점을 노려 전면전을 도발하는 계기를, 만드는 과격한 행동을 보일 것이다. 또한 70년대의 「아시아」 정세는 공산위협이 과거보다 감소하기는 커녕 증대되는 반면 「아시아」의 안보는 과거보다 후퇴, 악화되리라는 격정도 있다.

북괴가 70년대를 「무력 도발의 해」로 정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오산에 의한 전쟁도발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해야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오늘날 우리가 막중한 과업을 수행해야 할 역사적 사명감과 시한적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승공통일을 지향한 국가 부흥임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

다. 우리가 지금 「일면 국방·일면 건설」이라는 「슬로우전」 아래 자주국방 태세의 강화와 전력의 재정비를 위하여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실로 남북통일은 세계의 복잡다단사를 축소시켜 놓은 문제이며, 상호 이질적인 「이데올로기」의 통합인 동시에 정치, 경제적인 제 여건의 부합이므로 험다한 난관이 가로 막혀 있고 따라서 그 길은 험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승공을 전제로 한 통일정책의 「이니시아티브」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심중에 「정신적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우리 사회는 불의에 대한 「맨주먹」의 절규도 있었고 「총·검」의 혁명도 있었고 또 이것에 의해서 불의에 대한 정의가 승리했으나 아직도 불안과 혼잡 속에서 양단 해방 25년에 접어들게 된 것은 「정신적 혁명」의 결핍에 연유한다고 본다. 이 「정신적 혁명」이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가건설에 기여하기 위한 확고 부동한 결심이며 양단된 조국을 승공통일로 이끌어 가는 결사반공의 정신무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제언으로 승공과 건설의 자세를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주체성을 가지며 패배의식을 지양해야겠다. 이조말 쇠국주의와 일정 36년의 침체기로부터 급작스런 개방적 자유사상의 도입에 의해 우리는 건전한 국민의식이 함양되지 못했고 산발적이고 자유방임적인 태도로 주체성 없이 타의 모방에 급급했다. 이제 우리는 동양적이고 풍토적인 후향적, 열등적 근성에서 깨어나더라도 서구적인 생활양식, 사고방식을 올바르게 유화, 소화, 용해, 분화시켜 자기 개척, 자기 진화, 자기 극복을 위한 창조적 정신으로 자주적, 주체적인 국민 의상(義像)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찌기 도산은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반공에는 에누리가 없으며 일보의 양보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방대열에 어깨를 나란히 하여 오직 필승의



신념과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분투노력하는 것만이 이 나라 장병들의 궁극적 요 결어야 할 걸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명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스위스」의 교육사상가 「카일 힐티」도 「인간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고 말했다. 정체와 빈곤의 역사 위에 「성년 한국」의 모습을 새겼던 60년대의 토대 위에 우리 민족이 응비하느냐, 좌절하여 퇴보하느냐 하는 것은 다가온 10년, 「사명의 70년대」만에 판가름 된다. 이 시점이야 말로 그 어느 때 보다도 격동하는 국내의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진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내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엄숙히 깨달아 이를 실천할 때다. 강력한 국가건설과 실지 회복을 위한 절기찬 제반 노력은 바로 이러한 사명감 없이는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이 나라 이 민족의 흥망성쇠는 바로 우리를 자신의 힘에 의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역사는 자멸이지 타에 의한 멸망이 아니다」라는 「트인비」의 말을 빌리더라도, 현실의 제반 역사적 과업의 구심점으로 삼은 민중의 의식을 깨우쳐 갈 길을 잡아주는 그 시대적 사명과 역할은 곧 청년 장병에게 있다는 것과 그 성패의 결과도 우리의 일거일동에 의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난날 우리는 내 나라의 국방을, 주객이 전도된 감이 들 정도로, 너무나 우방과의 지역적 집단 안전보장 체제에 의존한 것 같다. 내 나라의 방위를 남에게 미룬다면 그것은 우선 주체성을 잃고 영영 자립의 능력을 상실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한 바 있다. 시공을 초월 하더라도, 우리의 국토는 제 1차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의식과 노력이 강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5. 결 언

나는 이상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막중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



한 장병들의 자세에 관하여 나의 견해를 피력해 왔다.

정부는 자조정신·자립경제·자주국방을 70년대의 시정목표로 하고 정의와 진리를 찾고 평화를 구축하는 자유 세계민들과의 우호증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토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평화야만 휴전선을 경계하여 칩락의 칼을 잔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공산도배들의 죄악과 기만에 찬 발악과 전물할 사실을 추수방관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제언과 반공의 의무와 승공의 자세를 검토해 왔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과업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한 세 가지를 요약해서 강조했던 것이다. 즉, 그 하나는 패배의식을 지양하여 공산주의의 허위에 기만당하지 않는 진실에 용감한 정신이요 그 두번째가 승공을 위해 결사투쟁하고 건설을 위해 국가정책에 협조함으로써 민족적 과업을 완수하겠다는 사명감이며 그 세번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스스로 역행하는 자주적 행동이다. 모름지기 이상과 같은 것이 정부의 시정목표와 참모총장 통솔방침을 받드는 가운데 신속 정확한 공군 장병들의 사고방식, 생활신조, 행동자세로 된다면, 「영공 수호에 이상없다」는 우리의 「모토」는 물론 이 나라 이 민족의 중대한 역사적 과업은 국내의 정세의 여하한 변동과 역경 속에서도 기필코 성취하게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

×

×

미국의 —

전략적 안정의 장래

박 창 렬



- ◇……세계 제2차대전후 4년만에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 ◇……독점이 끝장을 본 이래 전략적 안정(Strategic……◇
- ◇……Stability)이란 개념은 미·소 양국간의 상호억제관……◇
- ◇……계 발전을 중심으로 하여 정의하여 왔다. 전략적……◇
- ◇……안정이란 단순하거나 정적인 것이 아니며 이는……◇
-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억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1. 양측의 억제에 의한 안정

지금까지 아무도 억제력 밸런스(Balence)를 정확히 측정하여 보지는 못하였으나 소규모의 억제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소규모의 억제력이 보다 큰 억제력에 비하여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각 상대방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피

해에 관하여 갖는 주관적인 평가를 양측이 어떤 기준에 의거 평가하는가에 따라 좌우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능한 방어 능력에 관련되는 소규모의 억제력의 공격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핵 시대에 있어서의 억제란 보복 위협을 통하여 상대방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막으로 생각하여 왔으나 이를 더욱 완전하게 정의(定義)한다면 양측이 각각

상대방의 중요이익(Vitalinterests)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하등의 조치도 취하려고 기도하지 않는 태세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억제 개념은 핵무기의 사용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증대한 시기에 있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반대하는데 있다.

역사를 통하여 보전대 억제력의 유지를 위한 주요한 군사적 방법은 중요이익이 침해받는 것에 대비하여 위협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만약 적절한 억제력이 유지된다면 중요이익은 도전을 받지 않는 고로 안정이 조성 및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소요되는 억제를 유지하려면 어떤 종류 및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생긴다. 억제력을 유지하여 안정을 촉진할 수 있는 군사력에 관하여는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 즉, 군축론과 대량 보복설이 있다. 현재의 미국의 신중을 기한 선택 및 통제된 반응정책(Deliberate, Selective-controlled response policy)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 두 가지의 견해

의 가정 목적 및 제한조건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세계의 무장해제로 안정이 가능할 것인가?

첫번째의 가설적인 예인 비무장화한 세계를 논의해 보기로 한다.

무장이 전쟁을 발생케 하며 무기가 긴장을 유발한다는 가정을 비무장화한 세계에서만 안정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신념을 초래케 하고 있다.

이 극단적인 견해에 의하면 전면 완전군축(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을 주장하고 있다.

보다 더 극단적인 견해로서는 군사력 수준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든가 혹은 대탄두탄 방어력(Anti-ballistic-missile defense)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무력을 폐기시키는 것과 같이 상호합의 하의 군비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안정세력은 무기의 파괴력에 역비례한다는 주장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초래케 하고 있는 고로 만약 무기가 증가하면 안정이 파괴된다면 무기의 수가 증가되면 증가됨에 따

라 또한 무기가 개량되면 개량됨에 따라 안정 파괴도도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금까지 전면 완전군축이나 군비 제한에 의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 본 예는 전연 없었다. 만약 전면 군축이 착실히 시행되었다면 어찌서 무기의 개발 및 제조가 실시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설사 어느 기준까지의 군비축소 또는 제한이 시행되었다 하여도 과연 안정의 유지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그 예로서 현 군사력 수준을 축소 역제론에서 주장하는 소수의 공격용 무기로 감축시켰다 하여도 어느 한 쪽이 미사일 공격능력을 기술적으로 발달시키든가 혹은 대폭적인 협정위반을 하여 더 많은 파괴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안정세력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 고로 안정은 양측의 '군사력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결론은 단순히 미·소 양국간의 군축에 의해서 제거될 수는 없을 것이며, 또한 세력의 안정 파괴력이 증대해 질 수 있다. 제외되고 있는 군축이란 국가를 단위로

한 것이지 세계 전반적인 것이 아닌 고로 전면적이거나 완전한 군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전면 완전군축의 최종적인 상태는 가정하기란 극히 곤란하다.

3. 대량 파괴의 위협

다음에는 상기 이론과는 정반대의 정책인 대량 보복설에 관해서는 의하고자 한다. 이 교리에 의하면 소련을 견제하는 목적은 이것이 핵전쟁을 회피하는 것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량 보복은 단 기간의 극단적인 파괴전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미국이나 그의 동맹국에 대한 대소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유일한 위협적인 보복제방법으로 인구에 대한 전략핵무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공격용 핵 군사력에 있어 완벽한 우위를 유지하여 이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소련은 현저한 억제력 위협을 받아왔으므로 어떤 위반행위도 파멸적인 전면 전쟁을 초래케 할 것이

라는 의미를 내포한 상호 자살협약 (Mutual suicide Pact) 때문에 테러 (Terror)의 사용을 주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약의 중요한 결함은 신뢰성이 없으며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전연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대량보복전쟁은 군사적인 반응 형태를 고착시켜 놓았기 때문에 억제력을 취할 선택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일종의 비현실적인 전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촉진된 정책이었으며 그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서도 보다 가능한 종류의 위협을 충족시키기에 약하였다. 대량 보복전략의 목적은 중요이익에 대한 핵 공격을 억제시키는데 있었으나 이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충분히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이익에 대한 침략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문제가 극기되고 있다. 즉, 국부적인 소규모의 침략을 할 것인가 혹은 위협적인 대량 핵 파괴력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 받게 되는데 최종적인 위협은 최종적이 아닌 원인에 대한 제재방법으로서 신뢰할 만한 것도 못 되며 유

용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량 보복에 의존한다는 것은 안정을 파괴하는 파상적인 소규모의 침략에 고무시키는데 불과 하였다. 이는 또한 짧은 회로(Short circuit)의 결과나 광폭한 장군의 경솔한 행위에 따른 전쟁 뿐만 아니라 오산이나 적의 활동에 대한 오해의 결과로 발생하는 전쟁을 포함하여 우발적이거나 원하지 않는 전쟁의 가공한 양상을 초래시킬 수 있다.

4. 세번째 견해—신중을 기한 선택 및 통제된 반응정책

대량 보복은 분명히 가능한 위협에 대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그들의 선택범위를 넓히도록 유도시켜 주는 출발점이 되었다.

신중을 기한 선택 및 통제된 반응정책의 구체적인 개념은 대량 보복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정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안정 유지에 공헌하고 있는 한 가지 예는 이와 같은 정책이 전개됨에 따라 우선—전쟁의 완전한 「스펙트럼」(Full spectrum)과 우리의 중요이익의 정의에 의거

무엇을 억제해야 할 것인가를 보다 명확히 결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전면적인 핵 전쟁의 발생을 억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와 같은 목적은 제2차 대전 이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무기의 전략적 사용을 고려할 수 있었던 쿠바 위기시에 있어서도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달성되어 온 셈이다.

한편 전면 핵 전쟁의 억제효과는 정(靜)인 것이 아닌 교로 현재까지 유지되었던 안정이 장래에 있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억제력 균형은 부단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이 현재 채용하고 있는 전면 핵 전쟁의 억제방법은 실증파괴(Assured destruction) 즉, 적에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파괴를 줄 수 있는 위협을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전략 핵병력(Strategic nuclear force)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험 파괴방법에 있어서는 제2격 상태하

즉, 억제력이 무너져서 적의 대병력(對兵力), 반격(Counter force) 역할을 하는 그들의 제일격 무기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아군의 공격무기를 사용전에 파괴시켜 그들이 받는 피해를 제한시킬 목적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한 후 일지라도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태세는 양측이 각 상대방의 제2격 능력을 신뢰할만하여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때 비로소 전략적 안정이 존재한다는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미국은 실증파괴 위협 수단을 사용하여 소규모의 국부적인 게릴라전을 저지하지도 못하였고 이를 저지시키려고, 바라고 있지 않을 것도 명백하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실증파괴의 위협은 게릴라전의 규모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둘째, 게릴라전이란 우리가 제지시킬 권한이 없는 내란(內亂)이거나 혹은 게릴라군이 나 분명히 이를 저지하는 국가를 위협하여 전쟁을 억제시키기에는 너무 애매한 대리전쟁이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두 개의 전쟁 「스펙트럼」 사이에서 「에스카레이손」(Escalation)을 초래할 수 있는 소규모의 핵 공격과 재래식 침략 또한 규모 관계없이 미국의 이익에 불리한 각종의 재래식 정책이 있게 된다. 이 신중을 기한 선택 및 통제된 반응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상대방의 억제능력 뿐만 아니라 억제가 무너질 경우의 상대방의 대병력, 반격력에 대비한다는 관점 하에 전술 핵무기를 더욱 개발함과 동시에 재래식 병력을 피강(瓌強)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억제를 위한 핵 병력의 동원 및 중요치 않은 국가이익에 대한 위반행위를 재평가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소형의 핵무기가 개발됨에 따라 광범위한 보복 수단이 생기고 있다. 전술 핵무기는 「에스카레이손」 가능성 때문에 안정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신념은 핵무기를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것과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하여 소규모의 핵 공격을 하는 것과

인구에 대하여 전략공격을 하는 것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에스카레이손」이 불가피한 것인지 분명치 않으며 또한 보다 낮은 분쟁 수준에서 침략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 이익의 방어력을 증가시켜 안정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도 분명한 것 같다.

중요 이익에 대한 평가기준은 세계정세와 주요 강대국의 변동하는 지도권에 따라 역학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오늘날 구라파 여러 국가들은 강제로 공산권의 진영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미국의 중요 이익에 위반되는 것으로 일방적인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대전 후 미국은 전략적 우위에 있으면서도 소련이 동구제국을 그들의 위성국가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 당시엔 소련이 재래식 군사수단을 사용하여 공산권 제국(諸國)의 대열을 정비하는 것이 1956년의 헝가리 의거에 대한 반응을 환기시킬 정도로 미국의 중요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방관적인 태도는 오늘날도 변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이 세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였다면 이와는 장이한 반응을 야기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안정이란 역학적인 균형을 의미하며 이는 목적 달성을 위하는데 있어서의 양측의 억제 효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와 같은 균형은 항상 재평가되어야 하며, 안정에 공헌한다는 견지에서 실증 파괴능력과 피해 한정능력(Damage-limiting Capabilities) 양자택일을 할 필요가 있다.

전략 공격병력(Strategic offensive force)에는 여러가지 상이한 태세가 있다. 현재 이 전략 공격병력은 두 가지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데 이는 실증 제2적 파괴력에 의하여 억제를 유지하는 제1차적인 임무와 억제력이 무너질 경우 대병력 반격능력을 가지고 아군의 피해를 한정시키는 제2차인 임무가 그것이다. 미국의 실증파괴안구조건(實證破壞安求條件)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전취되어 왔다. 즉, 첫째는 소련이 소규모의 미사일 병력을 사용하여 대병력 반격을 시도할지라도 아군이 소련에

게 줄 수 있는 전략 공격병력의 보무능력이 저하되도록 피멸되지 않을 정도로 유적(類的)으로 우세한 병력을 증강시키는 것과, 둘째는 유차적으로 증가되는 만큼 동등한 수의 생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 공격병력에 대한 각종 방어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수세방어력은 안정세력을 유지시키고 있다. 왜냐 하면 미국의 전략 공격병력을 격퇴시키기 위한 적의 공격병력의 효력은 불확실하다는 개념을 그들에게 주입시켜 줌으로써 주어진 미사일병력의 억제력의 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적에 의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현 억제정책은 미국의 전략 공격병력의 생존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더욱 확고한 것이 되고 있다. 안정을 또한 공격 결과의 불확실성을 추가적으로 측정케 하는 수단을 제공하여 주는 각종의 적극적인 방어 방법에 따라 증가되고 있다.

5. 전략적 안정에 있어서의 대탄두탄 체제의 역할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도중

(途中)에 있어서 주요한 원동력의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지지하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은 폭격기의 역할에 대하여 현저한 영향을 주어온 바 있으며 현재에도 주고 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최근의 경향은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까지만 하여도 피해한정은 전략공격병력의 미사일 분야에서 제2차인 임무였다. 그러나 전략공격병력의 대병력 반격 역할은 피해 역할은 피해 한정을 위한 간접적인 방법이며 또한 피해 한정에는 전략 공격병력의 동원이 필요하고로 만일 존재한다면 안정효력은 억제력이 무너진 후 적병력에 대하여 전략 공격병력을 사용함으로써만 그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제2적 상태하에서는 지상에 잔류하고 있는 적의 병력은 보잘 것 없는 것이다. 대탄두탄 방어력은 전략공격 병력과 인구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이것이 억제력의 안정에 주는 효력은 이를 사용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대탄두탄 방어력은 적이 그들의 병력 사용결과에 관하여 추산(推算)하는데 있어 그 결과의 불확성을 그들에게 주입시켜 줌으로써 억제 효과의 증가시켜 주고 있다. 미·소 양국이 공히 대량의 공격용 미사일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의 대탄두탄 방어력이 개발되기 전에 있어서는 억제력이 무너질 경우의 시나리오(Scenarioe) 결과는 아주 실패성 있게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탄두탄 체제가 양측에 도입됨에 따라 이와 같은 양상은 돌변해졌다.

모든 방어면에 있어 실증파괴능력을 예측하는 것은 이제는 정확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전략 공격병력의 실증파괴력은 불확실한 결과라는 말로서 대체되고 있다. 방어력 없는 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목표물이 명중 하느냐에 관하여 다소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이와 같은 명중불확실성은 아마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고로 어떤 일련의 목표물에 대한 명중 불확실성이 수락 가능할 정도로 저하될 수

있도록 병력을 계획해야 한다. 목표물을 방어함으로써 실증파괴력을 예측하기란 이제는 간단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 하면 공격결과는 공격과 방어체제의 상호작용에 따라 좌우되며 또한 공격방법이나 방어능력의 효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어체제를 격퇴하기 위한 침투보조물(Penetration-aids)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왜냐 하면 이는 어느 정도까지 이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각 상대방의 방어체제의 성능 특징 및 작전이론에 관하여 입수 가능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정보도 100% 완전한 것으로 거의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100%의 완전한 정보를 가졌다 하더라도 전술은 변하는고로 정보수집시와 전쟁의 전술에 관한 정보는 상이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방어체제가 재발됨에 따라 방어목표물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추정하기란 더욱 곤란해 졌다. 제1격이나 제2격 시에 억제력을 사용하는데 수반되는 또 다

른 위험요소가 있다. 즉, 공격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추가적인 위험의 식으로 인하여 공격(방어된 전략 공격병력이나 방어된 도시에 대한)을 주저하게 되므로 안정세력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전략방어력에 대하여 소련이 역사적으로 강조하였기 때문에 일부의 대탄두탄 체제를 개발하게 되는 시초가 되었다.

전략적인 견지에서 볼 때 강력한 억제력과 효과적인 대탄두탄 방어체제를 동시에 취하고 있을 때 실질적으로 상호억제의 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소련의 방어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세한 공격병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소련이 우리의 군사력(그들 자체의 방어능력에 대한)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기준에 따라 억제력의 유지가 좌우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아주 확실한 우리들의 군사력의 효과를 고려치 않을 수 있다. 그들의 추산은 정확할 수 있으나 이는 다소 요점

을 벗어난 추산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란 그들은 균형잡힌 공격 및 방어능력을 가지고 공격만인 미국의 태세에 대항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확실한 실증 파괴능력에 보유하게 되는 반면에 우리는 만약 공격태세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 자체의 병력을 위하여 동일한 확실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이 파괴되는 것은 이와 같은 정확성 대 부정확성의 비율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파괴력이 불확실한 국가는 또다시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고로 많은 압력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목적을 공격력의 증가에 의해 달성해 보려고 시도한다면 탄두탄방어(BMD) 전 시대에서 허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의미를 확실성에 확보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 또한 확실성을 결여한 측에서 공격 병력을 대폭증가시키는 것은 반응력을 도발시켜 양측이 통제 및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군비경쟁의 과중으로 몰아 넣을 것이라는 점도 이치에 맞는 것 같

다.

그 반면 양측이 탄두탄 방어체제를 가지고 있으면 정체를 안정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공격병력의 대병력 반격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탄두탄 방어력을 보유하기 전의 시대보다 더 높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략 공격병력의 피해한정역할은 다수의 적병력이 지상에서 피격 받을 때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탄두탄방어력을 부정하는 견해를 가진 과학기술의 발달을 계속추구한다하더라도 공격용 무기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찬성할 만한 방법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왜냐 하면 추가적인 미사일의 한계효력(Marginal effectiveness)은 극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중을 기한 전면 핵 전쟁은 아마 가장 짧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효과적인 탄두탄 방어력을 사용한 경우 더욱 안정화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군사력의 시위나 혹은 우발적이거나 비인간적인 정신병적인 지휘관의 공격 및 오산에 의한 전쟁의 발생을 방지하여

준다는 의미로서 중요한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사태는 반드시 대전쟁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방어력에 의해 사태를 평가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으며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은 항상 시간이 경과 됨에 따라 고조되기 때문이다.

내탄두탄 체제의 가치는 어느 정도 인명에 의한 피해를 한정시켜 주기 때문에 개인적 및 국가적인 견지에서 볼 때 정서적인 일면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만약, 전략 핵무기의 사용을 위시하여 장애에 있어 전쟁가능성이 전무하게 된다면 피해 한정책에 관하여 아마 별로 논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정은 다음 항에서 설명하는 기타 이유 때문에 실현성이 없는 것이다.

6. 중립국주의 안정

장애에 있어 전략적 안정을 추정하는 데 필히 고려해야 할 요인은 외부세력의 영향 즉, 중립국의 문제이다. 핵무기 및 병기 운반장치

(폭격기나 미사일)를 소유함으로써 중립국을 강대국편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안에 인접국가의 활동이 전략적 밸런스를 변동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전의 신념은 이제는 실효가 없게 되었다. 핵무기(Prolifivation)의 확장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체면 유지로부터 전통적인 반목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정치적 및 전략적 이유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강대국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통제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핵무기가 출현하기 전인 역사적인 억제, 태세하에 있어서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은 동맹 조약이 단지 한 장의 휴지 조각에 불과하지 않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부단한 논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편에 유리한 동맹국을 위하여 불굴의 투쟁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핵 전략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동맹국이 동일한 종류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확인하기가 극히 곤란하다. 그 한 가지 이유로써 동맹국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단시일 내에 전략 핵무기와 외교

적인 책략과는 상호교환하는 일이 성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여기에 관련되는 위협의 정도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핵무기의 출현 전에는 어떤 국가가 그의 동맹국에게 의무를 위임시킬 때 현재보다 훨씬 위협이 덜 수행되었다. 그런데 현재에 이르러 동맹국의 가담 성격이 더욱 의심되고 있다. 프랑스와 중공이 독자적인 핵 병기의 개발을 하게 된 동기의 하나는 핵 금지 제한보장에 대한 공약을 의심한 것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

어떤 기준의 핵무기를 소유하게 되면 중립국과 초강대국 간의 갭(Gap)을 좁힐 수 있다는 가정은 만약 초강대국이 단순한 재래식 무기(Unsophisticated Weapons)에 대한 침투를 효과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면 다소 실효성이 있다. 이는 전 「멕시코」 국방장관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일부의 탄두탄 방어력이 개발됨에 따라 명백한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왜냐 하면 중립 국가의 공격은 장래의 어느 가능한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제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량 공격군사력은 중립국의 야망을 전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비록 소규모의 핵 병력일지라도 대군사시설 반격을 목표로 하였다면 대량의 공격 일련의 병력보다 적절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보복에 의하여 중립국에서 줄 수 있는 피해는 분명히 모든 중립국이 어느 시간 동안 줄 수 있는 피해 범위보다 클 것이지만 중립국이 이와 같은 침투를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도 문제시 해야 할 사실이다.

도시와 전략 공격병력의 결합방어는 중립국의 대병력반격 및 대군사시설 반격역할을 말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립국의 실제적인 핵 무력의 사용효과는 저하될 것이며 이와 같은 무력의 정치적인 위협 가치도 제거될 것이다.

탄두탄 방어력의 도입이 이들의 확장을 억제시킬 수 있을지 명백치 않다. 그 이유는 중립국은 아직도 핵 병기를 획득하려는 강력한 지역적인 또한 위신 유지를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어력이 개발됨에 따라 피

보호국에 대한 중립국의 부력효과는 없어질 것이며 중립국의 위협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제국가들에게는 핵 제한보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탄두탄 방어력은 중립국의 가능한 안정 파괴행위의 범위를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안정이란 상호억제의 역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억제는 양측의 분쟁이 조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기술적 및 정치적인 구조를 부단히 재평가함으로써 생기는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어떤 기본정책을 따라야 할 것이며, 누구를 억제시켜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억제시켜야 할 것인가를 또한 어떤 위협에 의하여 억제가 가능한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상대방을 동

시에 평가하는 견지에서 관찰해야 한다. 왜냐 하면 억제는 양측의 심증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억제력 유지관계이기 때문이다.

Falls Church, Virginia

August 1968

Air University Review

중에서

<저자 소개>

Mrs. AMORETTA M.

HOEBER.

Stanford대학교 출신으로 현재 Virginia의 Falls Church에서 미국 전략정책분석연구소(ANSER)의 분석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1963년부터 1966년까지는 California 주 소재 Stanford 연구기관에 전략연구소에서 조사연구원으로서 근무한 바도 있다.

×

×

중동 분쟁의 평화 전망

서 정 준

<동아일보 외신부 기자>

민족과 종교를 달리하면서 2차대전 후 3차의 전쟁을 일으켰던 속저 이스라엘과 아랍족이 미국의 「로저스」 국무장관이 제안한 중동평화안(6월 19일)을 수락함으로써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로저스」 평화안이 수락되었다고 해서 곧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이때까지 쌍방이 주장해 왔던 서로 다른 주장들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문제가 까다롭게 남아 있긴 하지만 「로저스」 평화안은 금년들어 갑자기 고조된 무력충돌의 위기상태에 뒤이어 제출되고 수락되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 최악의 경우 평화안의 실현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제4의 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냉각기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큰 것이다.

1948년 유엔의 결의에 의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부터 유대인(이스라엘)과 아랍민족의 충돌이 벌어져, 1948년의 팔레스타인 전쟁, 1956년의 스위스전쟁, 1967년의 중동전쟁(소위 6일 전쟁)을 치르면서 중동지역은 「세계 대전의 화약고」로 불리워 왔다.

67년의 중동전쟁 직후인 그해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동평화결의안을 채택하고 「야팅」 특사가 이 결의안의 실현을 위해 중동에 파견되어 중재작업을

벌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건우지 못했다.

한편 각각 그들의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4대국 즉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4대국 회담, 미국과 소련의 중재가 계속되었으나 이러한 모든 평화노력도 실효를 건우지 못했다. 반면 이스라엘과 아랍측은 서로 군비를 확충하고 무력충돌을 되풀이 하는 등 「속적의 대결」을 계속해 왔다. 그동안 협상에 의한 해결을 둘러싼 당사국의 주장은 이스라엘이 제 3자의 중재를 배제한 아랍측과의 직접 협상만을 주장해 온데 반해 아랍측은 협상에 앞선 이스라엘군의 점령지로부터의 철수와 강대국에 의한 간접협상을 고집해 서로 맞서왔다. 중동문제의 해결이 어려웠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미묘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해관계는 이제을 로기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중동지역이 갖는 전략적 위치가 갖는 중요성과 풍부한 석유자원에서 오는 이권 때문이다. 소련은 지중해로 진출, 대서양, 인도양으로 뻗는 발판을 이 중동지역에 마련함으로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세력을 견제하고 아시아, 아프리카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랍사회주의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중동전쟁 이후에는 통일

아랍공화국(이집트)에 막대한 군사력을 투입했다. 한편 2차대전 후 중동지역에서 후퇴한 영국, 프랑스를 대신한 미국은 이 지역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석유 투자를 비롯한 경제 및 기술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힘의 우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서 적극적인 중동정책을 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측에 지원했지만 아랍측도 의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중동정책은 언제나 『간접개입』 형태를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는 2차대전 이전의 그 직접적인 영향력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많은 이해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동의 정세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무기를 판매하는 등 현실적인 이익에 몰두하기도 해 왔다.

이렇듯 강대국의 중동정책은 자국의 이해관계가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 공급 경쟁을 벌이면서도 대전의 폭발은 모두가 원치 않기 때문에 세력균형이 한계점에 도달, 폭발의 위험성이 보이면 곤란 협상에 응하는 것이다.

이번의 미국 평화안도 미리 소련과의 비밀협약에 의해 나왔다는 보도가 있듯이 어디까지나 타협에 의한 것이며 그렇게 본다면 그 시기가 아주 적절한 것이

라 하겠다. 67년 중동전 이후 중동의 군사 밸런스를 보면 소련의 원조에 의한 아랍측의 군사력 회복의 단계를 거쳐 급년들어서는 균형을 이루는 선에 다달았으며, 금년 3월 소련의 SAM 3 미사일, 4월의 소련인 조종사의 통일 아랍공화국 투입으로 사정은 갑자기 달라졌다. 그전까지는 아랍측의 군사력이 향상되어 왔지만 이스라엘의 제공권(制空權)이 확실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의 균형에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렇던 것이 3월 스위스운하 서안에 개량된 SAM 2 미사일 15기, 스위스운하에서 35마일 떨어진 내륙에 소련인이 직접 조종하는 최신형 SAM 3 미사일 2기를 설치하고 소련인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스위스운하에서 35마일을 넘어오는 이스라엘기를 반격하도록 하자 이스라엘의 제공권은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레이다경보, 전자반격장치의 조작, 교사포와 미사일의 동시 발사는 거의 모두가 소련인이 지휘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자 이스라엘은 스위스운하 부근에서 미라쥬, 스키아·호크 등 구식비행기는 쓸모없게 되고 공격이 가능한 유일한 비행기는 팬텀기 뿐인 상태가 되었으며 팬텀기의 손실도 커졌다. 이렇게 하자 이스라엘측은 위기감에 쌓이게 되고「골다

•메이어」수상이 『자위를 위해 소련인 조종사의 전투기도 격추하겠다』고 언명하기에 이르러 중동은 새로운 대전에 휘말려들어 갈 징후를 보였다. 이런 사정에서 미국의 중동평화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평화안은 그 내용보다도 적절한 타이밍에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저스 평화안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로저스 평화안의 골자는 ① 90일간의 휴전 실시 ② 상호간의 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의 승인 ③ 이스라엘군의 점령지로부터의 철수를 골자로 67년 11월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실현하자는 것으로 별로 새로운 것은 없다.

따라서 협상방식 즉 직접이나 간접이나 하는때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시 파견될 「아링」북사의 조정애 의하기는 하겠지만 다시 논란될 가능성이 짙다. 또한 해석문제에 있어서도 한때 유엔 결의안 중의 「철수」에 대해 다만, 철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철수」(아랍측 주장)로도 「부분철수」(이스라엘측 주장)로도 해석될 바 있듯이 이번에도 또 의견대립이 생긴 요소로 등장할 것 같다. 앞으로 협상이 시작되면 역시 이 점령지 문제가 제일 큰 이유로 등장할 것 같다. 이스라엘은 구에루살렘은

이미 67년 6월 29일에 합병해 버렸으며,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고원은 그 전략상의 중요성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되풀이 강조해 왔던 만큼 타협이 까다로운 문제이다. 또 하나 해결의 난제(難題)는 팔레스타인 피난민 문제이다. 팔레스타인전쟁 때 아랍측으로 피난 온 난민은 작년 7월 현재 약 1백 40만명이나 되는데 이들은 유엔의 원조활동은 있지만 『버림받은 인간』들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실의(失意)는 게릴라활동의 온상이 되어있다. 67년 유엔결의안에도 다만, 『난민문제의 정당한 해결』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아랍측은 난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거주지를 선택 즉 아랍측에 남거나 이스라엘측에 되돌아갈 것을 주장하지만 이스라엘측은 이를 거부하고 한 때 「에이더」수상이 10만명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지만 아랍측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러한 협상의 절차상의 문제나 구체적인 타결점은 그만 두고라도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우선 문제는 협상에 임하게 된 아랍측의 내부사정에 있다. 「로저스」안에 대해 아랍 내의 시리아, 이라크, 알제리아 등 이른바 강경파들은 즉각 이를 거부하고 중동문제의 무력해결만을 주장하고 있다. 「나세르」통

일 아랍공화국 대통령은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아랍권의 단합에 노력하고 8월 3일부터 아랍 7개국 외상 및 국방상 회담을 개최했으나 시리아, 이라크, 알제리아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과 「나세르」가 이들 강경파를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 보다도 더 큰 골치거리인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다. 이들은 여하한 협상에도 반대하고 오직 무력투쟁에 의한 팔레스타인 탈환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평화협상이 설혹 실현된다 해도 평화의 교란자로서 테리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반면 이스라엘은 현재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강경파 가할당의 반대에 봉착, 연립정부의 붕괴위기까지 예상되었지만 그 위기를 무릅쓰면서까지 「로저스」안을 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측의 협상에 대한 열의는 대단한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회상을 커버할 수 있는 값비싼 「 댓가」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협상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가 계속될 위험도 있지만 그러나 고조되었던 중동위기에 「냉각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로저스」평화안의 의의는 크다.

소련의 핵전략 이론

—● 핵시대의 소련 군사독트린 ●—

— 홍 준 표 <역> —

1950년대의 후반기에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핵 전략 논쟁 중에서 소련 독재공산정권은 1960년대의 초두에 「핵 미사일시대의」 또는 「현대의」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군사독트린」을 확립하여 공산 독재정권의 기본 방침에 관한 공격적 견해의 통일을 근근히 달성한 것 같다.

「군사독트린」이라고 하면 즉, 소련 군사 용어사전에 의하면 「전쟁의 성격 및 전쟁에 의한 군사력의 행사에 관하여 국가가 과학적 기초에 의하여 공식으로 채용한 견해의 체계이며 또한 이 견해에 따른 국가와 국군의 전쟁준비에 대한 요구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것을 좀 더 알기쉽게 말한다면 「국가의 정치지도부에 의하여 작성되어, 결정된다」

「국방분야에 있어서의 소련의 기본법」이라고도 한다. 군사독트린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비교적 한정된 기간

에 있어서의 군군의 구체적 과제를 결정한다고도 한다.

여기서 「군사독트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군사교의(軍事敎義)」라고 역하기도 하며 또는 「전쟁 강령」이라고 역하기도 한다.

소련군에 있어서의 군사독트린의 성격으로는 「강령(綱領)」이라고 역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개념을 표시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여하튼간에 최근의 용어 용법에 있어서의 영어의 밀타리 독트린, 또는 군사이념 등이라고 하는 용어와는 아주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는 그 소련군에 있어서의 군사독트린의 특수성, 특히 「현대의」 군사독트린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고유명사적으로 사용하여 원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군사독트린」의 역어(譯語)를

채용한 것이다.

따라서 군사독트린에 대하여 군사전략은 종속적 위치에 서는 것이다. 군사독트린이 일반적, 원칙적 규정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 「군사전략은 이 원칙적인 규정에 따라 장래전의 성격, 국가의 전쟁준비, 군사력의 조직, 전쟁의 수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연구한다.」고도 하는 것이다.

즉, 군사독트린이 「전략을 만들고, ... 무력전의 수행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소련군에 있어서의 군사독트린은 이와 같이 전략을 좌우하는 국방의 기본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며, 따라서 핵 시대의 소련의 군사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핵 시대의 소련의 군사독트린을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군사독트린의 확립

이와 같은 국방의 기본방침을 나타내는 통일적인 전례로서의 군사독트린은, 소련군에 있어서의 과거 현재를 통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마리노프스키」가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코스로프」는 『소련의 군사학의 연구에 있어서 한 때 「군사독트린」의 용어는 잊어지고 살아졌다』고 논하고 있으며, 「마리노프스키」도 또한 「최근까

지 소련 군사독트린의 본질을 정의하는 문제에 그러한 관심이 기울어지지 않았다고」고 술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에 의하여 소련군에 있어서의 공격 통일전례로서의 군사독트린의 권위는 196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극히 저조했던가 또는 그 존재가 무시되고 있었던가 또는 실제에 있어서 통일적인 전례로서의 권위있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 둘 중의 어느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핵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서 소련의 각종의 군사문헌에는 갑자기 지금까지 「있고 있었던」 군사독트린의 용어에 대하여 경의(놀람)를 표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다지 관심이 기울어지지 않았던」 소련의 군사독트린의 본질의 정의에 대하여 다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사장돼 있던 군사독트린의 용어가 부활하며 권위있는 것으로 갑자기 각광을 보이기 시작한 감이 있다.

최초에 소련 군사독트린의 권위에 대한 경의를 표명한 것은 이른바 제22회 소련 공산당대회(1961년 10월)에 있어서의 「마리노프스키」 국방상의 연설이었다.

「마리노프스키」는 이 연설중에서 1960년 1월의 「호루시초프」의 최고회의에 있어서의 연설이 소련 군사독트린의 기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후에 「소코로보스키」도 또한 1960년의 소련 최고회의(1960년 1월) 제4 회기는 소련블럭 제국의 무장방위수단과 전력의 발전에 관한 제 조치를 정하여, 또한 현대 소련 군사독트린의 기초를 규정하는 결의를 택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핵 미사일시대의 소련 군사독트린의 확립을 1960년대의 초두라고 간주할 수가 있다.

「마리노프스키」는 소련의 군사독트린의 역사를 다음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그들의 국내전시대에서 정규군의 탄생까지, 둘째는 이른바 제1차 5개년 계획에서 핵 미사일병기의 출현까지 그리고 세계가 핵 미사일시대이다.

이 제3의 시대의 군사독트린이 1960년대의 초두에 확립된 새로운 소련 군사독트린이다.

군사독트린을 역사상 이와 같이 세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각각의 시대에 하나씩의 군사독트린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비록 이 세 시대의 군사독트린이 상호간 이질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같

이 생각된다.

왜냐 하면 제1의 시대의 군사독트린은 소위 그들의 혁명전쟁을 거쳐서 국가로서의 체제가 정돈되기까지의 사이이며, 제2의 군사독트린은 즉, 국가로서 새로이 탄생한 정권이 타국과의 대립 중에서 그 군사정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대와 군사독트린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달랐던 것이다.

그리고 제3의 시대의 군사독트린은 핵 미사일병기라고 하는 전연 새로운 병기의 출현에 의하여 초래된 새로운 형의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인 군사독트린이므로 해서 이것도 또한 제2의 시대의 군사독트린과는 이질적이라고 간주되는 것이다. 「마리노프스키」는 이 제3의 시대의 소련 군사독트린의 가장 특이한 점은 그것이 선진 자본주의제국 군대에 필요하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3의 시대의 군사독트린은 제2의 시대의 그것이 자기보다 강한 나라들에 의하여 포위된 약소의 신흥국이, 강한 나라들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인 군사독트린이었음에 대하여 지금이야 말로 세계의 최강국을 따라가 그에 대응한 입장에 선 자부를 갖는 것을 군사독트린이 된 의미에서 제2의 시대의 그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인식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하간 여기서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은 이와 같이 소련에 있어서도 근근히 핵 미사일시대에 대처하는 국방의 기본 방침, 공적인 통일전해로서의 군사독트린이 1960년대의 초두에 완성하였다고 하며 따라서 그 이후의 소련의 국방정책, 진군정책의 입안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이 독트린에 기본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군사독트린의 확립 이후에도 당연히 전략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나 기본방침에 반대하는 의논이 공간저상(公刊紙上)에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이 곧 소련의 국방방침의 변경 또는 혼란, 불통일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도자의 교대가 그대로 국방의 기본방침의 대폭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군사독트린 그 자체의 대폭적인 수정이 없기까지는 소련에 있어서는 지도자의 교대에 의한 국방정책의 변경의 정도는 한정된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군사독트린은 다시 말해 소련의 희망이거 반드시 소련군의 실체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또한 전에도 지적되고 있는 것같이 이것은 장기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며 현재 「호루시초프」시대에서 「브레즈네프」시대로의 정권의 교대와 같은 시기에 수정이 가해진 것으로 보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군사독트린만을 전면적으로 고집한다는 것은 옳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사독트린은 소련에 있어서 공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통일전해이며, 일정한 구속력이 있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국방방침의 기본적인 중요한 개정은 그런 의미에서 필연코 군사독트린에 반향될 것이며, 따라서 소련의 군사전략 국방정책에 관하여 논함에 있어서 소련 군사독트린의 제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군사독트린의 정치적 측면

소련 군사독트린에는 정치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의 두 개가 있다.

정치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정치적 평가에 관한 제규정을 말하며 군사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군사기술적인 제규정을 말한다.

소련 군사독트린의 정치적 측면의 제규정은 당연히면서도 공산주의적인 전쟁론을 반영하는 전쟁에 관한 「이메올로기」적 규정이다.

예를 들면 전쟁론을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상투적 기본이며, 따라서 이것은 소련 군사독트린의 정치적 규정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 전쟁의 불가피성에 관한 공산주의 전쟁론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한 바와 같이 핵 미사일시대의 도래에 다른 변경이 가해지고 있다.

여기서 소련의 군사독트린은 사회생활에서 세계전쟁을 배제하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보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견해도 있다.

이 전쟁방지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종래의 독트린과 다른 신시대에 있어서의 소련의 특질이 아닌가 한다.

소련의 새로운 군사독트린은 그들 공산주의 독재정권 제국에 대한 공동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국제성이 하나의 특질로 되고 있다.

이 국제성의 특질은 공산주의 제국에 대한 「소련의 핵의 파라슈트」라고 생각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전쟁에 관한 규정도 또한 소련 군사독트린의 정치권의 규정의 하나이다.

군사독트린의 군사면의 제규정

군사독트린의 군사적 측면의 제규정이란 것은, 전략, 전술 또는 전군의 여러 문제 등에 관한 군사 전문분야의 제규

정이다.

군사독트린의 정치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자는 전쟁에 관한 추상적 이론 또는 사상적 고찰에 기인하는 제규정이며, 후자는 전쟁에 관한 구체적, 실천적 제규정이라고까지 될지도 모른다.

소련의 군사독트린의 군사력의 제규정은 군사전략과 극히 밀접히 관련돼 있다.

<장래의 예측>

장래전의 성격규정—현대의 소련 군사독트린은 언젠가 있을 수 있는 「장래전쟁」을 획책하여 꾸며지고 있다.

장래전의 공간적 규모—장래전의 공간적 규모는 「대륙간」 또는 「전지구」 규모로 인정된다.

이 전쟁은 양대주의 〈자본주의 : 공산주의〉 제국의 각각의 동맹이 같이 싸우는에 있어서 지구상의 대다수의 국가가 말려들어 「동맹국의 전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무력전 수단—소련 군사독트린은 이 장래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도 전략 로켓군」이며 또는 「미사일 핵병기」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소련 군사독트린

은 이른바 전군종(全軍種)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래전의 양상—전구적(全球的) 규모에서 미사일 핵병기가 사용되는 장래전에서는 「전투행동은 전례가 없는 격전이 될 것이며 다이내믹한 기동성에 따를 것이다. 그리고 계속하여 안정한 전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전선(戰線)과 후방의 경계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간주된다.

「전선의 부패나 교전국의 후방도 다같이 대위력의 기습공격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장래전에 있어서 공격 목표는 전선의 군사력과 후방의 도시주민의 쌍방이 될 것이다.

개전의 방법—소련 군사독트린은 장래전의 개시에 관하여, 「전쟁은 전통적인 공연의 위기적 기간 없이」 즉, 경고의 기간과 선전의 포고도 없이 위력있는 핵 탄두를 장비한 장거리 미사일의 대량 사용에 의하여 불의에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장래전의 개전은 어느 쪽이나 기습에 의한 공산이 큰 것으로 보아 소련 군사독트린은 일방에서 「국제분쟁이 확대됨에 따라서 세계 전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소련 군사독트린이 가장 중요한 대전준비로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

습공격이라고 운운하고 있다.

장래전의 계속기간—소련 군사독트린은 기본적으로는 장래전을 단기전으로 보고 있다. 장래전이 대량의 미사일 핵병기에 의하여 싸운다고 하면 이 병기의 대량 파괴능력 때문에, 장래전은 단기전 내에 결정이 지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래의 전면전쟁이 예상되는 계속기간에 대하여는—핵 미사일의 타격은 제1적으로 전례미문의 파괴를 가져 오며, 야전지역의 거대한 양의 부대를 근절하여, 대도시 주민의 대부분을 섬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 미사일병기의 대위력 때문에 전쟁은 극히 단시일 내에 종료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장(戰場)에 있어서의 지상병력의 활약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며, 이것은 최종의 승패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전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소련 군사독트린은 미사일 핵 전쟁이 경과 신속한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군대와 국가는 다소라는 장기화 하는 무력전의 실행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며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에 관한 소련 군사독트린의 규정은 장래전에 있어서의 주요 수단을 미사일 핵병기라고 보면서도 전

군종(全軍種)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이 소련의 군사독트린이 어떤 면에서 아주 애매한 타협의 산물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장래전에 있어서 초기의 중요성—「소련 군사독트린은 전쟁초기를 전쟁실행상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전쟁초기의 제 사건은 전쟁 그 후의 경과 및 그 종국적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소련 군사독트린에 관한 그들의 문헌은 거의 다 같이 장래전에 있어서의 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초기의 성부(成否)가 그대로 전쟁 전체의 귀추를 결정한다는 생각은 미사일 핵병기의 결정적 파괴력을 높이 평가하며, 장래전을 단기전으로 간주한다면 당연한 결론이나, 핵 미사일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아, 전군종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 초기의 중요성에 관한 규정은 모순을 탄로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여기서 이 초기의 중요성의 강조는 타협적이며, 불확실한 소련 군사독트린의 제규정 속에서, 미사일 핵병기 우위론, 단기전론의 편이 기초(基調)인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소련의 전쟁준비

소련의 군사독트린은 장래전의 개진

은 불시발발에 의한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소련측의 전쟁준비에서 가장 우선도(優先度)가 높은 것은 불시발발에 대항하는 것이다.

불시전쟁에 대한 준비는 말할 것 없으나 진지나 명시를 가리지 않고 상시 임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대병력의 보지—소련의 「마리노프스키」는 핵 미사일 전쟁이라고 하더라도 장기화할 것이며, 또한 장래전에 있어서의 결정적 역할이 미사일 핵병기에 따랐더라도 하지만 최후에 가서는 전군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장래전에는 대량 기병대의 군대를 요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격이 우위—소련 군사독트린은 언제나 공격을 원전한 격파의 승리로 보고 있으며, 그래서 이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간주하며, 방어는 공격이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불리할 경우에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없이 하는 투쟁형태로 보고 있다. 핵 전쟁의 조건하에서는 적극적 공격행동의 역할은 일층 고조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그것도 전술적인 또는 한정된 작전적 규모의 경우에 한해서 방어로 하게 될 것이다.

소련 군사독트린이 어디까지나 공격

에다 우위를 두고 있는 것도 이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공격우위의 사고방식은 전통적인 소련 공산독재정권의 전통적인 기본원칙이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어떤 문헌에는 소련의 공격위주의 자세는 특히 전략적 규모의 군사행동에 있어서 현저한 것이며 추호도 방어적 자세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

또한 소련 군사독트린의 전쟁 억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 억제를 방어적 자세에 의하여 행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적 자세에 의하여 취할 것이라고 한다.

국지전예의 대응—1960년대 전반의 소련의 문헌은 소련 군사독트린이 국지전에 대처하는 문제에 관하여 하등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소련 군사독트린은 자기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는 국민의 국지전쟁을 부 정의 전쟁이라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이와 같은 전쟁은 세계 핵병기에 이행(移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맹 제국과의 정합(整合)

현대의 소련 군사독트린은 새로운 자질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하나는 정치적

규정에서의 국제성을 감안하고 공산 독재제국들의 공통의 해결을 위해 협동동작을 가르치고, 피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제국들의 군사독트린은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군사 기술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공산 독재정권들의 협동동작 중에서 소련이 접하고 있는 역할은 군소 공산국가들의 뒤에서 권위와 군사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상 시사한 소련 공산정권의 군사독트린의 계규정은 주로 1960년대 전반의 소련측 문헌에 기초되는 것이며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후르시초프시대의 소련 군사독트린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 소개된 소련 공산정권의 군사독트린은 1960년대의 초기에 공산당 두목과 정치, 군사 부분 두목 간의 견해의 일치에 달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속에는 극히 타협적인 상호 모순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역력히 알 수 있다.

이 애매한 핵 시대의 새로운 군사독트린의 확립에 있어 후르시초프의 전략구상에 대하여 보수파의 반대가 극히 강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반응 전략으로 전진(轉進)하는 것 같기도 하다.

「스위스」문제와

중동·동남아시아 정세 전망

—— 영국 보수당 집권과 영국「스위스」

이동(以東) 철군 보류에 따른 ——



조 성 길

<대한일보 의신부기자>

◇ 「스위스」 이동(以東)

철수

지난 6월 18일 총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히드」영도하의 보수정당 정부는 「월슨」노동당 정부가 공약했던 「스위스」 이동으로부터의 영국군 조기(早期) 철군계획을 보류함으로써 쇠퇴해 가는 노대영제국의 「이미지」를 되살려 보고자 하는 것 같다.

「월슨」노동당 정부는 지난 68년 1월 「파운드」화의 평가절하와 함께 국제 수지(收支) 적자로부터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초긴축정책(「디플레이」정책)의 일환으로 극동 및 중동지역으로부터 영국 주둔군 철수계획을 발표했던 것.

이에 의하면 영국은 「싱가포르」를 비

롯한 「말레이시아」 「페르샤」만 저구의 주문군의 철수를 예정보다 앞당겨 71년 말까지 완료하는 한편 「아시아」중동지역의 핵 방위용으로 구입할 예정이었던 미국의 F-111 가변익(可變翼) 전투폭격기 50대의 주문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또 영국군 병력 7만 5천명, 군속 8만 명을 정리하고 원자력잠수함의 삭감, 항공모함(현재 4척)의 점차 폐함(廢艦) 등 준비축소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영국이 2차대전 후 중동 및 극동 지역에서 치안, 방위의 역할을 담당했던 이른바 세계경찰로서의 세계전략적 영국 국방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국방비는 해외 주문군 철수, 시독 주문 군비 삭감, 군용기 발주 철회 등으로

합계 8억 8천만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영국군의 철수계획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관계 제국의 군사, 경제상에 큰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됨으로써 이 지역 국가들에 불안감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히드」보수당 정부가 영국군의 「스위스」 이동 철군계획을 보류 한다는 군사정책을 공약하고 나선데 대해 그 누구보다도 환영과 안도로 받아들인 나라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당사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 힘의 공백을 우려해온 기타 자유 아시아국가들이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더구나 「닉슨독트린」에 의한 미국의 아시아 개입 점감(漸減)정책으로 인한 역할 증대를 우려해 온 호주, 뉴우지일랜드 등 영연방 태평양지역 국가들은 다 소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된 셈이다.

월남전을 계기로 아시아에서 불기 시작한 자조(自助)경향은 다시 지역협력주의라는 세계조류에 발 맞춰 「아·태평양(亞·太)자료이사회(ASPAC) 및 동남아연합(ASEAN)의 창설을 보게 했고 미·일 협력체제를 주축으로 일본의 국동안보에의 기여도의 증대를 전망케 하는 새로운 세력 분포도를 초래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 노동당과 보수당의 차이

실상 노동당 정부가 내세웠던 71년 말까지 「스위스」이동 철수가 역면대로 실현되리라고 볼 수도 없었고 보수당의 불철수 공약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장담할 수도 없는 일이다.

보수당 정부가 항공모함의 정기적인 「케르시아」만 순항을 계속할 것인지 또 「샤르자」함을 기항지로 존속시켜 군대를 상주시킬 계획인지 아직 분명치 않다.

또 동남아의 경우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가 영국군의 주둔을 바란다고 하지만 노동당과 보수당의 정책 차이만큼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님을 알 수 있다.

노동당의 계획대로라면 후의 정기적인 대규모 병력의 공수작전을 통해 힘의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보수당의 경우는 정기적인 대규모의 공수작전을 하되 현지에도 얼마간의 상비 병력을 잔류시킨다는 정도이다.

비록 그 차이점은 크다고 할 수 없겠으나, 영국이 우방국의 방위를 지원해 준다는 신뢰감에 있어서는 보수당 정책이 효과적이 아닐 수 없다. 또 비상시 공수된 군대가 전투 환경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운데 비해 주둔군은 즉각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또 비상시의 병력 공수가 평상시의 훈련처럼 용이하

▲ 「스위스」문제와 중동·동남아시아 정세전망 ▲

지 않다는 점도 있다. 결국 영국군이 현
재 주둔이 갖는 중요한 점은 침략에 대
한 예방적인 억제력(Deterrent effect)
에 있다.

「히드」보수당 정부는 EEC 가입현상
을 전격적으로 추진할 것이 예상된다.

「히드」수상은 영국의 활로가 유럽에
걸려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미국
과의 전통적인 유대는 과거의 유산에 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국이 북대평양조약기구(NATO)에
회원국으로 그 역할을 지탱해 갈 것은
물론이러나 독자적인 핵 공격력을 보
유하는 한편으로 장차의 「유럽통합」을
전제로 한, 영, 불, (英, 佛)간의 핵억제력
의 합동화를 위한 노력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영국 국방장관 「카링턴」 경은 동
남아시아에서의 영연방 방위계획을 협의
하기 위해 지난 7월 말에 호주, 「뉴우지
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을 방문했다.

이는 71년까지 「스위스」이하 이동지역
에서 영국군을 계속 전류 시키겠다는 「히
드」수상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태세가
갖추어져 있음을 입증해 준 것이었다.

「히드」수상은 장차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적어도 영국 육군 2개대대
와 5 내지 6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1개의

해군 기동부대 및 2개 비행중대를 주둔
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병력은 호주, 「뉴우
지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영연방군대와 합류할 수 있다.

미국에 의해 증용되고 있는 영국군의
계속적인 동남아 주둔은 「인도차이나」의
혼란과 태국, 「말레이시아」 국경에서의
공산 반란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동남아
각국에 심리적 안도감을 줄 것이다.

노동당 정부의 철군계획 아래서 호주,
「뉴우지일랜드」 등은 「말레이시아」 나
「싱가포르」에 대한 방위지원을 담당해
야 할 문제에 직면 했었다. 이들 양국이
강대국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해외 방
위역을 담당하고 나서는 역사 이래 최
초의 일이었다.

즉 호주와 「뉴우지일랜드」는 「월슨」노
동당 정부의 철군백서가 발표된 직후 「싱
가포르」에 있어서의 「호주」, 「뉴우질랜
드」 합동 설치를 위한 긴급계획을 세웠
었다.

보수당의 국방정책은 막대한 지상군의
존속보다 정예화된 지상군으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당 정
부가 철군 후에 공수작전을 통한 해외 주
둔훈련을 골자로 한데 반해 보수당 정부는
영구주둔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자의 경우 공통된 점은 병력의 규모가 명목상에 지나지 않는 소규모라는 점이다.

「카림턴」 국방상은 호주와의 협의에서 영국은 호주가 동남아지역에서 영국과 대등할 정도로 방위에 기여할 때까지 동남아에 주둔한다는 인상을 주었다.

호주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기여할 병역이란 1척, 4백명으로 된 1개 대대와 2개 「미라쥬」 제트기 편대, 해군의 전투함 1척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한 때 「싱가포르」에 있어서 영국군의 기지는 2만 「에이커」에 달하고 지방 민간인 고용원은 3만명에 이른 적이 있었다. 그 후 대부분의 기지는 「싱가포르」정부에 반환 되었고 71년까지는 전부 이양될 참이었다.

이제 「싱가포르」는 영국군 주둔에 관한 새로운 5년 기한의 협정을 체결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비상시에 있어서 영국군의 개입을 좌우하는 원칙에 관한 결정이라 하겠다.

현존하는 협정은 (영국과 「말레이시아」간)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으로부터 「말레이시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국군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71년 이후에 있어서의 영국군의 역할을 규정하는 문제는 새로 조정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내년에 영국에서 개최될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 연방국가 회의에서 보수당정부가 약속한 영국군의 지속적인 동남아 주둔에 관한 세부사항이 마련될 것이지만 그 때까지는 영국이 계획하고 있는 주둔 규모와 그에 따른 제반문제와 연방국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것과의 차이와 이견을 조정하는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하나의 근무태만

나라가 위태롭다

정말 불행한 것일까

나는 아무래도 이 글에 있어서 나의 인생관에 대한 고백에 가까운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6·25 사변 때 일이다. 나는 대학 재학 중의 몸으로 군문에 들어갔다. 전선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5월 졸업식이 있을 무렵에 부산에 내려갔다. 내 졸업은 어떻게 되는가고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물론 언제 제대가 될지 모르는 몸이지만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학과를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확진 북방으로 돌아가는 트럭 위에서 나는 몇 번이고 자신을 원망스럽게 생각하였다. 교묘하게 병역을 피한 친구들은 졸업을 하는데 나는 언제까지 군문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 확실히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나를 위로하여 주는 것은 이미 아련하게 먼 일제시대에 품었던 어떤 기억과 같은 생각이었다. 그때 나는 일제하의 군대에 끌려갈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국민학교 은사가 나를 동정하여 이렇게 물었다.

『너 전쟁에 가서 죽는다는 것 생각하고 두렵지 않니?』

『물론 두렵습니다. 죽을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래도 진지하게 살다가 살아 남는다면 나는 어쩔지

인생을 사는 지혜

▼ 적극적 사고를 위하여 ▲

지 명 관

△ 덕성여대 교수 V



「전쟁과 평화」라도 쓸 수 있는 큰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험심을 가지고 그 운명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불행을 그냥 불행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사학자 「아놀드·토인비」의 말을 본다면 고난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였으면 셈이다. 거기서 죽을는지 모르지만 살아 남는다면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혜란 그 고난어린 인생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토인비」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살며 무엇을 터득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트럭에 흔들리면서 옛날 생각을 더듬고는 나만 군대에 온 것 같은 불행하게 보이는 삶을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마음에 몇 번이고 다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언제나 어이없게 무너지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4년 반만에 뜻 밖에도 제대가 찾아왔을 때 나는 좀더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해오지 못한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우리는 어려운 오늘을 넘어서 내일에 희망을 가지면서 노력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베어버리고 싶지 않은 시절이 있다면 동란 속을 군인으로서 살아온 그 시기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 그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대한 자세가 전혀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한다.

우기가 닥쳐오자 적의 심한 공세에 직면하였다. 그때 트럭을 타고 후퇴하는 내 머리 속에서 잠들고 있던 생각은 그만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말았다.

『왜 인간은 서로 싸워야 할까』

『자기 죽어가는 전우가 있는데 나는 살아 남는다니 거기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나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생각 그러한 발상(發想)이 그만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언제나 내 생각과 행동을 뒤에서 자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궁극에 있어서 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공감과 사색을 버릴 수 없다.

나는 군대생활을 그렇게 깊게 살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그것이 나에게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다.

제대가 되었을 때 나는 다시금 대학

에 돌아가 공부하였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그때 이미 동창들 중에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친구들도 있었다. 나는 심한 패배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대학원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자극이 되기도 하였다. 지금도 나는 대학원 재학중에 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하였고 실제로 많은 열매를 거두어드렸다고 자부하고 싶다.

그러므로 나는 적극적인 인생이란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장소와 시기를 가장 깊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는 태도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인생에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이 적극적인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살 수 있는 여지

도산 안창호 선생은 어떠한 시기에 있어서도 살 수 있는 최대의 인생을 산 분이라고 생각된다. 일제말엽의 어두운 시기가 다가오자 이제 독립운동을 할 여지가 없다고 모두가 말하였다. 그때 선생은 내 몸을 수양하고 [혁신하는 길이 곧 독립운동이 아니겠는가]고 말씀 하셨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 와도 우리가 뜻 있는 생활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신은 아무런 활동도 허용되지 않을 때도 병든 몸을 가지고 자기 집 들레에서 집을 돌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농촌가옥을 경제적으로 개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였다. 죽음을 앞둔 「페스타르찌」도 농민들이 추운 방에서 떠는 것을 보고 물을 깔고 그 위에 짚을 깔던 습기와 냉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고 연구하고 있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가능한 최대의 것을 찾는 자세야 말로 적극적인 인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도산 선생이 말한 것처럼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독립운동을 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우리는 8·15 후에 그러한 준비없는 혼란은 겪지 않았을 것이 아닐까. 8·15의 해방은 모두가 희망을 포기하고 피폐해 있는 사회에 찾아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군대에서 마찬가지로 경험을 하였다. 어찌지 한국전쟁은 그대로 계속하고 나는 다시 학교에 돌아 갈 것 같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독일어 책을 들었다가는 내 던지곤 하였다. 어떠한 전쟁이든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역사의 사실을 나는 부인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니까 제때가 되었을 때 도리어 당황하였다. 독일어도 다 잊어버렸지 않는가 이제 정말 다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에 돌아갔을 때 그래도 나는 다행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배어 던져온 하면서도 아주 손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다지 어려움 없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다.

그때 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로 군대는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었을까. 만약 주위가 소란하였다면 그래도 할 수 있는 공부가 있었지 않겠는가. 예를 든다면 단어를 외우는 것이나 훌륭한 영문을 외운다는 것쯤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나는 분명히 기회와 시간을 최대한도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언제나 가능한 최대의 일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만약,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 많은 시간을 충실히 사용하였다면 나는 내 전문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진전을 하였을 것이 아닐까.

여학교 교사를 하면서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나는 어떤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하여야만 하였다. 도저히 그 공부를 위하여 넉넉한 시간을 찾을 수가 없었

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방에 가는 것까지도 거부하고 있는데도 그럴 여유가 없었다. 나는 전차에 시달리는 출퇴근 시간에 그것을 공부하기로 하였다. 그 시간이 거의 한 시간 반이었기 때문에 1년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나 자신이 놀랄만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때도 나는 군대에서 낭비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하였다.

이런 문제에서 만이 아니다. 우리는 양심을 다하여 살려고 할 때도 많은 장벽에 부딪친다. 그러니까 나도 뛰는대로 사는 수 밖에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자유나 양심은 언제나 일정한 제한을 가진 상태에 놓여지는 법이다. 여기에서도 모든 상황에 있어서 최대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자세라고 나는 생각한다.

군대에서, 복무할 때도 여러가지 무리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조직에서 그러한 것을 참아야 할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는 인간이 말하는 가치 의식이 없고 가치를 세우려는 노력이나 주장이 있을 수 없다고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

불가피한 환경 또는 애정과 동정이 도

리어 균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래도 최대의 지혜와 인간관계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닐까. 인간이 악하다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통제하면서도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서 허락하는 슬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근대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직을 넘어서 진정한 인간을 발전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기쁨으로 회상한다. 어떠한 환경 속에도 인간의 사경을 쫓겨지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

가장 귀한 「나」

미국의 흑인 작가 「볼드윈」의 말에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동물처럼 팔고 샀다면 그렇게 한 백인들이야말로 동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이 있다. 남을 인간으로 대접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비인간이 되어 버리고 만다.

나치스들은 유대인의 몸에 있는 지방에서 기름을 빼서 비누를 만들고는 그 비누에다 자랑스럽게 그 내역을 밝혔다. 그들은 유대인을 한낱 동물이라고 생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누가 동물이었겠는가. 그러한 비누를 쓸 때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물화해 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남을 대하는데 인격을 간직하지는 것은 결코 남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오늘날 처럼 기계화되고 조직화되는 세상에서 나에게 있는 인간다움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가난한 이웃이나 몰우한 동료나 부류에 대하여 가혹하거나 무관심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면 그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질 것인가. 얼마나 비인간화할 것인가. 이러한 나 자신의 몰락이나 상실을 두려워하고 이에 대하여 몸부림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대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조직 속에서 명하는대로 행해야만 하였다. 대개 그런 것은 내 양심이나 이성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다만, 명령이기 때문에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생각하였다. 기계적으로 명령을 받아서 행하고 전한다면 나 자신도 기계화해 버릴 것이 아닌가. 그러므

로 내 자신의 시간을 가질 때면 내 취미를 위하여 머우기 나 자신의 정신에 전체성 또는 정신적인 기쁨을 되찾아 주는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고요히 한 구석에서 위대한 문헌작품이나 철학책을 읽을 때 그것은 명령이나 조직의 사회 또는 기계화 되어가는 삶과는 다른 것이었다. 도리어 나에게 그러한 조직 속에서 빼앗겨 버리기 쉬운 내 인간 전체를 되찾아 주는 순간이었다. 정신적인 감격없이 살아가던 나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감격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조직 속에서도 어떻게 나 자신의 영역이나 시간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적극적인 삶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기 위하여서는 양보와 타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어떤 상황이 아주 극한적일 경우에는 지켜야 할 자기는 가장 핵심적인 최저선이어야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질 때는 이미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신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그 점과도 같은 것 위에 사실은 내 전 인간과 인생이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종교인이 라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은 다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과 나와의 어떤 궁극적인 관계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지킬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상황에서 자기를 성장시켜 나아갈 기점이 된다.

나는 군대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되풀이하게 하지 않고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남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일로서 나를 지킬 길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 때 나는 어떤 원칙적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형식적인 것을 택하였다. 술을 마시지 말 것과 정직하게 말한다 것이었다. 정직하다는 것이 남에게 해를 입힌다면 침묵을 지키려고 생각하였다. 술에 대하여서는 만약, 그것에 탐닉하여 버린다면 여러가지 점에서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처럼 인간이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때는 없다. 여기에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방어책을 마련하여야 하지 않을까. 나를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인생이 있을리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바이블」이 말하는 천하보다도 귀중한 나의 생명이라는 개념은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훈련의 과정으로서

창조적인 생활이란 결코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훈련할 때 우리의 성격이 그러한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거의 자동적인 것처럼 그렇게 향하게 된다.

이러한 경지까지 자기 훈련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군인생활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고난 속에서 배우는 기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인생활을 낭비라고 보는 생각을 버리고 그 기간을 내 일생에서 들도 없이 귀한 시기로 만들려는 노력과 슬기가 절대로 요청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지금도 거의 20년이 되어버린 군대생활을 회상하곤 한다. 야전전막, 야전침대 위에서 어떤 때는 밤을 새어가면서 서로 인생의 문제를 토론하였다. 의견이 대립되어 싸우다시피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도대체 그 이후 내가 언제 그렇게 나 자신을 털어놓고 남과 진지하게 토론한 적이 있었는가. 도대체 인간과 인간의 사피움이 그렇게 깊어지고 그렇게 솔직해 본 적이 있었는가. 모든 것이 형식적이 아니었던가.

나는 사단본부 요원들이 저의 포위망

을 뚫고 후퇴할 때 가벼운 수술을 하고 침대에 누워있었다. 친구들은 나를 업고 냇물을 건드면서 몇 번이고 아프지 않게 느끼고 물었다. 나는 지금도 그 체온을 느낄 것 같다. 이렇게 사나이와 사나이가 하나가 되어본 적이 내 일생에 있어서 다른 때에 있었을까.

이러한 상념에 잠길 때 나는 참말로 내게 어떤 창조적인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군인이었던 모진생활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우기 그때 내가 잃어가면서 큰 영향을 받은 「타인홀드·니이버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나를 지배해 오고 있다. 전쟁터라는 살벌한 곳에서 인간이 적라라하게 다 들어났기 때문에 그의 명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 나에게 그렇게도 큰 감동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놀드·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를 읽은 것도 화천북방 전선에서였다. 니이버의 책으로 나는 인간을 생각했고 「토인비」의 책으로 역사를 생각하였다. 오늘 내가 사회를 보는 눈에도 이 두 사람의 사상이 적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군대생활을 역시 매우 귀중한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때는 몹시 쓰라리고 안타까운 것이었지만.

충무공의 인화력



단종일기에서

전쟁승리에 있어서 세 가지 비법이 있다. 첫째는 천시(天時)를 얻는 것이요. 둘째는 지리(地理)를 얻는 것이요, 셋째는 인화(人和)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장으로써 인화(人和)를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사람은 말하기를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 하였다. 임진왜란 때에 있어서 우리의 수군이 대승리를 한 것은 여러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충무공이 인화를 얻은데 있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수군이 대패한 것은 역시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도요도미히메요시(豊臣秀吉) 이하 대장들이 인화를 얻지 못한데 있다. 이것은 포로되어 온 왜인의 말을 들어보아도 증명되는 것이다. 여기서 충무공은 무엇보다도 장졸과 군·민 사이에 인화를 얻는데 남달리 힘썼던 것이다. 그 기본적 정신으로 충무공은

- (1) 애민, 애족, 애국의 충성심이 있었다.
- (2) 상관과 부하를 형제같이 존경하고 사랑하였다.
- (3) 백성을 자녀같이 사랑하였다.
- (4) 외국인에게 대하여는 항상 신·의·예를 존중하였다.
- (5) 사생취의(捨生取義)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이제 이러한 충무공의 조화정신을 그

김

경 탁

<고려교수>

의 난중일기를 통하여서 살펴보면 부하들에게는 활쏘기와 바둑과 장기투기와 술마시기와 시짓기와 연회같은 것을 통하여 인화를 도모하였다.

(1) 부하들과 담화, 음주, 활쏘기를 하였다.

갑오년 정월 26일이었다. 동헌에 나가서 공무를 본 뒤에 흥양, 순천 두 고을 원님과 함께 담화를 하였다. 2월 1일에는 생선을 잡아 우후(虞侯)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신춘의 경치를 완상하였고 동 8일 정오에 공은 활쏘기를 하였는데 조이립(趙而立)과 변존서(卞存緒)가 자음을 다루다가 조씨가 이기지 못하였다. 이것은 공이 부하들과 담화와 음주와 활쏘기를 함으로써 인화를 한 것이다.

(2) 부하들과 가무와 시음을 하였다.

동 12일에 공은 해운대로 가서 활쏘기를 하고 군관들은 일어나서 춤을 추었고, 조이립은 시를 읊었다. 공은 그들과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진중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공이 활쏘기와 가무와 시음을 통하여 인화를 도모한 것이다.

(3) 승평부백(昇平府白)의 초대 를 받았다.

동 19일에는 공이 백아곶(白也串) 감목관이 있는 곳에 가니 승평부백이 자기 아우와 기생을 배리고 와서 공을 대접하였다. 때마침 이 곳은 산화가 만개하여 좋은 풍치를 다 형언할 수 없었다. 공은 본래 여색을 가까이 아니 하였고, 밤에 잘 때도 나라 걱정에 허터머를 끄르지 않고 잠자는 사람이 었지만 하관의 접대하는 정성을 깨지 않기 위하여 그런 것을 용납 하였다.

(4) 부하와 하인들에게 술을 주었다.

동 21일이었다. 공이 공무를 본 뒤에 주인이 술 자리를 베풀고 활쏘기를 했다. 정조방장(丁助防將)도 오고 황숙도(黃叔度)도 와서 같이 취하고 배수립(裴秀立)도 나와서 술잔을 같이 드니 매우 기뻐다.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공은 신홍현(申弘憲)에게 술을 만들어 그 전날 사환 노릇하던 삼반하인(三班下人)들에게 나누어 마시게 했다. 이와같이 공은 부하장병들에게는 물론이요 하인들에게도 주인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없도록 인화를 도모했다.

(5) 부하와 술을 마시면서
발포하는 것을 보았다.

동 22일에 공은 공사(公事)를 본 뒤에 황속도와 함께 먼저 흥양(興陽)의 전선(戰船)을 가 본 뒤에 녹도(鹿度)로 되돌아와서 곧장 신속한 봉두문루(峯頭門樓) 위로 올라가니 경내(境內)의 경치가 참 좋았다. 만호(萬戶)의 극진한 마음은 어디서던지 나타났다. 흥양 황능성(黃綾城) 및 만호는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곱하여 전선(戰船)에서 발포하는 것을 감상하였다. 촛불을 밝히고서 이윽한 뒤에 야 헤어졌다. 이것은 부하들에게 술을 주어 취중에 진담을 들으려 하였던 것이다. 동 27일에 공은 늦게 배를 타고 경도(京島)로 가니 아우 여필(汝弼)과 이립(而立)이 군관우후(軍官虞候)와 술을 싣고 마주 나왔다. 공은 그들과 즐기다가 해가 진 뒤에야 관청으로 돌아왔다.

(6) 답청절(踏靑節)에 부하
들과 동헌에서 술을 마
시다.

3월 3일이었다. 저녁 때까지 비가 왔다. 이 날은 호시절이지만 비가 오므로 공은 답청놀이를 그만 두고 조이립, 우후와 군관들과 함께 담화하면서 동헌에서

술 잔을 기울였다. 15일은 날이 흐리었다가 가랑비가 내리더니 늦게 걸리었다. 공은 수루에 앉아 있었고, 활쏘기 하는 군관들은 편을 갈라서 활을 쏘았다.

(7) 순천이 환선정에서 술
자리를 베풀었다.

16일은 날씨가 개었다. 순천이 술 자리를 베풀고 또 활쏘기도 하였다.

4, 5월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전쟁이 차츰 급박해 왔다. 공과 군관들은 모두 긴장하여 활쏘기와 술 마실 여유가 없었다. 29일이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공은 제장(諸將)을 거느리고 곧장 노량(露梁)으로 갔다. 경상우수사에게 저의 소재지를 몰으니 사천선창(泗川船倉)에 있다 하였다. 공은 곧장 그곳으로 가니 적군은 이미 상륙하여 산봉 산상에 진을 치고 있었다. 공은 여러 장수들에게 일시에 공격케 하니 적이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몇 백명인지 알 수 없었다. 왜적의 머리를 많이 베고 적선 13쌍을 불살라 버렸다. 이때 군관 나대중(羅大中)이 탄환에 맞았고 공도 왼쪽 어깨 위에 맞아 등 뒤로 관통되었으나 중상은 아니었다.

(8) 난음(亂飲)하는 부하들
을 용서하였다.

계사(癸巳)년 2월 14일이었다. 아침 서

사 후에 삼도수사(三道水使)들을 모아 약속을 할적에 영남수사 원균(元均)은 병을 핑계하고 오지 않았다. 공은 다만, 전라좌우제장(全羅左右諸將)들을 모아놓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후사는 술을 먹고 망령을 피웠다. 그의 보잘것 없는 것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었으랴? 어란(於蘭)의 만호 정담수와 남도포, 만호, 강음포도 다 그 모양이었다. 공은 혼자 생각하기를 「대적을 토벌할 계략을 약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들의 난음이 이러하니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하고 못내 통탄하였다. 보통사람 같으면 그들을 당장에 벌을 주겠지만 공은 인화를 잃을까 꼭 참았다.

(9) 월관의 과실을 용서하였다.

22일이었다. 새벽에 구름이 끼더니 동풍이 크게 불었다. 그러나 적을 토벌할 일이 급해서 사화랑으로 출발해서 바람 멎기를 기다렸더니 바람이 좀 자므로 배를 재촉하여 웅천(熊川)으로 갔다. 두승장(僧將)과 성의병을 제포(薺浦)로 보내어 작륙하는 형세를 보이고 우도(右道)의 제장선(諸將船)들을 그 중에서 불신한 것을 택하여 동쪽으로 보내어 역시 상륙할 형세를 보이니 애적들이 허둥지

둥 할 무렵이었다. 전선을 모아 곧장 돌격하니 적세가 나누이고 약해져서 거의 전멸할 뻔 하였다. 그런데 발포의 2호선과 가리포의 2호선이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몰입하다가 그만 얕고 좁은 곳에 걸리어 도리어 적에게 습격을 당하게 되었다. 공은 통분히 여겨 간담이 찢어지는 듯했다. 좀 있다가 진도의 지휘선이 적에게 포위되어 거의 구원할 수 없게 되었다가 우후가 곧장 들어가서 구출하였다. 경상좌위장(慶尙左衛將)과 우부장(右部將)은 보고도 못 본체 하고 끝까지 구원해 내지 않았다. 공은 어이가 없어 그 무어라 다 말하지 못했다. 이것은 다 경상도 수사 원균의 탓이었다. 공은 역시 인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10) 우수사가 술과 떡을 가져 왔다.

3월 8일이었다. 공은 결망포(乞望浦)에서 한산도로 돌아왔다. 아침식사 후 광양, 낙안, 방담이 찾아왔다. 방담과 광양은 술과 안주를 준비해 가지고 왔다. 우수사도 오고 어란(於蘭)도 쇠고기토 만든 음식 두어 가지를 가지고 왔다. 15일이었다. 우수사와 여러 장수들이 관덕정에서 활쏘기를 했다. 공의 여러 장수

들이 많이 이겼다. 우수사가 벽과 술을 가져고 왔다. 그 이튿날도 또 활쏘기를 하여 공의 여러 장수들이 이겼다.

(11) 이일(李鎰)의 사위 성문개(成文概)에게 활과 화살을 주었다.

5월 9일이었다. 절망포로 갔다가 바람이 불준하여 우수사와 가리포 두 사람과 함께 앉아 군사에 관한 일을 이야기 하였다. 12일이었다. 성문개가 찾아 왔으므로 공은 그에게 검은 활과 화살을 선사하였다. 성문개는 이일의 사위이기 때문이다.

(12) 교약한 행동을 하는 원균을 용서하였다.

14일이었다. 선전관 박진종(朴振宗)과 선전관 영산령(寧山令) 예운이 임금의 분부를 받고 같이 왔다. 공은 우수사의 배에 옮겨타고 선전관과 대화하면서 술 두어 순배를 향고 있는데, 원균이 와서 술 주정을 하니, 온 배 안의 장사들이 놀래어 분개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 교약한 행동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으로 두 선전관은 돌아가 버렸다. 그러나 공은 그들을 탓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었다.

(13) 우국의 눈물을 흘리었다.

16일이었다. 공은 기분이 몹시 나빠서 누워 신음하다가 명나라 장수가 중도에 서 늦추며 머뭇거린다는 말을 들었다. 공은 나라를 위해 걱정이 많은 중에 모든 일이 다 그 모양이라 몹시 탄식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 내렸다.

(14) 선물을 부하에게 나누어 주었다.

17일이었다. 종일 큰 바람이 불었다. 공의 마음도 번거러웠다. 고성의 원이 군관을 보내어 병문안을 했다. 쇠고기 음식 한 꼬치와 벌통을 보내왔다. 그러나 공은 복증이므로 받기가 마음에 안 되었다. 그러나 정성으로 가지고 온 물건이니 의리상 돌려보낼 수 없어 공은 부하 군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위에서 보면 충무공과 부하들 사이에서 참으로 화기가 증만했음을 알 수 있다.

(15) 명나라 관원을 예로 대접하였다.

24일이었다. 비가 오다 말다 하였다.

아침에 공은 거제도 앞 칠천량 바다 어귀로 진을 옮기었다. 나래옹이 명나라 관월을 사양(蛇梁) 뒷바다에서 발견하고 먼저 와서 공에게 진하였다. 명나라 관월 및 통역관 표헌(表憲)이 선진관 목광흡(陸光歙)과 같이 온다 하였다. 오후 두 시경에 명나라 관월 양보(楊甫)가 진문에 도착하였다. 우별도장(右別都將)이 아설로 하여금 마중 나아가 배로 안내케 하니 그는 매우 기뻐하였다. 공이 공의 탄 배로 앉으라 권하고, 명나라 임금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주 앉자 하였으나 굳이 사양하고 선 채로 한 시간동안 이야기 하면서 우리 수군이 장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예물을 주니 처음에는 굳이 사양하다가 나중에는 받고 기뻐하면서 재삼 감사하게 여기었다. 이것은 공이 외국인에게 예로 대우하면서 우방 국가와 화친을 도모한 것이다.

(16) 전시에 기녀를 데리고 다니는 부하를 모른체 했다.

30일이었다. 남해에서 은 기효근의 배가 공의 배곁에 배었다. 그 배에는 한 여자를 태우고 있었으며 남이 알까봐 두려워 했다. 공은 그가 국가가 위급한 때에 미녀를 태우고 다니니 그 마을을

무이라 말할 수 없겠으나 대장 원균수사도 역시 그 모양이니 공은 할 말이 없었다. 밤에 잘 때에도 허리띠를 끄르지 않고 국가를 생각하는 공의 눈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힐 일이지만 공은 모른체 했다.

(17) 부하들과 담화와 활쏘기를 하였다.

갑오년 2월 8일이었다. 공은 늦게 사정(射亭)으로 올라가서 서류를 처결하여 보내고 저녁에 돌아 왔다. 배 마침 바다 위에 달이 밝아서 공은 나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순천 및 우조방(右助防)이 와서 담화하다가 밤 열 시경에 헤어졌다. 11일이었다. 아침식사 후에 사정(射亭)으로 올라가니 경상수사와 우조방장도 와서 함께 취하고 활을 세차게 쏘았다. 3월 2일이었다. 공은 늦게 사정으로 올라가서 좌우조방장과 순천 및 방담과 함께 활을 쏘았다.

(18) 삼도진사(三道戰士)들에게 술 1천8십동이를 먹였다.

4월 2일이었다. 공은 아침식사 후 사정으로 올라가서 삼가현감(三嘉縣監) 및 충청수사와 같이 종일토록 담화하였다.

그 이른날에는 공이 8도 전군들에게 술 1천 8십동이를 먹이었다. 이때 충청수사도 같이 앉아서 군사들에게 술을 먹이었다. 이와 같이 공은 장졸간의 인화로도 모하였다.

(19) 원균이 망령을 피웠다.

12일이었다. 순무(巡無)어사 서정기공의 배에 와서 이야기 하고 있었다. 우수사 및 경상·충청수사도 같이 왔다. 술을 세행부할 때 원균은 거짓 취하여 미쳐 망발을 했다. 무리한 말을 함부로 하니 순무어사도 못내 괴이하게 여겼다.

(20) 부하들과 이별주를 마시었다.

14일이었다. 공은 김계남(金梯男)과 밀담을 하였다. 늦게 순무의 배로 가기도 군사기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좀 있다가 우수사가 오고 순천, 방담, 사도(蛇渡)도 동시에 와서 작별하고 배로 돌아왔다. 저녁에는 충청수사의 배로 가서 이별주 한 잔을 기울였다.

(21) 부하들과 바둑도 두고 병법을 논하였다.

19일이었다. 김첩지(金僉知), 경노(敬

老)가 원수부(元帥府)에서 와서 적을 토벌하는데 서로 책울할 일을 논의하다가 그대로 함께 배에서 잤다.

20일이었다. 종일 가랑비가 왔다. 우수사 충청부사 장흥(長興), 마량(馬梁)들이 찾아왔다. 공은 그들과 바둑을 두고 또 병법을 논했다. 이것은 공이 바둑과 담화를 통하여 인화를 도모한 것이었다. 23일이었다. 순천, 홍양, 장흥, 마량 등 관현들이 오고, 곤양(昆陽), 이광악(李光岳)이 술을 가져고 왔다.

(22) 삼도전사(三道戰士)에게 술을 주었다.

29일이었다. 이날 우도수사가 와서 삼도의 전사들에게 술을 주었다. 이것은 충무공의 인화에 감화되어 한 일이다.

(23) 부하들과 내기 바둑을 두었다.

5월 5일 단오 명절이었다. 발포가 맥을 해서 공에게 보내왔다. 10일이었다. 비가 끊임없이 왔다. 공은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멀리 바라다 보니 많은 배들이 온 바다에 덮여있었다. 공은 생각하기를 내적이 침범해 오더라도 십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우후(右虞侯)와 충청수사가 와서 내기 바둑을 했다.

(24) 부하들과 활도 쏘고 술도 마시고 담화도 하였다.

23일이었다. 늦게 해남의 원이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왔다. 공은 충청수사를 청하여 함께 마시었다. 28일이었다. 사도(蛇渡)와 여도(呂島)가 와서 활을 쏘겠다고 공에게 말을 했다. 그러므로 공은 우수사와 충청수사도 청해 함께 쏘고 취하여 종일 담화를 하다가 헤어졌다. 이것은 활과 술과 담화를 통하여 인화를 얻으려 한 것이다.

(25) 누어서 부하들이 내기 장기하는 것을 보다.

6월 2일이었다. 공은 우수사진(右水使陣)으로 가니 강진(康津)이 술을 가지고 왔다. 활쏘기를 두어차례 했다. 원수사(元水使)도 왔다. 공은 몸이 불편해서 일찍 돌아와 누어서 충청수사와 배첩사(裴僉使)가 와서 내기 장기 두는 것을 보았다. 3일에도 충청수사와 배첩사가 와서 내기 바둑을 했다. 우리는 여기서 충무공이 부하장병들을 형제같이 본 것을 알 수 있다. 4일이었다. 검사부

(兼司僕)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와서 수군 여러 장수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 하니 이제부터는 그런 버릇을 다 버리다 했다. 공은 임금에게 대하여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했다. 이것은 전일 술 좌석에서 원군이 술 마시고 망발하였던 까닭이다. 9일이었다. 충청수사와 우우후(右虞侯)가 와서 활쏘기를 했다. 공은 우수사와 함께 담화했다.

(26) 부하와 저녁을 같이 하였다.

11일이었다. 충청수사가 늦게 와서 활을 쏘다가 공은 그와 저녁을 같이 했다. 밝은 달 아래서 함께 그와 이야기를 할 때에 옥저(玉笛) 소리가 고요하고 처량하게 들렸다. 14일이었다. 충청수사 사도(蛇渡), 여도(呂島), 녹도(鹿島)들이 와서 활 20차례를 쏘았다. 24일, 25일, 26일, 27일에도 활쏘기를 했다.

(27) 부하와 식사를 같이 하였다.

7월 4일이었다. 충청수사 마담첩사(馬梁僉使) 소비포(所非浦)의 권관(權管)이 와서 공은 그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 이것은 음식을 통하여 인화를 얻는 것이다. 5일이었다. 우수사와 충청수사

가 같이 오고 여도가 술을 가지고 왔으므로 공은 그들과 함께 마시고 또 활쏘기를 열 차례씩 했다. 7일에도 순천 사도(蛇渡), 가리포(加理浦), 발포, 녹도(鹿島)들이 와서 공은 함께 활쏘기를 했다.

(28) 명장을 예로 대접하다.

17일 새벽이었다. 공은 포구로 나아가 진을 치고 있었다. 명나라 장수 과정에서, 장홍유(張鴻儒)가 병호선(兵號船) 5척을 거느리고 돛을 달고 들어왔다. 바로 영문에 이르러서 육지에 내려 같이 이야기 하고자 정하므로 공과 여러 수사는 먼저 사정(射亭)으로 올라가서 올라오라 청하니 파종이 배에서 내려서 바로 오므로 공은 그와 함께 앉았다. 공은 먼저 그에게 「바닷길 만리를 여기까지 오기에 수고했다고 인사를 한 뒤에 감사한 말을 다할 수 없다」 하였다. 그는 답변하기를 「작년 7월에 절강(浙江)에서 배가 떠나서 요동(遼東)에도 착하니 요동 사람들이 바닷길 지나는 곳에는 물섭과 암초가 많고 또 장차 적과 강화를 하려하니 갈 것이 없다 하고 간곡하게 굳이 마று하므로 그대로 요동에 머물면서 시랑(侍郎), 손광(孫鏞) 및 총병(總兵), 양문(楊文)들이 있는 곳에 보고하고서 금년 3월 초순에 출발하여

왔으니 무어 수고로울 것이 있겠소?」 하였다. 공은 그에게 차를 물라 하고 또 술 잔을 권하여 은근한 정을 표하였고 또 적의 정세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설명해 주었다. 이것은 충무공이 우리나라를 구원한다는 명목을 먹고 온 명나라 장수에게 대한 예의였다. 예는 본래 「화(和)」를 주로 하는 것이다.

(29) 공은 훌륭한 외교가였다.

18일이었다. 날은 개었다. 공은 장홍유(張鴻儒)를 수두 위로 올라오게 하여 술을 주면서 말하기를 「아마 내년 봄에나 곧장 제주도도 가서 우리 수군과 합세하여 흉악한 적들을 모두 멸하게 될 것이요」 하니, 그는 성의 있는 말로 대답했다. 초저녁에야 그와 헤어졌다. 19일이었다. 공은 장홍유에게 예물목록을 주었다. 그는 못내 고마워 하며 말하기를 「주시는 선물이 아주 풍성하다」고 하였다. 공이 그에게 자호(字號)를 물으니 그는 공에게 해주기를 「자(字)는 중문(仲文)이요, 호는 수천(秀川)이라」 하였다. 이와같이 충무공은 외국 손님을 접대하는 데 뛰익숙하였다. 공은 하나의 신의를 존중하는 훌륭한 외교가였다. 20일이었다. 아침에 통역이 와서 전하기를 「명나라

장수는 남원 유충병이 주재하는 곳으로 가서 않고 곧장 돌아가려 한다」하였다. 공은 명나라 장수 홍유에게 간청하기를 처음에 파총계서는 남원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내가 이미 유충병에게 전했는데 그만 두고 가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반드시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것이니 바닷전에 가서 만나 보고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하였다. 「파총은 이 말을 듣고 과연 그렇겠다.」고 하였다. 그는 필마(匹馬)로 혼자 가서 유충병을 만나 본뒤에 곧장 배를 타고 군산으로 간다 하였다. 식사 후에 파총은 공의 배로 와서 자유로이 담화하였다. 공이 이별주를 권하니 그가 일곱잔 쯤 마신 뒤에 뱃줄을 풀어 함께 포구 밖으로 나아가서 재삼 십삼하다는 정의(情意)를 표시하면서 떠내보냈다. 공은 거기서 경수(景受) 및 충칭, 순천, 탈포, 사도(蛇渡)들과 함께 사인암(舍人巖)으로 올라가서 쉬 해서 이야기 하나가 돌아왔다.

(30) 원균이 모함한 말에 변명하지 않았다.

8월 17일이었다. 권율원수(權慥元帥)가 정오에 사천으로 와서 충무공에게 군권을 보내어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고자 하므로 공은 원수가 머뭇르고 있

는 곳에 가서 임금님의 교서에 섬숙히 절한 뒤에 그와 공사간의 인사를 다치고 함께 이야기를 하니 그는 공에 대한 감정이 많이 풀리었다. 그는 몹시 원균수사를 책망하니 수사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29일이었다. 의병장 성응저(咸應社)가 죽었다. 공은 몹시 슬퍼했다. 이것은 부하의 죽음에 대하여 마음에 서 울어나는 애도로써 인화를 얻은 것이다. 30일이었다. 공의 부인이 병체가 몹시 위중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공은 나라 일이 위급하므로 아내의 병과 같은 것은 미처 생각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김양간(金良幹)이 서울에서 영의정 유성룡과 병조판서 신충겸(沈忠謙)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거기에서 공에 대한 분개 한듯 한 뜻이 있었다. 그 편지 가운데 공이 머뭇거리며 앞으로 싸우려 나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천년을 두고 탄식할 일이었다. 그러나 공은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았다. 이날 곤양(昆陽)은 병이 나서 돌아 왔다.

(31)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도 탓하지 않았다.

9월 3일이었다. 새벽에 임금님의 밀지(密旨)가 들어왔다. 그 가운데 「수륙 여

러 장수들이 팔장막 끼고 서로 바라다 보면서 한 번도 계책을 세워 나아가 싸우지 않는다」 하였다. 공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8년 동안이나 해상에 있으면서 결코 이별리가 없다. 맹서코 여러 장수들과 죽기를 결심하고 나라의 은혜를 갚을 뜻이 나날이 굳어가지만 다만 험한 곳에 응거하여 소굴 속에 들어 있는 적이라 경솔히 나아가 칠 수는 없는 것이다. 머우기 병법에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만 백번 싸워도 위태함이 없다. 하지 않았느냐?」 하였다. 공은 또 초저녁부터 불을 밝히고 홀로 앉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라 일이 차츰 위급해 가지만 안으르는 전질 길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할까?」 하였다.

이때 마침 흉양 배흥립(裋興立)이 공이 혼자 앉아 있는 줄을 알고 들어와서 밤 열두시까지 이야기 하다가 갔다.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싸우려는 충무공이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였으랴 마는 그러나 공은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도 탓하지 않았다.

(32) 공의 밑에 있는 것을 시기하는 원군

9일이었다. 여러 장수들이 활쏘기를

할 때 전라, 충청, 경상도의 수사들이 다 모이기로 되었지만, 원군수사만이 병을 핑계하고 오지 않았다. 이것은 충무공이 백방으로 인화를 도모하려 했지만 나라의 이익보다 자기 일개인의 출세욕이 앞섰고 또 충무공 밑에 있는 것을 항상 시기하고 있는 탓이었다.

(33) 부하 장병들에게 썩박질과 씨름을 시켰다.

21일이었다. 공은 사정(射亭)으로 나아가 서류를 처결하고 여러 장수들에게는 뛰어 넘기를 하게 하고 군사들에게는 씨름을 하게 하여 밤이 깊은 뒤에야 각각 헤어졌다. 이 역시 공이 경기를 시키어 장졸간의 인화를 꾀한 것이다.

(34) 이일(李鎰)이 모함한다는 말을 듣고 공은 장기만 두다.

올미년 정월 21일이었다. 종일 가랑비가 내렸다. 공은 이경명(李景明)과 내기 장기를 두고 있을 때 장흥이 찾아왔다. 그에게서 순변사(巡邊使) 이일의 처사가 극히 나빠 다 말할 수 없고 또 공을 해치려고 무척 애쓴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공은 장기만 두고 다만, 웃

어 넘겼을 뿐이었다.

(35) 논박을 받고 돌아가는
부하에게 술을 주었다.

2월 16일이었다. 함평공의 원 조발(趙撥)이 논박을 당하고 돌아가므로 공은 그에게 술을 먹여 보냈다. 공은 이렇게 술을 사람에게 주어 볼평을 풀게 했다.

(36) 원균의 그릇된 말을 듣고 놀래다.

20일이었다. 우수사 장흥과 신조방장이 찾아와서 공은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다. 원균의 흉칙하고, 망발된 행동을 많이 진했다. 공은 이 말을 들을 때 그가 나라를 그릇칠까 놀랐다. 4월 18일이었다. 공은 식사 후에 대청으로 나아가니 우수사 및 가리포, 미조항(彌助項), 웅천(熊川), 사도(蛇渡)와 이의득(李義得), 발포(鉢浦) 등 삼도(三道)의 장수들이 다 함께 모이어서 활쏘기를 했다. 또 원·신·두 조방장도 다 함께 모였다. 공은 이렇게 활쏘기를 시키어 인화를 꾀했다.

(37) 부하의 생일을 축하하였다.

6월 26일이었다. 공은 식후에 나아가

공무를 보고 쌀 15순을 쓰았다. 경상수사 권준(權俊)이 찾아왔다. 오늘은 바로 언경(彦卿), 영공(令公)의 생일이라 하므로 국수도 만들어 주고 술도 마시게 하며 몹시 취한 뒤에 거문고 소리도 듣고 피리도 불고 하다가 저물어시야 헤어졌다. 이것은 공이 남의 생일을 기념하며 오래 살라고 국수도 해 주고 술도 마시게 하고 또 거문고와 피리소리를 들려 주므로 인화를 도모한 것이었다.

(38) 전물장병들의 제사를 지내다.

7월 14일이었다. 공은 군사들에게 만미를 주고 녹도 송여종에게는 쌀 두 섬을 주어 전물장병들의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39) 잔별하는 부하에게 시를 지어 주다.

14일이었다. 늦게 나아가 공무를 보고 있노라니 우수사와 경상수사가 함께 같이 와서 이별주를 마시다가 밤이 깊어시야 헤어졌다. 또 특별히 선수사(宣水使)에게 단시를 지어 주었다. 이것은 공이 교락을 함께 한 사람에게 술과 시를 주어 인화를 꾀한 것이다.

15일에는 선수사(宣水使)가 와서 작별 인사를 하므로 공은 또 이별주를 마신 뒤에 헤어졌다.

(40) 유성룡에게 유자(柚子)를 보내다.

17일이었다. 공은 식후에 서울에 편지를 써 보냈다. 김희번(金希蕃)이 임금에게 상계(狀啓)를 가지고 올라가는 편에 유자(柚子) 실존 개를 보냈다. 이것은 공이 아첨하는 뜻이 아니요 순수한 우정에서 나온 일이었다.

(41) 항복한 왜(倭)들에게 술을 주다

11월 1일이었다. 공은 항복한 왜들에게 술을 주었다. 공은 왜인들이 비록 원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치럼 관대한 것이다. 병신년(丙申年) 정월 8일이었다. 왜인 5명이 들어오므로 공은 그들이 온 까닭을 물으니, 저희 장수들의 성질이 악할 뿐만 아니라, 또 일도 너무 많이 시키어 도망해 와서 항복한다 하였다. 이것을 보면 왜의 장졸간에는 인화를 얻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42) 작별하는 부하에게 종이와 칼을 주었다.

2월 5일이었다. 사도 장흥이 일찍 왔으므로 공은 그들과 아침을 같이 먹고 또 권숙이 돌아간다고 인사하러 왔으므로 종이와 허리에 차는 칼을 보내 주었다. 오후에는 삼도(三道)의 여러 장수를 불러 모으고 술과 밥을 주어 위로하고 겸하여 활쏘기를 하니, 그들은 풍악을 즐기고 술이 취하도록 마시다가 헤어졌다. 7일에도 공은 오후에 군사들에게 술과 밥을 주고 장흥, 우후, 낙안, 홍양을 불러 함께 이야기하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헤어졌다.

(43) 예물로 받은 쪽떡을 부하와 같이 먹다.

14일이었다. 경상수사가 공에게 쪽떡을 가져왔으므로 낙안과 녹도를 불러 술과 떡을 주었다. 강진(康津)이 와서 보이므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게 했다.

(44) 부하 장사들에게 검술을 시험했다.

6일이었다. 공은 함평, 남해, 다경포, 만호들의 검술을 시험해 보았다. 이것은

부도를 통해 인화를 피함이었다.

(45) 어사(御使)와 함께 정답게 담화하다.

10일에는 서울에서 어사가 내려왔다. 공은 그와 촛불을 밝히고 이야기 하다가 헤어졌다. 11일에도 어사와 자유로히 담화하였고 장사들에게 술과 밥을 먹인 뒤에 환초기 10회식을 시켰다. 13일에도 공은 어사와 함께 배를 타고 늦고 포구로 나아갔으나 남풍이 크게 불어 나아 갈 수 없으므로 선인암으로 가서 종일 담화하다가 날이 어둡게 되어서야 서로 작별했다.

(46) 진중에서 국사를 읽다.

25일이었다. 비가 종일 왔다. 공은 홀로 다락 위에 앉아 있었다. 온갖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 우리나라 역사책을 읽다가 뜻내 개탄했다. 무인(武人)으로 국사를 읽을 때 생각컨대 여러가지 느낀 바가 있었을 것이다.

(47) 자기 뜻을 모르는 부하의 말을 웃어 넘겼다.

6일이었다. 공은 일찍 나아가 공무를 보았다. 거제의 안위(安衛)와 김충민(金忠敏)과 삼천포가 만나보러 왔다. 이곤

섭의 편지도 왔다. 그 사연 중에는 입석(立石)의 잘못을 많이 말 했는데 공은 다만 웃어넘겼다.

(48) 죄수차에 실려가는 충무공을 보고 통곡하는 백성들

정유년(丁酉年) 정월 21일이었다. 공은 마침내 원균의 모함으로 인하여 2월 26일에 조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게 되었다. 2월 26일에 공은 죄인의 몸이 되어 서울로 잡혀 올라갈 때 절가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길에 매어 「사도(使道)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사도님은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을 길 밖에 없습니다.」 하고 슬피 통곡했다. 이것은 공이 평소 부터 백성들에게 인화를 얻은 까닭이었다. 3월 4일부터 월말까지 공은 여울한 옥중생활을 했다. 4월 1일이었다. 원균의 말대로 하면 공은 당연히 사형을 받아야 하겠지만 전공(前功)이 아까우므로 임금께서 다만 서민의 몸으로 권틀원수(權標元帥) 막하(幕下)에 있게 했다. 7월 16일이었다. 공을 대신하여 통제사가 되어간 원균은 과연 크게 패하여 삼도의 수군은 전멸 당했다. 8월 3일이었다. 한산도의 패보가 서울에 이르자 백성이 모

두 공포에 떨었다. 임금께서 신하들에게 대책을 물으니 황공해 할 뿐 무어라 답변하지 못했다. 이때 경림군(慶林君), 김명중(金命重)과 병조판서 이항복(李恒福)이 임금께 아뢰기를 『이것은 다 원군의 죄입니다. 다만, 이순신을 다시 기용하여 통제사를 삼아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은 그 말대로 했다.

(49) 충무공이 다시 통제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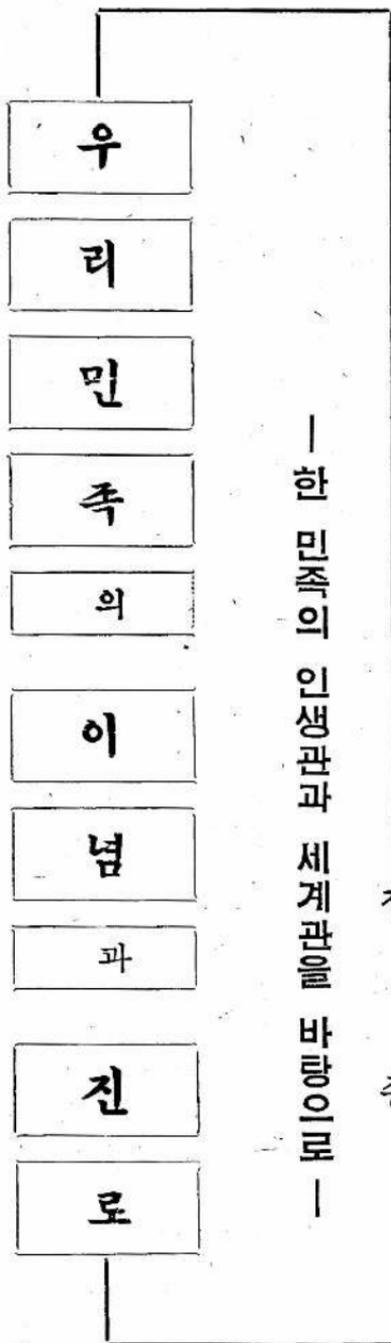
이 말을 들은 여러 장수들은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공은 바로 군관 9인과 아병 6인을 인솔하고 진주에서 달려오니 육천 피난민들이 길에 매이며 바라 보았다. 장정들은 자기 처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천천히 따라오라. 나는 먼저 이 순신 장군을 찾아가겠다.』 하였다. 이렇게 모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 마침내 정병 60여명을 얻게 되었다. 순천, 곡성(谷城)으로 들어가서 갑옷을 입고 다시 출발했다. 보성(寶城)으로 갈 때는 이미 군사가 1백2십여명이었다.

(50) 충무공의 서약을 듣고 감동하는 병사들

18일에 공이 회령포로 가니, 전선(戰船)이란 다만, 10쌍밖에 없었다. 전라우수사를 불러 병선(兵船)을 수십척 하고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거북선을 꾸며 놓게 하여 수군의 위세를 조장케 하고 군사들에게 맹서하기를 『우리는 다 함께 왕명을 받았으니 의리상 다 함께 죽어야 한다.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한 번 죽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아까워 하겠느냐? 오직 죽을 때까지 싸울 뿐이다』 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장수들은 모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51) 충무공의 위대한 인화력

공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인화를 크게 얻어 16일에는 전선 12쌍(戰船十二隻)으로 바다에 뿔쳐오는 왜선 333쌍(倭船三百三十三隻)을 울물목에서 조국의 용명이 좌우되는 전무후무의 대전공을 세웠던 것이다.



(1) 천도와 환도의 역사

1950년대에 와서 우리가 몹소 겪은 바 그대로 한국의 장구한 정치사 내지 전쟁사는 인방 타국처럼 승승장구하여 적국을 보기 좋게 무찌른 승리와 득의의 기록이라기 보다는 한 마디로 말해서 천도와 환도를 거의 주기적으로 되풀이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불운과 굴욕의 역사였다. 이른바 한국의 정치적 원한의 역사는 특히 서기 제10세기의 초엽에서 제14세기의 말엽에 걸친 바 대략 470 여 년 간의 고려조에서부터 뚜렷해 진다. 바꾸어 말하면 융성을 극한 대당 제국이 멸망한 서기 970년을 전기(轉機)로 하여 한민족의 힘이 한번 크게 꺾이고 북방계의 여러민족이 걸차로 대두하게 되는 때 서부터인 것이다.

려배조가 즉위한 것이 글안(契丹=遼)의 태조(야율아보기)가 황제를 칭한지 2년 후인 서기 918년이며 글안의 세력이 동점(東漸)하여 발해국을 멸망시킨 것은 또한 그 뒤 8년 쯤의 일에 속한다. 이러

하여 고려와 글안파의 피의 교섭은 발해국 멸망의 전후에 비롯하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950여년 전에 글안도 문주노(文諫奴)가 고려를 침구하자 8대 현종은 개성에서 나주로 천도한 뒤 약 40일 만에 환도했고 그 뒤 몽고의 전후 6차례에 걸쳐 침구로 23대 고종이 또한 강화도로 천도한지 전후 30년 만의 원종 때 환도했고 31대 공민왕 때에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북주(경북, 안동)로 천도했다가 15개월 만에 환도했고 이조로 들어와서는 14대 선조가 왜구(倭寇)의 보를 받고 의주로 도망쳤다가 약 1년 반 만에 환도했고, 16대 인조시대에 이르러는 이른바 인조삼천(仁祖三遷)의 역운이 꼬리를 물고 뒤달았다.

이괄(李适)의 반란으로 15일간 공주로 피난, 그리고 여진(女眞, 후에 金)의 침구로 강화도예의 천도가 2개월 여만에 풀렸고 14년에는 마침내 청(淸)의 대거 침구로 저 치육의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인조는 남한산성의 문을 몸소 열고 삼전도(三田渡) 송파(松坡)에 나아가 청태종 앞에 엎드리는 성하(城下)의 맹(盟)을 맺고서야 47일 만에 환도했다(삼국사기, 고려사, 이조실록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은 것은 931회에 달하며 그 중 이조시대 만도 360회 이상이

된다고 한다.)

오랫 동안 한국을 사랑하고 또 연구해 온 양심의 일본인 「야나기 무네 요시」(柳宗悅 1889—1961)씨는 그가 지은 「조선과 그 예술」(1922년 발행)에서 한국의 역사를 일컬어 「대외사」(對外史)라고 한 바 있거니와 이는 곧 한국사 전체의 주요 계기가 보다 더 대외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다. 이에 비하여 외침이라곤 일찌기 한번도 받아 본 일이 없는 일본의 역사는 우리의 것과는 정반대로 단순한 국내사라고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외적에게 시달리는 대신에 자연의 폭위(暴威) 특히 격심한 천변지리(天變地異)와 싸워서 지만큼 강인한 민족이 되었다고 하겠다. 두 나라의 민족성의 차별상이 주로 이러한 자연적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계약의 상이에서 오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우리의 역사는 시달린 역사이며 항쟁의 역사다. 끝일 새 없는 전쟁(戰災)과 피난, 그리고 천도와 환도의 거의 공식화된 반복 속에서도 오히려 굳지 않는 저항과 방어의 피어린 역사였다. 항시 북호남해의 외적과 대립하고 항거하고 또 교섭하고 담판하는 긴장과 시련과 수난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우리 민족은

★ 우리 민족의 이념과 진로 ★

강철같이 굳어졌으며 따라서 어떠한 강적이라 할지라도 한번이고 항전하지 않고 물러선 적이란 없을 뿐 아니라, 저고구려의 살수대첩이나 이조로 내려와서의 한산도 해전의 승리의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국난에 부딪칠 때마다 최후의 순간에 다달아서는 반드시 구국제민의 영웅은 출현하였고 홀어진 힘과 뉘을 언제나 크게 봉쳐 멸적(滅敵)의 창검과 방패가 되어 나타났으며 더 나아가서는 대륙의 강대국에 최후의 일격조차 불사한다는 용맹무쌍한 복벌계획을 책한 것이 또한 한 두번이 아니었으니 실은 이러한 연변 부절의 국난의 시련 속에서 도리어 인내하고 감투하는 강철같은 민족성이 양성되었고 더욱 어느 민족에게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그 엄청난 생존력은 이 나라 이 민족으로 하여금 4천 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단일 민족으로서 반만년의 질거고도 역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2) 한국의 반도성(半島性)

한국의 역사는 반도 그 자체가 대륙의 동녘에 위치하고 중국의 변경에 직결되어 있다는 하나의 숙명적인 지리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방향 지워지고 있

음을 본다. 아시아 대륙과 남방 해양과의 중간에 선 그 위치는 대륙과 해양 그 자체가 부여하는 일체의 제약과 영향을 극복하고 모면하기에는 너무나도 불리하고 가난하고 또 고단한 자리였다. 우리의 민족은 어디까지나 반도 민족이며 우리의 역사 또한 어디까지나 반도사(半島史)며 우리의 문화 또한 어디까지나 반도 문화다. 반도라는 중간적 내지 교량적인 지리적 성격은 곧 우리 민족에게 정신적인 반도의 성격조차 지니게 했다. 지리적 반도성이 우리에게 마칠내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반도성을 철저히 부식 형성해 준 것이다. 반도가 대륙과 해양과의 중간 지역인 것 처럼 반도성은 곧 대륙성과 해양성과의 중간성격인 것이다. 우리가 지니는 모든 것 속에는 대륙적인 것과 해양적인 것의 양면성이 의중계 공서(共棲) 관계를 맺고 있다. 결코 단조롭지도 또 반드시 조화되지도 않은 풍성한 다양과 더불어 위대한 카오스가 거기엔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병도(李丙彦)씨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네의 의복에서 그것을 보더라도 반은 대륙적이고 또 반은 해양적이어서 중국 의 그것 처럼 훌쩍하면서도 일본의 그것 처럼 또한 펄렁집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네 의복은 상하가 모두 같이 개방적이

면서도 속박적이다. 그리고 질신이나 가죽신에서 발달해 온 요즘의 고무신을 보아도 폐쇄적인 북방 대륙의 것이나 서양의 그것과 아주 개방적인 일본의 「게다」나 「조리」(草履)와의 중간적인 형태이며 우리들의 가옥 구조도 역시 그와 같아서 온 집이 창문으로만 되어 있다시피 한 일본 집과 창도 문도 그다지 많지 않은 폐쇄적인 중국 집과의 조화적인 형태이다.

가옥의 윤곽선의 경우도 또한 비슷하여 우리의 것은 일본것 보다는 대륙의 그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륙의 가옥은 일반적으로 선이 굵고 강한데 반하여 우리의 것은 처마를 보더라도 선이 무척 부드럽게 보인다. 그러나 일본 것은 아주 가늘고 또 보쪽 보쪽하다. 그러나 우리의 것은 다소 대륙적이면서도 역시 중간적, 절충적 다시 말해서 조화적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야나기무베요시의 설을 따르면 대륙 국가는 언제나 대륙에 안정하고 바다 속의 섬 나라는 작으나마 주어진 국토를 알뜰히 사랑한다. 이에 반하여 반도의 나라는 항상 오히려 대지를 떠나려는 마음이 앞서 도무지 애착이 라곤 없다. 따라서 대륙의 역사는 항상 강대하여 부동하고 섬 나라의 그것은 안

락의 역사이며 반도의 그것은 항상 애절히 흐르고 있는 역사다.

거기서 개화되는 문화들도 그 형태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는 일이니 이제 그 한 보기를 미술 분야에서 들어 보는데, 대륙은 노상 굳세고 규모가 장엄한 형(Form)의 예술을 자랑하고, 섬 나라는 즐겁고 아름다운 색(Color)의 예술을, 그리고 반도는 쓸쓸하고 유연한 선(Line) 곧 선중의 선인 곡선의미를 자랑한다.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곡선의 미는 비단 미술 분야에만 나타나는 특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 예술을 전 문화에 그리고 전 역사에 한결같이 나타나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일제 생활과 그 모든 양식이 또한 그것에 의하여 착색되고 특징지워져고 있다는 것이다. 석굴암의 관음보살상을 위시해서 한국의 고유한 기와집 저붕의 선이나 식칼(食刀) 또는 버선 그리고 고무신 나아가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물의 하나인 수양버들이며(柳陰水禽之圖) 동물의 하나인 학(무늬로서의 윤곽은 그 표현)과 물오리 등등은 모두 곡선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인 것이라고 했다.

우리 조상들의 배어난 예술적, 창조적 천품은 그 타오르는 예술적 의욕의 표현

의 길을 안정이 없고 기쁨이 가진 좁은 땅, 작은 재로에 부드럽고 질기고 또 가느다란 선의 굴뚝거리는 운동으로 나타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이 아름다우려면 곡선이 되어야 한다. 직선이란 형(形)의 변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선의 생명은 곡선에 있다. 우리 조상들은 일찌기 그 받도의 알뜰하고 오붓한 대지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쁨과 설음을 정녕 마음에 흡족한 생동의 선 위에 다 남김없이 표현하려 하였던 모양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세계에서든 뛰어난 예술 민족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리라.

(3) 한민족의 지상 본위 사상

그러나 아름다운 한국의 하늘처럼 기쁘고 아름다운 자연의 은총 위에도 역사는 시달리고 짓밟히고 억눌려 압담하고 그 생활은 가난하고 고르지가 못하여 거제의 얼굴은 항상 찌프리고 그 마음은 갖은 설움과 시름에 젖어 항상 기쁨과 웃음을 모르고 지냈다. 그래서 한민족은 즐거움을 들어 내는 색깔의 웃을 잃어했고 그렇게 많은 도자기 중에서도 별로 화병을 만들지 않았고 또 인형이나 장난감 만들기를 즐기지 않았다고 전해 온다.

(야나기 무네요시설) 시름 없는 생각에

미소 잃은 얼굴, 서글프고 안타깝고 애달픈 한국의 마음은 정명하고 운백한 한국의 자연과는 바로 대조적인 것이었다. 자연은 미소지으나 그 역사는 오열에 잠기는 듯 했다. 그 본래의 바탕은 자연을 닮았으면서도 사람들의 인위적인 영위가 그것을 굳이 거역하고 있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락에는 애조와 시름이 깃들었고 그들이 추삭이는 말에는 영탄과 탄식이 뒤범벅 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한국의 미는 청초의 미 그리고 애상의 미, 연약의 미가 된 것이다.

우선 시조 문학에서 한 보기를 들자면 종장의 첫구 3자에 <어즈버>라는 감탄사가 혼해 빠졌다. “어즈버 태평 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길재(吉再) 또는 “어즈버 단산나월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신희)는 식의 말 하자면 <어즈버 노래>가 곧 그것이다.

일체를 사주말자 소관으로 물리려는 천저한 숙명론에 안입입명할 길 밖에 다 른 도리가 없었으니 체념과 판단 중지(epoke)와 의욕 말살과 집념 포기와 세간 도피와 은둔을 위주로 하는 소극적 염세적인 경향은 그들을 몰아 퇴폐와 왜곡과 풍자와 해학의 외면 길로 쓸달음질치게 했다. 전체의 색조는 염세적임이 틀림없으나 체념과 달관에 의한 무기(無

記)의 상태 때문에 오뇌를 차라리 잊은 듯한 허탈의 심경과 자포자기 또는 허무적인 자학에 가까운 무관심 내지 불관여의 초연한 태도가 밑바닥을 조용히 그려나 끈질기게 흐르고 있는 성실다.

“두어라 알리 있을저니 흠인 듯이 있거라”(윤 두서)든지, “두어라 물유 성쇠니 한할 줄이 있으랴”(최충) 또는 “두어라 춘풍이 벗 날이리 울대로 울어라”(효충) 등등에서 보는 말하자면 <두어라 노래>가 또한 그 소식을 전하고 있다.

방원의 하여가(何如歌)에서도 또는 “나비아 정산가자 범나비 너도 가자”는 무명씨의 노래에서도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라는 식의 주주낙낙(酒酒落落)한 초탈적 내인적인 태도를 엿볼 수 조차 있는 것이다. 정도전(鄭道傳)의 “아희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삼하리오”나 “아희야 시절이 좋을 손 옷이 져다 관계하랴”(이재)나 “아희야 절심도 하려니와 외상 락주 내어라”(김창업)에서도 우리는 한국적인 체념과 초탈 또는 주탄(酒脫)의 경지를 읽는 것 같다. 말 하자면 <아희야 노래>가 대개 그렇고 또 <아희야>가 바로 그것을 뜻하거니와 <아마도>로 시작되는 종강의 노래라는 것도 대개 그 심경과 상통하는 메가 있는 것이다.

그 외에 “벼슬이 좋다 한들 내몸에 비길소냐”(신정하)의 초장으로 시작되는 탈육의 뜻을 읊은 노래나,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라는 김인후(金麟厚)의 저 노래도 필경 이와 비슷한 심경을 피력한 것이거니와 한국인의 인생을 보고 세계를 관조하는 심정 속에는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유교적인 집념이 지나치게 강인하면서도 또 이를 폐리처럼 초연히 내동댕이 치고도 돌보지 않으려는 불교적인 탈육애의 초인적인 의지가 또한 깃들여 있음을 우리는 간파할 수가 없다.

체념에서 초탈애로, 초탈에서 허무애로, 또 허무에서 해탈의 경애(境涯)애로의 질적인 비약 속에는 확실히 오랜 도교적, 불교적인 사상의 영향이 밑받침되어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유태인처럼 학대와 박해 속에서 산 민족이면서도 민족 고유의 종교를 일본처럼 두드러지게 이룩하지 못한 것은 한민족의 성향 또는 자질이라는 것이 그 청명한 지리적 자연적 호조건에 힘입어 마치 반도의 나라 피랍 민족에게서 처럼 본래의 바탕이 침잠적 비현실적 종교적이지 아니고 오히려 디오니소스적이며 예술적인 메에 그 이유가 있는지도 모른다. 지상애의 향수와 집념은 속에서 불길치

럼 타고르건만 정치적 역사적 제반 조건이 마침내 그 본래의 뜻을 받들어 주지 않은 바 되었고 노상 지상의 부락에 대한 회구가 배반을 당함에서 오는 환멸의 비애와 체념과 염세 관념이 그들로 하여금 2차적으로 종교적인 것들로 사뭇 기울게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와 아울러 한민족은 대체로 로고스적이기 보다는 파토스적이요, 과학적이기 보다는 예술적이요, 산문적이기 보다는 운문적이요, 그러면서도 몽상적이기 보다는 너무나 또 현실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 색조는 이른바 아포로적이기 전에 디오니소스 적인 것을 부인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위대한 꿈을 위하여 현실을 등한히 할 수 있을 만큼 생활이 유족하지도 않았고 또한 그러기에는 그들에게 현실은 너무도 항상 다급하고 각박하여 여백이라곤 없었다. 현실의 엄폐임을 풀어보려는 비현실적인 것애의 절기찬 추구가 없는 바 아니로되 본래의 바탕 그것인 즉 비현실적인 것도 아주 천상적인 것도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오히려 현실긍정의 강한 외향적인 경향 조차 있음을 부인할 길이 없다.

형식과 번문옥례와 의화와 체면 따위에 마음이 끌리는 경향은 단순히 오웬

유교적, 교양에서만 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불교적인 그것과 더불어 한민족의 본성 속에 깊이 자리잡은 뚜렷한 경성이라고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때문이 있는 것이다. 특히 정주학의 한국적인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유교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과의 단순한 의형적이 아닌 본질적인 결합의 양상을 엿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기(修己) 치인(治人)의 근본 사상을 위시해서 입신 양명과 관준사상이며 비판정신의 철저한 부인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유학 사상의 무비판적인 수용과 긍정은 바로 그러한 경성과의 필연의 일치였다고 할 만한 것이다.

(4) 한국인의 <우리> 의식

상술한 바 한민족 고유의 현실 긍정 사상의 진정한 표현으로서 우리는 건국 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의 정신을 지적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일상 용어 가운데 가장 즐겨 쓰고 또 가장 많이 쓰는 말의 하나에 <우리>라는 말이 있음은 위의 경우와 통하는 점이 될 것이다. (한국어 어휘 사용 빈도 조사 제1편에 의하면 그 순위는 24위로 되어 있음)우리들은 보통 <나>라는 1인칭 단수를 써야 할 때 조

차도 의례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쓰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물론 국가 전체도 은 세계도 아니고 한 <울>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대가족주의적 가문 전체를 가리키는 데 그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봉건 체제 하에서 가문이란 그 가족 전원에 대하여 결국 국가 또는 사회를 의미하였고 따라서 소국가의 구실을도 맡아 한 것임이 틀림 없다. 근대 서양인의 발견(18세기)에 의한 <개인> 따위는 여기선 전연 문제도 되지 않았으니 가문중의 한 개인이란 천두췌미 가문 전체를 위한 하나의 기능적인 또는 분기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여기 <우리>라는 전근대적인 개념 속에서 필경 국가도 사회도 민족도 잃고 개인도 마침내 발견하지 못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우리>의 긍정과 <우리>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바로 유교적인 영향과 한민족 교유의 정신에서 오는 현실 긍정사상 또는 세간적 지상 본위사상의 회담적인 계기의 표현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것이다. 또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저 유대민족처럼 세계의 집사가 되어 유랑의 역사에 끝내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말았을지도 모

를 일이다.

한민족 속에는 민주인, 봉고인, 한인, 애인 및 남방인 기타 여러가지 이 민족의 피가 섞였으면서도 그 중심 혈통은 연면 부절 하여 항상 다른 핏줄기를 병탄 함 류시키고 마침내는 작으나마 즐기찬 민족혈의 혼연일체를 형성함에 이르른 한 것이다. 이는 곧 한민족 본래의 강인한 현실 긍정의 민족성과 자주 독립의 민족혼에 연유해 온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리라.

(5) 한국의 <멋>

우리는 끝으로 한민족이 위에서 처럼 지승이나 가공적 또는 봉환적인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이승과 그 생활적 신체적 또는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하여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의 한 두드러진 표현으로서 <멋 있는 생활>을 동경하였고 또 누구나가 <멋을 지닌 사람>—<멋장이>—가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 왔다는 하나의 특징적 사실에 한민족 본래의 민족성에 근거를 둔 교유의 인생관 내지 세계관의 집약적 표현 양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오랜 역사를 두고 <멋>은 한민족에게 있어서 고유한 이상적 인간상이

★ 우리 민족의 이념과 진로 ★

있기 때문이다.

<멋>이란 따지고 보면 인간 본위의 현실 긍정 사상에서 우리나라 한민족 특유의 인간관으로서 심신의 조화와 영육의 일치에서 우리나라의 인간의 운치며 인간의 이상상(理想像)을 말한다. 그것만이 최초의 멋이며 또 최후의 멋—따라서 궁극의 멋이기 때문이다. 자잘한 일상의 특수한 멋들은 근원을 캐보면 모두 여기서 나오고 또 여기서 전화(轉化)될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

<멋>이란 말은 본시 <맛>이란 말에서 유래한 것 같으며 따라서 <멋진 사람>은 곧 <맛이 있는 사람>을 이룸하며 다시 말해서 인간미가 넘쳐 흐르는 인간의 뜻이 된다. 하나의 가능태로서 주어진 인간의 양극성으로서의 심신이 인간 각자의 눈부신 노력에 의하여 이상적으로 조화, 통일될 때 비로소 여기에 인간으로서의 <맛> 곧 <멋>이라는 것이 절로 배어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조화적인 상태 곧 다양한 통일로서의 소우주(小宇宙)가 옛 성인에게서처럼 실현될 때 거기에 풍기는 맛 또는 아취며 향기(flavor)다.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나 <멋>을 지녀야 하는 것, 그래서 <멋>은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

습이라고 생각 되었기에 한민족은 오랜 역사의 전통 위에서 꾸준히 이를 닦음으로써 한 개인이 인간적인 완성은 물론이요 나라의 응성과 겨레의 선양까지 피하였던 것이 아니겠는가. 신라의 화랑도(花郎徒)는 바로 그러한 <멋>의 집단이었던 것이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라고 읊은 민족의 영웅 충무공의 인간 속에서 우리는 문부가 겸진한 인간의 이상상 곧 심신의 조화가 일찌기 인류의 역사 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이상적으로 구현된 모습—화랑의 후예가 아니고는 아니 인간의 멋을 완벽에 가깝도록 지닌이가 아니고는 미들을 길조차 없는 <멋>의 극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그 역사 위에 이러한 <멋을 지닌 이>들을 그 정도엔 차이가 있을 재언정 허다히 등장시켰으니 선덕여왕이나 원효대사를 비롯해서 황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선에 따르는 이들이라 할 것이다.

일찌기 회람 사람들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의 미차선(美且善)(kalokagathia)이나 영국인들의 전례적인 인간의 이상상(理想像)으로서의 <신사>나 슈터(Schiller)의 이상적 인간의 모습으로

서의 이른바 미혼(美魂(Schoene Seele)의 사상 및 현대의 전인(全人) 사상들은 모두 우리의 <멋>의 서양적인 표현과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한민족의 뛰어난 예술성과 집요한 현세성과 숭고한 인간성을 <멋>의 정신에서 읽을 수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멋>의 정신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완성과 인간의 지상에서의 미적(美的)=진적(眞的)=선적(善的) 전개를 최고 가치로서 인정하려는 현대적 휴머니즘의 전형적인 표현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멋>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이면서 그 이상의 것을 그리고 어디까지나 시간적이면서 영원한 것을, 또 어디까지나 내적이면서 외적인 것을, 그리고 어디까지나 인간적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인간 이상의 말 하자면 하나의 신인격(神人的)인 영원의 이상상(理想像)을 추구하고 동경하고 사모하고 선망하는 전통적인 민족심의 애절한 표명이기도 하다.

인간의 참된 모습이란 오로지 여기 양자 곧 양극을 아울러 포괄하고 또는 조화 통일시키는 제3의 경지에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민족은 그처럼 시달린 길고 긴 밤의 역사 속에서도 그 미소짓는 이 땅의 태양을 닮아 항상 청명함을

사랑하여 이처럼 간절하게도 지상과 모든 질서를 한결같이 사랑해 온 민족이면 서 또 그만큼 지상의 사랑을 거절 당해 온 민족도 없으므로 이제 역사만 제대로 전개된다면 천하의 어느 거래 보다도 세상을 구가하고 지상의 복락과 영화를 위하여 사자분신(獅子奮迅)하는 민족이 되기도 할 것이다.

남은 시대의 침략과 살육의 역사에서 처럼 외세의 무단의 지배를 받는 바 없이 이제까지의 이른바 대외사가 마치 일본의 그것처럼 순진한 국내사로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전환이 이룩될 때 한민족에게 있어선 벌써 사대와 모화(慕華)도 당쟁도 민족의 분열 또는 상잔(相殘) 따위도 일어날 턱이 없으므로 여기에 민족 본래의 속성으로서 단일민족 유지의 지력이 되어 온 무서운 단결력과 용맹심이 솟구쳐 국력의 내적 충실에만 향하게 될 것이 아닌가.

왕왕이 한민족에게만 고유한 성격처럼 지목되어 온 바 일체의 악성은 모두 따지고 보면 역사가 명시하는 바 대로, 외태의 강대 세력에 본의 아닌 굴복과 인종을 강요당한 필연의 결과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온 세계가 민주화의 때를 맞이

록 그 목적지까지는 요원하다고 할지라도 보루 당당하게 질주하고 있음이 사실이고 나아가서는 세계적 국가연합의 기운이 또한 점차로 증대되어 가고 이러한 민주 기구를 통한 세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전인류의 기원과 성의와 노력이 날로 주효하게 되는 날이면 세계는 미구에 남은 시대의 유물일 살인 전쟁의 역사와 완전히 결별하고 말하자면 <무전쟁 시대>가 실현되는 새 역사를 펴게 될 것이며 또 그 날이 오면 한민족은 남

북의 분열과 상박 따위는 물론 북호 남해의 무단 침구가 자취를 감춘 아늑하고도 오붓한 조토강산 아닌 금수강산의 울안—한반도에서 그 천래의 창조력과 발명력을 심본 발휘함으로써 또 다시 세계문화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기여하는 새로운 봉사과 증여의 역사 곧 홍익인간의 건국정신을 중의에 발양(發揚)하는 신기원을 이룩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박 대통령 문언록에서

◆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민족사의 문턱에서 있다. 이 새로운 민족사는 밖으로 호혜평등의 위치에서 가슴을 펴고 세계 무대에 진출하여 민족의 영광을 차지하고, 안으로는 우리의 지상과제인 조국 근대화 작업을 하루 속히 성취함으로써 자립과 번영을 누리는 통일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이 정신무장과 기술무장이다. 「의욕을 가진 사람」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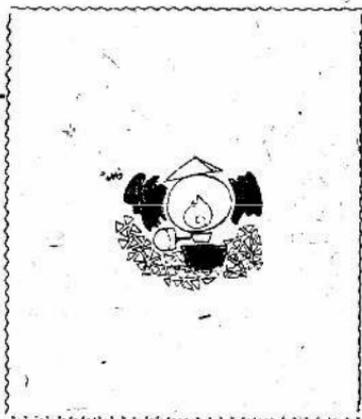
민족전통과 청년

윤

영

준

<경희대 초급대학장>



1. 민족의 흥망

민족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그 민족의 가진 바. 자주, 자립, 자조의 정신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른바 주체성을 갖고 꾸준히 전진하는 민족은 언제나 흥하는 것이며 이를 상실한 민족은 망한다. 자주성이니, 주체성이니, 자립, 자조의 정신이니 해서 여러가지 자도로 민족중흥의 기틀을 마련할 만한 표어를 내어 걸고 안간 힘을 다 해가며 탐을박질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것들의 밑바닥이 될 만한 기본적 요소는 아무래도 창의성(創意性)인 줄 안다.

창의성이 없는 민족은 문명에 참여할

수 없다. 문명에 참여할 창의성은 무엇인가.

1. 문명의 창시자
2. 문명의 시정자(是正者)
3. 문명의 보호자
4. 문명의 전파자

이 네 가지를 소유해야만 문명에 공헌할 수 있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문명한 국민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한가지라도 결여되면 문명의 낙오자가 되고 말 것이다.

「라빌론」이나 「애굽」이나 중국같은 나라는 고대사회에 있어서 뛰어나게 문명을 형성한 나라들이다. 로마나 히랍은 문명의 계승자들이다. 그 뒤 영국, 프랑

스, 독일, 미국같은 나라들이 문명의 제 승자의 위치에서 일단 비약해서 20세기 문명을 보다 높은 차원에 승화시킨 나라들이다.

우리 민족은 자연 풍토가 아름답고 철석이 많으며 버리가 명석하여 문명의 이기(利器)를 발명한 것이 적지 않다.

뛰어난 장군과 예술가도 많다.

중국의 당태종(唐太宗)에게 저저않은 연개소문(淵蓋蘇文)이 있었으며 울거문덕, 강감찬, 최영, 김중서,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있었으며, 사임당 같은 여성도 있었다. 금속활자(金屬活字), 측우기(測雨器) 등을 발명했고 한글을 창제했다.

사실상 르네상스가 동양에서 제작한 종이와 아라비아 사람들을 통하여 서양으로 건너가져 않았다면 르네상스가 것처럼 순조롭게 이룩되지 못했을 것이요, 송(宋)나라의 화포(火箭)가 서양으로 건너가지 않았던들 신대륙을 발견하는데 인디언의 저항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일설에는 총포가 중국에서 발명되었다고 하지만 요즈음 땅 속에서 발굴되는 고적들을 보면 우리도 거의 중국과 비슷한 연대에 이같은 무기가 발명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중

국 역사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는 사실이다. 보라! 중국의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공산은 왕경(王景)이 아년가 그는 수리(水利)연구에 조예가 깊어서 동한(東漢)에서 당대(唐代)에 이르기까지(기원 1세기) 황하를 치수하기를 8백년 동안을 했는데 왕경은 한국사람이다.

기원 8세기 당태종 때에 안서 절도사 고선지(安西節度使 高仙芝)가 파밀 교원(西康)에서 아랍, 티베트, 연합군을 격파시켰다. 고고학자 스테인(Stein)은 나폴레옹의 알프스 전역(戰役)에 비길만하다고 했다. 이로 해서 중국의 문물인종이 유럽에 수출됐다.

청태조(淸太祖)도 한국사람이다.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排戰)과 응답이라고 했거니와 역경과 싸우면 싸우니 만치 보응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못하고 역경에 순응해 버리면 동화되거나 망해버리고 만다. 맹종은 언제나 이같은 올바른 보응을 받지 못한다.

2. 주체성의 확립

이렇게 남에게 뒤 떨어지지 않던 우리 민족은 나당연합군(羅唐聯合軍)이 백제를 쳐부수고 제 힘으로 성공한듯 제국속에서는 공연히 허세를 떨면서 당태종

(唐太宗)의 궁정에 들어가서 김 유신이 절을 하며 아부한 모습은 나라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조에 들어와서 더욱 그러했다.

우리나라 3백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야말로 명나라와 청나라의 종노릇 한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명나라의 숭정(崇禎) 황제의 연호(年號)가 거의 빠짐 없이 우리나라 연호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명나라의 최후 군주인 이종(毅宗)의 연호다. 그는 나라가 망할 때에 부부 함께 죽었다고 해서 후세자들은 순사직(殉死稜)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장하게 여겼다. 때문에 60여년 전에 시인 황매천(黃梅泉)은 우리의 국운을 이를 빙자해서 이렇게 읊었다.

만세정(萬歲亭)이 쓰러지니

우주가 슬퍼하고

유란헌(幽蘭軒)이 불타니

또한 기록하도다.

만세정은 이종이 죽은 곳이고 유란헌은 그의 애처가 불타 죽은 곳이다.

풍자할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교구려, 교려가 그러했고 이조가 역시 그 추태를 재연했다.

명나라 군대가 우리 강토를 짓밟았을 때 민심은 흉흉하고 하늘조차 야속해서 연거퍼 몇 해에 흉년을 내렸다. 백성은

기아상태에서 초근목피로 간신히 연명해 갔다. 쌀밥은 오랑캐 군대만이 먹었다.

하루는 오랑캐 군인이 먹은 밥을 길바닥에 토하니까 굶주린 우리 백성들은 뛰쳐 나가서 그 토해 놓은 머러운 것을 다투어 가며 닥아 먹었다고 했으니 이야말로 금수와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눈으로 보이는 면이 이쯤되기까지는 정신은 얼마나 꼬아빠졌을까! 그 증거가 바로 주체성을 잃고 남의 연호를 빌어다 쓴 것이 아니겠는가! 「나폴레옹」은 개성이 너무 강한 사람이다. 「코르시카」의 일개 무명청년으로 「파리」의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나폴레옹」은 별다른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혁명의 와중에서 반도들을 진압하는데 뛰어난 전술과 과감성을 보이면서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전략가(戰略家)의 이름을 크게 떨쳐 유럽의 거의 전역을 손아귀에 넣고 제왕의 자리에 오른 그의 이름은 종전 곳전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되었다. 대서양의 교토 「센트렐레나」에서 쓸쓸히 목숨을 거둘 때까지 그의 일생은 그대로 스텝 단점의 드러머가 아닐 수 없으며, 거센 파도에 통하지 않는 바위를 연상시키는 인물들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교집합 사람의 흠

걸을 남들이 부어라 트집 잡더라도 제고 집대로 해나갈 때까지 나가야 할 줄 안다. 충도에 끊이기 보다 배짱대로 나가는 기개가 있는 곳에 지기(志氣)가 있고 지기가 있는 곳에 확고한 자아의 주견이 설 수 있다.

3. 자중감(自重感)과 자존심(自尊心)

「링컨」은 젊었을 때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비평하는 나쁜 습성이 있었다. 그가 「일리노이」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제임스·슈일스」를 동자해서 한 말은 너무나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시일스」도 교만한 사람이어서 드디어 「링컨」과 결투하게 되었다. 이 때 「시일스」는 「링컨」을 향해 마음대로 무기를 택하라고 했다. 「링컨」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다. 허지만 사내의 체통을 생각해서라도 그에게 굽히기는 싫고 해서 손을 내민 김에 긴 칼 한 자루를 선택했다.

두 사람은 「미시시피」 모래사장 위에서 결투가 벌어져 한사코 승리하려고 쌍방은 혈안이 되었다. 최후의 일분을 남겨 놓고 그들의 싸움은 조수들의 만류에 겨우 중지되고 말았다. 「링컨」은 이 결투에서 겪은 처참한 경험에서 다시는 남을 비

웃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심리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본 욕망이 있는데 이성과의 사랑과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다」라고 했으며 미국 심리학자 「세임스」는 「인간의 진정한 본질은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보여지기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사람은 자중감(A Feeling of importance)과 자존심(Self-importance)이 있어야 한다. 특히 거만한 사람일수록 이 자존심은 어지간히 강하지만 자기 자신을 자제하지 못한다. 속이 텅텅빈 자존심은 실력없는 자존심이요, 허울좋은 교만 불손에 불과하다. 자존심을 가지기 전에 자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내 조카 이야기를 꺼내기는 좀 어머허지만 그실은 조카인 지인 윤 동주의 시바가 지금 연세대학 캠퍼스에 크게 세워져 있다. 동주 일생을 통하여 북강 형무소에서 옥사하기까지 그는 참으로 깨끗한 생활을 했다. 평소에는 순하디 순하던 양과 같던 그가 민족의 앞날을 설계하던 이야기와 그 무서운 일본 경관의 고문에는 끄떡하지 않고 그냥 자기 주장을 세워나간 점은 나로서는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참으로 외유내강(外柔內剛)에 산 사람이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처해 있던지 속심을 굽히지 않고 소신대로 살아가야 했다. 돈을 필요로 하면서 필요로 하지 않는 척하며, 배가 고프면서도 고프지 않은 척 하는 이 「척」 병부터 제거해야만 진실한 근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서양 사람은 말을 돈이면 귀천의 구별없이 꼭 따라가서 받고야 만다. 자기 노동의 대가를 자기 자신이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심불이기도 하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가 「버크」가 「아이오와」주에서 강연할 때의 일이다. 강연하기 전에 호텔 라비에 앉아 있는데 악기를 든 사람이 무거운 악기를 들고 들어왔다. 「버크」를 호텔 보이로 알고 자비 물 할 잔 가져오게, 그리고 이 짐을 짊어줌으로 옮겨 줘...

「버크」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했다. 「버크」가 땀을 흘리며 짐을 반을 하고 아랫층으로 내려오니 모든 사람들은 당황한 얼굴로 그를 쳐다봤다. 「버크」는 도리어 그들을 향해 하는 말이,

「글세 그 사람이 자기 짐을 운반해 줬다고 내게 돈을 주지 않겠어요. 글세 이 돈으로 나는 가난한 학생에게 학비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 줄테여...」라고 뽐내

며 팔장을 끼고 앉아 있기보다 부저런히 일하여 남을 돕는 일이 오히려 값있는 일일성 싶다.

영국의 「디킨즈」를 유명한 소설가로 알든것이 자중감과 자존심에서였으며 「와싱턴」이 영국과 8년 동안이나 항쟁하여 승리로 이끌어 오늘 미국민으로 하여금 행복되게 한 것은 「와싱턴」의 온당한 자존심에서였다. 석유왕 백만부호인 「록펠러」는 어찌나 절약을 했는지 옷 한 벌을 25년 동안이나 입었으며 테이블 한 개를 35년 동안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강철왕 「카네기」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 잘하여 호감을 얻는데서 그는 교만을 떠는 자본주가 아니라는 데서 그의 고용인들은 그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다. 조그마한 일의 큰 결실을 이런데서부터 거두어진다.

2차대전 당시 영국 수상 「첸바렌」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목제 자동차 한 대를 기증했다. 「루즈벨트」는 「첸바렌」이 보낸 자동차 운전사의 이름까지 불러가며 감사의 인사를 표시한데서 「루즈벨트」다운 점을 나타냈다.

4. 돈보다 문화민족으로

지난 60년대에는 주로 근대화와 민족증흥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서 경제전

설에 온갖 국력을 집중하여 경제 발전만이 근대화의 유일한 첩경이라는 인식을 질게한 값을 주었다. 물론 근대화에 경제발전이 앞서야 할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황금 탄광사상에서 오는 부정부패를 불식하고 국민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서로 도와가며 잘 살 수 있다는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개선이 앞서야 하는데 이 방향감각(方向感覺)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기초를 닦는 공작은 교육과 문화에 두지않아서는 안 된다.

이조(李朝)시대에 죄수를 범정에 배리고 가서 형리가 능허놓고 대나무로 불기를 때린다. 죄수가 너무 아프면 슬며시 돈을 꺼내어 형리에게 쥐어주면 그 돈을 받고 형리는 세계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도 가볍게 때린다. 이 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경하게 벌을 받을 것은 정한 이치다. 하루는 이런 식으로 불기를 적게 맞은 죄수가 하는 말이,

『다행히 오늘 돈을 많이 갖고 나왔으니 잘았지 그렇지 않았다면 죽을뻔 했어』 이렇게 돈으로 이조는 망해지고 말았다.

우리는 지금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 모든 과정에 있어서 돈이 필요할 것은 사실이며 돈만 있으면 안 될 일도 되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돈의 가치는 너무 비대해져서 이 돈이 인간 이상으로 위세를 부린다. 사람을 위주해서 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위주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의 돈의 노예물에 그치고 만다.

후진사회에 있어서 돈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은 왜 이다지도 떨어져 가고 있는가? 돈 때문이다. 돈을 악착스럽게 벌어야 하고 돈을 잘 쓸줄 알아야 한다.

70년대에 우리에게 지워진 명제가 여러가지 있겠으나 근대화의 기본요소는 돈을 벌 수 있는 머리와 이를 잘 쓸 수 있는 교육, 문화의 터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거두절미(去頭切尾)의 절름발이 사회를 면하려고 하면 우선 교육과 문화에 중점을 두어 젊은 일꾼을 길러 이들로 하여금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문화의 터전을 올바로 잡아야만 그릇된 기성시대의 고루한 사상과 너무 과격하게 나오는 젊은 세대의 행동 통일을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60년대에 경제에 편중된 정치문화를 교육으로 극복해야겠고 사회 참여라는 인식아래 젊은이들의 폭력행동을 삼가야겠다. 다시 말하면 글이나 말로서 표현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나온 과격한 점

을 재검토하고 반성해야겠다는 말이다.

우리 국민의 공동과제는 배우는 일로서 그 결실을 보아야겠는데 교육이나 문화를 3차원으로 돌려 조삼모개(朝三暮改)의 정책만을 구두선처럼 되풀이 한다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멸 밖에는 없다. 교육이나 문화가 배물림을 당하고 아무런 경제를 내세워 국민소득을 높여도 그 국민소득은 계구실을 못할 것이다.

교육의 밑바탕 없는 5백 달러의 국민소득 목표액은 2천 달러의 놀라운 성과를 올린 후진국민 [쿠웨이트]와 같은 저열한 교육부재(教育不在)의 자리에 맴돌고 있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교육과 문화정도의 향상에 따라 국민소득이 올 바른 계구실을 할 것이다.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은 민족애를 상실케 하고 동정심을 짓밟아 버리며 도의심을 멩들게 해 버린다. 이런데서 어떻게 교육과제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으며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지속할 수 있겠는가?

이같은 견지에서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70년대를 향해 배진한다면 교육문화의 내적 충실과 개선은 과감히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 과학과 국민 윤리는 병행될 것이며 인간마음에

과학과 경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민족 중흥을 위해 교육과 문화를 먼저 내세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랜 민족전통과 문화유산을 지닌채 외래의 침략을 받으면서, 자란 민족이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고상한 교육이념을 중흥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나친 서구사상의 수입에서 개인주의와 자유사상만이 맹배하고 있으며 이를 민족적인 견지에서 볼 때 불안스럽기 그지 없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외래사조의 지나친 압착은 도리어 우리 고유의 민족전통과 유산을 계승시키는데 틈바구니를 만들어 놓는다.

실천은 청년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는 민족의식을 한층 더 굳건히 하여 교육중흥과 문화발전의 가치 아래에 함께 뭉쳐 눈에 보이는 면이나 보이지 않는 면을 통하여 세계만방에 문화민족이라는 칭호를 받도록 각별히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5. 실천하는 조국애

웅변은 글이요 선전은 구리며 행동은 보적이다. 우리가 민족전통을 살리고 민

죽중흥을 구두선처럼 의이나 이것을 실
천에 옮기지 않으면 울리는 꿩가리에 무
엇이 다름이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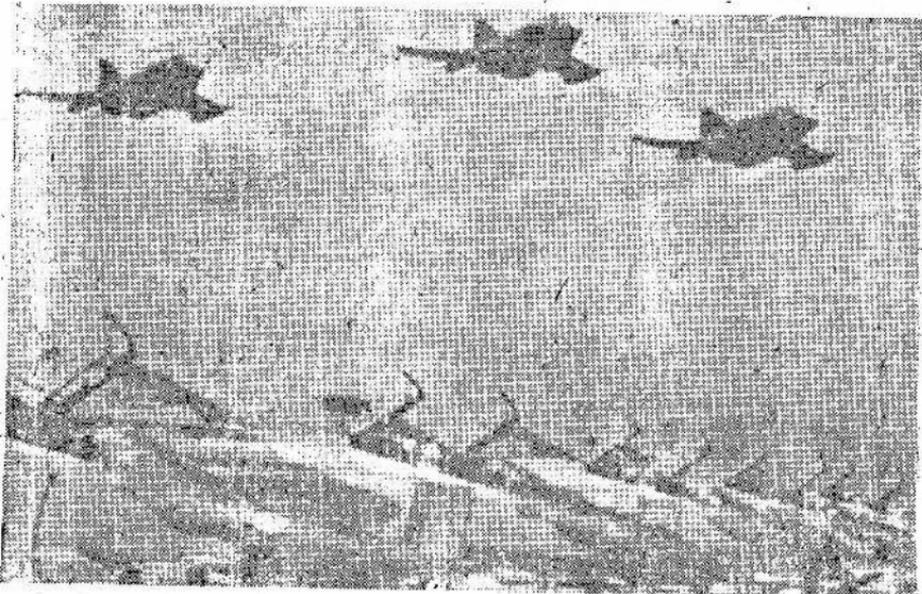
우리는 적은 일 하나에서부터 실천에
옮겨야 한다. 지난 해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청년 하나가 깡패를 만났는데 옷
을 달라고 하였다. 하는 수 없이 벗어주
었다. 이 청년은 풀랑 옷을 벗기고 팬티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목욕탕에 뛰어 들
어갔다. 청년이 장시간 목욕에서 나오지
않고 있으므로 이상하게 여긴 목욕탕 주
인이 이 청년더러 왜 이렇게 오랜시간을
목욕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 다음에야 이
청년은 실토정을 했다. 주인은 이 청년
이 너무 딱해서 그가 입고 갈 옷을 찾았
으나 남자의 옷은 없고 여자의 옷 한 벌
밖에 없었다. 별수 없이 여자의 옷을 그
청년에게 주니까 그 청년은 고맙다고 인
사를 하고 여자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간
신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연이다. 넌센
스에 가까운 일인 듯 하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다. 성경에 있는 선한 「사마리
아」 사람과 같은 이도 우리 주변에 있다.

이 목욕탕 주인의 한 일이 하찮은 듯 하
지만 착한 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모든 일은 큰 일보다도 적은 일의 실천에
서부터 좋은 결실을 거두는 줄 안다.

「이스라엘」은 「아람」전쟁에서 이겼다.
인구상으로 보아 「이스라엘」은 아람 인구
의 40분의 1밖에 못되지만 정신상으로는
이와 정반대로 아람사람의 40배 이상으
로 강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 두 나라
가 전쟁이 일어나자 어떤 사람이 「아람」
학생에게 묻기를 『그대는 어찌로 가겠는
가?』 「아람」학생이 대답하기를 『어찌로든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싶
읍니다.』 이 때 곁에 있던 「이스라엘」
학생 왈 『나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총을
매고 전선에 나가 조국을 위해 싸우겠읍
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난국을
피하기보다 난국을 극복키 위해 자기 몸
을 내어던지는 것이 가장 긴요한 실천의
관건인 줄 안다. 오늘 우리들이 후방에
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일선에서 우
리 국군장병들이 생명을 걸고 국토방위
에 헌신하기 때문이다. 군인생활은 이론
이 아니고 실제로 실천의 연장이다. 애
초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는 일부터 일선
에서 싸우는 일 실천이 아닌 것이 어찌
있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적은 의무
를 실천 중행하는 데서 경제계획이 바로
서고 도의교육이 이룩되어 이 나라는
번영일로에 이르게 될 줄 안다.



전술 항공기와 무장

— 한국 공군을 중심으로 —

중 령 홍 성 표

한국의 현재 상황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특이한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이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본다면 지도상에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호시탐탐 남침을 획책하는 극단적인 호전성을 지닌 북괴가 휴전이 되면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무력증강을 꾀해 왔으며 한편 무력증강을 시험해 볼 양으로 각종 도발을 일삼아 왔음을 우리는 역역히 알 수 있다.

가장 큰 규모로는 최근에 일어난 69년 4월 15일의 EC-121 미 공군의 전자정

찰기를 공격해서 격추시켰는가하면 그 이전에도 미 공군기 RB-47정찰폭격기 또는 미 해군의 P-2H 해상초계기를 요격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이 항공기에 의한 도발이 없으나, 그 외에도 해상에서의 만행을 보면 한국 해군의 51함을 포격해서 격침시킨 것과 최근의 방공선 남침 그리고 휴전 후 현재까지의 어선남북 등은 헤아릴 수 없으나 그보다 가장 규모가 큰것은 바로 68년 1월 23일에 있었던 동해에서의 「프에블르」호의 강제 남치였는데 이 때에

는 하늘에서는 항공기가 동원되면서 해상에서 함정이 출동하여 해·공남침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지상에서의 도발은 휴전에서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의 산발적인 도발행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어서 휴전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쟁도발을 획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 침략형식의 전쟁도발을 자행하는가 하면 간접침략으로는 울산에 상륙한 대규모의 120명 무장간첩의 침투 그 외에 동서해안에서의 부장선의 출몰 등은 아군의 육·해·공 및 경찰·민간까지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사건에 탐지하여 적침 또는 소탕 됨으로써 초기의 목적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여기에서 볼 때 북괴의 각종 도발행위는 바로 재남침으로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며 그 배후에는 소련으로부터 고가로 도입한 각종 신예장비의 증강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북괴의 도발행위는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살펴보면, 첫째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 되는 것은 대소규모의 간접침략 형식의 게릴라전이 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둘째는 직접도발적인 행위

인 휴전선 부근 또는 동서해안에서의 만행, 세째는 핵을 수반하지 않은 전면적인 전쟁행위, 네째는 소형의 핵 폭탄을 수반하는 전면전의 각종 형태의 전쟁행위로 한국을 침략하려고 기도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이상의 전쟁양상들은 북괴가 최근의 무력증강을 피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이는 어디까지 북괴 공군의 많은 항공세력에 뒷받침을 받고 광분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이미 67년 6월 중동전에서 보여 주었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기동성 있는 항공세력을 최대로 동원하여 일지에 아랍권 제국의 주요 공군기지 및 항공기를 지상에서 파괴시켜 제공권을 완전히 획득한 다음 지상군은 계획대로 진격하여 시나이반도 등 주요지역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교훈을 북괴가 모를리 없고 여기에 착안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일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러지 않아도 북괴는 6.25 당시에 UN군의 항공기에 의한 심한 타격으로 받은 교훈을 뼈저리게 느꼈음을 첨가해서 말해 둘 수 있다. 그러지 않아도 북괴 괴수는 공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바지」까지 벗어서 기꺼히 증강시키겠다고 말한 것은 여러번

(경) 건군 22년 국군의 날 (축)

—여의도 「민족의 광장」서 기념식 성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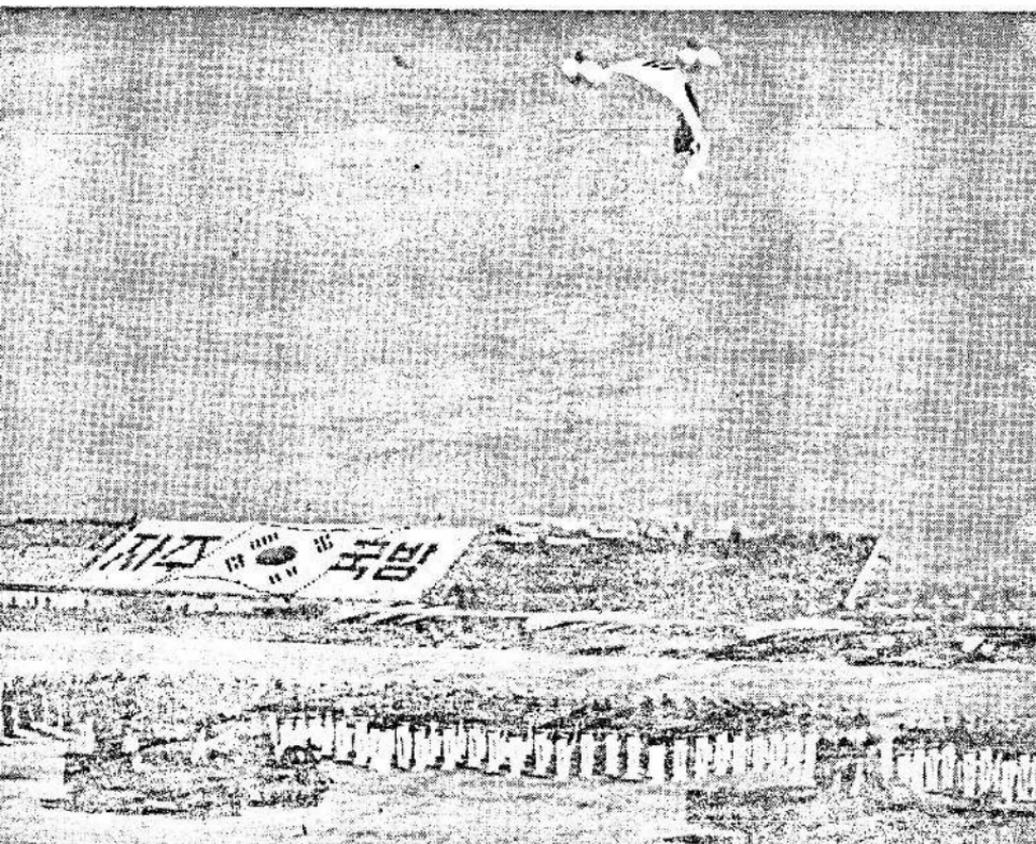
박대통령 유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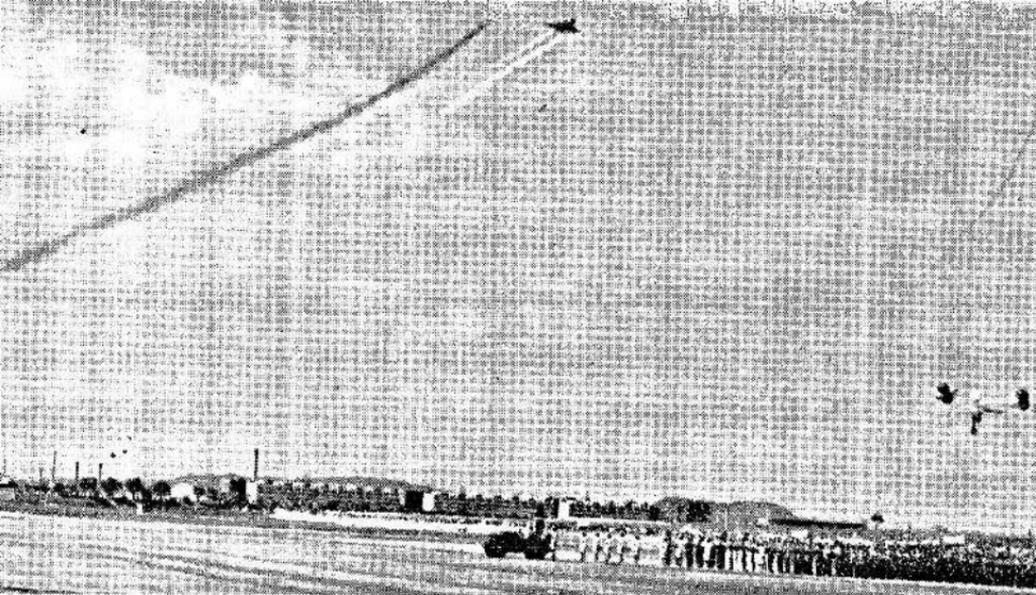
북괴도발대응·자주국방태세강조

성년국군의 위용과 자주국방태세를 내외에 과시하는 건군 2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10월 1일 10시 오색 찬란한 자군 군기와 부네기가 높푸른 가을 하늘을 수놓은 가운데 서울 여의도의 「민족의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박 정희 대통령각하하는 북괴도발에 대응,언제 어느 곳에서 남침해 오더라도 즉각 분쇄 할 수 있는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유지서 강조하여 더욱 장병들의 결의를 굳 게하였다.

박 정희 대통령이 오픈카를 타고 육·해·공·해병대를 사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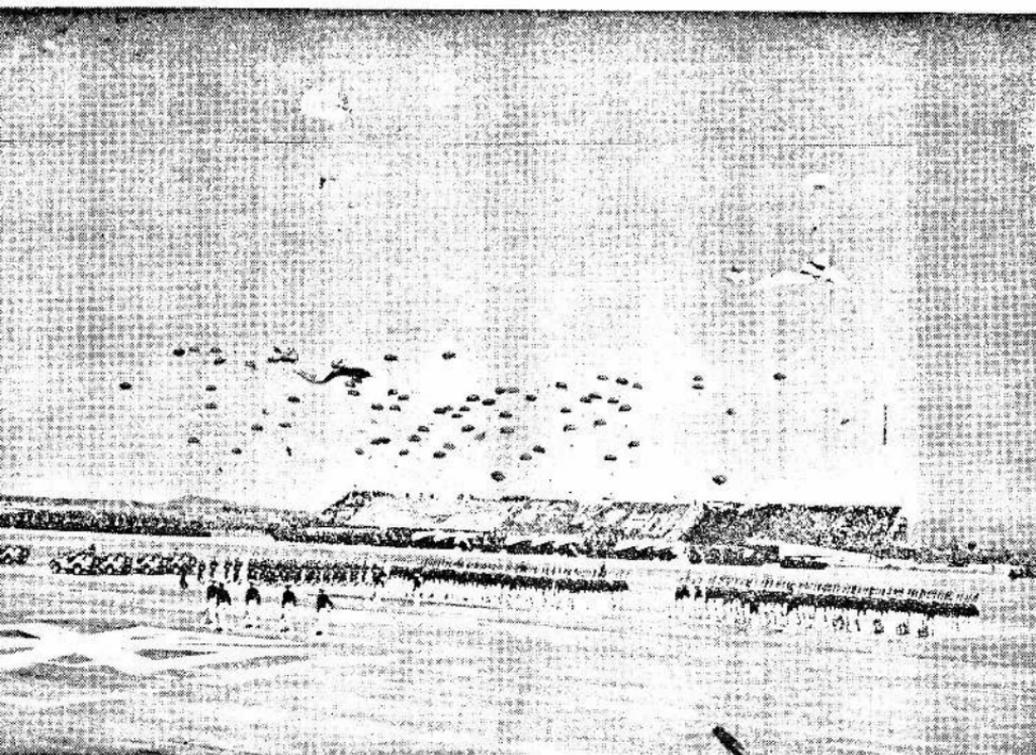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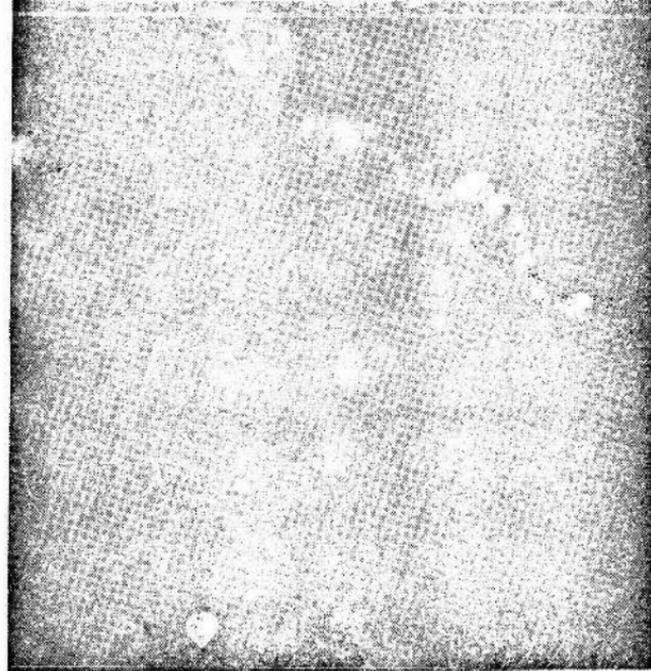


우리 공군기 편대가 태극기 휘날리는 기념식전 상공을 누비며 기념식 개막 축하비행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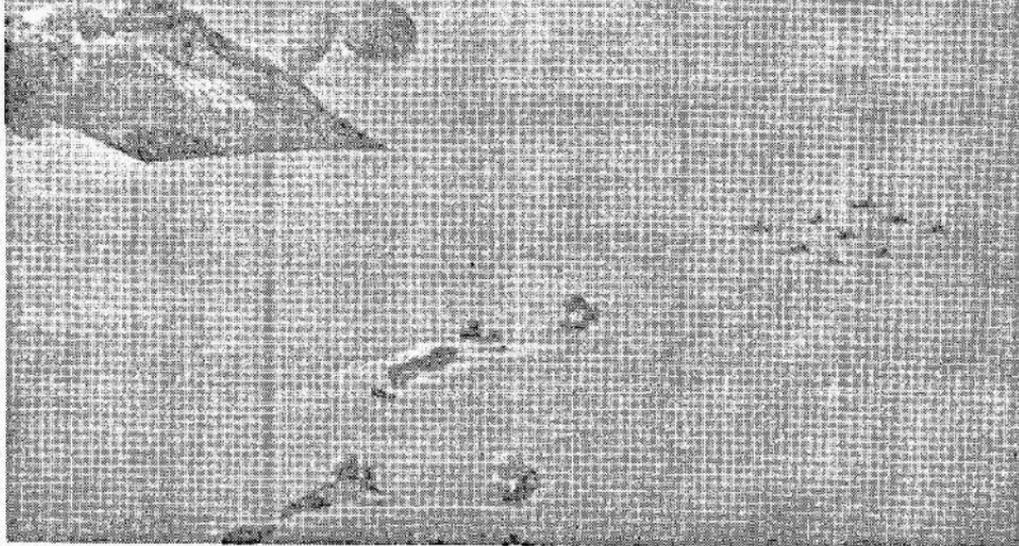


능률한 우리 공군부대의 열병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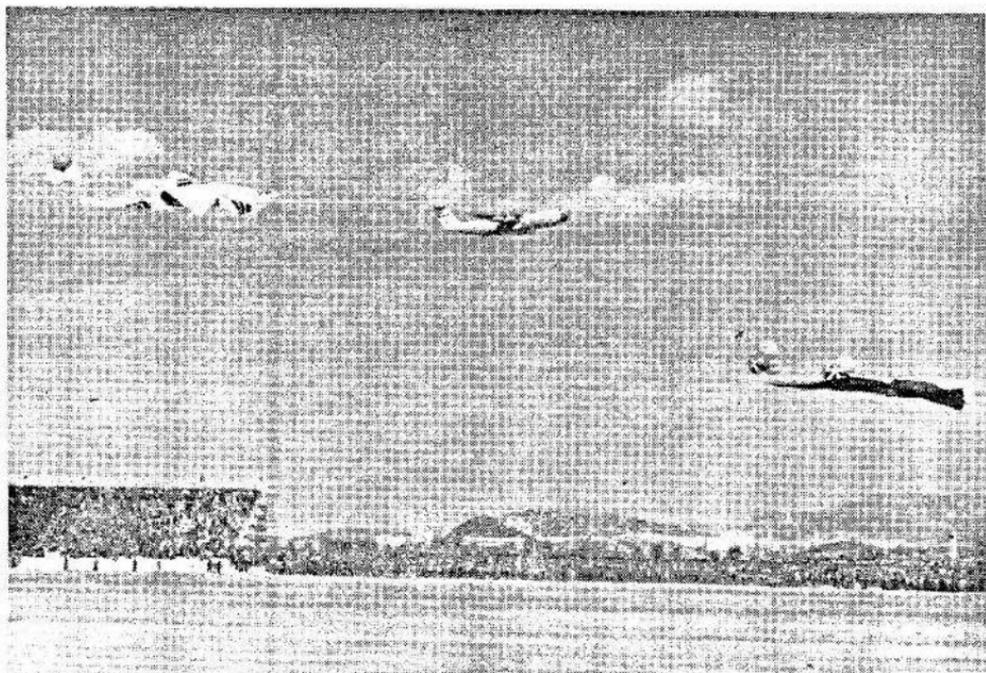
만 피이드 상공에서 5색의 스포크를 뿜으며
낙하하는 공군의 스카이다이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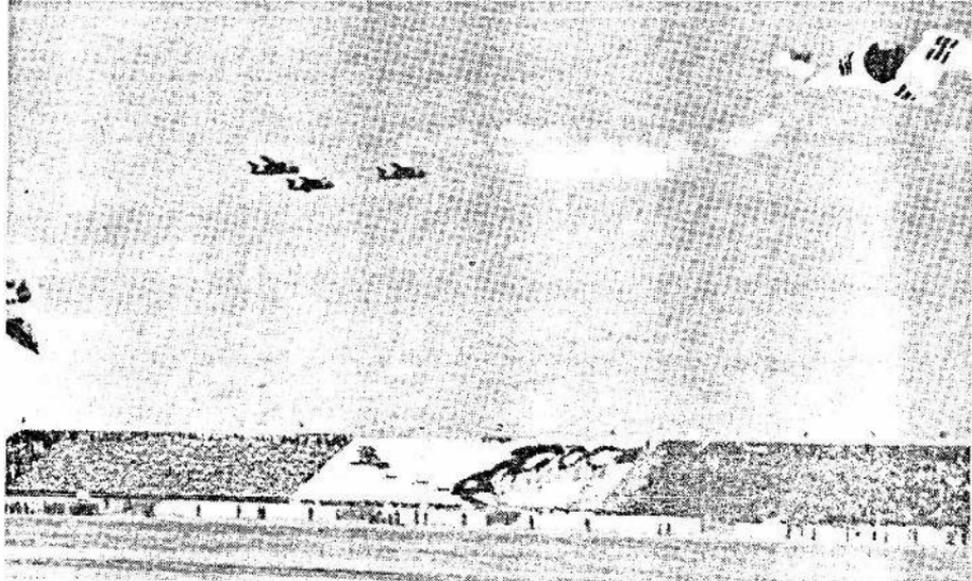
지상에서 사관생들이 시열대 앞을 통과하는 동안 파라슈트부대들이
목표 지점을 향하여 정확히 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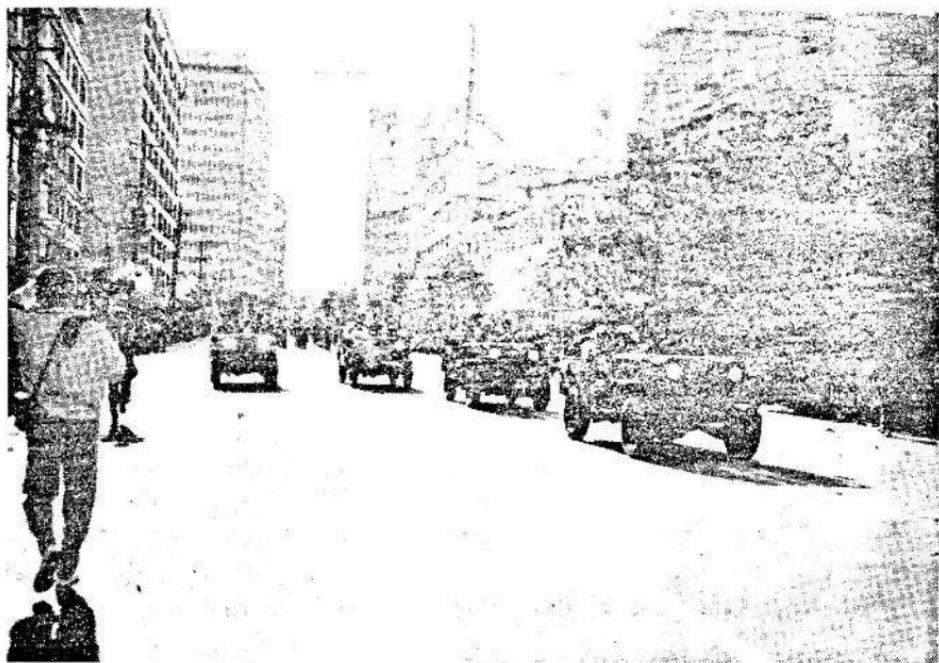
팬텀기들의 축하 편대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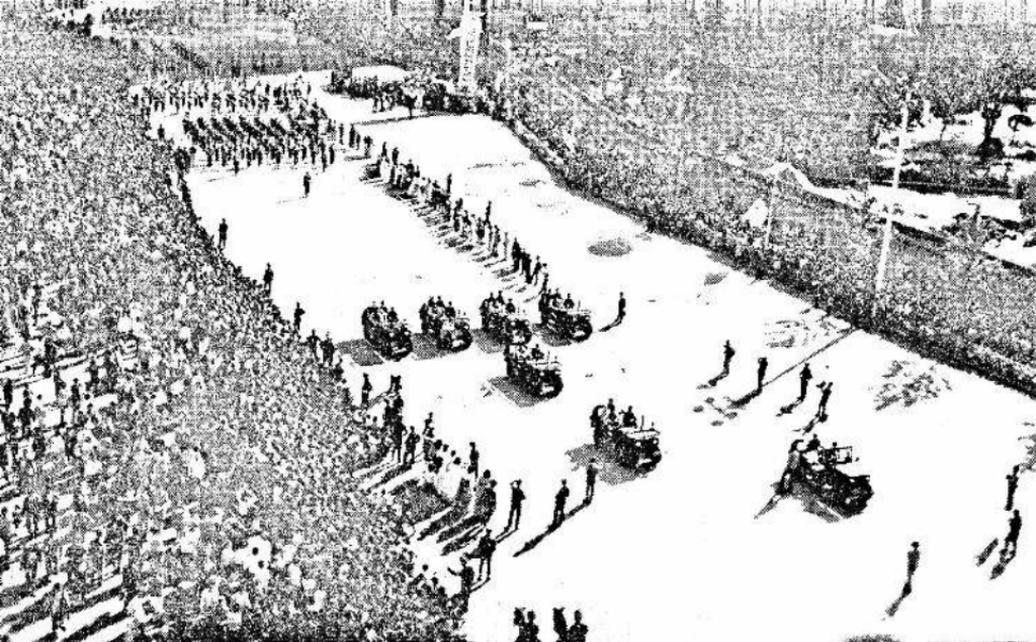
하늘의 거성 C-5A 「갤럭시」기가 넘실한 용자를 보이며
사열대 상공을 통과하고 있다.



지상의 카드섹손은 팽턴기의 대지공격을, 또한 공중에는 새로 도입된
 대잠 초계기 S-2A의 비행분열이 광장을 한층더 다채롭게 빛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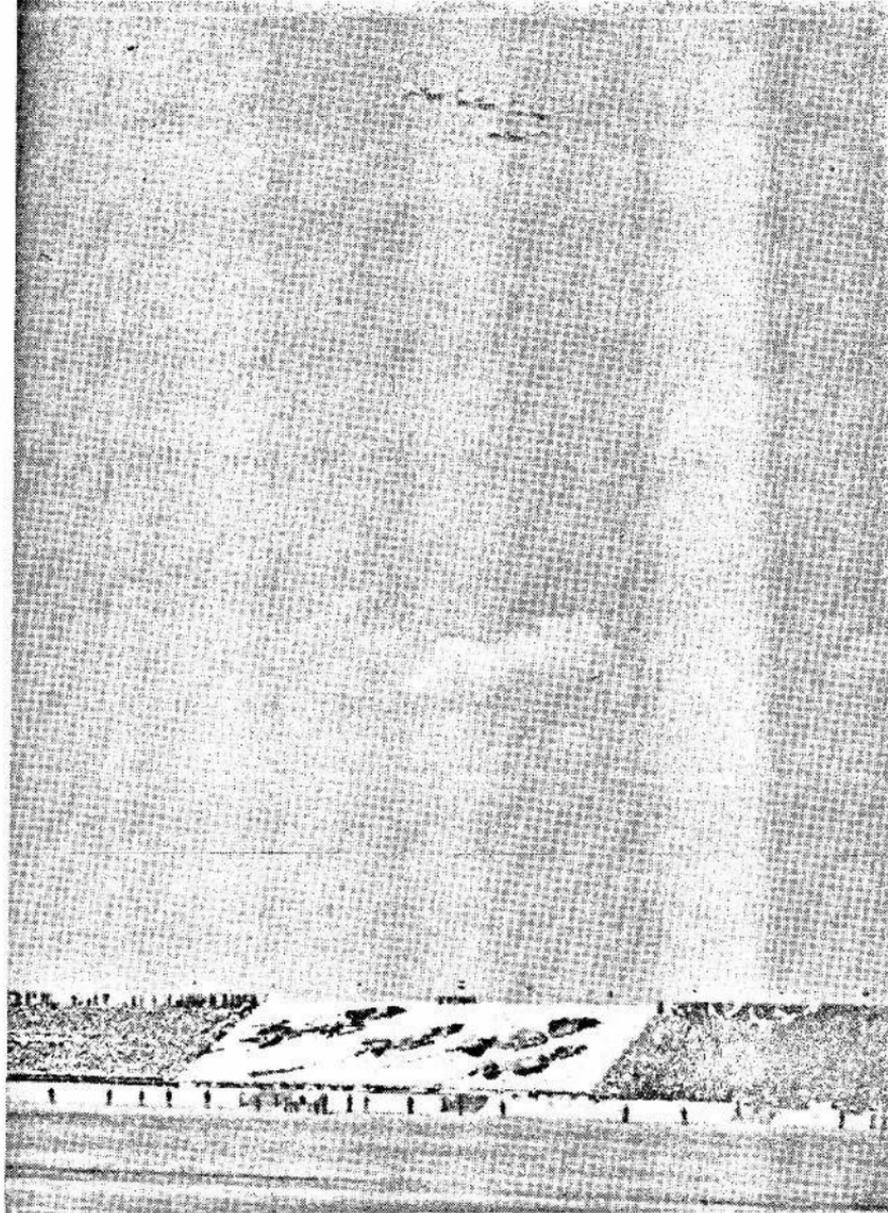


시가행군에 들어선 공군의 선두진



시가를 행군하는 공군의 위용에 서울 시민들이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자주국방의 결의를 굳게 다짐한 이남의 폐막 비행

(경) 제17회 3군사체육대회 (축)

공사 4년간 계속 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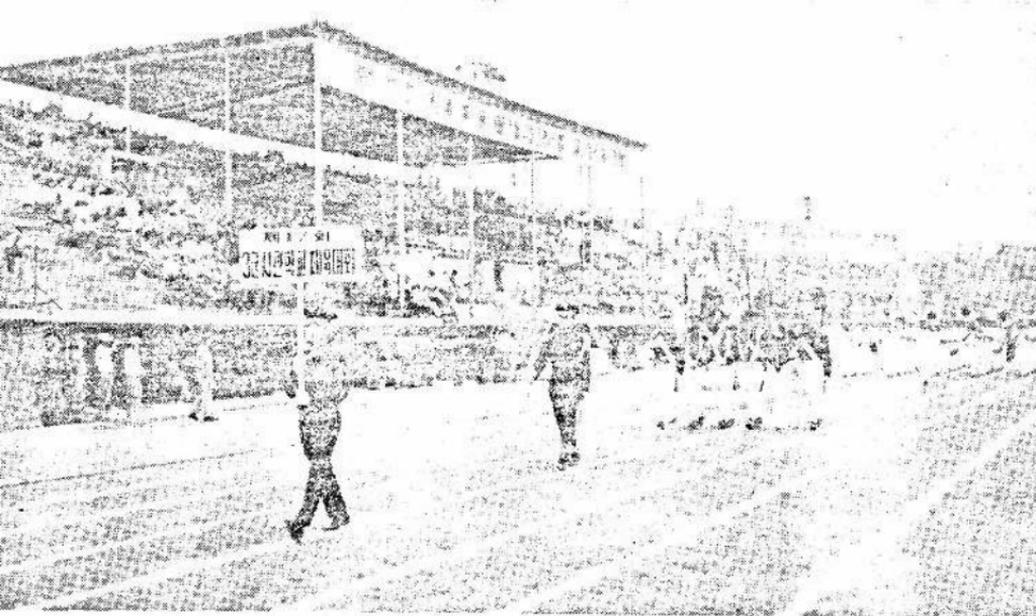
—육사·해사는 준우승—

3군사관학교 제17회 체육대회가 9월 25일부터 연 3일간 서울효창구장에서 유 근장 국방차관을 비롯한 3군사관학교장과 내·외기병 및 수 많은 시민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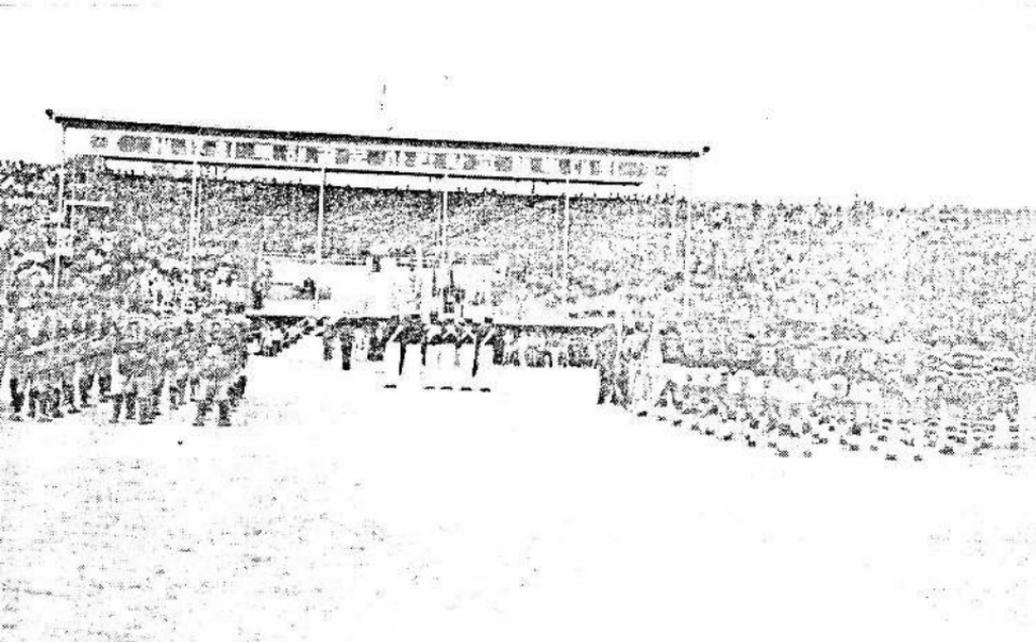
동 대회의 경기종목은 축구와 럭비로서 공군사관학교가 양 종목을 압승, 종합우승함으로써 4년간에 걸쳐 계속 패권의 영광을 차지하여, 대통령우승기를 획득하였으니 육사와 해사는 나란히 준우승을 하였다.

대통령을 대리하여 정 내혁 국방부장관이 우리 공사팀에게
종합 우승기를 수여하고 있다.





입장식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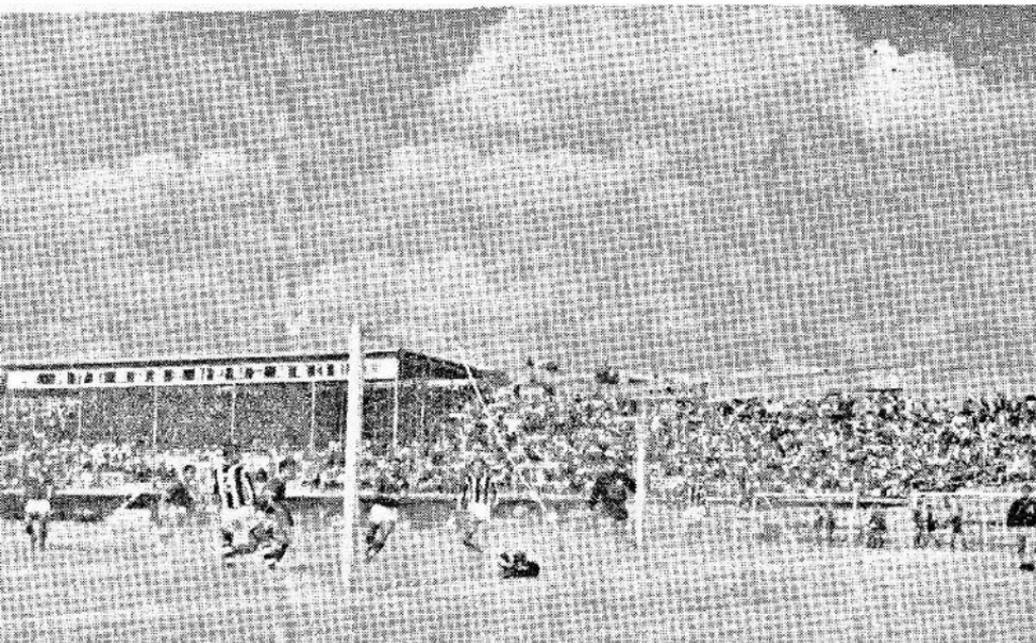
체육대회 개최식 광경



공사 대 해사 축구경기가 공사팀 독주로 진행되고 있다.

공사팀의 통솔으로 해사 골문에 골인하는 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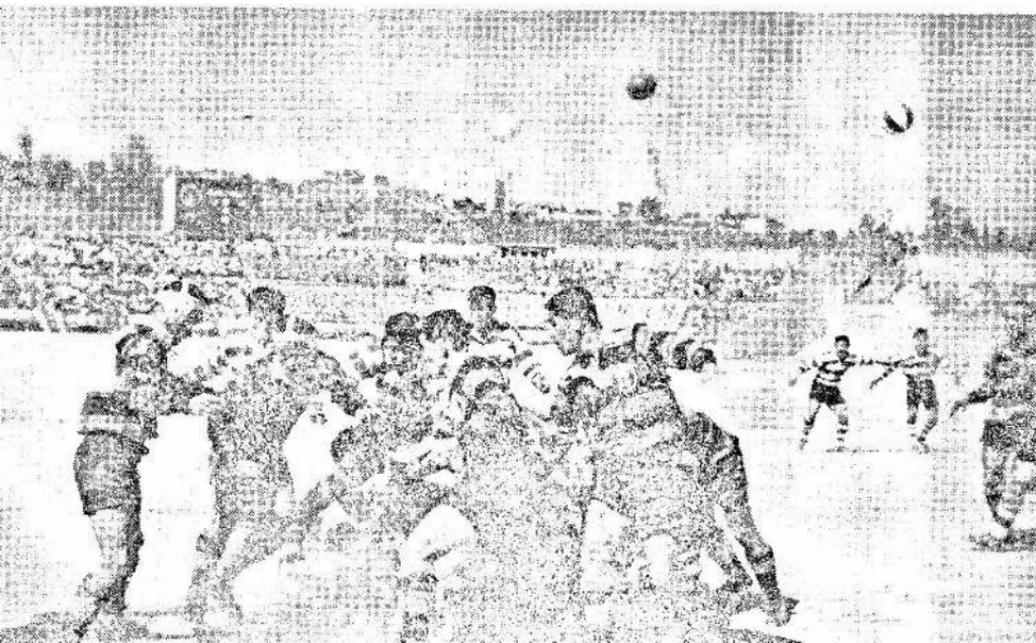
<전적·공사 3 : 해사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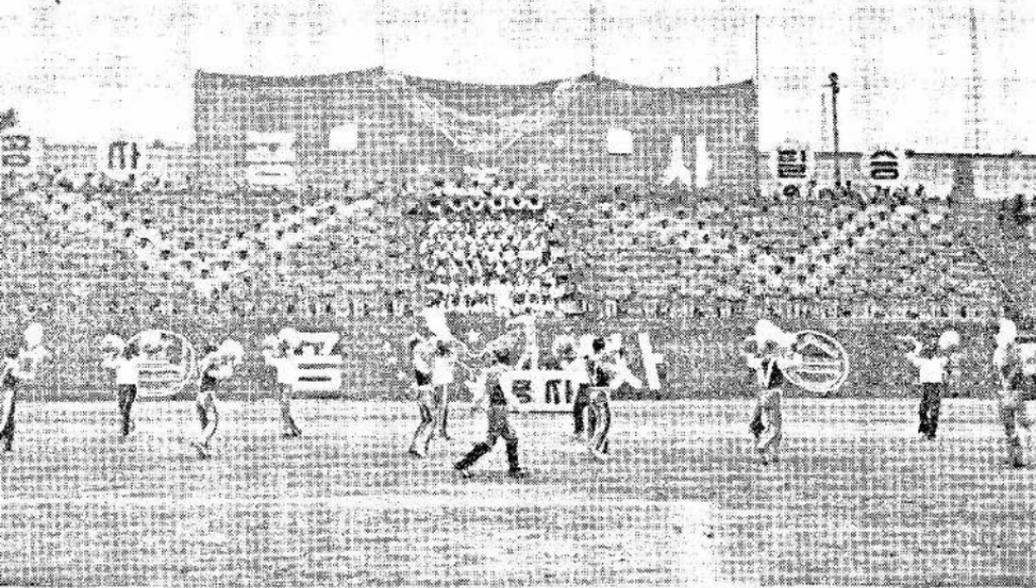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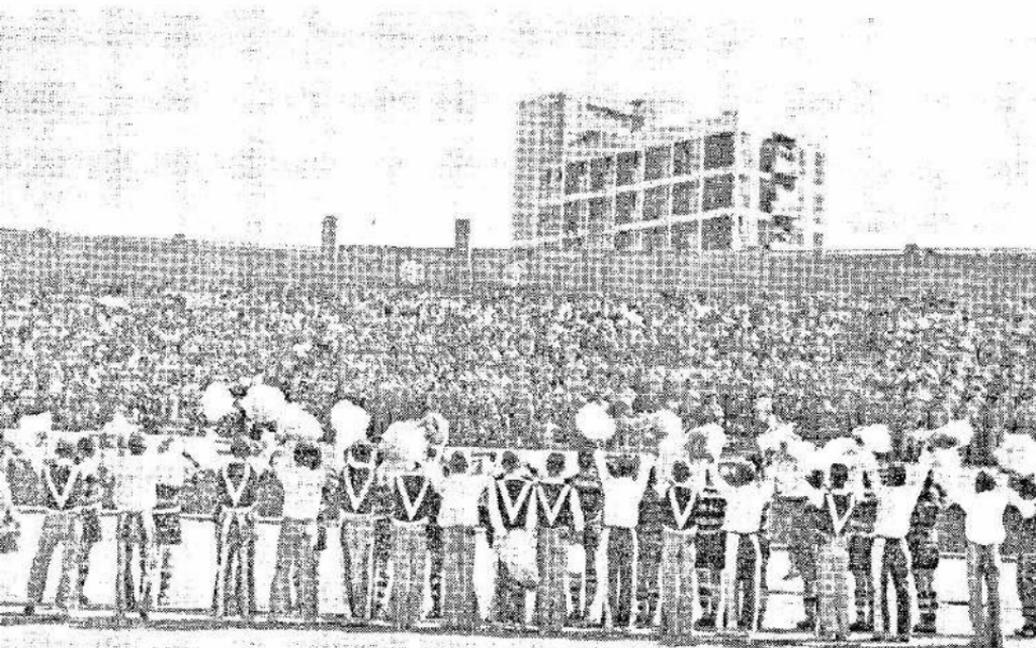
<전적·공사 11:육사 8>

공사 내 육사의 럭비경기가 불을 뿜는듯한 흥분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하늘의 왕자! 보라매의 승리론 상징하는 「V」자를 수놓으며 빙빙
돌아가는 5색원관의 윤무 속에 전개되는 응원단들—





오늘의 승리가 있게한 코휘와 교관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하늘 높이 치받쳐 기쁨을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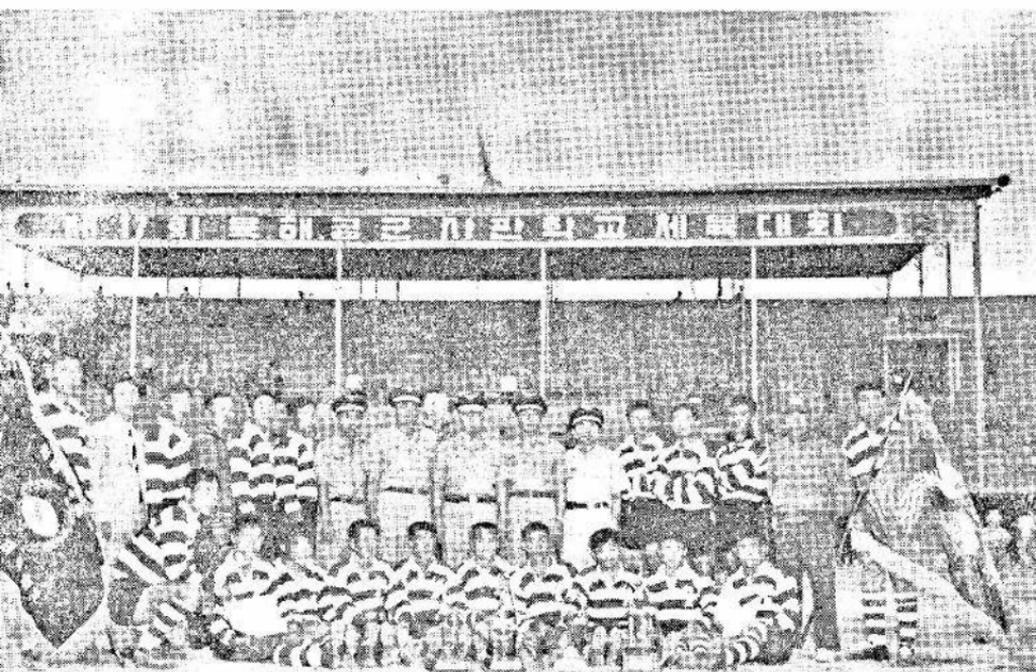


어여쁜 아가씨들이 우리 공사선수들에게 축하의
화환을 걸어주고 있다.



손 재권 공사교장과 더불어 선수일동 기념촬영

위~럭비팀 아래~축구팀



되풀이 해서 논하는 것이기는 하나 우리도 이에 관심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도 중동전에 관한 전쟁양상을 너무나 똑똑히 「배스콤」을 통하여 들었고 그 위에도 월남전에서 비록 미군과의 협동작전이라는 하나 항공세력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역역히 체험했을 것임을 상기해 본다.

전쟁이란 항상 상대적이라 함은 재언을 요치 않을진대 북괴가 공군력을 배경으로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음은 정신적 패배의식에서가 아니라 실제면에서 미 공군 세력을 제외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과연 아무리 일기당천이라 하여라도 맞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자문자답해 볼 문제이다.

혹자는 군인이 어떻게 저렇듯 패배의식에 사로 잡혔느냐 하겠으나 6.25 당시의 쓰라린 교훈은 아직까지 우리의 뇌리에 역역히 남아있는 것이다. 개전초기에 북괴는 많은 공군력과 저상의 중탱크를 동원하여 일거에 38선 전역에서 공격해 옴으로써 눈물을 머금고 후퇴작전을 수행하다가 유엔군의 도움으로 제공권을 탈취한 후에 성공리에 수복작전을 수행했음을 적어도 30대 이상은 똑똑히 눈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 당시에 한국 공군의 현황은 길게 늘어놓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전투기 한 대도 없는 상태였으니 그때 당시에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각오로서 임하고 있었는지 생각하면 한심한 것이었다. 이미 지나간 과거지사를 새삼스럽게 꺼집어 내어 그의 공과를 왈가 왈부하려 함은 아니다. 다만 또다시 6.25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 뿐이다. 다만 현명이라는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화통일이 되어 죽는 것이나, 우리도 이에 맞서 승리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있는 현재이기에 재론해 보는 것이다. 아울러 어떻게 해서든지 적어도 동등한 항공력을 유지하기만 하면, 준전시에 놓여 있는 현재에는 적에 대한 억제력이 되고, 전쟁을 도발했을 때는 과감히 몰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를 논술해보자는 것이다.

무기란 수밖 많다고 해서 절대적이지 아니라는 것은 극히 상식에 가까운 일이나 이러한 피상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과학이 최고조에 달한 오늘날에 와서는 그의 양상은 천태만상이다. 다른 분야는 제쳐 놓고서라도 항공기 하나만을 두고 보면 조종사의 기술정도로부터 항공기의 성능 각종 무장의 배합 등의 적절한 선택은 바로 같은 수의 항공기라 하여라도 발휘

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자이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종사의 기술면에서는 이미 미 공군의 권위지인 「AIR FORCE」에 계체된 바와 같이 한국 조종사와 같은 우수한 기술은 미 공군이 약 10년 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조종사가 세계 제 1이라는 「푸라이드」는 이미 상실하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한국 공군조종사는 이미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지나친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조종사의 기술에 대해서는 본 난은 제외하려고 한다. 다만 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으로 하루속히 경제건설을 이룩하여, 부강한 국가를 이룩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60만대군을 유지하는 상호 이윤배반적인 상황하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대 효과를 최대로 취하는 전략을 보유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현재에 닥친 급한 「불」을 끄려고 불두하나 보면 거시적이고 보다 장래성있는 계획을 결여한다는 것은 있음직한 것이고 그 보다도 적은 것에 치우치다 보니 큰 것을 소홀히 할 경우가 없지 않은 것 같다. 즉 북피의 게릴라 도발에 전군이 신경을 쓰다보니 북피가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로 되어 있는 대규모 공군작전하에 전면전에는 소홀히 하는 것 같다. 북피는 다만 도발함으로써

한국을 교란시키는 극히 능동적인 입장 이지만 한국의 여건은 교란에 하나 하나 대처해 나가는 극히 수세적인 위치에서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고위층의 무능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 주어진 상황이 불가피하게 만들어 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우리는 자체역량을 키우는데 냉정하고도 거시적이면서 폭넓은 국방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전제 했지만 본 난은 항공기 중심의 국방력 증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육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하는 것만을 논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전쟁 형태를 몇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 대소규모의 게릴라전 둘째, 전면전이 아닌 휴전선 및 동서해안에서의 지점도발 행위 셋째, 핵을 수반하지 않은 전면전 끝으로 극히 회박하다고는 하지만 있을 수 있는 핵을 수반한 전면전 등을 고려해 보았다.

다른 여건으로는 과학은 급격히 발전해 가고 있으며 이로써 항공기 그리고 무장면에서도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실례는 항공기는 속도만 빠르면 그만이다 라는 재래의 사고 방식은 이미 낡은 것이 되고 말았다. 항공기는 빨라야 하겠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그 외에 적절한 무기선택 십지

어는 예상하지도 않았던 전자전의 발전은 점차로 새로운 항공전으로 변질해가고 있다. 이에 관한 상황을 보면 중동전과 월남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도와 좋은 무장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입증 하였다. 특히 최근의 중동전의 양상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더라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음을 볼 수 있다. 67년 경만 하더라도 속도와 적절한 무장이 승리의 관건이었으나 그 후 항공기는 공중전에서가 아니고 지상 대지공격에서 많은 항공기가 격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소련군이 직접 통일 아랍국에 투입되어 주로 대공유도탄 SA-2(GUIDE LINE)을 조작하는 훈련에만 주력하거나 그래도 효과를 얻지 못하니 그 후에는 직접 새로운 저고도 유격용 대공 유도탄 SA-3(GOA)를 도입해서 배치하고 소련 군인이 조작한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항공기가 격추되는 수는 점차로 늘어가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에 대비하여 이스라엘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전자항공기 8대를 도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나 이는 바로 얼마나 중동전에서의 항공전 양상이 변화해 가고 있는

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도와 적절한 무장만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거의 곤란하고 전자전을 수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월맹지역에 대한 미군기의 대지공격에서 항상 수반하는 전자전 항공기, 대표적인 것이 EB-66이지만 꼭 선두 비행하면서 전자 방해를 실시하는 것을 기사를 통하여 똑똑히 보았다.

그러면 항공기의 선택의 기준을 잡아 보면 첫째, 고속 여객기가 필요하고 둘째, 대량 대지공격에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항공기가 필요하며 셋째, 게릴라전에 대비할 수 있는 항공기 네째, 이미/는 한 바 있으나 전술 핵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항공기, 끝으로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보유해야 하겠다.

여기에서 잠깐 항공기의 변천을 보면 2차대전부터 한국전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항공기별로 특수한 용도를 가지고 있었다. ICBM의 출현은 폭격기의 무용론까지 성급하게 들고 나왔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다만 그의 실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질때다가 전투기가 많은 적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전술 폭격기와 전투기의 개념의 차이는 희박해진 것이다. 특히 F-4(팬텀)의 적재량은 전술

폭격기 B-66의 2배나 되었으며 복피가 보유하고 있는 폭격기 IL-28 보다는 배 이상을 적재하게 되었으니 수공이 갈만한 일이다.

그러나 월남전의 양상은 일부 특수전을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다용도기의 출현을 강요했으니 이는 거의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폭격도중 적기가 출현하면 폭탄은 아무렇게나 투하해 버리고 즉각 공중전에 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가압도록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이고 만일 동등한 입장이라면 그러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다시 항공기는 임무별로 특수성을 지니게 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다만 과학의 발달로 한국전 당시와 같은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 가지 않으나 임무를 수행함에 최소한의 자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조적인 장비를 장착하게 된 것이다. 이는 바로 전투폭격기에도 전자전의 일부인 전자방해(ECM)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본문으로 되돌아가서 첫째, 고속요격기로서는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F-102나 F-106과 같은 순수한 요격기를 다수는 필요없어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 공군에서 항공

기의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남은 시대로 되돌아 간다고 하겠지만 F-102 또는 F-106과 같은 전천후 전투기는 요격뿐만 아니라 여기에 적재한 레이다는 저상레이다가 파괴 되었을 때 즉각 대행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미 공군의 예를 본다면 지역 방공부대 안에서 EC-121과 F-12(음속 3배의 전투기로 SR-71의 자매기) 그리고 현 F-106 개량형인 F-106X 등 3개 안이 있다. 이 3개의 안 중에 현재 이룩하려는 항공기상의 경제관계 조직은 F-106X가 가장 유력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항공기상의 경제관계조직의 필요한 이유는,

(1) 저고도에 의한 침입항공기를 추적하는 능력,

(2) 미국에서 아주 원거리에 있어서 탐지할 수 있는 능력

(3) 현재의 지상감시, 경보 및 관계망과 비교해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 하향성 레이다의 개발 성공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건으로 볼 때 준전시인 현재 하시라도 경제태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항공기도 마찬가지이나 그 보다 개전벽두 복피공군은 불림없이 우리의 레이다사이트를 공격하여 조기 경계 및 관계 능력을 무력화 시킬 것이

며 이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과 그렇다고 가격과 유지비가 비싼 EC-121과 같은 대형기를 항상 보유한다는 것은 경제사정이 용납하지 않을진대 가격과 비용이 낮으면서 조기경보 및 요격능력이 있는 F-102 또는 F-106을 약간 개조해서 보유함은 유리하다고 본다.

둘째, 다량 대지공격에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항공기는 흔히 F-4(팬텀)을 들고 있으나 본인도 여기에 반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가격과 유지비의 고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과연 정밀기계가 많은 이 항공기를 높은 가동률로 유지하려면 우리의 경제사정과 과학기술수준이 뒤따르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2인승은 때로는 대단히 편리하고, 공중전을 우위에 서게 할 수 있으나 조종사의 부족과 손실을 고려할 때 받는 인적 부족은 하루 아침에 보충되는 것이 아닐진대 구태어 전부 F-4(팬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이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좌이고 폭탄량을 많이 적재하고 열가이면서 가동률을 비교적 높일 수 있는 F-5A A-4(SUYHAWK)나 A-7A(CORSAIR)가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된다. 이스라엘도

F-4와 A-4를 도입하고 기타 중진국에 서는 A-4 또는 A-7의 고려를 들고 나오는데 국가에 따라 상이하겠으나 한국과 같이 공격위주의 나라는 F-5A, A-4나 A-7의 도입은 고려할 가치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

셋째, 케틸라전에 대비할 수 있는 항공기는 소규모 지상병력에 대한 소탕전, 해상에 대한 주야간 간첩선 공격 가능, 공중제일라 항공기의 격추가능 그리고 전시에는 적의 공격목표를 강타할 수 있는 항공기이어야 한다. 본인은 때때로 간첩선이 출현했을 때 F-4(팬텀) 또는 F-5A와 같은 초음속항공기가 출격하는 것을 보고 목표나 상황에 비해서 너무나 고속기가 출격하여 비용대 효과면에서 만족감을 주지 못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리하여 케틸라전에 투입할 수 있는 항공기는 속도가 과히 빠를 필요가 없으며 각종 무장이 가능하고 장거리 비행 즉,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항공기로 A-37이나 OV-10(BRONCO)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시에는 적의 후방교란 또는 특히 대공유도탄이나, 위장된 레이더사이트를 육안으로 탐지 식별하면서 공격한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비제는 어리석다라는 평을 들 수 있으

더 어떻게 실현가능하느냐 하는 빈축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핵탄 적재 항공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실현가능성이라고 낙인을 찍는데 이는 핵전하던 후에 논하겠으나 방사능재가 많이 나오는 가공할만한 무기라면 인식돼 있기 때문이나 현재에 핵탄은 많은 개량을 거쳐서 방사능재가 없는 낮은 위력의 핵탄을 제조하여 실전에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비록 신문지상에 끝인 것이기는 하나 월명지역에 대한 특히 교량 공격에 0.5KT(TNT 500톤)급의 핵탄을 장착한 BULLPUP 공대지 유도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한국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때 전략적인 목표란이 아니라 교량 또는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 등에 아주 낮은 저위력의 핵탄을 사용함으로써 항공기의 손실을 최소로 억제하고 효과를 기때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외에 큰 이점은 핵탄 공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핵탄 폭탄보유와 함께 실제 「방아쇠」를 미국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의 사용능력은 복피에 대한 보복력 또는 억제력으로 대단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선 핵탄이 사용될 때의 장단점은 뒤에서 핵탄을 논할 때 상세히 나열하겠으나 핵탄 적재항공기는

EB-4(퀵덤)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며 약간 육십 1개대대 분이면 어떠할지요. 이 핵탄 사용 항공기는 꼭 핵탄만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공격에 많은 폭탄량을 적재하는 것으로 F-4(퀵덤)의 적재량은 바로 본보기이며 평소엔 핵탄사용능력을 갖추고 아울러 핵탄 투하훈련을 쌓아 둔다는 것은 비상시에 기때 이상의 큰 전력이 된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자전능력 항공기의 보유는 절대 불가결이라 하여도 파업은 아님을 항공상식을 가진 분들은 이해하리라 믿는다. 그렇다고 EB-66 또는 핵 한국 실정에 맞지 않은 낭비적인 항공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실정으로 최소한 이러한 정도의 전자전기를 유지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나 하는 것이다. 월명에 대한 공격에서 대공유도탄이 200개 사이트 이상이라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미군기의 손실은 불과 3.4% 밖에 되지 않는데 대공유도탄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혹자들이 비평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항공전, 그리고 전자전에 문의한이나 하는 것에 회의를 느꼈다. 월명지역에 대한 항공전에서 EB-66 그리고 전투기에도 전자전에 대비한 최소한

★★★ 전술 항공기와 무장 ★★★

의 전자방비를 장착하고 있으며 그리고 대공유도탄이 발사할 때 전자장비의 보조를 받아 취할 기동후련을 쌓았는가는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큰 것이었다. 그리하여 최근에 우리 KAL 항공회사에서 보유한 DC-9를 공군기로 개조한 C-9A, 심지어는 역시 KAL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잉 707 같은 대형 4발제트기까지 전자전기로 개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전자전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스라엘 공군과 같이 8대 정도의 전자전 항공기의 보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기종에 있어서 EA-6A(INTRUDER)가 좋기는 하나 고가이고 그 외에는 정비 및 관리면에서 양호한 RF-4(팬텀 정찰기)의 선정도 부족함대로 좋을 것으로 본다.

RF-4에 장비할 수 있는 전자장비를 나열하면 ALQ-61(ECM/전자정찰), ALR-17(정찰사전에 의한 레이다위치 결정용 ECM 수신기 세트), APQ-59 및 APS-73(측방 정찰레이다), APR-25(유도무기 발사 경보장치), ER-142(ECM 방위측정장치), WILD WIESEL (적 레이더의 경보 및 방위측정과 아울러 적 유도무기의 위협을 경보하는 장치), ER/142(방위측정장치) 등의 전자장비 적재

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듯 나열해 보았으나 전자전을 간단히 풀이하면 전자정찰(ELINT)로 적의 전자장비의 주성능 위치 등을 알아낼 수 있는 것과 전자방해(ECM)는 전자정찰에서 얻은 정보로 적의 전자장비를 무능케 하는 방법이고, 대전자방해(ECCM)는 적이 전자방해(ECM)를 이쪽에 대해서 수행할 때 이를 제거하는 방법 등으로 크게 대별하지만, 더 세분하면 그 방법에 어떻게 수행 하느냐의 차이 뿐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이 없다.

RF-4C는 적어도 그의 길이는 물론하고 최소한 상기 세 분야의 활동이 가능하며, 기타 항공기들은 극히 유치한 방법의 전자방해(ECM)는 가능한 장비를 자기에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자전에 관한 미 공군체제 사령부 정찰, 감시 및 전자과장은 DATA(69년 11월)지에서 「군용기는 모두 ECM을 장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바로 전자전의 주요성을 재확인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한다고 느껴지는 무장면을 들추어 보면 기총, 폭탄, 로켓, 유도탄, 핵무기, 화학무기, 항공어뢰 등을 들 수 있다.

기총면을 보면 월난전의 교환이 있기

★★★ 전술 항공기와 무장 ★★★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종의 불필요성을 역설해 왔으며 그 예는 바로 F-102 및 F-106의 기종 제거 그리고 F-4의 최초형에는 기종이 없었다. 그러나 F-102 및 F-106만 하더라도 기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혼전(DOG FIGHTING)을 할 기회를 갖는 전투기는 꼭 기종을 장착해야 한다. F-102 및 F-106는 전자장비 위주로 작전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탐지, 식별해서 요격하므로 기종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으나, F-4는 F-102 및 F-106과 같은 요격위주가 아니므로 기종은 꼭 필요한 것이다.

기종의 중요성이 인정된 것은 월남전으로 1965년말부터 북쪽이 정지된 1968년 10월까지의 공중전에서 MIG기는 63대 격추시켰는데 비하여 F-4의 손실은 불과 15대에 불과하였다. MIG기 중에는 MIG-21이 28대이고 나머지는 MIG-17이 없음이 후에 알려졌다. F-4가 격추된 것은 대부분 MIG-21과의 공중전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F-4 15대의 손실중 10대는 1967년 6월 이후 손실한데 비하여 MIG-21은 동기간인 18개월동안 불과 8대 밖에 격추되지 않아 공중전의 형세는 완전히 역전될 것이다.

이러한 역전된 현상에는 MIG-21은

월맹 지역내에서 완전한 레이다관제를 받고 작전했으나 F-4(팬던)은 태국 기지에서 이륙하여 1천킬로나 떨어진 월맹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 기종을 장착하지 않은 것이 가장 커다란 원인인 것이다. 그리하여 기종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때보다 고조한 상태이며 그 후 F-4에는 기체내에 직접 장착할 수 없어 임기응변책으로 동체중간 부분에 POD형식으로 장착하여 성과를 거둔 교훈은 F-4E형부터는 완전히 동체내에 적재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의 기종의 경향을 보면 구경은 20~30m/m로서 전투기 1대당 1~2기를 장착 하였으며, 특징은 발사속도와 발사율이 빠르고 많아졌다는 사실인데 이는 현대전은 항공기의 고속화로 인하여 공중전을 수행함에 적기와 만날 수 있는 횟수는 극히 적어 한 번 만났을 때 꼭 격추시키겠다는 개념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한 것이다. 기종의 효과는 중동전에서 이스라엘 공군기의 30m/m 기종은 저고도 저속도로 비행하면서 아랍 항공기의 연료탱크 부분만을 공격하여 한 발에 완전 격파하는 좋은 성과를 올린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 공군 및 해군의 차기 전투기로서 1974년 경에 출현할 F-15

★★★ 전술 항공기와 무장 ★★★

및 F-14는 현재 개발중에 있는 DART 기종이 제작성공되면 장착할 것이라고 하는데 DART총은 탄피가 없는 우라늄탄으로서 발사속도는 초속 1,500m로서 현재 어느 기종보다 훨씬 빠른데다가 발사율만 보더라도 매분 6탄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그 위에 우라늄탄은 강철판 전차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라늄탄이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의 원자탄의 역할로써 할 때 풍문으로 떠돌던 한국동탄중에 미군이 사용했다는 원자탄환이 현실화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그리고 F-4에 장착하는 VULCAN 포가 1분에 6천발 발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비하여 그의 10배나 되는 발사율은 대단한 것이다.

폭탄은 새로이 고려해야 할 신형폭탄은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일명 BALL BOMB이라는 것으로써 이는 월남전의 정글에서 효과를 보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전면전에서의 인해전술 또는 정확한 목표가 될 수 없는 간접전 또는 지상 게릴라에 대한 공격에는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BALL BOMB를 보던 대표적인 것으로 대인용은 750파운드 폭탄 내에 수류탄보다 약간 작은 소형폭탄이 400~600

개가 들어 있어서 공중 600m에서 폭발하면 그의 무게가 약 10m/m로서 그 안에는 직경 6.3미리의 탄환이 25개쯤 들어있는데 이것이 지상에서 다시 폭발하면 직경 30m 범위에 퍼지는데 이렇게 해서 750파운드 폭탄 내에 들어있는 6.3미리 탄환은 10~15탄개로서 퍼지는 범위는 폭 200m, 길이 2Km까지의 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 BALL BOMB은 다만, 대인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갑차와 같은 경차량 파괴용이 있어서 주기면 항공기 파괴에는 대단히 이상적인가 하면 중전차 파괴용까지 있어서 그 종류가 많은 것이다.

다음 「레이저 폭탄」은 하나의 유도탄 종류라고 말할 수 있으나 재래식 폭탄과의 중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 「레이저폭탄」은 재래식 폭탄 앞에 레이저(LASER)광선 수신기만을 장착하였다가 공격시 모기에서 폭사하는 「레이저」광선이 목표에 부딪혔다가 되돌아 오면 되돌아 오는 「레이저」광선을 「레이저 폭탄」이 쫓아서 공격하는 새로운 폭탄이 월남전에 사용되어 그의 전과는 대단했다고 하는데 명중율은 70%이고 10% 이상은 미상이나 명중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레이저 폭탄」의 이점은 아무리 대형 폭탄이라 하더라도

라도 간단히 「레이저」수신기만 장착하면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무기의 가격이 4천~6천불이라는 고가이기는 하나 BULLPUP과 비교해서 사정만 짧은 것은 물론 가격도 1/2 또는 1/3밖에 되지 않은 데다가 유지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는 것이다. 사정거리 문제는 BULLPUP도 조종사가 목표에 명중할 때까지 계속 쫓아가면서 유도해야 하므로 직접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의 대공화기에 의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정거리의 적어도 BULLPUP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다. 그와 반대로 BULLPUP는 그의 폭탄량은 250, 500파운드인데 비하여 「레이저 폭탄」은 중량에 관계없이 「레이저」수신기만 장착하면 가능하므로 목표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합한 대형 폭탄량은 투하할 수 있는 것이다.

로케트는 2.75인치와 5인치를 사용하거나 최근에는 주로 2.75인치 내외의 구경 로케트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새로운 로케트의 출현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유도탄은 공중대 공중과 공중대 지상용의 2개 종류를 생각할 수 있는데 공중대 공중용은 이미 SIDEWINDER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후미추적용으로 염가로

써 좋기는 하나 그의 추적범위가 적기의 후미로부터 4면 90도 각도 밖에서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 탄능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물론 항공기중에 따라 상이하지만 F-4이면 「SPARROW」, 「반능동 CW 레이다 호밍」식의 유도방법으로 어느 방향에서나 공격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나 가격이 SIDEWINDER 보다 10배 이상의 고가격이란 단점이 있다.

F-102나 F-106 요격기를 도입한다면 FALCON이 장착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SPARROW」와 상이한 것은 「레이다」 유도라는 것과 또 하나는 사정이 약간 긴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공대공 유도탄은 적외선 유도방법의 SIDEWINDER는 절대적이고 그 외에 항공기중에 따라 SPARROW 또는 FALCON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이상의 유도탄이 근접시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때우기 위하여 새로운 SRM(AIM-82A)를 개발하여 혼전시에 기총과 SIDEWINDER 또는 SPARROW와 같은 비교적 사정이 긴 유도탄 중간 위치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출현했는데 이것도 역시 월남전의 교훈에 의거한 것으로도 입한다는 것도 고려할만한 것이다.

다음은 공중대 지상유도탄으로 이미는 한바 있으나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는 것

이 전투기종에 장착 가능한 것은 BULLPUP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BULLPUP의 단점은 이미 틀어지고 있어서 새로운 공중대 저상 유도탄을 개발하여 실험했는데 이는 MAVERICK(AGM-65 A)로서 TV유도방법으로 월남전에서 이미 사용한 바 있는 같은 유도방법의 WALL-EYE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이의 대체용으로 출현한 것 같다. MAVERICK 유도탄은 F-4와 A-7에 장착하게 된 것이 가격이 싸고 여러 개를 동시에 장착 가능한데다가 유지비가 역시 BULLPUP보다 적게 소요된다는 이점으로 BULLPUP과 머지 않아 완전히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기하면 가소롭게 들릴 것이라 믿어지나 우리는 항상 2차대전중 일본에 투하된 20KT급만을 생각해 왔으며 가공할 만한 것으로 대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중극무기라는 개념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발전은 DART 소총탄에도 가능하다는 것과 같이 극저전에 가능한 아주 낮은 위력의 핵탄을 많이 연구 발전해 온 것이다.

최근 신문지상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B-61」이라는 신형의 다목적 핵 폭탄을 개발하여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미 공군의

「키이라」소장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비밀증언에 지난 4월 21일 밝힌 것이다.

이 「B-61」핵 폭탄은 전략적, 전술적 인 어느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술, 전투 폭격기에 적재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용을 상세히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소형이며 저위력의 핵탄으로서 방사능재가 별로 나오지 않은 것이라 믿어진다.

우리는 핵전의 상황을 잠깐 고려해 볼 필요를 느낄 때가 있으리라 믿어진다. 만일 F-15에 장착한 DART소총탄이 정말 핵탄이라 하면 이미 핵무기는 사용했다는 결론은 나온다. 이러한 핵무기와 또 하나는 월맹지역 교량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던 0.5KT 핵탄두의 BULLPUP 유도탄의 한계는 상당히 애매한 것이다. 핵전이 크게 확대 되리라 보는 것도 사실이나 앞으로의 핵탄의 개념은 극저전에서 5KT 이상급은 사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 필요하면 사용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상호 묵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의 가상으로서 교량을 파괴하는데 750파운드 폭탄 40~50개가 필요하며 한 개의 공군기지를 사용불능케 하려면 적어도 100개는 필요하리라 보는데 이때 과연 그 많은 항공기를 동원하여 결정

적이고 완전무결에 사용 불가능케 못하는 재래식 폭탄에만 의존할 것이냐 하는 점은 검토해 볼만한 사실이다.

BULLPUP에 장착 가능한 0.5KT 핵탄은 철교량 한 개를 완전히 파괴해서 복구불능케할 수 있는데다가 방사능은 인간이 해로운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래식 폭탄에 과연 의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공군 기지를 파괴시키는데 1.2KT(TNT 1,200톤) 한 개면 지표면 3.5피트 상공에서 폭발했을 때 폭발구의 직경이 90피트이고 깊이가 21피트라고 볼 때 역시 재래식 폭탄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핵탄의 문제는 1.2KT급 정도 까지도 별로 큰 영향없는 방사능재가 나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나 그의 위력이 크고 적은 것은 물문에 불이고 핵탄이라면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므로 심증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이전에 과연 강대국이 핵탄을 손쉽게 양도할 것이냐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꼭 핵탄을 배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만일에 대비한 일상적인 훈련은 그의 효과가 실전에 입했을 때 자신감을 주는 것이 외에 적에게 억제력이 될 수 있다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핵탄의 훈련이 언제인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지거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가는 말할 수 없으나 DART 소총의 출현 이전이라 보는 것에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볼 때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하는 자세는 중요하다고 믿어진다.

화학무기 하면 생물학전과 혼돈하기 쉬우나 화학무기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소이탄, 발연탄 네이팜탄이 있는데 소이탄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의 효과가 대단히 좋다고 본다. 소이탄의 효과는 2차대전 중 1945년 3월에서 7월까지 B-29가 2Kg소이탄 500개씩 적재하고 일본의 163개 도시에 23만톤을 투하하여 사망자 33만명과 부상자 47만3천명을 내게 하는가 하면 목조건물을 많이 소각시켰다는 것이다.

소이탄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가스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미국은 월남전에서 고엽(낙엽)작전을 실시한 것이 외에 DMC(구토성), CN 및 CS(최루형)를 실전에 사용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핵」전 국방장관은 가스탄은 어떤 의미에서 실탄보다 인도적 인 면에서 좋다는 것으로써 실탄은 완전

★★★ 전술 항공기와 무장 ★★★

히 살상하는 것이지만 가스탄은 인시적인 파괴로서 전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미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가스탄의 종류는 AN-M78(500파운드)와 AN-M79(1,000파운드) 이 외에 발연탄은 AN-M47A4(100파운드) 및 소이탄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 것이다. 이러한 가스탄 및 발연탄은 최근 무장 간첩선에 사용하여 생포하는 전과를 올림으로써 1조 2석 이상의 효과를 거두리라 보고 있다.

항공어뢰는 우리 주위에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2차대전중에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 가장 큰 전과를 올린 것은 항공어뢰로서 악천후나 야간에 레이더에 의하여 함정을 발견하던 조준해서 상당히 원거리로부터 어뢰를 발사하던 사정은 1천5백~2천m로서 10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거리 5~6m, 무게는 1천5백~2천파운드 이상이고 투입속도는 400노트에 불과하였으나 오늘날은 상당히 개량되어 아마도 보다 소형화된

항공어뢰가 출현했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항공기의 종류와 기종에 따라 필요한 무장을 나열해 보았으나 이런 것들이 모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다단계 발전으로부터 직접충돌, 핵 또는 비핵 극저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한국 공군이라는 특수 임무행의 우리나라의 국방경제가 미칠 범위 내에서 「백」 전 국방장관의 표현을 빌릴 필요가 없는 비용대 효과면에서 최선을 기하자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혹자는 지나친 비용대 효과를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일면 국방, 일면 전설이라는 이율 배반적인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나라에서는 비용대 효과를 거의 전적으로 고수해야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끝으로 지나친 비용대 효과에만 집착하면 자연히 인적인 무리가 수반한다는 것은 감당해야함을 부연해 두는 바이다.

×

×

×

집단생활 부적응자들의



지도방법

성

하

원

<외대 교육학 부장>

1. 서 언

현대사회는 고도의 과학과 물질문명이 가속도적으로 변동하고 있고 전근대와 근대사회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화적 지체성(Cultural lag)과 붕괴현상 또한 사회의 가치가 그 사회문제의 중심을 이룬다고 보는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가치는 피상적이고 유희적이면서 사실상 증혁적인 가치가 결여되어 그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으므로 부적응 현상이 드러나고 인간관계는 극히 계약적이고 형식적인 관계에서 비인격화의 사회관계를 맺어 주고 우리의 생활에서 가치와 규범의 결여 상태는 우리의 행동중심을 모호하게 하여 주고 있는지 모른다. 한 사회집단을 볼 때 그 집단 속에는 의무태만자, 과실자,

범법자, 또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례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대개 그들의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이상 행동은 맺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단생활에서 정신적 이상자를 발견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전에 발견 예방한다는 적극적인 방책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집단생활에서 부적응자의 지도방법은 보는 관점에 따라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집단생활에서 필요한 보편적인 사항을 열거 설명하고자 한다.

2. 부적응자의 문제

1. 미국 군기관에서의 사례

<집단생활 부적응자들의 지도방법>

세계대전은 미국인으로 하여금 장정들의 이상행동에 관하여 깊은 문제로서 각성을 하게 되었다. 제1차 대전시보다 2차 대전시에는 군장병 선정에 있어 심리적인 부적격자를 가려내는데 주력을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소집된 군장병 중 약 8퍼센트가 정신적 혹은 정서적 부적격자로서 즉일 귀향조치를 받았으며, 2차 대전 중전제 군대에서 물러나온 제대군인의 삼분의 일(1/3) 이상이 정신신경증(Neuropsychiatric Cases) 환자였다.

이 문제는 1차 대전시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그 당시 「전쟁신경증」, 「사병심정」, 「탕진탕」(Shell shock) 등과 같은 말들을 많이 사용하여 왔다. 1916년 7월에 「피싱」장군은 다음과 같은 전보를 프랑스에서 보내왔다. 「최근에 도착한 신병 중에는 정신이상자 즉, 부적응자가 많은 즉 이 사실은 미 본토를 출발하기 전에 신병 중의 심리적 부적응자를 가려야 하는 필요성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in replacement troops recently received suggests urgent importance of intensive efforts in eliminating mentally unfit from organization of new draft prior to departure from United States」)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쟁중과 전쟁후에 있어서 대부분의 관심은 신체적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들에게 집중되지만 별반 관심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는 정신신경적인 부적응자의 숫자도 신체적 부상자와 같은 수의 무능력자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2차 대전 중에 미 육·해·공군의 교위층들이 장병의 이상 행동문제에 자주 언급하면서 그들의 관심에 대하여 「바우먼」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우리 해군에서는 이중방법으로 신병을 심사하는데 수천명의 장정들이 정신 장애환자가 됨을 방지하고자 그들을 키가시켰다. 이들 청년들이 각각의 적합한 직장에 배치되어 후방 근무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해군 당국의 시책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주고 있다……」 당시 정신신경의무(精神神經醫務)의 고문적인 「미닝거」대령은 지원장병 중 8~10%는 정신신경증적 이유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었다고 하며, 세밀한 검사를 받은 장병 중 15%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고 부연하였다. 「하이드와 킹스리」씨는 「보스턴」지구에서 소집된 6만명의 장정들을 상대로 하여 정신이상의 범위와 유형에 관한 조사를 하였는데 그들은 주로 정신이상과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과의

<집단생활 부적응자들의 지도방법>

상관관계를 알아보는데 치중하였다. 그들의 조사는 대표적인 남성 표본군을 통하여 이상행동의 범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분류중 정신병질적 성격(Psychopathic personality)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서 신경증 혹은 정신장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불명확한 증상을 가진 자들을 지적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하이드와 킹스리」교수는 이들을 가리켜 사회적 규범에서 이탈된 행동을 하는 자 또는 책임관념이 희박하고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습성, 싸움을 좋아하는 습성, 자주 위법행위를 하는 자로서, 군대군수에 부적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많은 정신병질적 성격의 소유자를 발견하였는데 그들의 수는 정신신경증을 가진 자들의 수만큼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조사군의 정신이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사회경제적 수준	피험자 수	처리된자의 백분 비율
A급의 사회경제적 수준	6,250	7.3
B급 "	6,450	9.2
C급 "	16,900	9.4
D급 "	15,000	10.0
E급 "	8,650	12.7
F급 "	6,750	16.6

이상의 퍼센테지의 중간점은 9.7이고 제일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비율은 16.6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상세히 언급할 수는 없으나 연평균 군범죄 사고 발생률 중 20% 이상이 정신 장애 장애들에 의하여 저질러지고 있음을 밝히고 내년부터 징병검사 과정을 엄격히 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69년 국방부 선병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군범죄 사고 발생률은 전병력의 4.15%인 약 2만 건으로 이중 정신병 질환에 의한 범죄가 20.8%인 약 4천건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군 당국도 정신장애에서 오는 이상행동자들을 철저히 발견 예방과 치료문제의 대책이 있어야 하겠으며 이들의 입영전에 색출할 수 있는 정밀검사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3. 집단지도와 개별지도

한 집단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영취된 단순한 결합을 초월한 전체성을 지니고 집단은 각 구성원인 개인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각 개인은 집단속에서 각각 인정받는 인간으로 되기를 바

라며 생활하는 것인데 일정한 지위와 역할이 주어진다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작업에도 열중할 수 있게 되므로 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집단 속에 들어가 안정을 바라는 당초 기대가 어그러질 때에는 싸움질, 난폭한 짓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고립되거나 혹은 도피적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며 심하면 남의 것을 훔치는 등의 비행을 빚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 속에서 자자의 능력에 알맞는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여 안정을 얻음으로써 다른 집단으로 옮겨 지더라도 적응력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집단 속에 지위 역할을 갖지 않고 안정을 얻지 못한 채로는 어떠한 개별적 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일시적일 뿐 문제는 고쳐졌는가 싶지만 곧 문제인으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 어떤 부적응자를 치료하기 위해 심리요법의 입장에서 특정한 집단을 만들고 또한 집단을 이용하는 집단치료의 연구는 앞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과제로 믿는다.

집단치료는 그것이 이용되는 집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부적응자를 정상적인 그룹에 넣어 그 집단 성원으로로서 수용되도록 하

는 것으로써 집단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사회적 참가에 의해서 치료 효과를 올리려는 것인데 표현치료를 집단장면에 이용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종류의 부적응자를 모아 집단을 편성하여 이를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매우 고도의 기술을 요하며 전문적 치료자를 필요로 할 때가 많을 것이다.

다음은 집단지도에서 개별지도는 꼭 따라야만 할 필요물가결의 것이 된다. 집단지도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에서 개인적 격려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개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통문제를 발견하는 등 집단지도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주로 개인지도의 역할이라고 본다. 따라서 집단지도나 개별지도는 그 어느 것이나 다른 하나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각각 독자성과 적극성을 지닌 2대 방법이라 할 것으로 이 두 방법을 『다이나믹』하게 관련시켜 나가는 데에 지도의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개별지도는 주로 상담 면접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면접전에 문제에 관한 자료를 모아 어느 정도의 예측을 세우는 준비단계

<집단생활 부적응자들의 지도방법>

2. 면접자와 상담자와의 사이에 태포 (Rapport)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로 비 지시적 방법에 의하는 초기 단계

3. 상담자가 자기의 중심문제에 논급하여 이유를 내는 문제분석의 단계

4. 문제를 다시 분석하여 보다 깊은 통찰을 얻고 해결방법이 음미되며 마침내 면접이 끝나는 종결의 단계

5. 추후지도의 단계

다음은 요약해서 상담, 면접의 기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면접자의 마음가짐,

1. 강의나 설교하듯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도록 한다.

2. 가급적 간단하며 알기 쉬운 말을 쓴다.

3. 진정한 문제가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상담자의 말과 태도를 음미하고 진정한 문제의 소재를 투시하도록 한다.

4. 해결을 시들터서는 안 된다. 최선의 해결은 문제자의 자신에 의해서 행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면접의 시작

1. 선악감을 떠나서 애정으로 맞이한다.

2. 즉시 문제의 초점에 접근하지 않

는다.

3. 평범하고 비근한 화제부터 꺼내는 것이 좋다.

4. 내향성인 부적응 자와는 마주 앉지 말고 나란히 앉도록 한다.

5. 면접자는 상담자의 비밀을 저킴으로써 평상시 신뢰감을 높여가도록 한다.

세째로 면접의 진행,

1. 심문하는 말투는 삼가며 또 안니한 타협이나 등정도 않는다.

2. 열심히 듣는 이가 되어 전부 말을 마치도록 한다.

3. 태도나 감정은 인용해 준다.

4. 깊은 정서적 태도는 표현하기 어렵고 부끄럽고 또 죄의식도 따르기 때문에 상담자는 이것을 충분히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면접자는 이것을 민감하게 통찰함으로써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침묵을 깨우려고 쓸데없이 지껄이는 것은 오히려 상담자의 사고를 방해하는 일이 된다.

6. 면접시간은 미리 약속해 두어서 그 시간 내에 끝나도록 한다.

7. 면접자는 면접시간이 끝날시간이 가까워지면 기회를 보아서 면접의 성과를 정리해 본다. 이 정리 여하에 따라 효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이다.

네째로 면접의 종결,

1. 바쁜일이 있다 하더라도 재촉하여 끝내지 않도록 한다.

2. 문제해결을 서둘러 지도자가 해결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다음 기회로 넘겨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상담, 면접의 기록,

1. 통상기록은 되도록 상담자가 보는 앞에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물론 주소, 이름, 가족사항 등의 기록은 제외되겠지만 그 밖의 기록은 면접이 끝난 다음에 곧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기록은 인비에 속 한다. 부득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이름, 주소 등을 감추어야 할 것이다.

4. 지도자의 자질

집단생활의 부적응자들의 지도에 있어서 지도자 자신의 개인적 또는 전문적 업적과 자질이 중요시 된다. 부적응자의 치료와 지도는 학문이 아니고 하나의 기술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여러가지의 요법상의 기술은 과학적 조사에 근거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지도의 성공여부는 지도자의 개인적 자질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다음은 부적응자들의

지도를 위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기술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1. 인간관계에 대한 예민한 이해성이 있어야 하겠다. 인간집단에서 사회적 지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면 인간관계에 대한 예민한 이해성일 것이다. 이해성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감정과 태도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타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나도 어떻게 그 말을 하는가에 대하여 관심이 더 크다. 그리하여 타인의 음성적 반영, 안면표정, 동작, 태도를 통하여 문제해결의 단서를 발견한다. 인간 상호간의 교섭에 있어 정통한 이해를 가져야 할 것이다. 타인의 행동반응에 대하여 뛰어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직관적이라고 부른다. 표면상 직관적이라고 보여지는 이해력은 다년간 걸친 인간행동의 관찰에서 오는 것이다. 훌륭한 직관력은 비단 치료나 지도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집단 생활에서는 항상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2. 개인에 대한 깊은 흥미와 존경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지도자가 타인의 문제에 대한 깊은 흥미와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자 하는 성실성이 없다면 그에게 대하는 모든 일이 참기 어렵

<집단생활 부적응자들의 지도방법>

은 부담이 될 것이다. 지도자는 개인의 보다 행복한 복지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부적응자의 이상행동을 교정하여 주고 주어질 환경에 순응해서 행복되고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 되게하여 주는데 있어야 한다.

3. 인간행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도자가 인성심리학에 관한 충분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보다 인간행동을 이해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인간의 행동에는 물리학이나 생물학에 있어서와 같이 만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어떤 특수한 행동의 원인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원인은 반드시 있다.

특히 부적응자를 대상으로 행동을 지도하는 때는 절대로 개인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비난이나 조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마치 의사가 암을 앓고 있는 환자를 비판하지 않듯이... 심리학적 입장에서 행동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워져야 할 것이며 이것을 도의적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행동의 적응장애에 대하여 아직도 도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의 견해에 의하면 각자의 행동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어떤 개인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였다면 고의로 비행한 것으로 본다면가 어떤 개인이 백일몽(Day-dreaming)에 잠겨 시간을 보낸다면 대만한 자라는 말을 듣게 된다. 전선에서 전쟁신경증에 걸리면 그는 피병을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며 마음에서 입은 상처는 외상의 상처만큼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를 무시하는 수가 많다.

도학적적 입장은 인간이 그가 소속하고 있는 집단의 행동규범이나 유형에서 이탈되는 행동을 할 때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 비판이 그에게 집중될 때 더욱 부적응 상태로 악화되는 결과가 된다고 본다. 적절한 적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행동의 이유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 요망된다. 그러나 그가 정서적 적응장애를 느끼게 될 경우 그 행동이 왜 이런가고 자문할 필요가 있다. 긴장해소의 체일보는 긴장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4. 청취의욕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훌륭한 지도자는 개인과의 면접시에 그 개인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또한 심리적인 접촉을 무단히 유지하면서 주의깊게 피지도자가 말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반응적 태도와 긍정적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5. 결 언

1. 한 집단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사항은 그들의 집단생리를 충분히 이해하는 일이다. 집단생활에서 작용하는 최고의 권위는 자기가 소속한 집단의 권위이지, 어느 특정한 지도자의 권위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집단성원간의 사회적 교섭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사회적 관심이나 태도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을 이해하고 집단생활의 발달과정에 적용된 지도가 필요하다.

2. 집단의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파악하는 일이다. 가정적 배경, 지역적 환경 경제적 위치, 경제 문화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성격과 집단내의 성질을 분석할 수 있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지도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3. 지도자는 집단 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 집단은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집단 안에서 주는 영향이나 역동성을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생활지도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본다.

4. 집단생활을 통해서 집단사고력을

발달시키고 집단의 필요로 하는 행동규범에 적응시키는 기술을 연마시켜야 한다.

5. 집단생활과정에서 건설적인 욕구는 가능한한 들어 주어 욕구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정신분석학적인 견지에서 그들의 욕구가 부당한 경우라도 그 태도가 진지하게 보일 때에는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 말고 계기된 욕구 방향을 돌려(Redissection) 그것과 비슷한 다른 가능성 있는 형태로서 욕구충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6. 집단지도는 사후 처리보다 예방적 지도가 더욱 중요하다. 예로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과오에 대한 벌칙을 찾는 일이 지도자의 할 일로 생각되기 쉬운데 이것은 소극적이고 비효과적인 방법이다. 집단성격과 집단성원들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장, 단점과 여타가지 가능성을 예측하여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7. 집단성원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설 기관 혹은 「프로그램」이 소속된 집단에서 고려되고 인정되어야 어한다. 즉 오락기관, 잡지, 신문, 상담실 등의 활용시간이 적절히 할애될 필요가 있다.

미사일의 역사 <2>

문 정 식

미국에서 최초로 실전용이 된 것은 아손이라는 것과 라손이라고 하는 무추진 공대지 미사일이다.

아손으로 말하면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명명한 것이며, 라손은 사정(射程)과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아손의 발사 중량은 450킬로그램인데 미부(尾部)에 불이 켜지도록 되어 있고 무선 수신기와 유도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폭격수는 미부의 불 빛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무전으로 조종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이 눈부신 활약을 한 것은 버마 전선이었다. 백십발의 아손이 좁은 철교들을 향해서 낙하되어 맹렬한 대공포화 가운데서도 35발이 직격으로 명중함으로써 열 다섯 개의 다리가 파괴되었다고 한다. 이 당시 미해군에도 「밧드」라는 미사일이 있었는데 길이가 3.6미터, 날개의 폭이 3미터되는 활공폭탄이었다.

이것은 레이더를 사용해서 호우밍으로

목표에 향하도록끔 설계되어 있었다.

발사전에 레이더의 발신기와 수신기가 목표에 고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군함을 목표로 할 때는 상당히 유효한 것이었다.

물론 이 당시의 미사일은 오늘날의 그것과 비교할 때 신뢰성이 적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당시 실험장 부근에는 폭탄 투하용 실험장보다도 훨씬 넓은 위험 구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다.

폭격이라 하면 설사 목표 조준을 그르쳤다고 하더라도 발사된 다음에는 자연히 탄도를 그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방향이 틀리는 경우는 없으나 유도 미사일로는 자칫 잘못하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워니 워니해도 제2차 대전을 통한 미사일의 화제는 독일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의 로켓 개발에 관해서 우리들이 최초로 접할 수 있었던 것은 1929년

대에 상영된 「월 세계의 여인」이라는 영화였다.

이 영화의 스토어리는 월 세계로 향하는 로켓 계획에 여성 한 사람이 긴 탐험대가 참가한다.

여러가지 의혹과 불안으로 달세계에 도착한 후 내원들의 단결이 깨어져 몇몇 사람이 죽었는데 귀국 직전 산소 장치가 파괴되어 오직 한 사람 밖에는 남을 수가 없게되어 영화의 주인공은 자기가 남을 결심을 한다. 그리하여 로켓을 보내고 나서 동굴로 돌아 가려고 하는 그를 여자도 몰래 로켓에서 빠져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황량한 달나라 사막 위에서 뜨거운 포옹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 줄거리인데 이 영화 제작에 있어서 로켓에 관한 부분은 「헬마·오베르트」가 협력한 것이다.

「오베르트」는 독일에서 액체연료 로켓을 최초로 개척한 사람이다.

「월 세계의 여인」에서는 「오베르트」가 로켓 발사부분을 담당할 계획이었는데 실험 중에 엔진이 폭발하여 그 부분은 영화화되지 못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그는 액체연료 로켓의 엔진을 완성하였다.

그것을 「헬마·폰·부라운」이 이어 받아 V-2호로써 결실을 본 것이다.

★ A-1에서 A-4까지

발틱해의 「스멧젠」만 입구에 「우-제들」이라는 섬이 있었다.

이 섬 한 구퉁이에 「케베룬다」라는 작은 어촌이 있어 다른 마을들은 여름이 되면 평장이 번창하는데 이곳은 변함없는 한 어촌이었다.

여기에 1937년 독일 육군의 로켓 연구소가 설치되었다.

그 전에는 미사일 연구를 백령교의에 있는 쿤마스도르프 연구소에서 하였는데 그 최초의 것으로는 AGGREGATE 1. 즉 조립 1호라는 것으로 A-1로 약칭되었다.

1933년 일단 완성됨을 보아 시험대 위에서 실험을 거쳐 A-2계획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1934년에 완성하였다.

이 로켓은 북해 볼름도에서의 발사 실험에서 약 2,000미터 상공에 달하였는데 여기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나는 로켓 연구비의 증액이며 다른 하나는 실험의 안전과 비밀을 유지할 수가 있는 실험장의 필요성이었다.

여기서 선택된 곳이 「케베룬다」였다. 이리하여 「헬마·폰·부라운」도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실험연구는 A-3을 거쳐 A-4의 단계로 들어섰다.

★ 미사일의 역사

도중에 히틀러의 의견으로 경비사각 같은 난관에 봉착하면서도 A-4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다.

1940년에는 A-4의 기체와 엔진이 완성되었다.

A-4의 완성으로 해서 독일 각 방면에서 「페넨디」에 모여든 과학 기술자들은 무려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1942년 8월 13일과 16일에 있었던 두 번의 A-4시험은 실패로 돌아가고 10월 3일에 있었던, 세번째 시험에서 비로소 실험은 성공하였다.

이 때 A-4는 로켓엔진 분사의 평온과 함께 서서히 지상을 떠나 점차로 빠른 속도로서 상승하였다.

A-4는 약 1분만에 연소가 끝난 후에도 상승을 계속하여 최고 고도까지 달하였다. 고도 87킬로미터에 달하였을 때 안전판이 고장이 나서 머리를 위로 문채 강하하다가 그후 대기층에 이르러 머리를 수그린채 바다로 낙하하였다.

이와는 별다른 시험에서 A-4의 사정이 약 300킬로미터에 달하는 것도 알게 되었다. 1936년 독일 육군이 요구한 로켓 성능은 1톤의 폭탄을 탑재하고 발사 중량 12톤, 추력 30톤, 사정 240킬로미터였다.

그런데 A-4는 바로 이 요구에 응할만한 것으로 등장한 것이다.

A-4는 전장 14미터, 직경은 1.66미터, 자체중량 8톤, 폭약중량 1톤, 연료 3.8톤, 액체산소 5톤 발사중량 13톤, 추력 26톤, 연소시간은 65초라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A-4에 다시 불행한 날이 찾아왔다. 어느 날 밤 히틀러가 A-4로는 영국 본토를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었다.

이리하여 A-4는 다시금 다량 생산의 일보 직전에서 멈추게 되었다.

1943년 7월 7일 「도문벨가」소장과 「폰·부라운」은 히틀러를 방문하고 A-4에 관하여 상세히 보고하고 겨우 생산해도 좋다는 양해를 얻었다.

그런데 그 직후 8월 16일에 영국 장거리 폭격기 600대에 의한 폭격으로 연구 시설이 파괴되는 운명에 봉착하였다.

★ V-1호의 런던 공격

결국 독일의 장거리 미사일로서는 비행기 형의 V-1호가 먼저 실용화되었는데 그 V-1호에 의한 런던 폭격의 최초의 광경이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1944년 6월 12일밤 도오바 해협을 방공전투기 모스키프로 초계하고 있던 영국 공군의 「마스구레이브」중위는 카레—쪽에서 불명어리가 날아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속도는 모스키투와 거의 같고 모스키투의 우측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 때 마스구레이브 중위는 반전(反轉)해서 그것을 추적하였다. 그리하여 기총으로 3발을 속사하였다. 총탄이 명중된 불덩어리는 배음향과 함께 폭발하여 바다에 떨어졌다. 그 다음 날인 13일에 날도 아직 밝지 않은 오전 4시 초제기에 의해서 도중에 방해물 받지 않은 불덩어리는 수평비행으로 런던 상공에 이르러 평장탄 폭음으로 런던시민을 깨우고 그 때로 급강하여 스완스푼이라는 일대에서 폭발하였다. 이것이 V-1호의 런던 공격 제1호였던 것이다.

V-1호라는 것은 추진 방식을 파루스·제트 즉 간헐적으로 폭발하는 제트 추진 방식으로서 매 초에 47회씩 진동판이 달리고 열리고 하였다. 그럴 때마다 크게 폭음이 들리기 때문에 BUZZ BOMB이라고 불리웠다.

V라는 것은 Vergeltungs waffe 즉 보복병기의 약칭인 것이다.

V-1호의 정식 명칭은 FZG-67이었다.

V-1호의 연구는 1942년 초기에 「페넨문디」섬에 있는 공군 연구소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연구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인기로서의 비행컨트롤과 정확한 발사제어 같은 것이 있다.

한 때는 사람을 탑승시킨 시험도 있었다.

1942년 12월 24일에는 최초의 무인기 V-1이 발사되었다.

그 때로부터 1년여의 연구개발을 거쳐 양산이 시작된 것이다.

★ V-2호의 공포

V-2호가 처음으로 런던에 발사된 것은 공교롭게도 정부가 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이었다.

9월 8일 오후 6시 40분, 하늘에 검은 불덩어리가 나타나자마자 평장탄 빠르 속도로 강하하여 치즈윅크 지구에 낙하하여 수천호의 건물이 날아가 버렸다.

이것이 V-2호에 의한 런던공격의 시초였다. V-2호의 속도는 음속의 약 3배나 되고 더구나 고도 96킬로미터의 대기권 밖에서 공격을 가해오기 때문에 V-1호에 대처했던 방어법을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유일의 방어책은 V-2호의 발사기저나 제조 공장을 공격하여 V2호를 발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뿐이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독일의 연구소나 공장 또는 조립공장 등에 대한 반복폭격 V-2호 발사지점의 폭격, 그리고 발사지점에 이르는 수송로 파괴, 발사지점이나 집적지에 있는 V-2호 파괴에 전력을 기

★ 미사일의 역사

우렸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V-2호를 「하루스」 산에 있는 노루도하우젠 근교에 공장을 설치하고 지하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 공장은 두 개의 터널로 판들어져 있어 그것들은 자기 약 270미터 떨어져 있었다.

그것을 연결하는 통로도 소공장으로 서 이용되었는데 여기서 A-4의 1일 최대 생산량은 13발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은 기어코 V-2호와 씨워서 이겼다. 런던에 대한 마지막 V-2호 공격일은 1945년 3월 27일 이었다.

V-2호는 그 때까지 6,916발이 생산되었다.

런던을 목표로 하여 발사된 것이 1,120발이며 그밖에 2,500발은 구라파 대륙 내 여러 목표지에 퍼부어 졌다.

런던에 퍼부어 진 1,120발 가운데 1,050발이 런던시 내에 떨어졌다고 한다.

발사되고 나머지는 훈련용이라던가 실험 연구용으로 쓰여졌다.

V-2호에 의한 피해는 죽은 사람이 2,000명 이상이고 중상자가 6,000명 이상, 건물파괴는 수만을 헤아렸다고 한다.

★ 개발된 각종 미사일

「페베룬디」에도 연합군의 공격이 심해졌다. 1945년 1월 초순에 이르러 「페베

룬디」연구소에 퇴피명령이 내려졌다.

「도른펠가」소장과 「폰·부라운」은 연합군 측에서 중전을 할 결심을 하고 4월 하순경 서방으로 이동하여 바바리아우오 벨요호에서 미군에 투항(投降)하였다.

미군은 중전과 더불어 약 100발의 V-2호의 부분품을 얻어 본국으로 보내어 제네랄·엘렉트릭회사에서 조립하였다.

그리고 「폴·부라운」도 미국으로 건너가 이 작업을 지도하게 되었다.

이 때 소련도 역시 수많은 독일의 미사일 기술을 반출해 갔다.

그런데 그 때 가져간 것은 V-1, V-2의 기술뿐 아니라 미사일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그 때 독일은 이미 각종 미사일 즉 지대공 혹은 공대공, 공대지 또는 다단식 로켓트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2차 대전중에 사용한 미사일로 V-1, V-2밖은 아니었다.

1943년 9월 14일, 이태리의 최심 전함으로서 35,000톤이나 되는 「로마」호가 불과 한 대의 도루니에 DO-217 폭격기에 의한 고도 6,400미터에서의 직격탄에 맞아 격침된 것도 이 폭탄이 헨셀 HS-293이라는 활공유도 미사일이었기 때문이다.

왓사—팔이라는 지상에서 항공기를 향해서 쏘는 지대공 미사일도 있었다.

연합군의 대독 폭격이 치열해짐에 따라

공격병기로서의 미사일뿐 아니라 방어용 미사일도 급속히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독일로서는 재빨리 40종 이상이나 되는 대공미사일도 계획하였다.

그 중에서 실용가치가 있었던 것은 네 가지 뿐이었는데 엘시안, 슈베타루링, 라인트호퍼, 왓사-팔이 그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이 왓사-팔이었는데 소형의 V-2호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술들도 모두가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에서 개화를 보게된 것이며 「페네둔디」는 다시금 옛날과 같이 조용한 어촌으로 돌아갔다.

★ A-9, A-10 계획

A9, A10은 2단식 장거리 미사일일 것 예정이었다.

V-2호에 55도의 후퇴익을 달아서 사정거리를 연장한 것을 A-9로 한다.

그 밑에 부우스터(발사용 로켓)로서 중량 68톤의 A-10 로켓트를 단다.

그리하여 전장이 26미터이다.

발사용 로켓트 A-10이 연소를 끝냈을 때는 로켓트는 고도 24킬로미터에 달하게 된다. 속도는 시속 4,280킬로미터로서 여기서 A-10은 낙하하여 A-9만이 상승을 계속한다. 마지막에 가서 시속 1만킬로미터에 이르르면 연료분사를 끝내고 그

후에는 탄도를 그리며 비행한다.

점점 고도를 낮추어서 고도 45킬로미터에 이르렀을 때에 속도는 시속 1만2천 8백킬로미터가 된다.

이때의 추력을 요령있게 응용해서 전사정(全射程) 4천8백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도록 항공비행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계획의 전단계로서 A-9계획 즉 V-2호에 날개를 달아 사정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이미 개시되고 있었다.

1942년에는 V-2호 즉 A-4에 2개의 후퇴익을 단 A-4b가 계획되었다.

1944년에는 2발의 시작기(試作機)가 만들어 지고 그해 겨울에는 실험이 있었는데 그대로 바로 실용이 될상 십지는 못하였다.

그전에 A-9, A-10계획은 중지되었다.

1943년 8월 16일, 「페네둔디」는 6백명의 영국 장거리 폭격기의 폭격을 받아 735명이나 사상자를 냈으며 연구 시설도 크게 피해를 입었다.

이쯤 되고보니 미 본토 공격은 생각도 못할 형편이었다.

그리고 미 본토 공격을 꿈꾸던 「폰·부라운」도 결국에 가서는 개발계획을 중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극간 폭격기(極間爆撃機)

극간폭격기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천재

항공 기술자 오이겐·제겔의 고안이다.

그 재능이 촉망되어 「원」에서 독일에 초청된 제겔은 1936년 트라벤에다 로케트 비행기도 연구소를 설립하고 1939년에는 연구를 개시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야심적인 계획은 극간 폭격기 즉 지구를 반주할 정도의 사정을 가진 유인폭격기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도 3년 후인 1942년에는 전쟁 동안에 쓰이지 못할 것으로 알고 중지하여 버렸는데 이 계획은 다른 나라 기술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제2차 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직후 소련의 스탈린은 「제겔박사는 어디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하면서 맨 먼저 찾아 내려고 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오이겐·제겔」은 그의 협력자 「이레네·부렛트」와 더불어 연합군에 잡혀서 불탄서 공군성으로 호송되었는데 이 두 사람의 공동작품인 「제겔·부렛트 보고」 즉 「초고도를 비행하는 장거리 폭격기의 로케트 추진」이라는 구상이 크게 열강국 기술자들의 관심을 끌게 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기묘한 형태를 한 폭격기였다. 동체의 하면은 편평하고 동체 단면은 높이 보다도 저부(底部)쪽이 넓은 정도여서 연료 탱크가 나란히 두 개가 들어 갈 수 있었으며 동체의 선단은 아주

보폭하였다. 주익도 색다르게 생겼는데 폭은 15미터, 단면은 3각형으로서 두께는 익현(翼弦)의 20분의 1이라는 얇은 것으로 더구나 가장 큰 두께의 위치는 익현의 3분의 2 지점에 있었으며 발중량은 100 톤이나 되었다.

발사할 때는 3킬로미터 길이의 수평으로 된 홈 위를 부우스터의 힘을 빌려 활주대를 이탈할 무렵에는 시속 1,800킬로미터의 속도가 된다.

그 다음에 30도 각도로 상승을 계속하여 8분 후에 연료 소비가 끝날 무렵에는 고도 150킬로미터, 속도 약 2만1천4백 킬로미터가 된다.

기체는 그대로 상승을 계속하여 최고 고도인 250킬로미터까지 달한다.

그런 다음에 탄도를 그리며 40킬로미터까지 강하해서 대기권 상면에서 반도(反跳)하여 몇 번이고 대기층 위를 바운드하면서 소위 스킵프 비행을 계속하다 드디어는 2만킬로미터, 사정(射程)까지 도달한다는 계획이었다.

제겔의 극간폭격기는 미사일 분류 가운데 드는지 안 드는지는 모르나 A-9, A-10 계획이나 극간폭격기 계획이 전후(戰後)에 있어서 미국이나 소련의 장거리 로케트 개발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독일의 기술이 그대로 미국이나 소련

에 이입(移入)되었다고 하면 잘 못이나 제2차 대전중에 독일 항공기술자들이 이와 같은 장래 병기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국이나 그 밖에 나라들의 기술자들에게 이와 같은 종류의 병기를 연구개발하는데 있어서 용기를 주었고 그 가능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주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 미국 최초의 ICBM 계획

미국에서는 이미 1945년 가을에 장거리 로케트의 개발이 계획되었다.

1945년 10월 31일, 미 육군은 몇 개의 회사를 초청하고 8천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갖는 로케트 연구개발 계획에 관해서 토의한 바가 있다.

오늘날 ICBM 아트라스를 생산하고 있는 콤페아사는 1946년 1월에 여기에 관해서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4월에는 육군과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1947년에는 금일의 아트라스가 지닌 특징을 갖춘 시험 로케트의 원형을 만들었다.

그런데 주임 기사는 지금 콤페아 우주공학부의 기술부장을 하고 있는 「카렐·J·보사트」였다. 이 1단식의 시험 로케트에는 MX-774 하이록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정적 시험(靜的 試驗)과 5발의 시험발사가 하이트·산스 시사장에서 행

해졌다.

그런데 MX-774는 V-2와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는 엔진이 가동식으로 되어 있어 방향제어를 그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V-2호는 노즐(Nozzle) 가운데의 분류익이 방향을 바꾸어 제어하기 때문에 추력의 손실이 컸었는데 이 결점을 제거하는 새로운 방식의 엔진장비법이 채용된 셈이다.

둘째로는 구조가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을 주로 써서 V-2가 강철을 대부분 쓴 데 비해서 훨씬 가볍게 된 것이다.

머구나 외각(外殼) 자체가 추진제 탱크의 외벽도 되어 그점만으로도 탱크나 외각과 따로 되어있던 V-2보다 훨씬 경량화(輕量化)에의 노력이 기울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겨우 움직이다 주저앉고 말았다.

즉 1947년의 군수비 절감으로 장거리 로케트 개발이 멸족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1948년에 행하였던 MX-774의 시사를 최후로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ICBM개발은 오랜 동면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 동안 보사아트가 인솔하는 기술진은 콤페아사의 자금으로 다단식 로케트의 기술, 유도, 추진제의 조립, 탄두제

★ 미사일의 역사

물입의 문제에 집중하여 연구만을 그렇게 저절로 계속하였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군사비가 증액되어 ICBM계획이 재태두되었다.

새로운 계획에 부여된 명칭은 MX-15 93이었다.

1952년 말에서 1953년 초에 걸쳐 「C. B. 미리칸」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군과학 부문 위원회는 롬베아사의 ICBM 계획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그 결과 그 기술적 가능성을 만장일치로 인정하였다.

1953년 가을 존·폰·노이만이 주재하는 문관 위원회도 ICBM계획 전반을 촉진해야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리하여 1954년 공군은 계획추진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그런 가운데 수폭이 실현을 보아 1954년 3월 비키니에서 본격적으로 실험이 개시되었다. 탄두는 아주 소형인데 그 위력은 굉장히 큰 것이 출현하였다. 이리하여 ICBM개발이 본격화할 기회를 찾아온 것이다.

★ 아트라스 시사(試射)

아트라스 탄도유도탄이 처음으로 시사를 행한 것은 1957년 6월 11일 이었다.

발사시간을 알리는 초점이 영점을 알리자 아트라스는 두 개의 연소실에서 분

화구와 같이 화재를 분출하기 시작하였다. 125톤이나 되는 추력이 고열 가스의 분사로 조성되어 액체산소로 냉동될 때 아트리의 동체는 마구 떨어져 빙피가 번쩍거리며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아트라스는 불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상승하였다.

점점 높이 점점 빨리 누구나 이 발사 순간에 성공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별안간 사고가 일어났다. 거대한 로케트는 돌연 예정 진로에서 이탈하였다.

망원경을 조지켜 보면 기술자들에게는 아트라스가 균형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을 완연히 볼 수 있었다.

유도장치는 전력을 다하여 아트라스의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했으나 궤도에 서 이탈한 채로 상승을 계속하는 가운데 드디어 기체가 동요하기 시작했다.

두부가 거의 수평이 되어 갔으며 마구 내뿜는 화염은 점점 길어졌다.

이렇게 몇 십 초가 경과하였다.

드디어 연료 파이프가 파열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으며 노즐에서의 화염은 이미 분출이 멎었다.

아트라스의 전신이 눈깜짝 할 사이에 화염에 싸이고 말았으며 불덩어리는 사방으로 흩어져 해상으로, 해변으로 낙하하였다. 불과 55초동안에 일어난 일이었

는데 이것이 아틀라스 처너비행의 전부였다.

30만 개의 부분품을 조정해서 만든 정교무비의 아틀라스 제1호는 이렇게 해서 사라지고 말았다.

★ 소련과 ICBM

이와 같이 미국이 계획하고 중지하고 하는 사이에 소련도 ICBM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련에는 원래 ICBM 연구에 열안이 될 이유가 있었다.

미국은 소련에 근접된 많은 해외 기지를 가지고 있으나 소련은 그것이 있을 턱이 없다. 그러므로 소련은 항상 이전략적 약제성을 타개하고자 광분하였다.

그런데 소련이 여기에 대처하는 길은 오직 소련 본상에서 미본토에 도달할 만한 ICBM 완성 밖에는 별 도리가 없다.

그래서 제2차 대전후 독일서 반출해간 인적, 물적, 자원을 밀친으로 하여 여기에 전심전력 하였음은 명약 관화한 일이다.

이리하여 실용적 수목에서는 소련이 미국보다 한 걸음 앞섰다.

소련은 1953년 8월에 최초의 수목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그것에 기준한다면 미국보다 약 7개월 선행된 셈이다.

그 다음에는 소련이 1955년 11월 22일 비행기에서 수목투하에 성공하였고 미국은 1956년 5월 21일에 부하실험에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ICBM 탄두에 장비할 수목이 실현됨에 시기는 성숙하였다.

처음으로 소련의 ICBM 성공이 전해진 것은 1957년 8월 26일이었다.

이리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이 국제 정치상에 전지해 왔던 우위는 이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풍요를 일으켰다.

그런데 1957년에는 소련도 ICBM을 완성할지도 모르겠다고 예상할 만한 이유는 있었다.

그것은 국제지구관측년 즉 세계각국이 협력하여 지구진반의 연구를 하는 기간이 1957년 7월 1일부터 18개월간 설정되어 미국은 이 기간에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소련도 어쩌면 한 개쯤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인공위성 발사기술은 ICBM 기술과 그다지 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상술한 바와 같이 소련은 ICBM 개발을 서둘러야만 될 전략상 지리적 사정이 그들로 하여금 여기에 광분케 한 주인(主因)이 될 것이다.

★ 가장 유용한 것으로

미국은 지상에서 발사하던 아틀라스를

반지하, 혹은 완전히 지하발사에까지 발전시키려는 계획도 진행중이며 이제까지 무선지령 관성유도라는 과도적 방식이었던 유도방법도 순수관성 유도방식으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관성유도라는 것은, ICBM 내부에 설치한 가속도계에 의해서 발사직후부터 ICBM이 받은 가속도를 검지하고 그것을 역시 ICBM 내부에 있는 계산기구조로 2회 적분하여 비행궤적을 산출해서 그것과 미리 예정한 궤적과 비교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이라면 지상에서 지령장치가 필요없기 때문에 한 기지에서 연속해서 몇 발이든지 ICBM을 발사할 수 있고 지상에 노출된 장치가 없는 점에서 기지방비도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속도 검지량에 오차가 있으면 시간과 더불어 오차가 축산되어 급격히 정밀도가 떨어지는 결점이 있다.

이 결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처음의 아트라스에는 지상으로부터의 무선지령도

병용하고 있었는데 서서히 관성유도 장치의 기술도 향상되어서 순수한 관성유도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순수관성유도 방식에의 전환은 발사기지를 지하로 가져가는 것과 아울러 아트라스를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만들었다.

한 때 미국에서 미사일의 개발진도에 있어서 논의가 많이 떠돌았다.

즉 미국은 소련보다 ICBM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뒤졌다는가 혹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앞섰다고 하는 것 같은 논쟁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논쟁도 식어 갔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소련수준을 능가하고 있다는 자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구의 크기는 일정하다.

따라서 상대국의 ICBM 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도 ICBM의 수도 어느 정도가면 그 것으로 완전한 상태가 된다.

×

×

미국의 극동 공군력

— 재일 미 공군력을 중심으로 —

김진기

극동방위에 가장 관계가 깊은 미국의 항공력으로서서는 현재 미 제5공군 이외에 「이스끼」, 「이와주니」의 해군, 해병대 항공부대와 미 제7함대 소속의 항진 항공 병력을 비롯하여 「오끼나와」에 있는 미 전략공군사령부 예하의 부대 항공 등이 있지만 우선 극동 미 공군력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제5공군의 전력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 재일 미 제5공군의 존재가 확실하게 다시 인식된 것은 지난 일본항공의 보잉 727(요도)호의 사건을 전후해서인 것이다.

휴전선 부근 상공을 나르던 「요도」호의 위치가 한국공군의 「레이다」망에 포착된 지 1,2분 후에 일본 방위청에 통보되었다는 정보의 신속성은 한국공군의 기민성과 특히 미 공군과의 협력관계 및 미 제5공군의 기구 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저극히 당연한 놀라운 사실이 아닐 것

이나 일련의 이러한 사실은 극동 특히 일본에서는 대단히 놀라운 일로서,

막인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의 위치와 그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구감과 불안감으로 휩싸였었던 것 만은 틀림 없었다.

엄격히 따진다면 그들이 품고 있는 불안감은 그런대로 수궁이 가는 것이다.

즉 일본 및 극동 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존재가 극동 아시아의 군사력에 평형관계를 유지시켜 그런대로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조성하여 인건 평화로운 현상유지를 이룩하고는 있거만 만약 일단 전쟁이 이 극동지역 어느 한 구석에서라도 일어난다면 일본이 이에 휘말려 들 가능성과 그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어 이를 가버히 보아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일 것이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중에서도

★ 미국의 극동 공군력

공군과 해군, 해병대의 항공부대가 모두 일선 전투비행단의 성격을 띄워 일단 유사시 직접 전투에 참가할 것이고 또 유사시 논의되고 있는 기지 공해문제와 관계가 깊은 때문에 특히 이에 대한 이들 기지의 존재 의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 공군의 실전부대로는 전략공군 사령부(Strategic Air Command)

전술공군 사령부(Tactical Air Command)

항공우주방위 사령부(Aerospace Defense Command)

공수 사령부(Military Airlift Command)

주 항공대(Air National guard)

구주공군 사령부(USAF in Europe)

태평양 공군 사령부(Pacific Air force) 등 7개 수단위로 나뉘는데,

미 제5공군은 태평양통합군사령관(C-INC PAC) 예하에 있는 태평양공군 사령부의 일부로서 전술 공군사령부의 통제를 아울러 맡고 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제5공군, 제13공군(필리핀 클라크 기지), 제7공군(사이곤) 등 3개 사령부를 지휘하고 있으며 총 병력 18만 5천명, 약 90개 비행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 전공군 병력

의 1/5에 해당된다.

미국이 NATO에 파견하고 있는 구주 공군사령부 예하 병력 2만 5천명과 18개 전술전투비행대, 6개 전술정찰비행대 등과 비교해 보면 극동 지역의 방위에 미국이 지고 있는 책임과 그 중요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예하 3개 사령부 중 최대 규모의 것이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7공군이다.

총병력 6만, 전술전투기 340대, 정찰기 40대, COIN(폭동진압)기 150대 이외에 수송기, 헬리콥터 등 다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선에 의하면 보유기수 약 2,000여대와 월남에서의 작전병력만으로도 전구주 미 공군력을 훨씬 상회하고도 남는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 13공군도 태국에 있는 기지에서 월남전에 투입된 작전항공기 수는 약 260대, 전체적으로 보면 약 600대에 이른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오키나와에 분산 주둔하고 있는 미 제5공군력은 총 병력 약 4만 7천, 보유기수 약 400대로 그중 작전기(전투기 전투폭격기)는 약 260대 정도라고 한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예하 3개 사령부 중 월남전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제5공군은 예비군단의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맹방들에 대하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안보와 국방에 직결되는 지역에 대해 특히 그 중요성이 불분명한 경우 그 병력을 조성하여 배치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마 미국에 있어서 큰 골치거리의 하나가 될 것이다.

미 제5공군은 제2차대전이 그 절정에 달했던 1942년 9월, 당시 일본군이 「뉴우기니아」의 「포트모레스비」에 진격하고 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 「뉴우기니아」 등지에 흩어져 있던 항공력을 통합, 편성한 것이다.

이후 연합군의 반격에 따라 제13공군과 같이 「비올린」, 「오끼나와」 등지에 상륙 중전과 더불어 「존슨」기지에 주둔케 되었던 것이다.

예하에 제5공군, 제13공군, 제315공수사령부를 두고 있던 미 극동공군 사령부는 (FEAF) 1957년 7월 태평양 공군사령부 (PACAF)로 개편, 사령부를 일본에서부터 「하와이」로 이동했다.

제5공군의 방위담당구역은 한국, 일본 「오끼나와」를 비롯한 제 지역으로 현재 일본에 4개 비행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미자와」 「요코다」 등지로 「미자와」 기지에는 제 475 전술전투비행단이 있고 예하에 F-4D 3개 비행대와 RF-4C의 제 16전술정

찰비행대가 있다.

미 공군의 1개 비행대는 18대로 편성 되는데 이로부터 비추어 보아 예비기 및 보조기를 포함하여 F-4D가 약 70여대, 전술정찰기가 약 20여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475전술전투비행단은 현재 2개의 파견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68년 1월 복귀의 미 정보함 「프에블로」호 남북 사건 이후 모두 한국에 파견중에 있다.

동 파견병력의 규모는 각 1개 비행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미자와」에는 그 전투기 보유대수가 1개 비행대 규모의 20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코다」에 기지를 둔 제347전술전투비행단은 3개전술전투비행대 (제35, 36, 38 전술전투비행대)와 RC-130 등 약 10대로 구성된 제 556정찰비행대가 있으며 이 347 전술전투비행단도 그 병력의 일부가 한국에 나와 있다.

또한 「요코다」기지에는 작년 12월 「다찌가와」기지의 사용정지에 대하여 이동하여 온 공수사령부 소속의 제 56기상정찰비행대의 WC-135, RB-57 등 10여대와 제36항공우주구조 회수비행단 소속의 HC-130 4대가 있다.

이 부대는 「아폴로」 계획에 의한 우주 비행사의 안전 회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

★ 미국의 극동 공군력

으며 최근 해난선원의 구조로 한층 잘 알려진 비행대다.

「이다쓰게」는 64년 제43 비행단이 「미자와」와 「요즈다」에 이동하여, 현재는 예비기지(For Ward Operating Base)로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1968년 1월 「프에블로」호 사건이 일어나자 「오끼나와」에 있는 제15전술정찰비행대 소속의 RF-4C가 이동하였고 동년 5월에는 제363전술정찰비행단 제1파전대(후에 제19전술전자전비행대로 개정)의 EB-66이 상주하게 되어 작전기기도 변화였다.

현재는 동년 7월 RF-4C와 교체한 주항공대(동원형에 의해 현역복귀)의 제165, 제154 전술정찰비행대의 RF-101G 18대가 69년 4월 미 본토로 돌아가고 제19전술전자전 비행대가 「가메나」에 배치되어 「이다쓰게」는 다시 예비기지의 성격을 못뚫고 있는 실정이다.

제315 공수단은 69년 3월 「하와이」로 이동하였고 69년 12월부터 동기지의 사용이 정지되었다.

일본 주둔 미 공군의 3개사단 체제는 미본토, 「캐나다」 등의 방공군단의 체제와 흡사한 것으로서, 인본을 북부, 동부, 서부 등 3개 방공구역(Sector)으로 나누어 이를 각 사단의 지휘하에 두도록 하는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나, 일본의

재무장, 특히 일항공자위대의 강화로 인해 미국은 그 어떤 방공구역에 있어서도 그 제1차적 책임을 지지 않는 전술공격력으로 그 성격을 바꾸어 버렸다.

기동적인 주한 미 공군력

6·25 동란을 전후하여 제5공군의 병력은 약 75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대부분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다. 현재는 전투기 약 150대, 그중 한국에 나와 있는 3개 비행대 소속 항공기를 빼고 나면 그 수는 약 7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적은 숫자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은 한국, 일본, 오끼나와를 전략상 동일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각 기지에 분산된 병력을 일체로 생각하여 미 공군의 전력을 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주한 병력을 보면 제5공군의 제314사단 예하의 제95요격전투비행대의 F-106 A가 1개 비행대, 제354전술전자전비행대의 F-4D 2개 비행대가 있다.

「프에블로」호 사건 이후 제5공군의 전진사령부가 한국에 이동되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유동적인 불발 사태에 대비하여 제5공군 부사령관에게 그 작전지휘권을 맡기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이동되어 온 3개 비행과
전대는 현재 훈련을 비롯한 제반 작전
임무를 띠고 북괴의 여하한 도발행위도
즉각 분쇄할 수 있는 완벽한 전력을 갖
추고 있으며 그 보유기종도 F-105, F-
102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것으로 판단되
고 있다.

「오끼나와」에는 제5공군 휘하의 「가메
나」기지 주둔 제313사단이 있고, 예하에
제18전술전투비행단과 제12전술전투비
행대의 F-105 약 20대, 제19전술전자전
비행대의 EB-66 4대, 제 15전술정찰비
행대의 RF-4C 약 18대가 있으며, 제51
요격전투비행단 예하의 제82요격 전투비
행대의 F-102 약 25대가 있다.

현재 한국에 F-105, F-102 등이 과전
되어 있어 재일 전투기 수는 예상 외로
그 수가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EB-66은 F-105의 패스·화인더(PASS
FINDER) <선도기>와 ECM(상대방의
레이다 진파방해) 등의 임무를 띠고 있어
F-105와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미국이 「오끼나와」 등지에 비교적 소
수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이면에는 중
공 폭격기들에 의한 도양공격력이 무시
해도 좋을 만큼 미약하다는 것과 소련
폭격기들에 의한 공격도 지리적 여건으
로 보아 그 가능성이 꼭 희박하며 특히

이 기지가 섬이기 때문에 저대공 미사일
로도 그 방위를 어느정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 것으로 보여
진다.

「오끼나와」에는 이 이외에도 「나하」의
제374 전술공수단 예하의 제35, 제41전
술공수비행대가 있으며 각기 C-130 대형
수송기 16대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가메나」에 전략공군 예하의 제37
6 전 작전투비행단에 B-52 중폭격기 약 20
대, 급유기 KC-135 약 15대, 제 82전략정
찰 비행대에 SR-71 고성능 고공정찰기와
EC-135 전자 정찰기 수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포 탑재기의 위력

한편 주일 미 해군·해병대의 저상에 기
지를 둔 항공부대는 「이와구니」에 있는
제1해병항공사단(후방) 예하의 제15해
병항공대 소속 제232, 제334 전투요격
비행대(VMFA 232, 334)의 F-4J 각 15
대와 제12해병항공대소속 제533 전천후
요격비행대(VMA-AW-533)의 A-6A 약
10대, 제221요격비행대(VMA-211)의 A
-4E 약 20대, 총 약 60여대의 항공병력
을 보유하고 있다.

제1해병항공사단의 전선부대들은 현
재 월남의 「다낭」, 「휴라이」에 기지를

★ 미국의 극동 공군력

갖고 순차적으로 이와 교체, 배치되고 있는 것 같다.

「이와쿠니」에는 별도로 제6함대항공단 소속의 제1조계비행대(VPI) P-3B 9대, 「아즈카」에는 제1전자정찰비행대(VQI)의 EP-3, EA-3, EC-121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하」에는 제47 조계비행대의 P-3B 1개 비행대 약 9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이 한국,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하고 있는 전투기의 수를 모두 합해 볼 것 같으면 F-4가 해·공 합해 약 230대, F-105, F-106, F-102가 각 20대 정도 배치되어 있다.

결코 전체적인 세력 균형상의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큰 수지타고는 할 수 없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항공력을 고찰함에 있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미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군의 존재라 할 것이다.

항모는 수시로 교체,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함명은 일정치 않으나, 항시 1척이 작전에 임하고 있으며 그중 1척이 원칙적으로 요격기 3개 비행대, 전투기 2개 비행대로 편성된 항모항공단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다.

미 해군의 비행대는 공군과 비교해 볼

때 그 규모는 매우 작은 것으로 F-4 15대, A-6 12대, A-4 20대에 지나지 않으나 「에섹스」급 (32,800톤)이 60대, 중형의 「미드웨이」급 (51,000톤)이 70대 내외, 대형의 「포레스탈」급 (60,000톤)과 원자력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75,700) 등은 비행기의 형에 따라서 90여대도 탑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끼나와」에 있는 미 제313사단이 전투기, 정찰기를 포함하여 약 60대, 한국에 나와 있는 제314사단의 보유기가 약 70대임을 생각할 때, 항모 1척은 항시 평시의 공군병력 1개 사단에 맞먹는 권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모는 분쟁지역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고도의 가동성과, 지상기지 항공부대에 비하여 후방보급을 원활히 전개하여 장기 작전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 공격력을 높이 평가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제까지 항모는 지상기지보다 상대적으로 공군에 무력하였었지만 탄도탄의 발달로 인하여 고정된 지상기지는 보다 공격받기 쉽다는데 대해 항모는 항시 가동하고 있으므로 관성탄도 미사일은 공격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지상기지와 항모의 우열론을 가지고 시비가 분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항모에 유리한 조건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항모의 항공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만약 일정지역에 돌발적으로 분쟁이 발생되어 그 개입이 결실히 요청되고 있을 경우, 항모의 작전구역까지의 속항거리와 이에 따른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벌여야 한다는 점과 항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 본토로부터의 용원부대의 파견도 미국의 혼성 기동타격사령부(Composite Air Strike Force)가 있어 이로부터 전투기, 전투폭격기, 급유기 등의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일본까지 이송 진주하는 데만 소요되는 시간이 48~72시간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주일 미공군력이 결코 그 규모가 숫자적으로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가 극동의 안보에 기여하는 상징적인 힘은 일본의 항공자위대를 인테로 들어 이가 F-104 약 200대를 갖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미공군의 도합 100여대에 불과한 전투기 수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F-104가 완전히 실전배치로 들어간 1966년부터 재일 미공군기는 공격부대로서의 임무에 전념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방패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면 미공군은 창외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격병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미 제5공군 사령부 내에 전투부대의 최고 지휘소인 항공총사령부를 두고 CDC(전투작전지휘소)를 미제5공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일단 유사시에는 항공총사령관과 미제5공군사령관이 공동 작전을 펼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북부, 중부, 서부의 공역을 지키는데 있어서도 3개지역의 일본 ADCC(방공지휘소)에 미측 연락관이 파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작전은 방공에 관하여서 뿐이며 미국의 공격적 작전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본 항공자위대의 기본방침인 것이다.

미 공군이 일본의 5개 자위대 소속 「레이다 사이트」에 연락관을 배치하고 있는 것도 미군기의 공격부대 「레이다」 유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의 「레이다」 유도를 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또한 정찰비행에 있어서도 일본은 이것이 왕왕 국제문제로서 분쟁의 일원인 을 탄등고 있다는데 입자하여, 미국의 해 비행계획의 통지조차 받지 않게 되어 있어 미측 연락관은 이러한 비행계획서에 의한 「레이다」 유도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제5공군의 작전 임무를 살펴보면,

★ 미국의 극동 공군력

- 1) 제공전을 확보하여 최전선 및 전투 작전 지역에 대한 적 공군의 침투를 저지한다.
- 2) 적의 인적 및 물적인 일체의 보급로를 차단, 전투작전 지역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적의 전투수행능력을 분쇄한다.
- 3) 우방 전투부대와 공동으로 지상 및 공중에서 근접 지원작전을 펴 적의 공격 주력을 저지 분쇄한다.
- 4) 전투작전지역 내에 공중정찰을 행하여 적의 병력배치, 이동 등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이러한 임무와 병행하여 「오끼나와」의 경우와 같이 「미군 주둔 기지군들에 대한 거점방위 및 한국공군을 비롯한 일본항공자위대 등 우방의 공군부대와 동 우방국 방공작전을 지원한다」라고 첨기하고 있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지상작전과 동시에 공동 작전을 펼 수 있는 항공부대로서의 전술공군작전개념을 뚜렷이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일본에 제5공군과 같은 지상군 직접 지원항공부대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제5공군의 존재목적은 밝힌 가운데 나타난 완전 여제력의 구축이라는 점을 생 각해 보면,

공산침략주의와 직접 대치하고 있는

제지역에 병력을 배치, 상대 적국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고 전쟁을 방지하자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며,

만일 미·소 전쟁이 터졌다고 가정할 때 「가라후도」 천도열도 등지에 있는 소련공군기지를 즉각 공격하여 일본을 비롯한 극동의 제공권을 보다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과의 현 극동병력을 비교할 때 소련은 연해주에서 「가라후도」 천도 열도 등지에 걸쳐 50개 이상의 공군기지를 갖고 있어 실제 주일 미 공군력의 대공방위능력은 상질적인 힘으로 간주되고 있다.

(가령 F-4가 정수대로 6개 비행대가 있어 이것이 전부 공격에 나섰다고 할 때 활주로 공격을 비롯한 비행장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1개소에 1개 비행대에 해당하는 최소 10여대의 항공기가 필요하며 전체적으로는 비행장을 6개 밖에는 공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미 공군의 역점은 오히려 어디까지나 한반도에 있어서의 공산(북괴)세력의 저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공산 북괴에 의한 불법남침으로 인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제일 먼저 미군 가족의 철수 작전을 위

해 서울로 비행한 것은 제5공군, 제8전투 요격사단 소속의 F-82(투인·무스탕) 전 전투 전투기였고 동월 27일 북괴의 YA K-9와 최초의 공중전을 벌려 이를 격추시킨 기록을 이룩한 것도 동 부대의 F-82였다. 27일 일본 각 기지에서 발진한 F-80이 본격적인 공중전을 벌려 큰 전공을 이룩하였다.

동년 8월과 9월 두 달간에 걸쳐 연합군의 상륙 작전 감행으로 진세는 약간 호전되었지만 침략자의 주력을 꺾은 것은 제5공군에 의한 전선공격과 적 보급로 차단 등 공중전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저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몰아 넣었던 것이다.

적 잔류병력에 의한 발악적인 저상전투는 「전사자, 부상자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완전 회수, 재무장 공격하라」는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고 미 공군사는 기술하고 있다.

1953년 휴전까지 제5공군이 기록한 전과를 보면 MIG-15 격추 880대, 파괴기수 약 1,000대, 차량 82,750대 및 철도 차량 11,000대 완전 파괴였다.

B-29의 경우는 일본의 본주와 「오끼나와」에서 출격작전을 감행하였고 정비, 보급에 있어서 그 기지가 일본에 있었던 만큼 일본이 일부 이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실천경험을 갖고 있는 제5공

군과 같이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 해군·해병대 항공부대도 제2의 한국동란의 재발 방지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전술작전 훈련과 그 연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방위상 확보하고 있는 극동 및 구라파에서의 제해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특히 극동에 있어서 소련의 태평양 함대의 진출을 저지시킬 목적으로 일본의 「이와구니」에 대기자를 확보하고 있다.

(소련해군 최대의 약점은 4함대 즉 북방, 태평양, 「발틱」, 흑해함대 그 어느 것도 외양으로 진출하는데 심히 불편한 입지적 조건에 처해 있으며 특히 「발틱」해 입구의 「카데갓트」 해협은 대단히 좁은 데다가 모두 NATO회원국인 「덴마크」, 「터어키」 등에 연결되어 있어 전시에는 그 통항이 심히 어렵게 되어 있다.)

「이와구니」에 기지를 둔 미 해군의 P-3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공동으로 대마도 해협의 초제임무를 맡고 있으며 동기지에 있는 해병대 소속 전투기, 요격기 등도 일단 유사시 소련함대의 대마도 해협 통과를 저지시키고 일본해에 들어오는 미 항공모함재기의 작전지원을 맡게 될 것이다.

지난 EC-121 사건으로 잘 알려진 「아

★ 미국의 극동 공군력

쓰끼]는 미 해군 전자정찰비행 기저로서 항모 탑재기 수리 및 정비와 조종사 훈련기저로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동란을 들이켜 볼 때, 북괴나 중공의 공군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전혀 일본에 있는 미 공군 기저가 이의 공격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일본에 대해 대단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일본의 입장으로서 세계의 평화 특히 인접제국의 정치적 및 군사적 안정과 특히 공산전영과 세계균형을 이룩하고 있는 동북 아시아의 현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어 급격히 이를 변화시키는 그 어떤 요인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또한 한국,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 있는 미 공군력과 한국에 있는 미 육군 2개 사단이 한반도에서의 공산세력 구축에 큰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당면된 일본의 안전보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만약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해 제2의 6·25와 같은 군사적 충돌이 생길 경우 일본에 기지를 둔 미군기들은 즉각 자유로이 반격 작전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은 이로 인해 일본이 군사적인 분쟁에 휘말려 들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 60년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에 즈

음하여 교환된 「조약 제6조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에서 일본에서의 전투작전행동을 위해 일본 국내의 기저시설 및 동작전구역의 사용은 사전에 일본정부와 협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69년 11월 「오키나와」의 72년 반환을 결의한 미·일공동성명이 있은 후 일본 국회에서 답변한 일본 정부측 견해는 한국·대만 등지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한·일에서의 미군의 전투작전을 전면 허용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 사전협의도 일본측이 절대적인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미국의 협의만으로 실제 작전에 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항공자위대의 강화와 특히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북괴와 비교해 볼 때 원등한 힘의 우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일 미 공군의 존재의의는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위해 한국에 기지를 두는 것이 원착이다 라고 하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주일(본토) 미 공군부대

일본 동경에 있는 제5공군(5th Air Force) 사령부 예하의 주력부대로는

『요코다』 공군기지의 제347 전술전투 비행단(347th Tactical Fighter Wing)과 「미자와」 기지의 제475 전술전투 비행단(474th TFW)의 양개 F-4 팬텀 비행단이 있다.

요코다 공군기지: 위치 동경.

제347전술전투비행단 예하에 제35, 제36, 제80전술전투비행대가 팬텀으로 주력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가 한국에 파견되어 있다.

이 외에 제556 정찰비행대-556 Reconnaissance Sq-(EB-57E, RC-130)가 동단에 소속되어 있다.

기지지원부대로는 제347전투지원대(347th Combat Support Group)가 있으며 파견부대 또는 공수사령부(MAC)예하의 제56기상정찰비행대(56th Weather Rec. Sq-(RB-57FWC-135B)), 제41항공우주구조회수비행단-41st Aerospace Rescue Recovery Wing-제8파견대(HC-130P, HH-43B), 제65공수 지원대-65th Military Airlift Support Group-이 외에 기상, 정찰기술, 항공지도정보, 통신부대 등이 있다.

미자와 공군기지: 위치 미자와 시
475전술전투비행단 예하의 제67, 376, 391전술전투비행대-67, 376 391TFS-등 F-40 팬텀 3개 비행대와 제16전

술 정찰비행대-16th Tactical Reconnaissance Sq.-의 RF-4C 1개비행대가 있으며 일부 한국에 파견되어 있다.

기지지원부대로는 제475전투지원대가 있고 파견부대로는 제41항공우주구조회수비행단 예하의 제7파견대(HH-43B)가 구조임무를 맡고 있고 이 외에 기상 통신 등의 부대가 있다.

이다즈게 공군기지: 위치 후꾸오카시
·상주비행부대가 없는 예비기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 외의 공군부대시설로는 미자와 시 등 3개소에 정보 통신시설이 있고 각지에 대지 사격장 5개소와 탄약, 저유 시설 및 3개소의 항공가위대 소속 「레이다 사이트」에 파견관을 내보내고 있다.

오끼나와 미 공군부대

제5공군-5th AF- 예하의 제313사단-313th AD-(사령부 가메나 위치)가 주력을 이루고 있다.

이 예하에 제18전술전투비행단-18th TFW-과 제51요격전투비행단 51st F-1W-이 있으며 가메나기지 지원부대로는 제824전투지원대와 나하기지의 제51 전투지원대가 있다.

또한 제400 탄약정비대가 태평양 지

★ 미국의 극동 공군력

역의 탄약류의 정비 지원을 받고 있다.

제 18전술전투비행단은 제 12전술전투비행대의 F-105 선더컵프, 제 15전술정찰비행대-15TRS-의 RF-4C 팬텀 II, 제 19전술전자전비행대-19 TEWS-의 EB-66 테스트 로이어 각 1개 비행대가 있다.

제 51요격전투비행단의 비행부대로는 제 82요격전투비행대가 있고 그 외에 제 623방공경보관제대-623AC & WS-가 있으며 나하에 ADCC 및 기타 4개소에 레이더 사이트를 갖고 있다.

또한 육군의 나이키, 호크 양 대공미사일을 갖고 있는 제 30포병여단의 운용지휘권을 맡고 있다.

이 밖에 오키나와에 있는 313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부대로는 나하거처에 있는 제 374전술공수비행단-374th TAW-(21, 35, 41TAS의 3개 비행대)의 C-130부대, 제 33항공우주 구조회수비행대-33ARRS-의 HH-3C 부대, 제 7공항대-7APS-등이 있고 그 세부 편성이 알려 지지 않고 있는 B-52 폭격기, KC-135 급유기 각 1개 비행대가 있고 공수사령부 예하의 수송기를 지원하고 있는 제 603공수지원대-603MASS-와 기지구조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 41항공우주구조회수비행단-41st ARRW-의 제 6파견대(HH-43B)등의 부대가 있다.

박 대통령 문언록

◇ 관료보다는 의욕과 능력, 경력보다는 창의와 실천력을 더욱 존중하는 행정의 새 시대가 이미 왔다.

◇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오늘의 우리를 위하여 내일의 후손을 위하여 통일외 열매를 맺을 자립의 거목을 심자.

중공의 핵전략과

미국의 대중공용 ABM



아리스·L·웨이

이 전 회 <역>

중공의 군사전략을 분석하면 중공이 무모한 군사전략을 실시하는 모험주의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미지와는 달리 신중성을 특징으로 하는 군사정책을 그 장기외교정책 목표추구에 따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즉 아시아에 있어서의 강대국이라는 지위와 주도권 그리고 서태평양으로부터의 미국세력의 영향력에 대한 구축이라고 하는 장기 외교정책 목표추구에 따라 신중한 군사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의 이러한 군사정책은 현실적인 자체 평가와 각종 위협에 관한 신중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은 핵전쟁의 가공성과 소련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소련과의 불화 그리고 중공 자체의 대외목표 추구 등등으로 인해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생각은 일면 재래전(在來戰)이나 열핵전을 막론하고 미국과의 그 어떠한 군사적 대결도 강력히 회피하려는 중공정권의 의도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불발적인 위기가 조성되었을 경우, 중공이 그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미국과의 대결을 피하면서까지 그의 사활과 직결되는 특히 자체의 안전보장이나 인접 공산정권의 유지(保持)를 무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또한 그러한 위기정세하에 있어서 중공이 미국의 의도를 그릇 판단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도권이 일단 중공의 수중에 있을 경우 중공은 신중하며 위협도가 적은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짙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최근 조성된 일련

◇중공의 핵전략과 미국의 대중공공 ABM◇

의 돌발적인 정세와 국제정치상의 제경향 그리고 중공의 전략에 대해서 상술한 사항들이 가지는 의미에 관해 논술하고자 한다.

월남전쟁, 중·소국경분쟁, 아시아 안전보장문제와 관련 특히 핵병기 개발 단계에 들어간 일본의 위치와 중공의 핵개발과 그 영향력,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개관하고, 중공의 핵미사일능력과 이의 사용가능성을 포함하여 미국의 대중공 ABM체계를 약술해보기로 한다.

월남전쟁

중공이 월맹 및 베트남의 작전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든가 혹은 중공군부가 월남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투 작전 수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인상이 일반적으로 길다고는 하지만 월남전쟁에 대한 중공의 태도를 상세히 분석해 보면 반대로 중공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징후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군의 북폭이 중공 본토에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중공이 점차로 갖기 시작한 1965년 초, 월맹 기지에 대한 중공정권의 강세를 보이던 상투적인 언동도 하강선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1965년을 전후해서 중공지도층들이 별

인 전략논쟁의 요점은 월남전에 중공이 공공연하게 개입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논의가 아니라 미국의 제공권 확대와 이에 따른 공중 공격의 가능성에 대해 최선의 중공 방위책이 어떠한 것이냐는 논쟁이었다.

이 방위논쟁은 반면 또한나의 다른 관점에서 한국동란 이래 중공지도층이 갖고 있는 생각 즉 국방태세 확립의 기반으로 경제, 과학, 기술의 개발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방우위의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인가 하는 정책상의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공의 군부는 재래식 반공체제의 강화를 최우려했으며 또한 모스크바로부터의 재래식 방위용 장비공급의 부활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중·소 논쟁을 완화할 것을 강조한 것 같다.

그러나 「모택동」이나 「임표」는 아마도 그러한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다.

중공 군부의 전혜는 월맹에 대한 중공의 언질을 더욱 축소하고 그것도 조건부의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즉 중공에 대한 직접공격의 경우에만 중공은 월남전쟁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이 인용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중공의 극히 강한 방위적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까닭이다.

◇중공의 핵전략과 미국의 대중공용 ABM◇

이것은 많은 관측자들이 극히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중·소간에 일대 전쟁이 발생한다고 예언할 만큼의 긴장상태가 중·소국경에서 일어났을 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소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전략적 전지에서 중공이 월남전쟁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월남은 중공이 누누히 되풀이 했던 『미국의 핵폭은 종이호령이다』라고 한 주장을 뒷받침 하는 본보기가 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군사목표, 그 중에도 핵병기 생산, 시설, 중요한 공업시설 및 통신, 수송중추가 위치해 있는 군사목표에 대한 재래식 폭격의 효과가 그렇게까지 한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재래식 폭격에 대한 중공의 인식이 다소라도 뚜렷하다면 핵공격의 의의에 대한 중공의 태도는 재언의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월맹은 그 후방지원지역을 중공 본토 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중공은 이제는 소련 내에 그 후방지원 기지를 갖고 있지 않다.

중·소 국경분쟁

「우수리」장의 진보도(라만스키섬)에 있어서의 1969년 3월 2일과 그해 5일의

군사충돌에 의해 중·소 국경분쟁은 표면화된 싸움으로 화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소위 중공정권에 모험주의라든가 무모함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분석을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만주 동고지역에서나 혹은 신장지역에 있어서도 중·소 국경선에서 일어난 일련의 난해한 문제는 1959년부터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되며 더우기 중·소간의 긴장상태도 이 시기 이래 악화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북평과 모스크바간에 긴장상태가 60년 초부터 악화됨에 따라 소련은 1965년부터 66년에 걸쳐서 국경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공의 전개상황은 그 대부분이 여전히 종전과 같았으며, 중공이 1966년도부터 1969년에 걸쳐서 취한 여러 가지 움직임은 중공자체 내의 국방과 관련된 안보상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나 국경선에 있어서 소련군의 강화와 엄격한 순찰의 실시 및 문화혁명에 의한 긴장상태라는 사태에 의해 인원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적인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증대해 왔던 것이다.

결국 제1회 분쟁사건은 중공이 주도권을 가졌었고 제2회의 분쟁은 중공에 대한 군사력의 과시와 경고를 위해 소련에

◇중공의 핵전략과 미국의 대중공공 ABM◇

의해 개시될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국경선상에 있어서 전략적, 전술적 바로미터 즉 군사적 혹은 군사적 위협의 가능성 정도에 대한 중·소의 상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들 바로미터는 분쟁발생시에 확립되었으며 중공은 입으로는 그와 같이 호전적이었으나 실제로 강구한 태도는 제 1회 분쟁발생 2일 후인 3월 4일이었으며 그것도 대소관계에서는 중공의 전략적 방위자세를 나타내는 종래의 공식적 태도 즉 『우리들은 공격받지 아니하던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태도를 표명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이 공식적 태도—월맹저원에 관한 1965년의 북명 정권의 성명을 상기—소련에 대한 중공의 방위적 자세를 강조하고 소련의 공격에 대한 중공의 취약성을 자자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련과의 대결을 초래한 것과 같은 위협을 다시는 범하고 싶지 않다라는 중공의 기본 입장을 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 방위적 자세 특히 소련의 의도에 관해서 중공 지도층이 주시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바는 3월 15일에 중·소 국경분쟁 사건 전에 있어서도 소련측은 국동소련 전략유도탄부대의 무력에 의한 힘의 과시와 이와 관련된 여러형태의 과실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이런 종류의 협박적 경고는 중공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예방능력의 가능성을 동구다과 공산제국에 대해서도 소련이 타진했다는 보도에 의해서도 잘 알 수 있겠다.

한편 소련에 대해 하등의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중공군의 배치라는 방위자세는 3월부터 9월에 걸쳐서 국경선상에서 계속적으로 실시된 중공의 소규모적인 도발행위와 얼마큼 모순된 것이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공이 종래의 이론인 『전략적으로는 적을 경시하고 전술적으로는 중시한다』라는 이론의 실천으로 되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지금 중공은 전략적으로는 적을 어려워 하며 전술적으로는 경시하고 있다. 이 중공의 행동면에 있어서의 모순이 중공 지도층 내에 견해의 차이를 가져 오게 한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중공 지도층 내에 금후에도 만일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군부 지도층이 형성된다면 소련과의 각종 교섭과정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이며 그 견해의 차이에서 오는 심상치 않은 논쟁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경 지대의 중공군은 모택동 이론에 따라서 행동해

은 것이었으나 중공지도층은 분쟁을 생
자시키기 위해 많은 조치를 강구했다.

그리고 1965년 10월에 소련과 국경문
제에 관한 새로운 교섭을 벌일 것을 통
의했던 것이다.

따라서 작년 발생한 중·소 국경분쟁
은 중공의 전략적 방위자세 즉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수준이 낮은 도발행동을
실시할 의사는 있지만 동시에 소련과의
직접 대결에는 휩쓸려 들어가고 싶지 않
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

중공의 군사 정책수행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해온 요소중의 하나는 금
후 10년 이 내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능
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관
한 것이다.

일본이 독자적 핵보유에 대한 선택권
을 어느정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다.

과거 5년간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로
해서 일본에서 안전보장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그것은 중공의 핵폭발, 핵확산방지조
약, 중공의 위협에 대한 빈약한 ABM
망의 전개에 관한 1967년 9월의 미국의
성명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일본의 독자적인 핵보유」를 지지하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는 수
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

1968년 후반과 1969년 전반에 걸쳐 일
본의 여론 조사는 독자적 핵전력 보유에
일본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
고 있으나 아직도 독자적 핵보유를 지지
하는 각종 단체—숫적으로는 한정돼 있
지만은—의 격론 내지는 지지이유에 관
한 반론이 높다는 것이다.

독자적 핵보유를 지지하는 이유 가운
데에는 「내셔널리뷰」를 부활시키기 위해
서 미국과의 정치적 명등, 극동에 있어
서의 미국 정책 결정에 대한 보다 큰 발
권언의 획득, 미국에 대한 일본의 보다
자주적 입장의 확보, 일본 학생층에 대
한 무관심적 태도 등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금일까지 일본의
독자적 핵개발과 보유에는 반대하는 태
도를 표명해 왔으며 극히 최근에 있었던
일본정부 고위 당국자의 성명에 잘 나타
나 있다. 즉, 「일본은 현재나 장래에 있어
서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중공은 특
히 오끼나와 반환에 관한 1969년 11월
에 미·일 공동 성명 이래 일본 독자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관해 수차례 걸쳐
비난하고 있다.

이들 비난은 통상 미국의 수족, 혹은
독립국가로 해서의 일본의 아시아에 있

◇중공의 핵전략과 미국의 대중공용 ABM◇

어서의 군사적 침략의 부활이라든가 대만·인도차이나에 대해 일본의 마음에 품고 있는 야망이라고 한 그 문맥중에 있다.

이것은 아시아 및 국제간에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에 대한 중공의 극히 민감한 감정을 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는 이상의 이야기가 중공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이며, 일본이 실시하는 군사적 강화조치, 그 중에도 핵무기에 관한 조치는 만약에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 혹은 「고울리스트」의 이론에 의한 것일지라도 만일 그것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중공이 자국에 각종 군사정책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이상으로 심중해 질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중공은 동시에 약간의 정치적 이익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주변의 제국들이 일본의 의도에 대해서 또 다시 의혹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주변 제국의 일본에 대한 의혹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많은 나라들이 고도로 공업화된 일본의 경제적 활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상쇄될 지도 모르며 만일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를 경우 중공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극히 불리한 수세적 입장에 놓일 것이다. 중공은 그 주변지역에 있어서 핵보유능력

을 갖추고 또한 아시아에 있어서 주도권 다름을 실시하는 국가의 도전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지역적 핵전력은 —그것이 미국 핵전략의 일환이요 별개로 배치되고 운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현재 중공이 보유하고 있는 핵전력의 정치적, 심리적 사용—공공연한 군사적 사용은 말한 것도 없이—한정적인 것으로 국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할 것이다. 즉 중공은 그 핵 미사일 개발에서부터 얻는 이익이 점차 감소된다는 위험 상태에 직면한 것이다.

어느 관측통은 상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해서 일본의 핵무장이 「미·일」 양국의 공동이익이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본은 독자적 핵무기를 생산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현재 미국, 소련, 중공간에 삼각관계가 발전중에 있으며, 둘째는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교육, 기술 개발, 혹은 사회보장관계 개선이 희생될 것이며, 셋째로 「내셔널 콘센서스」에 대한 핵무기 생산 결정이 가지는 영향력, 넷째로 핵병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은 효과적인 제2격 능력을 갖기란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서이다.

중공의 핵무기

현재 개발하고 있는 핵미사일을 중공이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느냐에 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중공이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핵무기의 종류이다.

현재 중공에서는 ICBM의 개발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혹은 MRBN의 개발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극히 의의는 분분하다.

정치적 고찰을 기초로 해서 분석한다면 핵무기 개발의 중점을 MRBN 체계의 개발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반드시 이렇기 때문에 ICBM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의 개발과 실험을 하고 있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이래 또한 새로운 분석을 위한 요소가 추가되었는데 즉 1969년 9월 28일에 중공이 실험한 최초의 지하 핵폭발이다.

어찌서 중공이 실험을 했느냐 하는 이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1. 핵무기 개발자료 및 핵폭발이 가져는 물리적 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통계 있는 실험을 실시하는 것에 중공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중공은 전장에서 사용 가능한 전

술 핵무기의 실험을 개시하고 있는 까닭에 폭발, 파편 및 기술정보가 되는 물질이 소련, 서구의 분석가들에게 입수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시됐다고 볼 수 있는 지하 핵실험의 목적은 오늘날까지 중공이 해온 핵실험의 전반적 패턴 속에 들어간다.

즉 중거리(1,500마일)용 또는 ICBM용 핵탄두로해서 사용가능한 3메가톤급 핵탄두 장치의 개발에 있었다.

다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설들은—그것은 찬성할만한 설이거만—중공이 전무기 혹은 전투폭격기로 운반 가능한 전술 핵무기 개발을 위해 장치 자체의 크기를 축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치 내의 기본적 요소인 핵분열 물질의 양을 플토늄 사용에 의해 감소시키는 실험을 실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설은 몇 개의 논거를 가지고 있다. 그 첫째는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의 문제는 핵탄두의 크기를 축소하는 연구 개발에 실험이 집중되고 있는 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편 타이밍이 국제정치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전술 핵무기의 개발을 기획한 원인이 된다. 중공은 이 시기에 서구 및 소련의 관측자들에게 실험에 약

◇중공의 핵전략과 미국의 대중공용 ABM◇

한 폭발 파편이나 기술정보자료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그들은 핵분열물질(플로늄)을 실험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징후—저상실험의 경우와 같은—가. 월남에 있어서의 정세 및 중·소국경에서의 상비로 해서 미국과 소련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서방측의 분석가들은 중공이 보다 큰 핵장비—예를 들면 ICBM의 3대가톤 10핵탄두—개발에 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전술 핵병기 개발서를 일반적으로 경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공의 군사문헌은 여전히 중공이 전술핵병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문헌중 가장 좋은 예는 중공군의 각종 활동보고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1961년 전반기에 간행된 공작통십이다.

1961년 공작통십에는 중공에 의한 고위력 핵병기 사용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장래 전술핵병기의 사용에 관해서는 특히 강조되어 언급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전술훈련에 관한 지령중에 극히 발달한 근대 병기의 사용과 이들 병기에 대한 방어법이 적혀 있다.

연례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원자화

학병기에 대한 방어법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원칙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시에 원자 화학병기를 가지고 하는 중공의 기습공격의 성과를 이용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지령은 공작통십의 내용과 더불어 1961년경부터 중공이 전장에서 핵병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판단하면 중공의 지령은 육상전쟁에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중공이 그 핵병기 체제중에 전술핵병기를 포함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믿어 지기 이전에 왜 전술핵병기에 관심을 가졌었는가 라고 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중공은 여전히 미국의 관점으로 본다면 일어 날 것 같지 않은(다만 소련의 관점으로는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핵 기습공격에 이은 영토점령, 저배를 기도하는 적저상군의 침공이라는 망상의 포로가 되고 있다.

더우기 중공은 항공기에 의해 운반되는 전술핵병기를 육상작전이나 집결부대에 대한 중요한 공격병기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핵병기를 사용할 공산이 크다고 생각되어 지는 지역은 동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이라고 보고 있다.

중공은 그들의 핵병기의 보유를 단적으로 위기 사태발생시 미국의 핵병기 사용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믿고 있을 지도 모른다.

혹은 적어도 중공에 의한 핵병기의 보유가 일본과 같은 나라로 하여금 미국의 전술핵병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압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소련과의 현재의 국경에 있어서의 긴장 상태로부터 중공은 핵무기의 보유보다 한층의 억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위협할런지 혹은 그들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것은 그러한 행동을 그들은 원하고 있지 않으며 보다 고단계의 전장에 휘말릴 위험을 가져올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래병력에 의한 행동이 뒷받침으로서——중공은 핵병기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병력의 규모축소의 의사는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다. 중공이 전술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중공에 있어서 중요한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것이 미·소 양국의 군사 정책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닉슨 독트린

「닉슨」독트린에 대해서 중공은 복잡한 반응을 보였다. 주저하는 바와 같이 이 독트린에는 첫째, 아시아 제국의 정치, 경제 및 사회문제 해결은 아시아 제국자신의 노력에 기대한다.

둘째, 재래식의 침략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아시아 제국의 책임이다.

셋째, 미국은 핵위협, 또는 핵공격에 대한 것과 같이 핵전력으로 대항할 용의가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어디서 어떠한 조건하에서 미국이 재래식 침략에 대해 핵전력으로 대항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다.

우리들의 당초의 인상과는 반대로 중공은 이 독트린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철수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다.

중공은 「닉슨」독트린을 미국이 핵무기의 사용에 점차 의존하게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동시에 중공 논평가들은 각종 위협에 대처하는 미국의 선택권 특히 핵무기의 사용에 관한 미국의 선택권은 이제는 오히려 중전보다 더욱 제약되고 있다는 뜻을 비치고 있으며 동시에 중요한 것은 특히 11월 20일에 있

◇중공의 핵전략과 미국의 대중공공 ABM◇

있던 오키나와 반환에 관한 「미·일 공동성명」 이후 일본을 아시아에 있어서 침략의 도구로 하고자 하는 미국의 기도라고 「닉슨」독트린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평가, 즉 미국은 핵무기사용의 가능성으로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는 아시아에 있어서 중공 내지 중공을 선동하는 배후 세력의 침략에 대응할 개연성 내지 상황의 유연성을 미국은 포기했다고 중공으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는지 모른다.

중공은 또한 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전쟁형태인 공공연한 침략 이외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무기의 사용을 주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또한 미국이 핵반격 내지 무반격 인가의 선택에 몰릴 경우 미국은 후자를 고를 것이라고 중공은 믿을지 모른다. 이들 계산으로부터 중공의 핵미사일 전력에 의한 정치적, 군사적 가치와 재래군의 역할이 높아졌다고 중공을 믿게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한편 그러한 결론은 미국의 이성적 행동을 믿지 않는 중공이 미국측의 의도를 엄청나게 잘못 계산하는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 사실 어느 면으로 보아 「닉슨」독트린의 특징이기도 한 불명확성 때문에 중공측은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것도

같다.

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핵무장과 중공의 전략사상을 감안하면 중공의 핵미사일 전력은 주로 정치,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것에는 아마도 수익점 감의 범칙이 작용할 것이지만 요컨대 중공이 「닉슨」독트린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또는 중공이 이 독트린을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변화——중공으로서는 이용할 만한 기회다——로 있는가, 또는 중공에 대한 격증하는 압력으로 보여지고 있는가는 금후 미국의 구체적인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중공의 움직임에 의해서 판단하져 않으면 안 된다. 한편 「닉슨」독트린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중공은 신중한 태도로 시험하려고 할 것이다.

중공 핵미사일 전력의 사용

중공의 현 군사사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술한 제 요소는 중공이 장차 핵미사일 전력을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를 예측하는 기초를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먼 장래를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중공의 군사교의나 오늘날까지의 행동으로 보아 중공이 핵운반능력을 갖게 될 경우 중공은 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군사정책을 현재 이상으로 밀고 갈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중공이 그 핵미사일 계획에 어떠한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더라도 중공은 미·중공간과 중·소간에 여전히 존재하는 군사 기술상의 격차를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공의 공공연한 군사행동을 억제하고 중공의 그릇된 계산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견제 태세는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기초로 되고 있다.

첫째, 중공에 대한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그리고 중공이 이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둘째, 중공의 공공연한 군사행동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이에 대비할 태세를 언제나 확실히 갖추고 있다는 것.

미국의 저지태세의 세부 사항에 관한 설명은 여기에서는 생략하지만 결론적으로 중공은 미대륙에 있는 다수의 『미니트먼』보다 아시아 지역에 전개된 무기체계쪽에 더욱 민감하다고 말할 수 있다.

미대륙 내에 설치된 『미니트먼』은 주로 소련 공격을 위한 것이라고 중공은 중견과 같이 생각할 것이다.

미국은 『미니트먼』과 같은 무기체계의 사용을 비치든가 실제로 사용한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중공은 계산 내지 오산할 것이다.

해상과 육상을 기저로 하는 항공기, 제7함대 및 「플라리스」, 「포세이돈」체계와

같은 무기체계는 중공에 대한 강력한 저지력이 될리라고 생각된다.

그 위에 중·소간의 관계는 가까운 장래에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

또한 만약에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양국간의 관계는 1950년대의 관계(1958년 군문도 사건 당시에 충분히 보여주었던 것과 같이 중공의 대외 군사 목적을 지원하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양국간의 관계) 이상에는 될 수 없을 것이라.

모택동이 사망하더라도 중공의 군사정책 기본에는 하등의 변화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모택동 사망전에 중공의 리더쉽을 기술관료파가 지배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중공은 군부 지배하에 있다는 여러 징조를 내타내고 있으며 군부는 중태의 경제적 국방자세를 취해왔다.

그 위에 중공은 근대화와 공업화의 점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황폐화 되는 보복을 받는다는 위험은 중견 이상으로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공의 장래의 군사적 행동을 예측함에 있어 중공이 10내지 25기의 ICBM을 가지게 됐을 경우 ABM 방위 시설이 없는 미국의 1내지 수개 도시에 대하여 중공이 제1격을 가한다면 중공 저도층이 국가적 자살을 행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미국이 중공

◇중공의 핵전략과 미국의 대중공공 ABM◇

의 공공연한 군사행동의 위협에 따라 준비태세를 견지하게 되어 중공은 중국 본토에 대한 미국의 대량보복 핵공격을 초래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은 피할 것이리라. 오히려 중공으로서는 보다 바람직한 대외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 군사 및 선전노선에 따라 그 핵전력을 위협도가 적은 교묘한 사용에 이용할 것이다.

첫째, 중공의 국제적, 정치적, 입장의 선양을 꾀하는 것.

둘째, 위기사태 발생의 경우 그 지역에 있어서 미 군사정책에 제약을 가함과 동시에 중국 본토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저지 하는 것.

세째, 미국과 아시아 동맹 관계 및 안전보장조치의 건복을 꾀하는 것.

네째, 아시아 제국가의 자주방위 노력을 저지하는 것.

다섯째, 국내불안의 조장을 꾀하며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 경우는 민족해방투쟁을 촉진시킨 것.

여섯째, 중공의 재래병력의 여파를 높일 것.

어떠한 규모이든간에 미국 본토에 위협을 주는 능력 또는 중공의 ICBM의 발사실험은 정치상 및 체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공은 ICBM전력에 의해서 우

호적인 아시아 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감에 동요를 만들려고 할지도 모른다.

더우기 중공은 그 지역적인 핵전력에 의해 미국의 동맹국과 아시아에 있어서의 우호적인 중립국간에 미국의 의도에 관해서 같은 정도의 불확정성을 조장할 것이다. 그리고 핵전쟁에 휩쓸려 들어간다는 아시아 사람들의 의구심을 이용하여 핵무장된 중공과 미국과의 충돌은 핵전쟁을 확대시키는 위험이 있다. 라는 공포감을 전파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중공은 이상과 같은 각종의 불확정성으로 해서 아시아 제국이 미국에 압력을 가하고 중공과의 재래식이나 혹은 핵형으로의 어떠한 충돌에도 회피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계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즉 중공은 간접적 이익을 얻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동맹국 또는 우호중립국에 대해 공공연하게 핵 협박을 행하는 것은 극히 위험도가 높은 정책이 되기 때문에 중공도 그것을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 되어지기 때문이다. 중공은 또한 그 재래군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예를 들면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 그 핵전력 특히 그 진장 핵전력을 시험하고자 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경우의 목적은,

첫째, 침략의 저지를 위한 것이다.

둘째,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도입을 저

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요는 중공의 과거 및 현재의 군사 교의와 정책을 분석한 결과 그것이 대륙간 이튼 지역협이든 그 핵 운반 병력을 사용할 적에 중공이 경솔한 군사행동을 취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어떤 때에는 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 때문에 핵 무장한 중공은 그 위력을 정치, 군사 및 선전상에 사용하여 아시아에 있어서의 그 장기 목표에 향해 매진하는 것과 같이도 생각될 때도 있었다.

대 중공용 ABM이 미·중 공간에 주는 의의

전술한 논의로부터 미국의 대 중공의 ABM 체계는 중공이 핵미사일전력을 가졌을 경우에 추구할 만한 전략상의 이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지나 미국이 대중공 ABM체계를 전개했다고 한다면 과연 중공의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며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공은 미 대통령이 의회에서 행한 외교정책 보고를 논평함에 있어 ABM 및 중공의 위협에 관해서의 대통령의 언급을 묵살했다. 그러나 미 대통령이 「중공의 실력증대와 세계에 있어서의 거대 세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중공

이 열 핵무기를 획득했기 때문에 미·소의 핵 독점이 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의 표명이다 라고 특히 자랑스러운 듯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순박한 아시아인의 눈으로는 중공의 위협은 요원하다고 비추어지고 있다. 동시에 미국이 대중공 ABM을 전개하기 위해서 중공의 기본적 적대국이라고 보고 있는 중공의 미국관은 굳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굳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별문제이지만 그러나 중공의 대서방측 과대망상증을 굳게 하는 것은 과학기술면에서 일부 관측통이 시사한 바와 같이 중공은 침입조성장치의 개발을 우선시킬 수도 있다.

그와 같은 개발을 추구하는 중공의 기술능력과는 별도로 그 개발에 의해서 중공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 강조하고 있는 전제는 중공이 그 핵미사일 전력을 무모하게 사용치는 않을 것이나 그 전제가 옳다고 한다면 침입조성장치는 중공에게 하등의 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지금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보다 일어나기 쉬운 것이며, 그것은 미국의 대중공 ABM 전개에 대항해서 중공이 중거리 탄도탄의 개발과 작전배치를 실시하고 더우기 아시아에 있어서

◇중공의 핵전략과 미국의 대중공용 ABM◇

전력의 정치적, 군사적 사용을 우선하려는 것이다.

이것과 같은 정도의 중요한 영향은 일본이 받게 되는 영향이다.

대중공용 ABM의 전개는 중공의 무모함과 오산을 고려에 넣고 있다는 것에 첨가하여 만일 중공의 핵협박을 받았을 경우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게 미국의 지원을 확신시키는 근거가 된다는 것부터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과는 정반대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공용 ABM은 미 본토가 위협에 노출됐을 경우에만 미국이 중공의 침략적 행동에 반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본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또한 중공이 핵에 관해서 미국의 ABM 전개에 의하여 일본이 피복침이 됐다고 믿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 불안감은 도대체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과 결부되고 있다. 그 결과 더욱 이러한 사태는 단지 일본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합리화 하는 자료로도 쓰여지고 있다.

대중공용이라고 생각되는 헬베의 ABM 전개에 관해서 SALT 교섭에서 미·소간에 합의가 이루어 졌을 경우 중공은 미국의 대중공용 ABM 전개를 중공에 대한 미·소 결속의 좋은 예라고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으로 미국의 대중공용 ABM이 절박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논의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중공은 한정된 핵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미국의 의도불 오산했을 경우에는 무모한 행동으로 탈릴 것이라는 생각과 만약에 미국 본토가 이론상 중공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지고 있다면 아시아의 우방제국은 미국의 지원에 한층 의존케 될 것이므로...라고 하는 논의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핵미사일 전력으로부터 중공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시간과 함께 감소되고 있으며 그들이 어느 날인가 배당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이득마저도 감소되고 있다.

반면 미국이 ABM 전개의 최대의 이유로서 강조한 중공의 위협이라는 것을 전혀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공과 어떤 양해를 구하려는 미국측의 시도를 상당히 할 뿐 더러 미·소는 공모하고 있다 라는 비난을 격화시킬지도 모른다. 머우기 아시아의 다른 제국들이 중공의 핵미사일 전력을 사실 이상으로 높이 신뢰하고 있으며 미국에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도 ABM 체제를 전개해 주었으면 하고 나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정부는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의 길을 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미 군용기 개발현황과

그 주력기들

김 세 영

공군기 약 15,000대, 해군기 약 8,500대, 해병대 항공기 약 1,200대, 육군 항공대 소속 항공기 약 15,000대를 갖고 있는 미국의 항공병력은 현재 세계 최강, 최대의 규모라고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러한 항공기수와 그에 따르는 방대한 병력조직을 과학적으로 잘 운영 관리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세계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항공기 개발기술이나 이의 생산능력 등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미군이 반드시 최강, 최선, 최고의 수준에 다다른 신형 항공기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제적으로 상대적인 힘의 균형상 실로 고가의 전술, 전략적인 항공기 개발과 힘의 정비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고민을 지고 있고, 특히 소련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국을 바로 앞에 대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일순도 한

눈을 팔 수가 없는 기술 개발경쟁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미군이 쓰고 있는 그 주요기종으로는 현재,

전투폭격기로 GD사의 F-111,

공격기로 LTV사의 A-7,

수송기 록히드의 C-5.

대「게릴라」 전용기(COIN) 노스아메리칸의 OV-10, 헬리콥터로 휴즈의 OH-6, 시콜스키사의 CH-53 등등이 있다.

이 이외의 것으로는 대부분 1950대에 계획, 개발된 기종으로서,

보잉 B-52, GD(콘베어) F-102,

노스아메리칸 F-100,

록히드 P-2 등이 있고

1940년대에 개발되어 아직까지 제1선 기로서 활약하고 있는 기종도 있다.

이러한 구형기들을 아직 가지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 이외에도 소련, 영국 등이 있다.

그간 1960년대의 개발기로서 노스아메리칸의 B-70, F-108,

록히드의 AH-56 등이 있었으나 실전

용으로서는 허다한 결함을 갖고 있어 쓰이지 않게 되었고,

전투, 폭격, 경찰의 만능기로 공·해군에서 공동개발한 GD사의 F-111도 그리 신묘한 기종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주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항공기 개발 계획은 일정치 않은 약어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계획이 어떠한 비판과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항공기가 나올 때마다 세계의 이목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는 간단히 각 기종의 현황을 소개하고 연관된 항공기 개발상황을 살펴 기로 하겠다.

전략 폭격기

미 전략공격력의 일익은 미 전략공군 사령부(Strategic Air Command) 소속의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맡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장거리 전략폭격기로는 구형의 보잉 B-47과 금년 1월 말로 퇴역한 GD사의 B-58, 하스라 86 등이 있었는데 현재 B-52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SAC 소속의 B-52 보유기수는

30개 비행대로 C형에서 A형까지 합해

약 450대, 이외에 100여대가 예비임무를 띠고 있다.

이중 225대가 1959~1962년 사이에 생산된 후기형의 G/H 형이고,

이외의 것은 1956~1958년도에 제작된 구형기 C/D/E/F형으로서, 이는 대소전략공격용으로서 쓰이지 못하고 통상 폭격형으로 개량되어, 월남전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오끼나와」의 「카테나」 공군기지와 태국의 「사다협」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며 월남과 「라오스」에서의 배트콩과 월맹군의 세력저지에 나서고 있는 B-52는 그 이목 자세로써만도 알 수 있듯이, 완전한 구형기로서, 폭격의 방법도 제2차대전시의 고고도 수평폭격을 하고 있다.

현재는 17도선 이남만 폭격을 가하고 있어 그걸 염려는 없다고 하겠으나, 만약 폭격중 대공 미사일의 공격만 받을 것 같으면 즉각 타 전투폭격기로 대체할 처지에 놓여 있겠다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저공 침투공격법을 취하기 위하여 기체의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개량에 나시고는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기동성이 적어, 장차 핵공격형의 신형으로는 G/H형만 남게 될 것이다.

이는 1970대에 들어서지도 계속 사용될 것 같다.

이외의 폭격기로서는, 전술공군사령부 (Tactical Air Command)와 각 전역공군단에 속해 있는 「마틴」 B-57이 약 70대, 「더글러스」 B-66이 약 40대 있지만 모두가 전자정찰용과 파스화인더(공격선도)용으로 쓰이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

미국의 당초 신형화계획으로서는 F-111, 폭격형 FB-111을 14개 비행대로 약 210대 보유할 예정이었으나, F-111의 결합과 더욱 군사비 삭감으로 인해서 현재 FB-111은 76대, 약 4개 비행대 정도로 그 규모를 축소시켜 보유하고 있으며, 1970년대 중기까지 전략폭격기로는 B-52와 FB-111 양기종 약 300여대를 운용할 것 같다.

유인 전략기 계획 (AMSA/B-1A)

이 유인전략폭격기 계획(Advanced Manned Strategic Aircraft)은 1963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잠시 FB-111의 장비계획으로 중단되었으나 금년 1월초 「닉슨」 미 대통령에 의하여 후보 자사의 계획(노스아메리칸, 록웰과 보잉, GD 3사의 경쟁)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침 국방비삭감과 공교롭게도 소련의 SALT(전략병기 감축교섭)에 의해 재차 그 계획이 뒤

로 미루어 지고 있다.

전략폭격기라는 점에서,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정치적, 경제적인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지만, 이 AMSA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시키지 않는다면 미국에는 1970년대 말에 가서는 아마 유인전략폭격기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이미 B-1A이라는 명칭으로 장차 예정의 공격용 미사일의 연구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바, 1972년 초에 시험비행을 거쳐 1978년까지 약 240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생산비 약 94억불, 운용기 타경비까지 합해 금후 10년동안 총액 약 120억불이 소요되는 대계획이므로 당초 계획보다 그 규모가 축소된 범위 내에서 190~200기 개발 보유예정이다.

당초 AMSA에 의하면 고공은 물론 초저공에도 「마하」 1.2의 속도로 작전토록 되어 있었으나, 기종 결정 단계에서 저공으로는 천음속 또는 아음속으로 비행토록 그 계획을 변경시켰고, 이제 계획자가 고가의 것인만큼 F-111의 전천을 피하기 위해서 더욱 이러한 점을 강조한 것 같다.

현재로서는 B-57이나 B-66 등과 대체할 기종개발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현용기의 개량(B-58과 F-111로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으로 현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투기

군용기의 대표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는 현재 「백도날·더글라스」 F-4 「팬텀」이 그 주력을 이루고 있다.

현재 공군의 전투기는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Aerospace Defense Command) 예하에 요격기 20개 비행대(F-106×11, F-101B×6, F-102×2, F-104×1)와 대륙 공군사령부(Continental Air Command)에 F-102가 19개 비행대, 도합 750기인데, 이중 F-101의 3개 비행대와 F-104 비행대는 6월말 폐지되었다.

전술 공군사령부(Tactical Air Command)에 F-4, F-105, F-100의 전술전투비행대 31(2중 21개 비행대 이상이 F-4), F-111의 전술전투비행대 3, RF-4e, RF-101의 전술정찰비행대가 9 및 특수전 비행대가 있고, 우주 공군사령부(USAF IN EUROPE) 태평양 공군사령부(PACAF) 등 해외 병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 주항공대(Air National Guard)에 전술전투기 19개 비행대, 전술정찰기 12개 비행대가 있다.

현재 미국의 해·공·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 대수는 약 5,000여기로 그 중 약 3,000여기가 「백도날·더글라스」

F-4 II 「팬텀」(공군의 신형개발기 포함)로 이루어져 있다.

같은 「팬텀」기종이라도 해·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 약 400여기는 1964년 이전에 제작된 구형 F-4B(해) F-4C(공)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팬텀」은 공산제국이 갖고 있는 소제 「미그-21」과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이에 따를 전투기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금후 MIG-23이나 SU-11 등 예상되는 소련의 최신 항공기가 나온다면 문제는 좀 다를 것으로 보인다.

공군용 신제공 전투기 (FX/F-15A)

작년 12월 공군의 차기 전투기로서 「백도날·더글라스」사의 F-15A가 결정되었다. 원형기 20대(실용평가용과 복좌 연습기 12대 포함)가 발주되어 그 첫 시험비행을 1972년, 실용배치개시분 1975년에 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 공군의 요구기수로는 약 600여대가 될 것이나, 최초의 항공단 실용기로서 우선 107가 생산될 예정이며, 이후 400~700대가 계속 양산될 것 같다.

F-14이상으로 자세한 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표된 상상도를 볼 것 같으면,

고정익 쌍발 단좌기로서 총 중량 18톤 급의 '경량기'로서 그 무장능력은 「스케로」 AAM 4발, 신개발한 AAM, AIM-82를 각각 실고 신형 25mm 「발칸」포를 장착하게 되어 있다.

해군의 F-14와는 달리 고정익의 단좌형이라는데 특색이 있다.

대지공격, 직접지원기 A-X

1967년부터 시작된 이 기종에 대한 연구는 「GD 콘베어」, 「백도날-머글라스」, 「노스-틀」, 「구라망」 등 제회사에서 진행시키고 있는데 쌍발·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하고, 체공성이나 적재능력이 높아 특히 주목을 끌고 있다.

공군의 요구기수는 약 600여대이나 실제 생산단계에서는 400대 이하가 될 것이라 한다.

무장능력은 30mm 「발칸포」 6연, 탄약 3,000발을 파레트 식으로 고정 장착하며 로켓탄과 폭탄도 적재할 수 있다.

경량, 간이화된 이 비행기는 또 통신전자, 항법장비 특히 「레이다·호밍·워닝」 장치, 적외선 경보장치 FAC에 필요한 FM 송수신 장치를 갖추고 있다.

공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A-X계획이 성공하는 경우, 해군 해병대에서도

이 기종을 즉시 인수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송기

미 공군의 장거리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주력기들로는 약 260대의 「록키드」 C-141, 약 40대의 「더글라스」, C-133이 있으며, 약 112대 정도 남아있는 C-124 「글로브·마스터」가 퇴역하여 예비항공대에 전기 계속되어 있다.

거인수송기 「록키드」 C-5A 「켈러서」는 예기치 못했던 구조상의 결함으로 그 취역이 늦은데다, 당초 120대 생산 예정도 물가상승의 이유 때문에 81대 정도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개량 개조되어 특수용으로 쓰이고 있는 수송기로 공중급유기를 들 수 있다. 현재 SAC, TAC 산하에 「보잉」 KC-135가 550대가 있고, 또 EC, RC, WC 등으로 불리우는 C-135의 특수개량기가 약 80대에 이른다.

해병대는 단거리 수송 및 공중급유용으로 KC-130 3개 비행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조, 수색용으로 HC-130을 다수 갖고 있다.

대형 전략 수송기 CX-4

최대형 수송기 CX-4의 개발계획은

□ 미 군용기 개발현황과 그 주력기들 □

1963년 이래 「록히드」 C-5A에 이어 추진되었다. 1980년대 초기의 장거리 수송기로서 각광을 받게 될 이 수송기는 24시간 이내에 세계 어디든 완전무장된 지상부대를 논 스톱으로 수송할 것이다.

요구기수 105대 이하로 한 대의 단가가 무려 180억원이나 된다.

공중 급유기 KC-X

현재 취역기간 8년이 지난 KC-135는 1974~1975년부터 SAC, TAC의 전략

복격기, 전술전투기의 공중 급유지원과 특히 계획 중에 있는 AMSA/B-1A를 지원키 위해, 현용의 KC-135보다 신형의 비행기를 개발치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

현재 KC-X의 제일 유력 후보기로서는 「록히드」 C-5A, 「보잉」 747 양 거인기가 유력시 되고 있다.

이들은 속도, 항속력, 기동성 등 비행능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연료적 재능력이 커서 급유기로서의 이점을 많이 갖기 때문이다.

▲.....은자와 크라우제밋츠가 다같이 전략의 요소 가운데서 정신적 요소를 제일 중요시하여 순위의 맨 앞자리에 놓았다. 나폴레옹도 「전쟁에 있어서 정신력과 물질의 비율은 3대 1이다」라고 하여 정신적 요소가 체요소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말 하였다.

「전쟁의 이론은 정신적 체력을 도외시 할 수 없다. 군사적 활동은 단순히 물질적 소재만을 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적 소재에 생명을 불어 넣는 정신적 힘도 또한 그의 대상으로하며, 이 양자를 구별하여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만일 정신적 수량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이론이 있다면 이 이론은 반드시 파탄을 초래할 것이 틀림이 없다.

「위대한 정신의 천고한 의지는 군사학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타의 어떠한 것보다도 탁월하고 지배적인 존재이다.

<군중 코너>

- 과학 문명과 윤리
- 예수의 윤리적 교훈
- 상황윤리 소고



과학 문명과 윤리

김 판 석



「케네드 보울딩」(Kenneth Boulding)은 그의 저서 「20세기의 의미」에서 「현대는 인류역사의 두번째 전환기」라고 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인류역사의 첫번째 전환기는 고석기시대로부터 신석기시대 그리고 도시 문화시대로 옮겨지던 때요, 두번째인 현대 전환기는 문명시대로부터 문명 이후시대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한다.

유럽에서는 15세기에 인쇄기를 발명하여 과학지식의 보급이 시작되었고 17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현대적인 과학정신이 형성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세기에 이르러서 과학정신의 결과로서 소위 기술문화로 접어들기 시작하여 산업혁명을 낳게 하였다.

그런데 19세기는 이 기술문화가 하나의 사회적인 조직으로서 발전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로서 20세기에는 과학지식이 극도로 발달함과 아울러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이 앞으로도 잠시도 멈추지 않고 가속도적으로 발전하

현대 문명은 과학 문명이라고 한다.

과학정신에서 비롯된 기술문명이 20세기의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 역사적인 특징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게 될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미국혁명 시대에는 전인구의 90%가 농촌인구였었는데 현재는 겨우 10%가 농촌인구며 나머지가 직접 동작물을 생산하지 않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국민의 식량생산이 기계화됨을 따라 최소한의 노동력으로서 최대한의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앞으로는 전국민의 5%로서도 나머지 95%의 국민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현대문명이 과학발달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제도 자체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사람의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산 전 인류의 25%가 현재 살고 있으며 1910년까지 인류가 지하자원을 개발한 분량과 같은 분량을 1910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했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 역사상에 나타난 과학자의 총수의 90%가 현존하여서 과학연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인류역사는 그 방대한 과학지식과 기술로서 종래에 문명시대라고 하던 때를 넘어서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과학기술이 결국 인간의 사

회구조, 성격형성, 가치선택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매일 진전되어 가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과학기술 문화가 해결해야 할 것은 전쟁문제, 인구문제, 그리고 과학기술 자체의 문제 그리고 끝으로 인간의 윤리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인간사회에 번침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인간의 지식 또는 배움의 과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찾지 않을 수 없다.

도시 어떠한 사회든 개인의 지식이 없이는 그 사회가 성립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는 데는 재언을 요치 않을 것이다. 즉 그 사회의 지식이라는 자원을 개인의 어릴적부터의 배움의 과정 즉 학교 교육을 제외한 가정과 사회관습으로서 배우는 지식으로써 축적되어야만 한다. 어떤 의미에서 지식이란 소모되는 상품과도 같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식도 없어진다는 뜻에서도 그렇고 또 사람마다 있어버리면 다시 배워야 한다는 뜻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식산업(Knowledge In

dustry)이라는 과정이 이미 소모된 지식을 보충할 정도에서 멈춘다면 그 사회는 발전적이며 창조적인 사회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자식의 지식이 그 부모의 지식보다 조금도 더 나은점이 없이 몇 대를 거쳐 수천년 꼭 같은 지식 수준에서 세대가 교체되는 사회라곤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지식 산업의 과정을 좀더 엄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지식의 성장에는 이미지와 추리 그리고 이 추리를 확증하거나 부정하는 메시지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미지는 사람의 마음 속에 나타나는 사실적인 내용이다. 즉 지식의 주관적인 내용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이 세계, 자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미지로서 미래에 대한 추리를 하고 기대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는 이미지에 따라 자아와 가치의식을 형성한다.

어떤 이념에다가 자아와 생활을 「아이덴티화」(Identify)하는 사람은 그 이념이 내포하는 이미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만일 그가 이미지를 바꿀 때면 그 자신의 자아마저 부정될 수 밖에 없게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에는 민속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이 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지식은 급격하게

변천하는 한국과 같은 처지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돌되거나 또는 상호보충이 되어 간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지식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좋은 예로써 기우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가뭄이 심하면 기우제를 드리고 춤을 춘다. 춤을 추면 비가 오게 된다는 신앙은 하나의 경험적인 추리이며 논리적인 추리는 아니다. 「신의 마음이 흠족하면 비를 내리신다.

사람은 춤을 추면 그 마음이 흠족한다. 그런고로 신도 춤을 추는 것을 보면 흠족하게 느낄 것이다. 그런고로 춤을 추면 비가 온다.」이 추리에서 전제되는 것은 역시 춤이 비를 오게 한다는 것이요 만일 춤을 추어서 비가 오면 그전제가 확증되며 만일 춤을 추어서 비가 오지 않아도 이 추리는 확증된다. 왜냐하면 기우제에서 하는 춤도 복잡한 동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춤추는 방식에 잘못 된 때가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우제를 하여서 비가 오나 오지 않으나 그 기우제 자체의 효험에 대해서 아무도 도전을 하지 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과학적인 추리는 그것이 잘못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즉시로 새로운 논리로서 실험을 하여 기대한 바를 입증한다.

<균중 코너>

이처럼 현대의 과학 지식은 현대사회 구조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아와 이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에도 큰 변화를 일으켰다. 현대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신학이나 철학과 대립하는 어떤 제한된 분야가 아니라 삶 전체의 근거와 의미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석케 하는 신학과 철학의 전반적인 주제로 되어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서 현대 신학에서 복음의 세속적인 의미를 새삼스럽게 말하기에 이르렀으며 선교에 있어서의 새로운 「에토스」의 추구가 생겨지게 되었다. 기술문화의 중심점은 역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 존재에다가 합리적인 원리를 적용시켜서 이를 재형성하여서 지배하자는데 있다.

그런데 지금부터 백년전만 하더라도 기술이란 한갓 도구적인 가치밖에 가지지 못하였으나 현재에는 기술문화가 제도화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모랄 문제로서 사회구조 안에서 갖가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모든 사회적인 제도는 자체속에 성장과 변질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유기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는 제도라곤 존재할 수가 없다. 모든 제도에는 복잡한 기능, 권위, 가치 그리고 경쟁적이며 충돌하는 상호작용을 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한 제도에 대한 충성

과 영합 협조의 경향이 강하게 노출되고 있다. 「프랑크 탄넨바움」의 말대로 「자체도 조직에는 그 자체의 내면적인 논리에 따라 모든 것을 포섭, 흡수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그 사회 안에서 모든 책임을 혼자서 감당할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므로 각 제도적인 상충과 알력, 충돌은 사회의 정상적인 상태이며 말썽 없는 고요한 사회를 바란다는 것은 한갓 백인몽에 불과하다. 부조화 대립 충돌은 사회의 항구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생명력과 정상적인 성격을 말해주는 증거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인간의 윤리역사는 사회적 충성심의 충돌의 역사이기도 하다. 고대 화랍의 「아덴」에서도 부족적 충성과 도시국가적 충성의 대립 투쟁이 그 역사의 특색을 이루고 있었다. 부족적인 규범이 한쪽으로부터 무너지고 자유로운 개인의 자아의식이 생겨져는 데서 시며적인 윤리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변천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윤리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기술사회로 향해서 나아가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 개인의 책임 문제가 가장 절박하고도 긴요한 윤리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가족주의적인 책임 관념에서부터 독립

된 개인으로서의 책임 관념으로 옮겨지는데 새로운 가치개념 그리고 과학적인 이미지가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여기에 과학기술 사회로 변천하는 한국의 윤리문제의 전망을 내다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나는 기술문명이 단순한 외면적이며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화된 것으로서 사회문화 그리고 인간의 자기 의식과 이미지 속에까지 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과 또 제도화 되어진 기술문명이 사회적인 충동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했다. 특히 두번째의 사회적 충동이 사회변천의 성격을 보여주며 나아가서는 윤리적 충동도 이러한 제도화된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에서 오는 결과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기술문명의 제도화는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인가? 그것을

① 추상화(abstraction) ② 일반화(generalization) ③ 개별화(individuation) 그리고 ④ 합리화(rationalization)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추상화에서는 도덕적인 가치를 전통적인 과학이전 시대부터 받아들인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유리시켜 버리는 것을 말한다.

과학과 기술의 규범이란 늘 추상적이며 비 인격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규범이 다른 여러 가치들을 덜 신성하거나 덜 진박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에 반하여 도덕적인 행위는 늘 구체적이요 인격적인 것이다. 특히 전통 사회에서는 사람은 그 도덕적인 결단을 그가 속해 있는 부족, 가족의 멤버로서 내리게 된다. 그런데 기술사회에서는 개인이 결코 이런 부족적인 멤버로서가 아니고 자기가 보지도 못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과 관련을 맺으며 그런 관련에서 얻어지는 인간적인 자질에서 자기의 결단을 내리게 된다. 기술사회에 있어서의 시장조직에서 우리는 좋은 예를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장날에 마을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사는 동시에 서로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 하고 흥정을 하며 이러는 가운데 마을과 마을 사이의 「코뮤니케이션」을 하는 기능까지 담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술사회의 시장구조는 경제구조의 과학적인 조사, 생산과 수요의 균형,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서 큰 빌딩 안에 있는 깨끗한 사무실, 비서, 전화 등 통계 숫자를 앞에 놓고 물건의 매매를 한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과의 인간적인 접촉이 없어도 된다.

다음에는 일반화의 과정이다. 옛날에는 충성이니 애국심이니 영예는 하는 규범 가치가 사회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계층에만 국한되었던 것이지만 기술사회

<군중 코너>

에서는 그러한 규범이 일반화 되어서 일상생활에서 즉 스스로오르나 개인 활동에서 언제나 누구에게도 타당되는 것이 된다.

기술 사회에서 생겨지는 대중 사회에는 이러한 대중규범이 있게 되는 것도 결국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그루우프나 계층에만 국한되었던 규범이 일반화되어 갔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세번째 과정으로서 개별화를 들 수 있다. 기술문화는 전통 사회를 와해시키고 단편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추상적이며 비인격적인 기술문화의 성격 때문에 개인은 자기를 한 공동체의 멤버이기에 앞서 독립된 자아로서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톤니스」(Tonnies), 「질벤」(Simmel) 「들크하임」(Urkheim) 그리고 「워버」같은 여러 사회학자들은 다같이 현대 역사에 있어서 일차 그루우프이나 사회적인 관계가 기계화 되고 원자와 같이 개별화 되어 가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기술 문화의 추상적이며 비 인격적인 형식이 한 개인을 그가 속해 있는 일차적인 공동체적 유대보다 더 리얼한 것으로 보게 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제는 한 개인 속에서 전통적인 덕과 안정성을 찾아 보게 되었다. 자유 사회

란 결국 개인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사회를 의미하게 되었다.

끝으로 기술 사회 형성에서 배어 놓을 수 없는 과정으로서 합리화를 들 수 있다. 현대의 교육이나 종교,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결단이 하나의 근원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의 행정기술이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육성하고 유지하는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기술문화 혁명이 인간을 기술과 힘 그리고 사고를 통해서 기계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개별적인 결단마저 기계에게 맡기게끔 되어 가고 있다. 그로 인하여서 인간의 지성적, 도덕적인 마찰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켜가고 있다. 여기에서 흥미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한 철등한 물리학자나 과학자가 등장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학연구는 개인의 노력보다도 정밀하게 계획된 행정적인 조직 안에서 공동연구와 리서어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과학자가 개별적으로 윤리적인 결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되었다. 요컨대 과학기술이 제도화 되어 감으로 인해서 「프로젝트」중심으로 연구를 진행시켜야만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과학 기술 문화가 우

리에게 개인의 윤리적 결단이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으로 우리는 기술사회에 있어서의 윤리문제를 생각하고자 한다. 시구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윤리문제는 기술사회의 발전과정에 나타나는 책임문제로 귀착된다.

「하롤드 로제버그」가 쓴 『「아이히만」 재판』에 관한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술문화가 제도화된 사회에서 벌어진 나치 범죄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근본문제를 보게 된다. 유대인 학살이 「히틀러」의 책임인가? 「아이히만」의 책임인가? 그렇지 않으면 독일국민 전체의 책임인가? 「아이히만」의 변호인은 결국 유대인 학살의 책임이 「아이히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아이히만」은 제도화된 당시의 나치정권 안의 한 톱니바퀴에 불과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나치정권과 이에 직접 간접 참여한 잔국민이 져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사회에서 생겨서는 윤리적 책임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한국과 같은 과학 기술 문명이 아직 제도화에까지 발전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술사회의 윤리적 책임문제는 앞으로 우리사회에도 임박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변천

하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전통적인 유교적 이미지와 개인과 가족과의 관계, 윤리 가치 판단이 점차로 변하여 가는 때 따르는 책임 개념의 변화를 우리는 윤리문제로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한국적인 상황 안에서 책임 사회의 윤리적인 기초를 모색하는 데 실패한다면 근대화나 국가건설도 대단히 힘들 것이다.

예수의 윤리적 교훈



장 석 영

예수는 어떤 체계를 세워, 거기 의하여 윤리적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고 흔히

<군중 코너>

우연한 경우와 사정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경계 체려, 혼욕을 배부신 까닭으로 그의 교훈에서 일련의 완전한 최종적 혼인이나 잠언의 목록을 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윤리적 또는 종교적 생활의 매우 간단한 원리 원칙을 찾는 편이 옳을 것이다. 하여간 예수의 도덕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먼저 소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첫째, 어떤 악한 행동을 보신 때에 밖에 들어난 그 행위만을 보시지 않고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악한 심향을 내찰하였다.

그러므로 살해와 증오, 간음과 음심을 상대적으로 관련시키어 거기 대한 자기의 윤리적 교훈을 철저하게 배부셨다. 『바이넬』(Weinl)이 말한바와 같이 『도덕적 요구가 고도에 오르는 그 때에 내적 선한 심향(心向)을 요구한다. 이러한 발달계단에 있게 되는 때 윤리는 일대 전향점에 도달한 것이 분명하다.』

둘째, 예수의 논리적 교훈의 특성은 당시 유행하는 모세의 율법 의식을 대할 때에 그 배후로 밀고 들어가 그 최초 원리를 단명하는 데 있다. 예컨대 안식일 제도는 결국 이것을 설정하게 된 그 근본의사에 따라 운용될 것을 주장하여 『안식일은 인생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 말씀하셨고 남작후에서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도록 용인한 모세의

율법을 남녀간의 원래 신체 조직에 비추어 결혼의 실질적 심격을 들어 이혼 문제를 처리하셨나니 그것은 성적(性的) 관계에 있어 두 인격이 결합되는 바이니까 신의 의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근본적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적극적 방법으로 예수의 윤리적 교훈의 요강은 대체로 그의 산상보훈에서 찾을 수 있거니와 먼저 관복훈에 대하여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주(主)는 어떤 방편의 성격을 나타내는 자를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다. 좀 자세히 말하자면 영적으로 빈곤을 실인(實認)하는 자, 세간에 있어 연속적으로 비애와 고통을 당하는 자, 즉 사실상 십자가를 진 자, 선(善)을 사랑 하는 자, 자기가 자비하다고 스스로 주장하지는 아니하되 신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자, (어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즉 도덕적 정결에만 국한되지 않고 빈욕과 이기심에서 해방된 자, 또는 복음을 위하여 학대와 박해를 견디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참으로 영원히 행복스럽다고 인정하셨다.

그러나 예수의 윤리적 교훈에 나타난 모든 도덕적 가치와 표준을 통일화 조화의 최종적 완성에 근거하고 또는 그 최

고 이상을 향하고 나가는 일종의 새 도덕을 산출코자 한 의도였다. 말하자면 이웃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악한 일임은 모든 도덕적 체계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니 이러한 도덕적 행위의 최소 표준도 사랑의 법칙에 근거를 두고 또는 행위의 최종적 완성을 위하여 그리로 향하여 나가는 것이다.

예컨대 살인과 강도를 금하는 것은 소극적이라 하나 어떤 사회든지 다만 이러한 소극적 금제 뿐으로는 만족을 얻지 못한다. 사회의 법규가 소극적 경계를 넘어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최소의 표준만이 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모든 진보된 사회의 도덕적 표준과 이상은 살인강도에 대한 단순한 금제 이상의 무엇을 요구하나니 즉 정의의 높은 개념이 발달되어 이웃 사람이 저의 생활을 유지할만한 공평한 기회를 가지도록 공동사회를 조직할 어떤 책임을 느끼게 된다.

이 책임감에서 자라나오는 여러가지 정의, 공동의 설계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그 설계 자체 이상 인개의 균등 이상을 암시하나니 균등은 언제나 저 정의의 지도원리요 또는 이 균등 이상 안에 사랑의 법칙이 반영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회든지 완전한 균등

을 성취하기 어렵고 또는 경우와 사정을 따라 균등의 원칙을 초월하는 행위나 쓰사에서 도리어 사랑의 법칙을 참되게 공평히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은 사랑의 법칙이 향상되는 때에 정상적으로 생(生)과 생(生)의 관계에 있어 통일과 조화를 유지할 뿐 아니라 마침내 『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줄 믿는다. 이것이 자연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더욱 초월한 통일의 원천 즉 신의 자애—의지로 향하는 인간의 책임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주의는 「스토익」 사상의 세계주의보다 일층 더 『불가능한 가능』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예언자적 윤리학에서 도덕적 의무는 인생에 초월한 통일 즉 신적 통일에 대한 것이다.

여기 대하여 영적 생활의 번증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주의적 윤리학은 사랑의 계명을 실행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차차 이상적 사회관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져 않으면 그것을 일종의 무해 혹은 유해의 부적당한 이념의 범주원으로 몰아 내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종류의 기독교적 자유주의는 산상보훈 윤리의 절대성을 교육학적 중점의 의미로 보아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무해한 호언장

<균중 코너>

담 즉 동양적 과장법으로 해석하는 일면
에 어떤 순전한 통속적(비종교적) 자연
주의는 이 윤리의 절대성을 일개의 유해
한 과장법으로 생각하였다.

좀 밝혀 말하면 「프로이트」와 같은 학
자는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한 그 명령은 인류의 공세적 심함에 대
한 가장 강렬한 방위인 동시에 교화적
초자아의 비심리학적 태도의 일종 최상
의 모본(模本)이니 이러한 명령은 실행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자아의 이러한
무한도의 팽창은 그 가치를 저락시킬 수
있을 뿐이요 그것의 해악을 구치할 수
는 없다고 표명하였다.

이것은(일종의) 과도한 도덕주의적 또
는 낙천주의적 자애 완전론에 대한 일개
의 가장 유력한 항의인 것을 인정하는
바이다.

이 전래의 약점은 사랑의 법칙이 일개
의 불가능한 가능임을 알며 또는 『내 지
체안에 한 법이 내마음 안에 있는 그 법
을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
할 줄 아는 종교의 깊은 명관을 이해치
 못하는 것이라고 「니-버」 교수는 반박
하였다. 하여간 예수의 윤리적 교훈의
초점이 되고 정점이 되는 이 사랑의 원
칙에 대하여 진중히 상고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1. 「사랑(愛)의 원칙」

사랑은 신약에 가르친 여러가지 의무
와 미덕의 전경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사랑의 윤리요 또는 민주(民主)
윤리라고 부르는 것이 가할 줄로 생각한
다.

『네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네몸과 같이 하라』하
였으나 이 두 계명위에 율법 전체와 예
언이 달려 있다고 예수는 말씀하셨고
「누가」에는 이 두 계명안에 도덕생활 전
체가 요약되어 있으니 그것을 행한즉 영
생을 얻으리라 고 기술되었다.

「바울」 사도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몸
과 같이 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수행하
는 것 이라고 말하고 또 사랑을 완전한
생활의 끈(결속물)으로 즉 여러가지 미
덕들은 일개의 조화된 총선으로 계속하
는 세력으로 발표하였으며 「야고브」는
이웃 사랑하는 것을 무상의 고귀한 법칙
으로 언명하였다. 다시 「바울」은 자기의
사랑의 노래 가운데 믿음과 희망 위에
놓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
이라』 선언하고 성신의 실과 목록에도
사랑을 제일 위에 놓았다. 하여간 신약
에 있어서 사랑은 단순히 인간도덕의 가

장 위대한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속성이다.

요한 서신의 저자는 『신은 사랑』이시라고 결실히 거듭거듭 말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윤리의 중심인관한 최고 최심의 지도원리가 사랑인 것은 결코 의심할 바가 없는 줄로 생각한다. (누가 10장 20—58절) (갈 5장 14절) (롬 13장 8절—10절) (골 3장 14절) (약 2장 8절) (고전 13장 13절) (갈 5장 22절) (요 14장 8절—16절)

2. (사랑(愛)의 성질과 의의)

우리는 사랑을 여러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하여 일정한 원칙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예컨대 사랑에는 신에게 대한 사랑, 타인에게 대한 사랑, 자아에게 대한 사랑, 신의 사랑, 어떤 대상에든지 관계 없는 사랑, 구하는 사랑, 또는 주는 사랑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 있다. 이러한 여러종류 여러 의의의 사랑 가운데서 기독교의 사랑을 구별하여 그 의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생각한다.

기독교적 사랑에 대한 기본 문제는 그 가운데 욕구적, 혹은 이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이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모든 인간에는 이기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현재 갖지 아니한 무엇을 욕구하는 것이다. 즉 환희에

대한 욕구, 어떤 복리에 대한 욕구와 같은 것으로 인간생활에 있어 제일의 기초적 또는 본질적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보편적으로 사랑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유한적 존재인 까닭이다. 그들이 임시적 또는 종속적(부조를 요구하는) 인물인 까닭으로 자신 이상 어떤 데서 모든 복리나 이득을 구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피조물인 그 사실과 또는 자기 자신으로 충족치 못한 그 사실이 부득이 무엇을 욕구하게 만드는데 이 욕구는 즉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와 같이 인간생활의 자발적 또는 불가피의 사실이다. 하여간 사랑은 일반적 의미로 보아 도덕적으로 중성적이어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것이 향하는 그 대상을 따라 혹 선도 되고 혹 악도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논하면 만일 대상이 인간 위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 또는 최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거기 대한 사랑은 선이 되려니와 만일 그 대상이 우리 인간 아래 있어서 우리 존재에 무엇을 더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항구적 선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기 대한 사랑은 거짓이요 따라서 악이다.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사랑이 있으니 하나는 신의 사랑이요 또 하나는 세간(世間)의 사랑이다.

<균종 코너>

「어거스틴」은 전자를 「카리타스」 후자를 「큐피디라스」라고 이름 하였나니 「카리타스」는 위로 향한 즉 영원으로 향한 사랑(愛)이요 「큐피디라스」는 아래로 향한 즉 인간으로 향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유일한 정애(正愛)는 「카리타스」다.

그런즉 기독교 사랑은 어떤 종류에 속하며 또는 그 의의가 어떻게 명확히 관별되는가. 기독교 사랑(주로 신에게 대한 사랑 또는 신에게 대한 탐구로 인정되는)에 대한 「어거스틴」의 개념으로 말하면 사랑은 신에게로 상향(上向)한다는 관점에서 「에로스」(Eros)설과 합치되는 경향이 있나니 이것은 「어거스틴」의 견해가 원시적 단순한 기독교 애관이 아니고 외래의 요소와 혼합 조성된 까닭이다.

신에게 대한 탐구로 보는 초위 신에게로 향상(向上)하는 그 사랑은 신의 향하(向下)하는 사랑이 없이는 실패로 돌아가고 마나니 다시 말하면 신에게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완전히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신의 의사가 충분히 강림하는 때 달렸다.

요컨대 「어거스틴」의 교훈은 신에게 대한 인간의 사랑과 인간에게 대한 신의 사랑은 기독교 사랑 설에 있어 두 개의 필요 불가결의 실질적 요소라는 것을 역설한 바이다.

그러나 기독교 사랑의 근본 개념 즉 신약의 「아가페」(Agape) 교설로 말하면 기독교 사랑은 주로 신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기의 창조물로 저항된 일개의 자발적 무동기의 사랑이다. 이것이 애련여기의 행위로 나타나는 때 그 기원을 인간의 창조에 돌리기 「쉬우나」 실상 인간의 창조가 아니고 신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유명한 서전신학자 「안디스·나이그렌」(Andus Nygren)은 자기의 저서 『기독교 애관(愛觀)의 역사』에 진정된 기독교 혹은 「아가페」는 그 대상의 공적에 하등의 관여가 없이 순전히 주는 사랑임을 증명하고자 노력한 동시에 이 방면에서 「아가페」는 「플레토」 또는 대체로 「헬라」 철학으로서 교환된 「에로스」와 요연히 관별될 뿐 아니라 확실히 반대되는 것을 표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은 일개의 순전히 주는 사랑으로서 어떤 종류의 욕구와도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순전한 원시적 기독교가 일찍이 「터틀리안」, 「클레멘트」, 「오리게네」, 「이레니아어쓰」, 「어거스틴」 등 저명한 교부(敎父)들의 저도아래서 「헬라」의 「에로스」 교설과 아울러 유대의 준법주의에서의 모든 요소와 혼합되어 결국 일개의 종합적 학설로 조성되었다는 것을

전기의 「니이그렌」 교수는 주장하였다.

3. [자아애와 기독교애와 신의애]

자기애는 자기의, 안녕행복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 것이니, 이는 자기 존재의 본능안에 포함된 것으로 인간의식의 일개 기본적 요인이다. 종래의 정세 아래서 인류생활이란 것은 자기애의 활동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이 구구하여 어떤 인사는 자기애는 원칙적으로 자기 중심이어서 이기주의에서 분리될 수 없고 따라서 죄악이라고 주장한다. 실상 진정한 기독교애는 모든 자기중심 사상을 배척하므로 기독교 윤리에는 자기애가 용인되지 않는다. 위에 말한바와 같이 기독교애 즉 「아가페」는 순전히 주는 사랑이니 이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성질의 사랑이다. 「니이그렌」은 「『아가페』는 무조건적 자기 회생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기생활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선언한다」고 말하였다. 요컨대 이 두 종류의 사랑은 실질적으로 서로 용납될 수 없는 반대의 이념인 것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한 예수의 말씀을 고찰할 때에 거기서 어떤 다른 뜻이 보이는 듯하다.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직접

명령하신바는 아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그 계명 안에 자기 애(愛)가 암시되었나니 즉 이 자기애가 타인애와 동등의 지위를 소유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또 일면으로 신에게 대한 사랑 자체가 어떤 복리를 욕구하는데까지는 인종의 자기에로 보아도 무방하다. 만일 인간이 전심으로 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경우에 신은 우리 욕구의 최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을 구하고 또 신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선인 동시에 흔히 생명자체 또는 영생과 동일시되는 때 우리의 욕구는 정말 기독교적 사랑의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이 최고선을 구하는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으로 또는 바로 사랑하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더 진심으로 또는 더 현명히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진정한 자아애가 우리를 신의 애(愛)로 인도하고 또 신의애는 가장 고결하고 순수한 모형의 자아애다.

다음에 한가지 생각할 문제는 이웃에게 대한 사랑이니 「어거스틴」은 이 의무관념을 신에게 대한 사랑과 자아애(愛)에서 끌어내었다. 인생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까닭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신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된다. 그러므로 신을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실증이니 그래서 막일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여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자아애로 시작하여 타인애에 이르고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자기희생을 향하여 올라가고 이 자기희생은 오직 신을 사랑함으로써만 성취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애련과 자애는 다 결국 애신(愛神)에서 유래된 것이라 단안하게 된다.

4. [사랑(愛)의 일반적 개론]

사랑(愛)은 예수에게 대하여는 생의 총화와 목적이다. 이것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예수는 빈자, 약자, 병자를 위하여 자성의 봉사역을 행하고 인격의 신성(神聖) 즉 인격의 가치를 절대로 옹호하고 모든 경우에 관용의 정신을 한없이 발양하고 비상히 초월한 온유와 겸손

의 심정으로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결국은 죄악과 불의의 노예가 된 인간의 새생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자기의 신명을「갚보리」산상에서 희생에 제공하셨나니 저는 과연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또는 영웅적 봉사를 위한 존재임을 확인한 동시「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며」「내가 마시는 고배를 너희도 마셔야 될 것이며」「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크게 부르짖으셨다. 또한 예수는 이같이 용감한자, 고난 당하는자, 자기 희생애(愛)의 실행자에게 천국의 복혜를 허락하시고 영원의 최선 즉 신의 생명인 이 사랑에 속한 것임을 표명하셨다.

요컨대 사랑은 최고의 생이요 모든 진정한 생의 총화와 목표인 동시에 이 사랑은 선자나 악자나 의인이나 죄인이나를 물론하고 인생에 대하여 공평 균등하여야 할 것이며 또는 즐거운 맘으로 봉사하고 즐거운 맘으로 희생에 제공하고 즐거운 맘으로 용서하는 사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위대한 무조건적 사랑의 원칙이 신국통치의 유일한 헌법으로 그 아래서 인류가 신 자신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생활에 참여하게 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

×

×

상황 윤리 소고

최 원 진 균 무



부정하고 상황 즉 사실만 앞세우는 것 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말하자면 원리는 최대한도로 받아들여져 원리와 맞추어 나가는데 있어서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 상황에서 적당한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상황윤리라는 말이 나오고 상황윤리의 배아리가 울려오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상황윤리의 사상은 「브루너」의 기회원인론(Occasionalism)이나 「레이판」의 「콘텍처리즘」(Contextualism)이나 일반 철학자들의 소위 환경주의(Circumstantialism) 및 현실주의(Actualism)에서도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으나 상황윤리라는 말과 그 실제사상은 「후리처」(Joseph Fletcher)나 「로빈슨」(John A. T. Robinson)이 주장한 것이다.

「후리처」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 원리에 맞아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원리가 다이내믹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원리를 다이내믹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고정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 다이내믹한 원리가 상황을 무시할 때에는 그 원리가 죽어버리고 케이스(Case) 하나가 정말 작용이 되어 어떤 가치를 형성할 때 즉 케이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할 때 비로소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가 나

상황윤리(Situation Ethics)라고 함은 상황에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과거의 원리, 혹은 이미 수립된 세계관을 근거로 해서 나오던 윤리관이 아니라 어떤 동일적인 것일 수 없는 다원적인 사회에 어떻게 맞추어서 윤리면은 고찰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윤리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리와 맞아 들어가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맞추어보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 일변도에서 탈피하자는 것이지 원리를

<균중 코너>

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윤리판단에는 윤법적 방법과 반법칙적 방법과 상황적 방법등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윤법적 방법이란 자연법을 고수하는 캐톨릭시즘의 자연법적 윤법주의를 말하거 또한 성경의 문자 그대로 고수하는 성경적 윤법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로 반법칙적 방법이란 보편적 법칙은 필요없고 은총이나 새로운 삶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나 일반적 법칙을 무시하고 상황적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로 상황적 방법이란 옳지 못한 윤법주의나 반법칙주의를 극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즉 부분적으로는 자연법이나 성경적 윤법을 시인하지만 무엇보다도 절대불변의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이외의 모든 것은 정언적(Categorical)이 아니며 가정적(hypothetical)이라고 한다.

비근한 예를 들면 윤법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하고 종지부가 찍힘으로 정언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로써 가정적이 되기에 범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무엇이 선한가 옳은가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적합한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확고부동한 원리로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상대주의를 피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모든 것을 가정적 내지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윤법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후리처」의 입장은 원리에 기준을 둔 상대주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의 입장에 대한 성경 근거는 신약의 고린도후서 5장 6절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사랑을 중심한 것이 상황윤리의 방법이라고 할 때 「후리처」 이전의 많은 신학자가 실상은 이미 말 해오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1928년 「드레이크」 박사가 『새로운 도덕』이란 책을 내어 놓은 것을 필두로 해서 1933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이며, 영국왕의 목사인 「뉴우세임」이 같은 제목의 글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 뉴우세임의 『새로운 도덕』이란 책은 「버트란드 러셀」의 저본인 자유주의적 성윤리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좀 부수적인데가 있으나 역시 새로운 도덕을 추구한데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칼 바르트」를 위시해서 「에밀 브루너」 「본회퍼」등이며, 미국에서는 「H.R. 니이버」 「시틀러」 「P. 레이만」 「폴. 틸리허」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50년대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P. 레이만」의 크리천의 형태와 기반

론이 발표된 이래 다시 새로운 도덕이 기독교 윤리학계에 큰 파문을 던졌던 것이다.

그래서 1958년 「J. 시블러」의 기독교 윤리학의 구조, 1963년 「H.R. 니이버」의 책임적 자아, 「레에탄」의 기독교적 콘테스트에 나타난 윤리, 「로빈슨」감독의 『신에게 솔직이』의 새로운 도덕에 관한 장 그리고 「후리처」의 『새로운 관점』, 『새로운 열쇠』 등의 논문들을 모아 내놓은 상황윤리동이 계속 출간되었던 것이다.

상황윤리에서는 6개의 가정을 말하고 있다.

첫째, 본질적으로 선한 것은 「사랑」뿐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도덕적 덕성은 실제(實在)적이 아니며 부대적(extrinsic)이라는 것이다.

둘째, 사랑만이 유일의 규범(Norm)이다. 따라서 사랑과 율법이 모순될 때에는 율법을 버리고 유일의 규범인 사랑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랑과 정의는 같다. 그러기에 이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잘못이며, 만일 구별한다면 사랑은 감상적인 것이 되고 정의는 비인간화 되는 것이다. 상황윤리는 사랑중심의 공리주의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최대 다수의 최대 사랑으로 바꾼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사랑은 감정적으로 좋아한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며, 사랑은 의지적이란 뜻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낭만적 사랑은 명령이 될 수 없으나 「아가페」의 사랑은 명령이 된다고 한 「칸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사랑은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것이다. 사랑이란 목적만 확정되면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목적과 수단은 상관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더한 의미에서 『용감하게 죄를 지라』고 한 「말린 주터」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사랑의 결단은 관례적이 아니라 상황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후릿처」는 다음과 같은 예를 몇가지 들었던 것이다.

〔예 1〕 한 미국 여성이 국무성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녀는 적성 국가에 들어가서 스파이 역할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그 명령은 적성 국가의 유력한 고위층을 유혹하여 성격 관계를 맺고 그 후에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를 얻어내라는 것이다. 이때 이 여인은 애국을 위하여 간음행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애국을 일단 제

<군중 코너>

쳐 놓고 순결을 지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다. 실상 애국을 위해 스파이 노릇을 잘 하려면 희생 을 자오하는 중에 벌끝을 다 보게 되고 간통까지도 불사하기 쉬운데 이런 때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간통수단이 전쟁폭발의 위기를 모면하고 긴장된 국교 관계를 완화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비록 큰 피해를 입을까 모르지만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큰 공헌이라 할 수 있고 애국 애족하는 정신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절에서 상황에 따라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한다.

[예 2] 또한 세계 제2차 대전중 독일에서 「본회퍼」가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음모에 가담한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

「본회퍼」는 목사로서 원래 철저한 무저항주의자요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생명에 대한 존중은 그의 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국가관에 있어 매우 보수적이어서 국가는 보존의 질서로 강조해 왔던 것이다. 물론 그의 후기에는 국가관이 나 평화론에 상당한 변화가 있긴 했지만 하여튼 평화주의자요 목사인 「본회퍼」가 어떻게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하게 되었

느냐가 문제다. 이것은 당시 독일의 상황에서 애국애족하는 사랑의 전략(Str-ategy of love)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외도 국가도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희생시키고 독일을 건질 수 있는 길은 나치스정권의 「히틀러」를 암살하는 길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어떤 원리보다도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면 다 상황 윤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3]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정신병원에서 정신병 환자가 처녀를 강간 했는데 그 처녀는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의사에게 유산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법에 의하여 산모가 아이를 낳을 건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산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인 견지에서 여자의 자유는 무시되고 법 때문에 유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자연 법에 의하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만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임신된 아기도 생명체로 보는 한 없앨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유산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단지 산모의 육체적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때 이기 때문에 보신상 유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산모의 건강이 문제시

된다면 정신적 건강도 고려에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왜 완전한 인간이 아직 되져 못한 뱃속의 아이만 생각하고 이미 인격을 형성한 산모의 정신적 건강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첫째 큰 문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아이는 강간에 의하여 생겨졌으며 또 상대가 정신병 환자이기 때문에 복수도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이다. 강간자는 환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정신적 부담도 느끼지 않고 있지만 그와 반면에 강간 당한 여자는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회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관계로 상황을 무시하고 덮어 놓고 법을 따를 수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공유산도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권익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이론이 나온다.

[예 4] 또 하나의 비극한 예를 든다면 2차대전 말기 남편은 군대에 나가고 남은 두 아이를 데리고 백림에서 살던 독일부인이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진주한 소련군에게 간첩으로 오인이 되어 강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한다. 헤어졌던 두 어린아이는 고아원에 있었다가 종전으로 군대에서 무사히 돌아온

아빠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 부인은 수용소에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곳 규칙에 의하면 임신한 여자는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인은 이 유일한 출감의 길을 위해서 그 수용소의 독일인 남자 간수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여 성관계를 맺음으로 임신하여 남편과 아이에게로 갈 수가 있었다고 한다. 남편에게 돌아온 그 부인은 경과를 이야기 하여 그 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를 입적시켜 지금은 평화스럽게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랑과 율법의 모순이다. 이런 경우에 사랑을 위해서는 율법을 범하여도 좋기 때문에 그 여인의 행동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목적이 정당하고 확립된 것이면 수단은 정당화 된다는 말과 통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후릿쳐」의 상황윤리에 관한 예를 몇가지 상고해 본다면 긍정할 만한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도 없지 아니하다.

첫째 「후릿쳐」의 상황윤리에서는 사랑이란 용어가 애매하게 다양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랑은 원리요, 규범이요 성품이요, 본질적 선이요 심저어는 정의라고 외치는데 잘못이 있는것 같고

<군중 코너>

그는 의지적인 사랑만을 생각하는 것이 더 감정적인 사랑은 너무 도의시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랑이란 것이 때로는 누구를 위한 사랑인지 분명치 않을 때가 많은 것이다.

둘째로 상황윤리에서는 「아가페」의 사랑만이 본질적인 사랑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이 관계속에 선한 것도 되고 악한 것도 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인 악의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살인이나 강간같은 본질적인 악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문제다.

세째로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 된다고 하나 이것은 바로 「마키아벨리즘」(Machiavelism)의 재현같이 보인다. 물론 목적도 좋아야 하지만 수단이나 방법도 좋아야 그 좋은 목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틸리케」(Thielicke)의 말과 같이 수단이 잘못되면 목적도 잘못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네째로는 「후릿처」가 상황윤리를 강조하면서 성경안에 있는 율법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 같다. 성경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예외적인 경우를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너무 극한적이며 예외적인 사건을 마치 일상생활의 평범한 것으로 끌어 내리

는데 무리가 있으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후릿처」의 상황윤리에서는 사랑을 동적으로 보며 항상 선한 것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랑과 정의의 동일시 할 때 생기는 부작용은 실로 클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안티노미아니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로 상황윤리를 평가 해 본다면 상황윤리는 아직도 우리의 상황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주기에 너무나도 난점이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시점에서 상황의 문제를 좀더 넓게 파헤치면서 윤리의 체계를 이루어 가는 새로운 윤리학의 출현이 아쉽다.



역경의 감사

△ 설교 △

백승진 균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스페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비올고 사람들이 종일 나머지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구약 시편 중에서).

어려운 역경 중에서 우리가 [저항해야 될] 출구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려운 고

통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생의 길은 과연 열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확실한 출구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입니다. 시 42편에 보면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기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위대한 신앙은 순수한 신앙입니다.

순수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찾는 신앙입니다.

순수한 신앙은 일지적인 신앙을 물리칩니다.

순수한 신앙은 항상 변함없는 신념과 자신을 가져다 줍니다.

순수한 신앙은 육체적인 목마름이나 고통을 정신적인 불안과 절망을 쫓아내고 완전한 배부름과 참된 안식과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돈 주앙이 젊은 여인들을 바라보던 것처럼 정욕적인 불순을 가진 채 하나님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상인들이 금전에 고정된 애착을 가진 것처럼 탐욕을 가진 채 하나님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상대편의 가문과 금력을 제일 조건으로 해서 서로 결혼하게 되는 남녀들처럼 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균종 코너>

채 하나님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맑은 시냇물을 찾는 것보다 더욱 순수하게! 배고픈 아기가 엄마의 젖을 절실하게 갈망하듯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여가서부터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올머스 헉스리」의 『용감한 새 세계』라는 작품 속에 보면 아래와 같은 절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필요하다. 나는 안락을 원치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

나는 진정한 위함을 원하고 자유를 원한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갈망하는 민족이나 개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치고 개처럼 명만 쳐다 본다면 그 개인이나 민족은 오래지 않아 쇠망할 것입니다.

들째로 역경의 의미를 밝히고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고통이나 역경 그 자체가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나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인격이 성장되고 우리들의 생이 더욱 깊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인 「조오저 마테슨」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나의 장미꽃에 대해서는 수천번 당신께 감사했습니 다

그러나 나의 가시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 다. 나는 나의 십자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계를 찾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 그 자체가 현재의 영광인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 다.

나의 십자가의 영광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하여금 나의 고통의 길을 통해서 당신께로 올라가는 길을 가르치소서. 나의 눈물이 나의 무저개를 만들었음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 다 여러분 가운데 남 모르는 고통과 역경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에 확실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통과 역경의 마당에서 오히려 지저 않고 새로운 출발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단테」의 “신곡”은 결코 행복의 은실에서 생산된 것이 아닙니다.

「베아트리체」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의 상흔을 디디고 그 위에 위대한 시혼이 역사하여 쓰여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밀톤」의 “실락원”은 그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기록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베토오벤」은 자기 생애의 어두움과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장엄한 심포니 넘버 나인 (No. 9)을 완성하였습니 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걸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양 격언에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 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같이 역경에서 승리하는 노래를 부르십시오. 이 고통과 어려움을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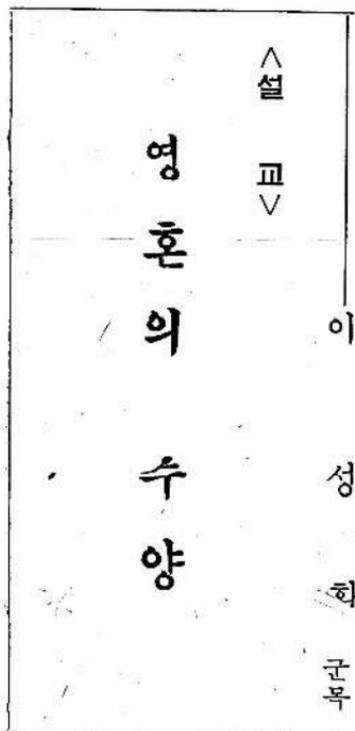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계절따라 바다로 혹은 산으로 찾아간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천 초목과 대자연을 좋아하셨다. 그의 설교에 산과 바다와 대자연을 이용하신 것도 이 까닭이다. 산과 바다는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계절 중에서도 여름철엔 가장 산과 바다를 그리워 한다. 산에 올라가서 대자연의 품에서 쉬는 일과 물에 들어가서 마음껏 헤엄치고 심신(心身)을 씻는 일은 폭양의 염장군에게 쫓긴 인생들의 피난처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이와 같은 안식처는 없을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시 23:2) 이 말씀은 은혜의 동산과 생명수샘을 가르치는데 생명수샘에서 마시고 씻고 은혜의 동산에서 편히 쉬는 영혼의 평화스러운 모습을 그림으로 보는 듯 하다.

자연계의 현상과 우리의 영혼의 수양(修養)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성장(成長)의 여름철에 영혼도 아름답게 성장시키라.

봄이 파종의 시기라면 여름철은 성장 배양기로 오희백과 초목이 모두 자란다. 사람이 밤에 자고 깨어나는 낮에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럭 무럭 자라난다.



옛 글에 인자(仁者)는 낙산(樂山)이요 지자(智者)는 낙수(樂水)라 하였다.

<균종 코너>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6) 이 말씀에 영혼은 씨앗(種子) 받은 교회요, 심고 물 주는 자는 전도자고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사라는 것이다. 뿌려진 씨앗이 자라지 못하면 밭의 고장이고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면. 병든 까닭이라 하겠다. 『지렛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시 1:3) 이 말씀은 영혼이 자라난 모양을 그린 말씀이다. 농부가 곡식이 잘 자라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한다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2. 농번(農繁)의 여름철에 영혼의 농부 되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야 5:7) 여름은 농사하는 자에게 가장 바쁘고 수고스러운 절기이다. 여름 한 때가 일년의 문제를 좌우한다. 여름 고생이 싫어서 나무 그늘에서 낮잠이나 자고 놀기만 한다면 겨울에 가서 배고픈 일을 당할 것이므로 농부는 피로움을 무릅쓰고 뜨거운 여름에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농부일생무한일(農夫一生無閑

日)이란 말이 있지만 매뚜기도 한 철이고 농부도 한 철 뿐이다. 기독자가 영혼의 농부라면 깨어서 열심으로 일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나태해서 게으름만 부린다면 추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다.

3. 염열(炎熱)의 여름철에 영혼의 연단도 밭아라.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묵 7:16) 겨울철에 추운 것도 고통이지만 뜨거운 여름도 고통이고 뚱뚱한 이는 더 큰 고통을 받는다. 하지만 오희태과나 초목이 자라고 익는때 절대 필요한 것이다. 영혼이 자라나는데도 연단은 필요한 것이다. 매경한고 발청향(梅經寒苦發清香): 매화는 한고를 지난 다음에 향기를 발한다 합과 같이 기독자는 단련의 한고를 지내야 참 신앙의 향기를 발취하게 된다. 우리도 악의 뜨거운 기운과 싸워서 승리해야 할 것이다.





행복으로의 의지

「토오마스·만」 원작
박 경 수 옮김

늙은 호프만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농장의 묘관의 저주로서 돈을 벌은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집안 출신의 당지 여자와 결혼하고 그후 얼마 안가서 그 여자와 더불어 교향인 북독일로 이사하여 왔다.

그들은 내가 지라난 도시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도시에는 호프만의 친척들도 살고 있었던 것이다.

파울로는 그 도시에서 출생하였다.

나는 그의 양친을 별로 잘 알지는 못했다.

하여간에 파울로는 그 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내가 파울로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두 사람의 아버지들이 최초로 우리들을 학교에 데려 왔을 때 그는 누르스름한 얼굴빛을 가진 바삭 마른 사내아이였다.

지금도 나는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하

다. 그는 당시 검은 머릿털을 길게 굽속거리며 세일러 양복의 칼라 위에 그대로 늘어뜨려서 그의 가름한 얼굴을 윤곽있게 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들이 다 집에서 대단히 안락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 새로운 환경, 셀링한 교실, 특히 우리들에게 억지로라도 ABC를 가르치려고 드는 붉은 수업을 가진 초라한 인간에 대해서 암탄해도 호의를 가진 수가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아버지의 저고리를 울면서 꼭 붙잡았을 때 파올로는 그반면 전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움직이지도 않고 한쪽 벽에 몸을 기대서 얇은 입술을 꼭 물고 눈썹이 가득찬 커다란 눈을 가지고 기뻐 날뛰는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아이들은 서로 열구리를 찌르기도 하고 사정없이 빙글빙글 웃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여러 괴물들 틈에 둘러싸여서 우리 둘은 처음부터 서로 이끌려 지는 것을 느꼈으며 붉은 수업을 가진 그 선생이 우리를 짚지워서 앉히었을 때는 꼭 기뻐했다.

그 이후로는 우리들은 단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동으로 우리들의 교육의 기초도 쌓았고 매일같이 점심에 빵의 교환도 하였다.

그는 그 당시에 벌써 몸이 약했다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가끔 그는 상당히 오랫동안 학교를 빠

지지 않으면 안 되었고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되면 언제나 그의 뒷덜미와 뺨에는 그 전보다 더 한층 명백하게 푸른 혈관이 드러나 보였다.

그것은 바로 연약하고 가무잡잡한 사람에게 잘 나타나는 그런 것이다.

파올로는 그것을 그 후에도 즐겼다고 있었다.

여기 뮌헨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도 그후 로마에서 만났을 적에도 제일 먼저 내 눈에 띈 것이 바로 그것이였다. 우리들의 친분은 그것이 시작됐을 때와 거의 같은 이유로서 학생시대를 통하여 계속되었다.

그 이유는 동창생의 대부분에 대한 「거리의 감정」이다.

열다섯살에 남문래 하이네를 탐독하고 중학교 삼학년 때에 세계와 인생관에 대해서 확고한 판단을 내리는 아이는 누구나 경험하는 그 「감정」이다.

우리가 당시 열여섯살 되었을 때라고 나는 기억하는데——함께 댄스도 배우러 가서 그 결과로 들이 다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

파올로를 훌쩍 반하게 한 소녀는 금발 머리의 아주 쾌활한 아이였는데 그는 그 아이를 자기 나이로 봐서 너무나 심하게 짐울한 걱정으로 사모하였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그것이 때때로 무섭게 여기어진 정도였다.

나는 특히 어느날의 댄스 피아티를 기

역한다. 그 소녀가 어느 다른 남자한테는 두번이나 거의 계속적으로 코틸은 춤을 추워 주고 그에게는 한번도 안 추워었다. 나는 불안하여서 그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는 내걸의 벽에 기대고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에나멜 구두를 응시하고 있더니 갑자기 기절하여 펴 쓰러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그를 집으로 운반하였고 그 후 일주일동안 그는 아파서 누워 있었다. 그 당시—아마 이 사건으로써 그의 심장이 펴 건강하지 않다고 판명되었다. 벌써 그 이전에 그는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고 있어서 그 방면에 대단한 재주를 발휘하였다.

나는 그가 카본으로 스케치하여 그 소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림을 한 장 아직도 가져고 있는데 그 밑에는「너는 한 떨기의 꽃과도 같다—파울로호프만 화(畫)」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언제일인지는 지금 똑똑히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상당히 상급학년에 있을 때 그의 양친이 그 도시를 떠나 칼스루에게 정주하게 되었다.

그 지방에 노 호프만의 여러가지 연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울로는 학교를 전학시키지 않고 어느 높은 교수의 벽에 하숙을 시키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상태도 오래 계속되지는 않

았다. 파울로가 어느날 자기 양친을 좇아 칼스루에로 떠나게 된 것은 다음의 사건이 직접적인 동기가 아닐는지 몰라도 하여간에 관계가 있었던 것밖은 사실이다. 그것은 어느 종교시간에 갑자기 그 교수가 무서운 눈초리로 그에게 다가와 파울로 앞에 있었던 구약성서 밑에서 종이를 한장 끄집어 냈다.

그 종이에선 왼쪽발만 제외하고는 다 완성된 지극히 여성적인 자태가 아무런 부끄러움의 기색도 없이 눈앞에 나타나 있었다.

그래서 파울로는 칼스루에로 갔고 가끔 우리는 우편엽서를 서로 교환하였으나 차츰 그것도 멀어져서 끊이게 되었다. 빈헨에서 그를 다시 보게 될 것은 우리가 헤어진지 약 5년이 지나간 다음이었다. 어느 아름다운 봄날 오후에 나는 아말리엔 거리를 내려가며 누군가가 아카데미의 현관 앞 들충계를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먼리서 보니 어느 이탈리아 사람의 모델같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불림없이 그였다.

중기고 마른편이고 모자는 탐스러운 감정머리위에 제켜쓰고 파란 혈관이 비쳐보이는 노란 얼굴색, 사치스럽지만 아무렇게나 입은 복장.—말하자면 조끼의 단추가 한 두개 끼어 있지 않고—짧은 코밑, 수염을 약간 비틀어 올리고... 그와 같은 모양으로 나를 향하여 그는

월복셀독하며 귀찮은 듯한 특징있는 걸
음걸이로 걸어왔다.

우리들은 거의 동시에 서로 알아 보았
다. 그래서 진정으로 반가운 인사를 하
였다. 우리가 미넬마 카페 앞에서 서로
지나간 몇년 동안의 경과를 물어보고 있
는 동안에 그는 꽤 우쭐한, 거의 흥분된
기분인 것 같았다.

그의 두 눈은 번쩍번쩍 하였고 동작은
웅장하였다. 그러나 안색은 좋지 않았고
참말로 어디가 아픈 것 같았다. 나는 저
급에 와서 물론 쉽게 이야기 할 수 있지
만 하여간 정말로 그 점이 내 눈에 띄었
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그렇다고 이야
기까지 하니,

『그래? 여전한 안색이 나쁘다고?』하
고 그는 반문하였다.

『글쎄 물론 그렇겠지, 꽤 많이 아팠으
니까. 지난해만 해도 오래도록 꽤 심하
게 앓았어, 여기가 나쁘단 말야』하고 파
울로는 왼손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켰다.

『심장이야. 예전부터 언제나 그랬이었
지. —그러나 최근에는 상당히 좋아졌
어. 완전히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
이지. 어쨌든 내 나이 스물세살인데 —
그렇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겠어……』사
실 그는 좋은 기분이었다.

명랑하고 생생하게, 우리가 헤어질 이
후의 생활은 이야기 하였다.

나하고 작별한 후 화가가 될 것을 간신
히 부모에게 승낙받고 9개월쯤 전에 아

카데미를 끝마치고 — 지금은 우연히 거
기에 들렀었지만 — 잠시 여행하여서 특
히 파리에서 많이 살았고, 약 5개월 이
래 여기 뮌헨에 정착하고 있는데……하
고 말하면서,

『아마도 아주 오래도록 — 누가 알겠
어? 아마도 영원히 여기에……』

『그래?』하고 나는 물었다.

『그렇지. 그것은 — 무어 나쁜것이 있
겠어? 이 도시가 내맘에 들거든!』

이주 마음에 꼭 들거든! 도시 전체의
기분이라 할까 — 글쎄? 사람들이 좋아
! 그리고 — 이것은 꽤 중요한 일인데
화가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정말 최고란
말야 — 아주 무명화가라도 — 다른데
서는 그런 배가 없지……』

『좋은 친구라도 사귀었어?』

『응 — 많지는 않지만, 꽤 좋은 친구
지……나는 너에게 어느 한 가족을 소개
해야겠어……사육제 때 나는 그들을 알
게 되었는데……여기선 사육제도 아주
재미나지 — 그 가족의 이름은 슈타인
이야. 슈타인 남작이라고 하지.』

『그것은 어떠한 귀족인가?』

『사람들이 「곰전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야. 그 남작은 본래는 주식 브로커
였는데 예전에는 원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였고 모든 왕족들과도 교제를 했다는
데 —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서 한 때만
정도만 가지고 은퇴를 하였다고 — 사
람들의 소문이야 — 그래서 사업에서는

손을 베고 여기서 조졸하게, 그러나 귀족적으로 살고 있어.』

『그 사람은 유태인야?』

『그 남자는 아닌 것 같아. 그의 부인은 그럴지도 모르지. 나는 그 가족 모두가 참으로 고상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밖에 말 못하겠어.』

『그 집에는—아이들도 있어?』

『없어—그러나—열아홉살 먹은 딸이 있지. 양친은 대단히 상냥한 사람들이고……』

그는 잠시 계면책이 보이더니 덧붙여서 말하였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그집에 소개해 주어야겠어. 그러면 나는 적기쁘겠는걸. 그렇게 하겠어?』

『물론이지. 너한테 감사를 하겠어. 그 열아홉살 먹었다는 딸과 사귀게 되는 이 유탄 가지고도—』

그는 결눈질하여 나를 보고 또 말하였다.

『그럼 그렇게 하지. 오베미를것도 없이 너만 상관 없다면 내일 한시나 한시 반쯤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어, 그들의 주소는 「테레저엔」거리 25번지의 이층이야, 학교 동무를 소개하는 것은 나에게는 큰 기쁨이지, 그럼 약속하였어.』

정말 우리들은 다음날 점심 때에 「테레저엔」거리의 어느 아담한 집 이층을 두드렸다.

초인종 곁에는 굵적하고 까만 글씨로

폰·슈타인 남작이라고 써어 있는 이름을 읽을 수 있었다.

파울로는 가는 길에 즐こん 흥분하고 있었으며 거의 무척대고 즐거워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 들이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는 그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화하는 것을 인식하였다.

나와 나란히 서 있는 그는 눈꺼풀이 신경질적으로 가늘게 떨리는 것 외에는 전신이 완전히 조용하였다.—

그것은 일종의 억압된 긴장의 교묘함이었다. 그는 머리를 약간 앞으로 내밀고 있었다.

이맛살이 바짝 썩겨지고 있었으며 그 모양은 마치 귀를 신경질적으로 쫓긋쫓긋하며 모든 근육을 긴장시켜서 무슨 소리를 엿듣고 있는 동물과도 같은 인상이었다.

우리들의 명함을 받아들고 들어갔던 하인이 도로 나와서 남작부인에게서 곧 나오실테니 잠깐 앉아서 기다려 달라는 전달을 하며 상당히 크고 킁킁한 가구들이 놓여 있는 방문을 열어 주었다.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바깥길로 향하여 니다분 수 있는 문창마루 곁에서 밝은 빛깔의 봄양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일어서더니 잠시 살피는 표정으로 머뭇거렸다. 「열아홉살 먹은 딸이구나」하고 나는 생각하며 무의식중에 나의 동반자에게 결눈질을 하였다.

그러니까 「남작 영애 아다양!」 하고 그는 나한테 속삭였다.

그 여자는 날씬한 몸매를 가진, 그러나 연령에 비하여 노숙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지극히 부드러운 거의 게으름 정도의 동작으로 보아서 그렇게 젊은 여자 같지는 않은 인상이었다.

목덜미를 뒤덮고 두 가락의 단을 이루고 있는 머리털은 이마에서 잘 가꾸어져 있었으며 새까맣게 윤이나는 빛깔이어서 얼굴의 표안 텍색과 산뜻하게 대조되어 있었다.

얼굴은 풍만하고 축축한 입술, 도둑한 코, 반달모양의 새까만 두 눈, 그 눈 위에는 활모양으로 걸려있는 언하고 검은 눈썹, 그런 것으로서 그 여자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유태족의 혈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나 하 여간에 심상치 않은 아름다움이었다.

『아—손님이 오셨군』하며 그 여자는 우리를 향하여 뱃걸음 걸어오면서 말하였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약간 선 것 같은 목소리였다.

더 잘 보려고 하는듯이 한 손을 이마에 갖다 대고 다른쪽의 손을 벽앞에 있는 그랜드·피아노 위에 짚고 섰다.

『그리고 꺾 반가운 손님도—』
하며 그 여자는 같은 어조로 덧붙여 말하였다. 그제야 비로소 나의 친구를 그 여자가 알아본 모양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향하여 물어오는 듯한 시선을 보냈

다. 파울로는 그 따님 걸음으로 걸어가더니 마치 귀중한 향락에 잠기는 사람처럼 그 여자의 내민 손을 잡고 말없이 오래 오래 그 위에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잠시 후 그는 말하였다.

『죄송하지만 나의 친구를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ABC를 배운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따님은 나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보드랍고 보기에 뼈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장식 없는 손이었다.

『처음 뵈웁니다—』

그 여자는 가늘게 떨리는 것이 특징인 어두운 눈초리를 나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저의 부모도 반갑게 맞으실 겁니다.…… 누가 알려 드렸으면 좋겠는데.』 따님이 터이키식 안락 의자에 걸터 앉았으니까 우리 두 사람도 그 맞은편에 앉았다. 그 여자의 하얗고 힘없는 두 손이 담화하는 동안에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너글너글한 소매는 겨우 팔꿈치에 닿을 정도였다. 손목의 보드라운 도둑한 살이 유난히 나의 눈에 띄었다.

몇분 후에 열의 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고 양친이 그 방으로 들어왔다.

남작은 사치스럽고 키가 작은 태머리의 신사였는데 회색의 표주 수염이 달려 있었다. 두둑한 금팔찌를 카프스 속으로

들이미는 솜씨에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품이 있었다.

그가 남작으로 서임되었을 때 이름자의 한 두마디가 회생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 반면 부인은 장식 없는 회색 옷을 입고 있는 보기싫은 조그만 유태부인에 불과하였다. 그 여자의 양쪽 귀에는 큰 다이아몬드가 반짝였다.

나는 소개되었고 지극히 다정스러운 인사를 받았다. 한편 나의 친구에게는 이 집의 친구로서의 친밀한 악수가 온 집안 식구와 교환되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떠한 용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것 저 것 문답이 있는 다음에 화제는 파울로가 그림을——여자나 제 그림——출품하고 있는 전람회에 대한 이야기로 변하였다.

『참말로 훌륭한 작품입니다!』하고 남작이 말하였다.

『나는 최근에 반시간 동안이나 그 앞에서서 구경을 하였답니다. 빨간 양탄자 위에 여자의 살빛같은 참말로 훌륭한 효과를 나타냈지요. 저 참 호프만씨는 대단하십니다그려!』 그렇게 말하면서 남작은 파울로의 어깨를 후원자의 태도로 툭툭 쳤다.

『그러나 파르는 하지 마세요. 젊은 친구! 제발 파르는 하지 마시오. 자중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지요. 요새 건강은 좀 어떠시지

요?—』

파울로는 내가 나의 개인 문제에 대하여 남작부부에게 필요한 대답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바로 건너편에 바싹 앉아서 남작 따님과 낮은 목소리로 무슨 말인가 교환하고 있었다.

내가 전에 그의 한테서 볼 수 있었던 긴장된 고요함은 이상하게도 조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

어디라고 똑바로 말할 수 없지만 그가 더벼들려는 범과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누르스름하고 좁은 얼굴에 있는 까만 눈은 극히 병적인 광채를 지니고 있어서 그가 남작의 물음에 대하여 자신있는 어조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을 때 나는 거의 두려운 생각조차 들었다.

『아, 참 좋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요사이 참 건강하답니다!』

——약 15분 후에 우리가 자리를 떴을 때 남작 부인은 나의 친구에게 이불 후련 또 무요일이라고 그들의 「다섯시 다 파티」를 잊지 말아달라고 일깨워 주었다.

그 기회에 나한테도 그 요일을 잘 기억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거리에 나서서 파울로는 담뱃불을 붙였다.

『어때?』하고 그가 물었다.

『잠상이?』

『아, 참 유순한 사람들이더군요!』 나는

대답을 급히 서둘렀다.

『특히 열아홉살 먹은 따님은 대단하시던데요?』

『대단하시다고?』 그는 짧은 웃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저쪽으로 틀었다.

『이것봐 왜 웃지?』 나는 말하였다.

『그러면서 아까 거기서는 가끔 너의 눈이——신비스러운 그리움을 띄우고 흐릿해지는 것 같던데. 그것이 내가 잘못 본 것인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 다음에 그는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어디서 내가 그런 눈치를 차렸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인걸……』

『솔직하게 말해봐! 문제는 내 생각으로서는 다만 아다양 추애서도 너에게……』

그는 또 잠시 말이 없이 앞을 내려다 보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있게 말을 하였다.

『나는 행복해질 것 같아.』

나는 진심으로 그의 손을 흔들고 헤어졌다. 사철은 속으로 의구심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지만.

그 후 몇 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에 나는 가끔 파울로와 함께 남작댁 응접실에서 오후의 다과회에 참석하였다. 거기에는 항상 소수의 그러나 대단히 기분 좋은 한패가 모이는 것이었다. 젊은 황실극장 여배우, 의사, 장교,——각각의 사람들을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겠다.

파울로의 태도에는 별로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의 불안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당당하고 즐거운 눈치였다.

그리고 아다양 짝에서는 언제나 내가 최초부터 인식하고 있는 그 이상한 조용함을 보였다.

그런데 어느날——파울로 하고는 우연히 이틀동안 만나지 않고 있었는데——루드비히 거리에서 나는 폰·슈타인 남작을 만났다.

그는 말을 타고 있었는데 말을 멈추고 안장 위에서 나한테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내일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와 주시겠지요?』

『원하신다면 물론 가겠습니다. 남작님. 내친구 호프만이 목요일마다 나를 부르러 오기로 하였는데 이번에도 또 같이 가자고 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프만이요? 당신은 그것을 모르십니까——그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신한테도 이야기 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한마디도 그런 말은 없었는데요!』

『그럼 완전히 변덕이었던군요……그것은 소위 예술가 변덕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그럼 내일 오후에 만납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남작은 말을 달려 어이 없이 서있는 나를 남긴채 가버렸다. 나는 파울로의 집으로 달려가 보았다. 아! 호프만씨는 여행을 떠났는데요, 안되었습니다. 주소도 남겨놓지 않

고 가버렸어요 하는 것이었다.

남작이 「예술가번덕」이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하였다. 그의 딸 자신이 내가 최초로부터 꼭 그러리라고 추측하였던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그것은 여러사람이 계획하였고 나 자신도 불리어서 같이 갔던 「이잘」 계곡으로의 소풍 때에 일어났다.

출발은 늦어서 오후가 되었고 따라서 저녁 늦게 될 귀로에 남작 따님과 나는 우연히 제일 뒤에서 여러사람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다.

파울로가 없어진 다음에도 따님의 태도에는 하등의 변함이 보이지 않았다.

그 여자는 완전히 평소와 같은 조용함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의 양친이 파울로의 갑작스러운 여행에 대하여 자꾸만 유감의 뜻을 표하는때도 그 여자는 그 때까지 한마디도 내친구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 때 우리는 서로 나란히 서서 뒤편 근방에서 가장 우아한 자리를 걸고 있었다. 달빛이 나뭇잎 사이를 뚫고 반짝 반짝 비쳤으며 우리는 잠시 말없이 길을 흘러가는 시냇물의 찰당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와 같이 단조로운 다른 사람들의 잡담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그 때 아다 양은 갑자기 파울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대단히 확실한 또박또박하는 말투

로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그분의 친구이신가요?』 하고 그 여자는 나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아가씨』

『그러면 그분의 비밀도 아시겠지요?』 『나는 그의 제일 중대한 비밀까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가 나에게 이야기를 안한 때라도』

『그럼 나도 당신께 이야기를 해도 좋겠습니까?』

『그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씨.』

『그럼 이야기 하겠어요.』 하며 그 여자는 결심하는 태도로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 분이 나한테 청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나의 양친이 거절하셨어요. 그 분은 몸이 아프다고 대단한 병에 걸려 있다고 양친은 나한테 말씀 하시지요. 그러나 어쩔문간에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여도 괜찮겠지요? 나는……』 그 여자는 잠시 당황한 빛을 보이다가 또 먼저와 같이 결연한 태도로 말을 계속하였다.

『나는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을 만나시거든 그분이 먼저 나한테서 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하여 들려 주세요. 또 그분의 주소가 알려지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그에게 써서 보내 주세요.』

나는 그 분 이외의 어느 남자하고도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아——이제 보십시오!』

그 마지막 목소리 속에서 결단과 반항 외에도 지극히 가련한 고통의 기색이 깃들여 있어서 나는 그의 손을 붙들고 꼭 쥐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래서 그 당시 호프만의 양친한테 편지를 내서 아들의 주소를 통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남티롤」의 어느 번지수를 얻었는데 그리로 보낸 나의 편지가 나에게 다시 돌아왔다.

수신인이 행선지를 남겨 놓지 않고 그 장소를 다시 떠났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는 어느 방면으로부터도 방해 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장소에서든지 아주 고독하게 죽어 버리려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피하야 간 것이었다. 그렇지, 확실히 죽기 위하여 여임에 들림없다. 그렇게 되고 보니 내가 그를 다시 못만나리라는 것이 나에게 는 슬픈 확신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와 같이 희망없는 병에 걸린 인간이 그 젊은 처녀를 소리없이 그리고 불타오르는 것 같은 작렬하는 육감적인 정열로——그가 어렸을 때에 똑 같은 종류의 최초의 충동을 겪었다는 것과 같은——그런 정열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 아닌가? 환자의 이기적인 본능은 뜻되는 건강과 결합되고자 하는 욕망을 그에게 불타게 한 것이다.

그 욕망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에 그의 최후의 생존력을 빨리 소모시켜 버릴 것이 아닌가?

그후 5년이 지나갔으나 그로부터 아무런 생의 소식을 듣지 못하였다——그러나 그가 죽었다는 소식도 나에게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지난 해에 나는 이탈리아——트마와 그 주변에 머물렀다.

머운 몇 달동안을 산에서 저번 후에 열말경 그 도시로 다시 돌아왔다.

어느 따뜻한 밤에 나는 카페 아란요에서 한 잔의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나는 신문을 뒤적거리며 별 생각없이 넓다랗고 밝은 방안을 지배하고 있는 활발한 영업을 바라보았다.

손님들이 오고 가며 급사가 이리저리 달리고 가끔 가다가 활짝 열리어진 문 을 통해서 신문과는 아이들이 꼬리 길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물연 나는 나와 같은 나이의 신사 한 사람이 친친히 식탁 사이를 지나서 출입구로 걸어 가는 것을 보았다...

저 걸음 걸이는——? 하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도 역시 고개를 나한테 물리고 눈섭을 치켜며서 내게로 기쁘고 놀라운 「아!」 소리와 함께 다가오는 것이었다.

『여기 와 있는가?』 우리들은 동시에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같은 말을 하였으며 그는 덧붙여서 하는 말이——

『그러면 둘이 다 살고 있는 것이 구

던!』

그의 눈이 그 말을 할 때에 약간 옆으로 스쳐간다. —

이 5년 동안에 그는 별로 변한 점이 없었다. 다만 얼굴이 더 훌쭉해지고 눈이 먼저보다 한층 속 들어 간 것이 다를 뿐이었다. 때때로 그는 깊은 숨을 쉬었다.

『벌써 오래도록 로마에 있어?』 하고 그는 물었다.

『도시에는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이근방 시골에 몇달 있었지. 너는?』

『나는 일주일 전까지 바닷가에 있었어. 너도 아다시피 나는 원래 산보다 바다를 좋아해……참말로 나는 너와 헤어진 후로 지구위의 썩 여러군데를 돌아다녔어.』 그리고 그는 내 곁에 앉아서 한잔의 숯배트를 마시며 지나간 몇 해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를 이야기 하기 시작했다. — 여행을 하고 또 여행을 하였다. 『티롤』의 산들을 방랑하고 전 이탈리아를 서서히 곳곳마다 답사하고 『시실리에서』 아프리카까지 갔었다고 — 『알제리아』, 『튀니스』 그리고 『이집트』의 이야기를 하였다.

『마지막에는 잠시 독일에 있었어』 하고 그는 말하였다. 칼스루에에 말이야. 양친이 나를 보시겠다고 절실히 희망하셔서 할 수 없이 갔었지. 떠날 때도 좋아하지 않으셔서 간신히 왔는걸. 3개월 이래 여기 이탈리아에 와있는 것이야. 나는 남쪽나라에 있으면 제일 내절같이 편

해. 로마는 적히 내맘에 들어!……』

나는 그에게 한마디도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했다.

『모든 점으로 보아서 너의 건강도 현저하게 좋아졌다고 볼 수 있지?』

그는 나를 잠시 물어 보는 듯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더니 대답하기를 —

『내가 그와같이 원기있게 돌아다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면 돌아다니는 것이 자연적인 요구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술도 담배도 사랑도 금지당하여 버렸는데 무엇이든 마취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 알겠지?』

내가 아무말도 안하고 있으니까 그는 덧붙여서 말하였다.

『벌써 5년전부터 — 그러니까 썩 필요할 것 아니겠어?』

우리들은 지금까지 쌍방에서 회피하고 있던 그 점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서로 말이 막힌 것은 둘이 다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 그는 펠베트의 콧손에 등을 기대고 커다란 등불을 쳐다보고 있더니 갑자기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겠지, 이해하겠어?』

『이해, 하구말구?』

『나의 뉘넨에서의 사고를 들어서 알

고 있지?』하고 그는 거의 무뚝뚝한 말투로 말을 계속하였다.

『아주 썩 잘 알고 있어. 게나가 나는 지금까지 너에게 진감할 말을 줄곧 가져오만 있었는데 무엇인지 알겠어? 어느 여인으로부터의 전갈일테』

그의 흐릿하였던 두 눈이 잠시 반짝하였다. 그러나 다시 먼저와 같은 진조하고 날카로운 음성으로 말하였다.

『새 소식인지 아닌지 들려나 주게.』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지. 네가 그 여인한테서 직접 들었던 말의 재확인일 뿐이야……』

그리고 나는 여러 사람들이 지껄이고 손짓을 하고 하는 사이에서 그날 저녁에 남작 따님이 나에게 말한 그 소리를 그에게 되풀이 해 줬다.

그는 손으로 천천히 이마를 어루만지며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아무런 감동의 기색도 없이 말하였다.

『고마와』

그의 말투가 나를 당황하게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말이 있는 지는 벌써 여태가 되었어.』 나는 그렇게 말했다.

잠시 사라진 것 같은 그 정열에 다시 몸을 떨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말을 믿겠어!』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그의 얼굴과 태도에서 그 먼저 최초로 내가 남작 따님을 나란히 되었을 때 그한테서 볼 수 있

었던 표정을 다시 발견하였다.

그 강력하고 경련적으로 긴장된 고요함, 맹수가 단려를 때에 보이는 그러한 고요함이였다.

나는 만머리를 물렸다. 우리는 다시 그의 여행에 대해서 여행 중에 그린 습작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상당히 무관심한 어조였다.

밤 열두시가 조금 지나서 그는 일어났다.

『나는 자고 싶어졌어. 아니 하여간 혼자 있고 싶어졌어……내일 오전 중은 나를 갈레리아·도리이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야. 나는 사라체니의 사생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하는 그 친차에 홀딱 반했어. 꼭 좀 찾아와 줘. 네가 여기 온 것은 참 반가운 일이야. 그럼 잘 자.』

그리고 그는 나가버렸다——천천히 착하게 힘없이 피곤한 걸음걸이로.

다음 한달동안 줄곧 나는 그와 더불어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녔다.

모든 예술의 넘쳐 흐르는 풍부한 박물관이며 난국의 근대적 대도시인 로마의 거리, 소란하고 번거롭고 뜨겁고 약빠른 생활에 충만되고 있으면서 그래도 따뜻한 바람이 동방의 무더운 피로함을 운반하여 오는 로마의 거리를 싸돌아 다닌 것이다.

파올로의 행실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었다. 그는 대개 흥하고 조용하였지만 때

로는 무력한 피로감 속에 가라앉았는가 하면 갑자기 눈을 반짝거리면서 몸을 가다듬고 앉아 열심히 침체하였던 담화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몇마디의 이야기를 들려준 어느날에 대하여 여기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은 지금이야 비로소 그 참뜻을 내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느 일요일의 일이었다.

우리는 대단히 아름다운 늦은 여름날 아침에 「알피아」가도로 소풍을 갔었는데 이 고대적인 거리를 따라 밀티 교외에 까지 찾아가서 사이프러스 나무들이 무성한 조그만 언덕 위에 와서 쉬었다.

언덕에서는 그 큰 운하가 있는 양저바른 캄파니아의 보드라운 안개에 둘러싸인 「알라노」의 산맥이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였다. 파올로는 반쯤 누워서 턱을 두손으로 받치고 내걸의 따뜻한 풀위에 쉬며 피곤하고 어슴푸레한 눈으로 멀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또 다시 그의 머뭇으로 완전한 무감각에서부터 돌연 몸을 가다듬어 이르켜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 바람의 기분! 이 기분이야말로 나의 전부지!』

내가 무슨 결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다시 침묵이 계속됐다.

그러자 갑자기 아무런 연관도 없이 그는 일종의 절박한 태도로 얼굴을 나에게

물리며 말했다.

『내가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사실은 너도 좀 이상히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 말해봐!』

나는 놀라서 아무말도 못했다. 그는 다시 무슨 생각을 하듯이 멀리를 바라보았다.

『나는——좀 이상히 생각하지.』

하고 그는 진찬히 말을 계속했다.

『사실은 매일같이 그것을 나는 이상히 생각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너는 알아?—— 안제리아에 있는 프랑스의 의사의 말에 의하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언제까지나 여행만 하고 다닐 수 있는지 당최 모를 일이지요! 제발 집으로 돌아가서 자리에 눕도록 하시오」 하였는데 그 의사는 매일 저녁 나와 같이 도미노를 하고 놀았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 준 것이야.

나는 그러나 계속해서 살고 있어. 그러나 거의 매일같이 목숨이 끊어질듯하던 말이야. 밤에 킁킁한데 누워 있으면——

오른쪽을 밀어내려고 할 것이지?——

심장의 고통이 목에까지 펄떡펄떡하고 울려오지. 턱것증이 나고 식은 땀이 막 쏟아지고 또 갑자기 죽음의 접촉을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되곤 하지.

그 순간 내몸속의 모든 것이 정지하고 심장의 고통도 끊어지고 숨이 안 쉬어지게 된단 말이야. 나는 그 때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켜놓고 깊은 한숨을 쉬고서 주

위를 돌려보지. 그리고 여러가지 물건을 눈으로서 삼키는 것처럼 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한모금의 물을 마시고 다시 자리에 드러눕게 돼. 언제나 오른쪽을 밑으로 깔고! 그래서 차츰 잠이 들게 되는 것이야. 나는 대단히 길고 대단히 오래도록 잠을 자지. 대체로 언제나 죽도록 피곤하여 있으니까. 나는 원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 누운채로 죽어 버릴 수도 있단 말야. 믿을 수 있겠어?』

그는 움직이지도 않고 누워서 별로 대답할 것을 기다리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 때 내가 무어라고 대답했는지 지금은 잊어 버렸지만 그의 말이 나에게 끼친 인상만은 결코 언제까지나 잊어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바로 그날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 나는 그날이 바로 어제인 듯 생각된다.

그것은 회색의 불안하고 따뜻한 첫가을의 하루였다. 아프리카에서 불어 오는 축축하고 가슴 죄는 듯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저녁 때가 되면 하늘 전체가 끊임없이 번갯불 치는 그러한 첫가을이었다. 아침에 나는 산보를 같이 하려고 파울로에게로 갔다.

그의 큰 가죽가방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으며 양복장과 농들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가 동방에서 그린 수채화의 스케치와 바티칸의 유도의 머리의 석고상만은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 자신은 창가에 몸을 꺾듯이 세우고 서 있었으며 내가 놀라는 부르짖음을 받으며 우뚝 섰을 때도 태연히 뺨을 내다보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그는 약간 몸을 돌리고 한통의 편지를 나에게 내주며 단 한 마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읽어봐』

나는 그를 쳐다 보았다.

얼에 들뜬 까만 두 눈을 가진 이 홀쭉하고 누르스름한 병적인 얼굴에는 죽음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표정— 처참하고 엄숙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 표정이 나의 눈을 방금 받아들은 그 편지위로 떨어뜨리게끔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읽었다.

『친애하는 호프만씨에게!』

당신의 주소를 알 수 있게 된 것은 저의 부탁을 친절하게 응낙해 주신 당신의 부모님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당신이 쾌히 받아들여 주실 것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호프만씨여, 저는 지나간 이 5년동안에 항상 진실한 우정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생각하여 왔다고 확인하는 것을 허용해 주십시오. 만일 당신의 갑작스러운 여행의 출발이 당신에게나 저에게나 대단히 마음 괴로웠던 그 날에 있어서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한 노여움의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측하여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저의 슬픔은 당신께서 저에게 여식을 달라고 청하셨을 때 받은 놀라움과 깊은 의아심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당시 저는 남자애 난자로 당신께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이 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한 것입니 다만 모든 점으로 보아서 그와 같이 높이 평가하는 분에게 자기 딸을 보낼 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솔직하고 성실하게 심지어 너무 심하다고 오해를 받을 위험성을 무릅쓰고까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의 지속적인 행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만일 딸에게 그와 같은 가능성이 생겨난다면 틀림없이 양측에서 의식적으로 생겨나는 그 욕망의 싹을 무찌르게 되었을 것인 아버지로서 당신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같은 자격으로서 당신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그리고 또 아버지로서 친애하는 호프만씨여 당신이 여행을 떠나신 지 5년이 지났으나 저는 아직까지 당신이 저의 딸에게 쏟아 놓은 애정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박았는가를 인식할 여가가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거기에 대해선 완전히 눈을 뜨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인 나로서 그 청혼을 지극히

환영할 수 있었던 어느 훌륭한 남자의 부탁을 그 아이가 당신에 대한 생각 때문에 단연 거절해 버린 사실을 당신에게 무엇 때문에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의 딸의 감정과 욕망에 대하여는 흐르는 세월도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이것은 아주 솔직하고 겸손한 질문입니다만 친애하는 호프만씨여! 만약 당신에게 사정이 달라지지 않으셨으면 차후로는 우리 양친이 우리 아이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 당신에게 명백히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당신의 답장을 기다리는 바이며 어떠한 뜻의 답장이 오든지 간에 저는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의 충실으로부터의 존경의 뜻을 첨가시켜서 보내 올릴 따름입니다. **발비레.**』

——남작 오스칼·폰·슈타인——

——나는 눈을 들었다. 그는 두손을 등뒤로 잡고 다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나는 다만 이렇게 물었다.

『여행 떠나야지?』그러니까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하기를,

『내일 아침까지 짐을 꾸려놓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 날은 여러가지 들보는 일과 짐 꾸리는 일로서 지나갔다.

——파울로는 고요하였으며 피곤한 것 같았다. 그러나 숨은 깊고 무겁게 쉬었다. 말없이 때로는 평범한 이야기를 하

며 한시간쯤 이리저리 거닐은 후에 우리는 폰타나·트레비 앞에 와서 멈추었다.

질주하는 해신의 수레를 상징하는 유명한 분수인 것이다.

우리는 또 다시 오래도록 감탄하면서 아름답고 활기있는 군상을 관찰하였다. 끊임없이 새파란 섬광을 튀집어 쓰고 어쩐지 불가사의 한 인상을 주는 광경이었다. 나의 친구가 말을 하였다.

『참말로 펠리니는 그 제자의 작품까지도 나에게서 매력적이야. 어찌서 그 반대자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어——』

물론이지, 최후의 심판이 그림보다 조각에 가깝다며는 펠리니의 작품은 무엇이고 조각보다 그림에 가까와. 그보다 더한 위대한 장식이 또 있을까?』

『너는 대체』하고 나는 물었다.

『이 분수에 어떠한 연유가 있는지 알아? 누구나 로마에서 떠날 때에 이 물을 먹으면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야, 자 여기 나의 여행 물그릇이 있어——』하고 말하며 나는 물줄기의 하나로서 그릇을 가득 채웠다.

『너는 꼭 너의 로마로 다시 돌아올 것 이야.』

그는 컵을 들어서 입으로 가지고 갔다. 그 순간에 온 하늘에는 눈부시도록 길게 계속되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리고 짱그렁 소리와 함께 얇은 물그릇은 분수 판의 모퉁이에 부딪쳐서 산산히 깨어졌다.

파올로는 손수건으로 옷에 묻은 물을 훔치었다.

『나는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만 실수를 하였군.』하고 그는 말하였다.

『자 이제 가지. 그 물그릇이 변 가치가 없는 것이면 좋겠는데.』

다음날 아침은 날씨가 백청하였다.

우리가 정거장으로 달렸을 때는 밝은 하늘색의 여름 하늘이 머리위에 빛났다.

작별은 짧았다. 내가 그에게 잘 가라고 제발 행복하라고 말을 하니 파올로는 말없이 나의 손을 흔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진실성이——그리고 승리감이 깃들어 있었다. 이이상 나는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그는 죽었다. 결혼식이 있는 다음날 아침에—— 아니 거의 그날밤에 죽은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살기 위한 아무런 구실도 이제는 가져져 않았으니 말이다. 나는 그가 나쁜 일을 한것이 아닌가—— 결합된 여자에 대해서 알면서 나쁜일을 한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의 장례때에 그여자가 관앞에 서있는 것을 보니 그 여자의 표정에도 똑같은 표정— 파올로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엄숙하고 강한 승리의 진지한 표정을 볼 수 있었다.



귀향

윌리엄·사로연 작

남영길 옮김

많은 산들 사이에 끼어 있는 이 골짜기와 이 마을은 나의 것이며 또 나의 고향 땅이다.

오랫동안 내가 꿈에 그리고 잊지 못하던 곳이였다.

모든것이 옛 그대로이며 바뀐 것은 하나도 없구나.

물수레는 여전히 잔디밭을 돌며 물을 뿌리고 있었다.

참으로 오랜 나의 고향은 순박하고도 진실미가 있구나.

이렇게 그는 마음 속으로 되뇌였다.

「아빈·스트리트」를 걸어 가면서 그는

다시 고향에 돌아온 것을 마음 속으로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모든 것이 여전히 좋았다.

땅 냄새랑, 밥을 짓는 연기랑, 초록은 자라나고 초도는 싱그럽게 풀이 들고 북숭아는 익어가고 「올린더」수풀은 향기로 운게 이 교울의 여름은 예나 지금이나 매 한가지로 아름다웠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대기를 맡껏 마시며 고향냄새를 헛바닥 속속드리 만끽하면서 마음 속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뜨거웠다.

그는 수년간 이렇게 마음 개운하게 땅
냄새를 맛본 적이 없었다.

지금 이렇게 깊이 숨을 내쉬어 보는
것이 께이나 즐거운 일이었다.

그 순간 배기는 더욱 밝아졌다.

그는 사는 것이 보람있게 생각되었고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에 대하여 자
비심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감정에 젖으면서 길을 거
닐고 있었다.

물, 그는 물수레가 잔디밭에 뿌리고
있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고향의 물을,
이 고향의 차가운 물을 맛보려고 했다.

그는 순박한 목마름을 가져보고 싶었
다. 그리고 이 차가운 물로써 자기의 목
마름을 가서 보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
라 그는 생각했다.

그는 「제라늄」 꽃나무 밑에 물을 주고
있는 한 노인을 보았다.

이 노인은 손에 「호오스」를 쥐고 있었
다.

목마른 그는 이 노인에게 말을 건네
었다.

『미안합니다. 물을 좀 주십시오.』

그는 조용히 말하였다.

노인은 천천히 뒤로 돌아 젊은이의 언
굴을 바라 보았다.

그의 그림자는 집 쪽을 향하여 커다란
게 비취었다.

노인은 밝가운 안색을 지었다.

『안 드리구 말구』

그는 말하였다.

그는 젊은이의 손에 「호오스」를 쥐어
주었다.

『참 좋은 물이요. 「산·조우킨」 숲 끝
짜기에서 흘러 나오는 신선한 물이랴오.
블림없이 이 물을 따라갈 물은 없을 게
요.』

젊은 노인은 말씀 이었다.

『「후리스코」의 물은 좋지가 않죠.』

『마셔보면 자연 알테지만 물에서 기름
내가 난다오.』

『그 물이 「센프란시스코」로 흘러 간단
말이거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
기엘 살러 가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거
든.』

노인이 말하는 동안 그는 「호오스」에
서 땅에 떨어지는 물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물은 숲이 상쾌하게 솟구쳐 오르곤
재빠르게 땅 위에 떨어졌다.

그는 솟구쳐 오르는 물 위에 머리를
들이박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 물의 달콤한 맛은 그를 더 없이 준
겁게 해 주었다.

그는 물을 마시면서 사뭇 정말 맛이
좋은 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차가운 물이 그의 생명에 부
딛쳐서 그를 싱싱하며 깨끗하게 해 주는
것 같았다.

물을 마시기에 숨이 막혀서 그는 잠시
머리를 들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노인

게 말을 거네었다.

『이 고을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스럽습니다. 물이 이렇게 좋으니 만입니다.』

그는 다시 머리를 「호호스」 밑으로 들이대고 마구 쫓구쳐 오르는 물 줄기를 기쁨에 넘쳐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아무리 물을 마셔도 배속을 채울 수 없는 사람처럼 꿀꺽꿀꺽 마시고 있었다.

노인은 마음이 상쾌한듯 말하였다.

『당신이 마신 물만도 두 되는 족히 되겠는걸.』

그는 물을 자꾸 마시었다.

노인의 말소리를 듣고 그는 머리를 들어 올리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물맛이 좋았던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입 가장자리를 쓱 문지르고는 다시 「호호스」를 들었다.

그는 안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 마을에는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거기다 맛이 있는 샘이 도처에 산재해 있었다.

이 고을의 모든 것은 깨끗하고 보드러웠으며 신의에 가득차 있으며 순박하고 진실하였다.

『기운도 좋구먼요, 얼마동안이나 물을 못마셨어요?』

2년간이라고 그는 간단히 대답하였다.

『이 물을 못마신지는 2년이나 되지요.

타향엘 쏘다니다 보니 그렇습지요. 지금 방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났어도 저 남부 태평양 철도 넘어 있는 프랑스읍 G가에서 활곳 살아 왔읍니다. 타향살이 2년만에 막 돌아오는 길입니다.

역시 좋은게 고향 밖에 없드군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전 이 고향을 사랑합니다. 어디 일자리나 구해서 아주 여기서 살까 생각 중입니다.』

그는 머리를 들어 멧모금 물을 더 마셨다.

그리고 「호호스」를 노인에게 넘겨 주었다.

『당신은 벽이나 복이 말랐었나 보군. 그렇게 많은 물을 마시는 걸 여태 본적이 없단 말안세.』

『당신이 그 많은 물을 마시는 걸 보니 아주 기쁘군 그래.』

노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젊은이는 콧노래를 흥겹게 부르면서 「아빈·스트리트」를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노인은 야릇한 감정에 잠기면서 사라져 가는 젊은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돌아 온다는건 좋은 일이야. 이 길을 다시 돌아온다는건 내가 저질은 일 가운데 가장 큰 실패이긴 하지만…….』

젊은이는 이렇게 마음 속으로 되쳐었다.

지금까지 그가 해온 일이란건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 길을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좋은 실패의 한가지였던 것이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남쪽편에 살고 있었으나 고향엘 돌아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는 다만 「마시드」 남쪽 칠월 먼곳으로 떠나 갈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조그만 도시로 몇 개가 지나친 뒤 여기 고향 거리를 걷고 있었다.

때는 저물녘 여섯시.

고향에 돌아 온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거룩한 일이나.

그리고 고향의 물 맛은 얼마나 훌륭하나.

그는 시내까지 거의 다 들어왔다.

그의 고향은 도시라 할 수 있었다.

그는 한 두 개의 높은 건물을 보았다.

한 건물은 태평양 가스 전기회사이며 색깔이 꼴다란 이 건물은 우측 솟아 있었다.

이보다 더 높은 또 하나의 건물은 그가 전에 보지 못한 것이었다.

『저건 새로 신 건물일꺼야. 내가 없는 사이에 짓구나.

아마 경기가 좋은 모양이군.』

그는 마음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콰톤·스트리트」를 돌아 시내로

말을 옮겼다.

그가 방랑하던 고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룩한 거리, 아담하고 조그마한 도시, 집잡고도 참으로 조용한 거리, 자리잡아 결혼을 하고 살아 보고 싶은 도시, 일자리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무엇이든 없는 것이 없는 충만한 도시일 것만 같았다.

이것들은 그가 원하는 전부였던 것이었다.

이 골짜기의 공기와 물,

그리고 이 고장의 진성성,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깨끗한 생활, 사람들의 순박한 마음씨…….

이 도시는 모든게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였다.

상점의 이름들도, 거리를 걷는 사람들도, 천천히 달리는 자동차의 속도도, 차속에서 아가씨들을 피어리는 소년들도 모두가 옛날과 마찬가지로였다.

변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는 소년시절에 잘 알던 얼굴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자기 쪽을 향해 걸어오고있는 옛 친구 「토니·로카」를 바라 보았다.

그는 「토니」가 먼저 자기를 알아 불을 알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어 「토니」가 앞으로 다가 오기를 기다렸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상한 꿈 속에서

만난 것 같았다.

그는 학교를 빼먹고 복욕을 하러 가거나 시골 장터를 누비며 활동사진판엔 몰래 들어가던 두 친구를 꿈 속에 그렸다.

자기와 「토니」.

느릿느릿하며 걸음을 걷는 몸집이 큰 친구, 잇빨을 들어 내고 너털 웃음을 호기롭게 웃어 제치는 「이테리」 사람 「토니」가 지금 다시 여기에 나타난 것이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었다.

그는 실책을 하고 돌아온 것이 도리어 좋아 보였다.

걸음을 멈춘 그는 그가 닦아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쪽을 향하여 미소를 지었다.

두 친구는 이윽고 두 손을 굳게 마주 잡고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감정에 넘쳐 정깊게 쥐어 박기 시작했다.

서로 크게 웃었다.

『임마 너 그동안 어디 있었니』

『야 「토니」 임마, 너 여전히구나 널 다시 만나다니 난 네가 사라진줄 알았어』

그는 「토니」를 쥐어 박는 시늉을 하였다.

그는 수년전 「토니」가 가리켜준 이테리 말로 정답게 욕을 그리고 「토니」는 프랑스말로 그에게 쌍소리를 퍼부었다.

『난 집을 돌려 보러 왔어. 내가 여기 있는 줄 사람들은 모를거야.

난 그들을 보러 왔어 난 동생 「플」을

보고 싶어』 그는 말하였다.

그는 「토니」에게 미소를 던지며 거리를 걸었다.

그들은 시로들끼리 많은 재미나는 시간을 보내리라, 다시 어릴 때처럼 복욕 하러 갈 수도 있으리라.

그는 참으로 잘 돌아 왔다고 생각했다.

상점 앞을 지나면서 그는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살 궁리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돈이 한 닢도 없었다. 좋은 물건은 비쌌다. 그래서 나중에 사드리면 될 것이라고 마음 먹었다.

그는 「탈에이·스트리트」를 시쪽으로 돌아 남태평양 철로를 넘어 「G 스트리트」에 다다랐다.

옛과 마찬가지로 늙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세 누이와 어린 아우, 그들은 모두가 한 집안에서 단조로운 행복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리라.

그는 저택치 서 있는 집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뛰놀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그는 갑작스런 기분이 나빠지고 두려움마저 느꼈다.

그가 이때까지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해 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가 항상 염오하던 그 생활이며 추잡하고도 때묻은 그러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집이 가까워짐에 따라 걸음거리를 늦추었다.

올타리는 넘어진채 아무도 손을 때지

않고 있다.

어쩐지 갑자기 집이 추접해 보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좀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집을 다시 바라보고 있노라니 옛 일이 생각났고, 또 옛것에 대한 증오감 같은 것들이 불쑥 솟아 올랐다.

이러한 남은 현실을 보지 않아도 된 좋은 먼 곳으로 다시 떠날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그가 어릴 때 느꼈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 전체에 대하여 절절과 추잡성,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완고와 그들의 마음의 공허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깊은 증오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러곤 다시는 이런 곳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마음 먹었다.

물, 그렇다.

그것은 좋은 맛이었다. 참으로 굉장한 맛이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여기엔 많고 많지 않은가?

그는 마치 이방인처럼 그의 집 앞으로 서서히 걸어갔다.

무언지 서먹서먹하고 낯선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꿈 속에서 그렇게도 그려 마지않던 자기의 고향집이며 어더를 가다 자기를 괴롭히던 고장임을 다시 느꼈다.

그는 누가 집에서 나와 자기를 보거나 앓을까 대단히 두려웠다.

왜 그러나 하면 누가 자기를 보면 곧 달아 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부모형제가 몹시도 보고 싶었다.

아니면 그들의 냄새라도 맡아야만 했다.

허나 곧 다음 순간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것이 싫어지고 미워지기 시작했으나 절음을 멈추지 않고 담뚱통이를 들이박아 갔다.

그는 그의 아우 「폴」을 만나 이야기라도 하고 싶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그는 망설이면서 가로등 아래 서 있었다.

그는 그가 자기 아우의 나이일 때를 생각해 보았다.

그러곤 그는 아우에게 실증나는 공부들 어떻게하면 면해 버릴 수 있느냐에 관한 얼마간의 충고를 해 주리라 생각했다.

그는 조반후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었다는 것조차 잊어 버렸다.

부엌 한 구석에 있는 현 식탁에서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곧잘 화를 잘 내시었던 몸집이 크고 얼굴이 붉으신 어머니를 바라 보면서 식사하는 것을 수개월 동안이나 꿈 속에 얼마나 그렸던가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나 도무지 그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는 이 담모퉁이에서 기다려 보기로 하였다.

아마 곧 그의 아우가 집에서 걸어 나오리라.

그러면 그는 「풀」이라고 반갑게 부르리라.

그는 프랑스말로 얘기를 걸어 보리라 마음 먹었다.

끝까지의 교요함은 다시 단조로움으로 변해 그의 마음을 차차 압박해 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집을 떠나 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담모퉁이로부터 집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는 집안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쉬어 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보고 싶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어머니와 누이들을 반갑게 만나 마루를 이리저리 걸어 보며 낡은 결상에도 앉아보고 자기 침대에 누워 자보기도 하고 아버지와 실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며 식탁 앞에 앉아 식사를 하는 호젓한 생각을 수개월전부터 그가 몹시도 그리워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타향에 있는 동안 까마득히 잊어 버렸던 깨개튀고 낡은 이 집안의 생활의 환상이 마음 속에 재빨리

떠올라 왔다.

이는 모든 것을 바꿔버리고 말았다.

그의 고향 집의 의미도 이 도시와 골짜기 전체의 의미도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

모든 것은 추잡스럽게 바뀌어 그로 하여금 두 번 다시 여기에 돌아오지 않을 결심을 하도록 하였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는 다시는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니, 지향없는 방랑의 생애를 보내리라.

그는 별안간 마음을 고쳐먹고 담을 넘어 집 안에 들어가 마담을 걸었다.

그의 어머니는 고무마와 호추를 가꾸고 있었다.

자라나는 식물들의 범새는 퍽이나 짙어, 그를 오히려 우울하게 만들었다.

부엌 안에는 불이 희미하게 불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러나 남을 볼 수는 있도록 부엌쪽으로 재빠르게 몸을 옮겼다.

그는 부엌 창문에 타아서서 접시를 씻고 있는 작은 누이 「탈타」를 눈여겨 바라 보았다.

거기엔 낡은 식탁과 낡고 녹슨 난로가 놓여 있었고 「탈타」는 뒤를 향하여 몸을 돌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도 슬프고 처량하였기 때문에 눈에 눈물이 핑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 싶었다.

그는 조용히 신 바닥에다 성냥을 그었다.

그는 낡은 집에 있는 어린 누이를 바라보면서 담배연기를 깊이 들이켰다.

모든 것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무서운 게 슬펐다.

그러나 그는 그의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올 것을 기다렸다.

그는 어머니의 변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가 집을 비우고 방랑하고 있는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늙으셨을까.

그는 착한 아들이 되지 못하였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치도 않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 증오와 노여움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다.

『그는 그의 아우 「폴」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들어 오는 것을 보았다.

일순 그는 아우의 이름을 부르짖고 싶은 충동에 사로 잡혔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억눌렀다.

그는 담배연기를 깊이 한모금 빨아 마시고는 곧 입을 다물어 버렸다.

부엌에 있는 그의 아우는 실신한듯 피

로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우를 쳐다보면서 나중히 피쳐었다.

『예수님, 오 예수님 예수님!』

그는 이제 어머니 조차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미칠것만 같았다.

그는 조용히 마당을 지나 담 위에 몸을 엮었다.

그는 담을 뛰어내려 오솔길을 걸어가 기 시작했다.

슬픔은 가슴 가득히 북마쳐 올랐다.

저만치 가물 가물 집이 멀어지기 시작할 즈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누추함과 단조로움을 너무나 미워하는 자신을 처량하게 여기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맑은 밤의 어둠 속을 거칠은 북소리로 부르짖으며 부둥아 올랐다.

고향을, 그리고 그렇게 정다운 고향사람들을 다시는 못볼 정처없는 방랑길을 떠나면서 뜨겁게 전승하였다.

빨리 그는 걸음을 재촉하였다.

×

×

×



(범) (작)

원 유 회 (園遊會)

— 캐서린 · 맨스필드 <원작> —

조 원 준 <역>

그런데 결국 날씨는 이상적이었다.
원유회를 하기에는 오늘 같은 날은 주
문한다고 해도 별로 없었을 것이다. 바
람은 없고 따스하여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었다. 푸른 하늘은 이른 여름에는 때
때로 그러하듯이 얇은 금빛 아저랑이에
가리어 있었다.

정원사는 새벽부터 와서 잔디를 자르

기도 하고 쓸기도 하여 인제 마당의 풀
도, 전에 실국화가 있었던 거뭇한 평평
한 화단도 빛날 정도로 환해졌다.

장미라고 하면 이 곳은 원유회에서 감
명을 주는 것은 자기 밖에 없다고 생각하
고 있는 상심다고 누구나 느낀다.

기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일한 꽃
이었다.

<단편: 원유회>

몇 백송이라는, 글자 그대로 몇 백을 헤아리는 장미가 하루 밤 세에 피어났으므로 초록색 범불들은 마치 천사가 왕립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반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인부들은 큰 천막을 지려 왔다.

『어머니, 천막을 어디다 치면 좋을까요?』

『내게 물어봐도 소용없어 금년 원유회는 너희들에게 온통 말기기로 했으니 까. 오늘은 내가 어머니라는 걸 잊어버리구 손님으로나 대접해 줘.』

그러나 「맥」은 도저히 인부를 감독하려 실패 나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반 전에 머리를 감고 두 뺨에 축축하고 까만 곱슬 머리털을 드리우고 초록색 머리 수건을 쓴 채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까불이 「쥬우즈」는 명주 속옷과 일본 기모노모양의 자켓트를 입고 연신 아래로 내려왔다.

『로오라, 언니가 가 봐야 해. 숨씨가 좋으니까.』

「로오라」는 버터 바른 빵을 손에 들고 달려갔다. 바깥에서 먹을 구실이 생기게 즐거웠고 더구나 그녀는 일 치닥거리하기를 즐기는 성미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고 항상 자부하고 있었다. 남자가 네명 셔스바람으로 정원의 샛길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범표를 툭툭 잡은 널판을 손에 들고 등에는 커다란 연장주머니를 매고 있었다.

그리고 짐짚을 매고 있었다.

「로오라」는 버터 바른 빵을 손에 들고 오지 않을 것을 그랬다고 후회 했지만 놓을 곳도 없고 또 버리기도 안 되어서 하는 수 없이 남자들 옆으로 걸어가다.

얼굴은 화끈 달았지만 애써 짐짚을 매고 조금 근시인척 했다.

『안녕하슈.』

그녀는 어머니 음성을 흉내 내면서 인사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제법 주제넘게 들렸으므로 그녀는 부끄러워서 제 집아이처럼 말을 더듬었다.

『저이 — 그 — 당신들은 천막 일 때문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아가씨』

키가 제일 큰, 훌쩍하고 얼굴에 주근깨 낀 자가 말하고서 연장주머니를 내려놓고 빌집모자를 뒤로 걸쳐 빙긋 웃었다.

『그렇습쇼. 아가씨』

남자가 가벼이 친근하게 웃는 바람에 「로오라」도 기운이 솟구쳤다.

그는 조그맣지만 짙은 남색의 정갈 아름다운 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다른 사람들을 둘러

보니 그들도 싱글벙글 하고 있었다.

『자! 기운을 내세요. 설마 물어 뜯을 라구.』

그들의 미소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인부들은 어쩌면 이렇게 교분고 분할까! 게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인가! 아침이 어찌니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사무적으로 쳐쳐 해 나가야져. 천막을 친다는 일.

『저어 나리꽃, 잔디죽은 어때요? 좋잖을까요?』

하고서 그녀는 나리꽃, 잔디를 가리켰는데 그 속은 이제 버터바른 땅을 쥐고 있지는 않았다.

그들은 돌아서서 그 쪽을 몰끄러미 바라보았다. 똥똥보는 아랫입술을 내밀고 키다리 는 얼굴을 쩡그렸다.

『그렇겐 생각 않습니다. 눈에 잘 안 띄어요. 천막 같은 건 말입니다』

하고 「로오라」에게 몸을 돌려

『그걸 눈썹에 정면으로 부딪칠 만한 곳에 치구 싶거든요. 절 따라 오세요.』
눈썹에 정면으로 부딪치다니!

인부인 주제에 이런 말을 자기에게 한다는 것은 공손한 일일까.

「로오라」의 가정교육이 잠시 그것을 의심쩍게 여겼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치 않고 그를 따라 갔다.

『테니스·코오트의 모퉁이는 어떨까요? 허긴 악대가 이쪽 모퉁이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고 그녀가 제안했다.

『흥 악대를 부르다구요?』

인부의 하나가 뇌까렸다.

그의 얼굴은 핼쓱했다.

저쳐 빠진 사람모양 어두운 눈초리로 테니스·코오트를 둘러보고 있었다.

대관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주 조그마한 악대야요』

하고 「로오라」는 상냥하게 일렀다.

색 조그마한 악대라면 그도 그닥 꺼림해 하진 않을테지. 그 때 키다리가 갑자기 참전했다.

『저 아가씨! 저기가 좋겠어요. 저 숲을 향한 저기 말입니다. 저기면 그만입니다.』

카라카 나무에 향해서라고. 그럼 카라카 나무가 가리게 되잖나.

저렇게도 아름다운 나문데—
큼직한 잎사귀는 번쩍번쩍 빛나고 있고 노랑열매는 주렁주렁 배어달려 있고.
저 나무는 동떨어진 섬에 무성한 나무마냥 홀로 자랑스럽게 서 있다.

장엄한 침묵 속에 태양을 향하여 잎사귀가 열매를 높이 치켜들고 있다.

그것을 천막으로 가려야 된단 말인가.

<단편 : 원유회>

하는 수 없지. 벌써 인부들은 통널을 어깨에 메고 그 곳으로 가고 있었다.

키다리만 남았다.

그는 허리를 굽혀 라벤더 나무가지를 집어들고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았다.

『로오라』는 그 모양을 보고 그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라벤더 향기를 맡아본다든가 하는 것이 신기해서 카라카 나무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녀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나 이런 행동을 할까? 노동자들이란 얼마나 야릇하고 기분좋은 사람들이냐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함께 댄스를 하거나 일요일에 만찬을 하러 오거나 하는 보잘 것 없는 청년들 대신에 어찌하여 이런 노동자들을 친구로 가질 수 없을까. 이런 사람들과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텐데.

키다리가 봉투 뒤에 맡아 올리거나 내리드리우거나 할 수 있는 것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녀는 그건 모두 불합리한 계급차별의 탓이라고 결정하여 버렸다. 그녀로서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지 마는, 조금도 티끌만큼도……

그 때 『딱딱』하고 나무 함마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다.

누군가 소리소리 질렀다.

『자식, 거기 있었나?』

『자식』이라니! 얼마나 정다운 말인가.

그녀는 자기가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기분이 편한가 얼마나 쓸데 없는 관습에 진지리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키다리에서 보여 주고 싶어서 버터바른 빵을 한입 듬뿍 베어물고서 그가 그리는 조그만 그림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기도 여자노동자가 된 기분이었다.

『『로오라』 『로오라』, 어딴지? 전화야.』 집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가요!』

그녀는 미끄러지듯 잔디밭을 넘어 사이길을 올라가 층대로, 그리고는 베란다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들어갔다.

현관에서는 아버지와 『로오리』가 모자에 술질하면서 막 사무실로 떠나려고 하는 참이었다.

『로오리』는 빠른 말씨로

『저어, 『로오라』 오정 때까지 웃웃을 한번 봐줘. 다림질 해야돼 나무 보구.』

『그러지요』

하고서 그녀는 불안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로오리』에게 달려가서 재빨리 사쁜 매어 달렸다.

『아이, 전 파아티가 딱 좋아요, 오빠는?』

할딱거리며 그녀는 말했다.

『아, 좋아하지.』

하고 「로오리」는 부드럽게 애딘 음성으로 말했다. 그리고 자기도 누이동생을 사본 겨안았다. 그리고 살짝 메밀면서, 『자 뛰어가 전화나 받아.』

전화에서는—

『네, 네, 「키티이」 언니야요? 안녕하세요. 점심식사에 오시지 않겠어요? 꼭 오세요 아이 기뻐 번번치 않은 요 리야요—샌드위치 조각하구 머랭과 자부스러기와 그리고 남은 것이겠 저 것. 네 아침 날찌르는 그만이죠. 흰옷 을 입구 오시겠어요? 네, 네, 저두 물론. 저어 잠깐 기다리세요—끊지 마 시구 저음 어머니가 부르구 있으니까.』

「로오라」는 물러 앉아서

『어머니 귀야요? 들리지 않아요』

『서리단』부인의 목소리가 종종대 위에서 울려 내려왔다.

『요전 일요일에 쓰셨던 그 예쁘장한 모자를 쓰고 오시라고 전해라.』

『어머님 말씀이 요전 일요일 쓰시던 그 예쁘장한 모자를 쓰고 오시라구요. 네, 한 시애요 안녕.』

「로오라」는 수화기를 놓고 두 팔을 버 리 위로 올려 깊이 숨을 들이키고 그리 고 말을 뱉었다가 내리었다.

그 다음에 폭우 한 숨을 쉬고 훌쩍 인 어났다. 그리고는 잠자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온 집 안의 문이라는 문은 모두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았다.

조용조용 하지만 분주한 듯한 발자국 소리와 이리저리 오고 가는 말소리로 하여서 집 안은 싱싱한 활기를 띠었다. 부엌방으로 뚫히는 조목색 나사를 바른 문 이 달각달각 그다지 소리를 내지 않고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길게 삐걱 삐걱하는 야릇한 소리도 들려왔다.

이것은 딱딱한 다리바퀴 위를 굴러 오 는 무거운 피아노 소리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때가! 주의해서 보 면 오늘날은 어느 때와는 다른상 싶다.

산들바람이 창문 위에서 문 밖으로 쫓 기 놀이를 하고 있다.

배양의 그림자가 들— 하나는 잉크병 위에 하나는 은제 사진틀 위에 희롱하고 있었다. 귀엽스러운 조그마한 반점— 잉크병 위 것이 유달리 아름답다.

바스합 바로 그것인양 조그마한 벌인 양 그녀는 그것에 키스라도 해 주고 싶 은 심정이었다.

정문의 벨이 울리고 층대에 「새디이」 의 사라사의 스키아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남자의 목소리가 뭐라고 하니 「새디이」가 아무렇게나 그 말에 대 답하고 있다.

<단편: 원유회>

『정말 모르겠는 걸요 기다리세요 마님께 물어다 드릴께.』

『「새디이」릴 그러니?』

하고 「로오라」가 현관으로 나갔다.

『꽃장사애요 아가씨.』

정말 그렇다. 바로 문턱에 목이 넓고 밑이 얇은 쟁반이 놓여 있어 그 것에는 핑크색 나리꽃 화분이 하나 가득 들어 있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나리꽃 뿐이었다. 빨강고 물지한 꽃이 활짝 피어나 찬란하게 빛나는 새빨간 줄기 위에서 놀라우리만큼 싱싱해 보였다.

『어머니 「새디이」!』

하고 「로오라」는 말하였는데 그 소리는 딱치 신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리꽃의 불길로 자기 몸을 따스하게나 하려는 듯이 쪼구리고 앉았다.

나리꽃이 자기 손가락 속이며 입술 위에 있고 가슴 안에 피어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무슨 잘못일 거야요』

하고 그녀는 가냘프게 말했다.

『이렇게 많이 누가 주문했을라구, 「새디이」 어머니를 찾으러 가봐요.』

그러나 바로 그때 거기에 「서리란」부인이 왔다.

『잘못이 아냐』

그녀가 조용히 일렀다.

『그래 내가 주문했단다. 이쁘장 하

지?』

그녀는 「로오라」의 팔을 잡으면서, 『어저께 그 가게를 지나다가 진열장에 이것이 나와 있는걸 보고 별안간 평생 한 번이라도 좋으니 실컷 새빨간 나리꽃을 가져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다. 원유회가 좋은 구실이지.』

「로오라」는

『허저만 어머니는 원유회에 대해서는 참견 안 한다고 하시잖았어요』 하였다. 「새디이」는 가고 없었다.

꽃장사 아저씨는 아직도 바깥 수레 옆에 영겨주춤 서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 목에다 팔을 감고서 슬그머니 정말 슬그머니 어머니 귀를 깨물어 보았다.

『글세 애야, 너는 잔소리가 심한 어머니는 싫지, 그러질 말어. 저기 사람이 오지 않니.』

꽃장사는 다시 나리꽃이 하나 가득 들어 있는 쟁반을 운반하여 왔다.

『저 문간 안 현관 양쪽에다 놓아 주구려.』

하고 「서리란」부인이 일렀다.

『「로오라」 그러는게 좋겠지?』

『아 그럼요 어머니』

응점실에서는 「백」과 「조우즈」와 사람이 좋은 「헨스」가 마침내 피아노를 옮기는데 성공했다.

『자 이 긴 의자를 벽에 붙여 놓구 의자만 남기고는 모두 방에서 나가면 되지?』

『그래.』

『「헨스」, 이 테이블을 꼭연실로 옮기고 소제기를 가져다 용단에 묻어 있는 얼룩을 지워 줘 그리고—— 잠깐만, 「헨스」——』

「조우즈」는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좋아 했고 하인들도 그녀의 말에 복종하기를 좋아 했다. 언제나 그들에게 연극이라도 하는 기분이 들게 했던 것이다.

『어머니와 「로오라」에게 곧 여기 오시도록 일러라.』

『그러지요. 「조우즈」아가씨.』

그녀는 「맥」에게 물어서서

『오후에 노래를 해 달라는지도 모르니까 피아노 소리가 어떤가 들어보구 싶어 「인생은 피로워라」를 해 볼까.』

폼! 땀—땀—따 따—따! 피아노가 하도 정열적으로 울려 나와서 「조우즈」의 안색이 변했다.

그녀는 꼭 손을 맞잡고 있었다.

어머니와 「로오라」가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을 신비스러운 슬픈 얼굴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인생은 피로워라

눈물과 한숨

덧없는 사랑

인생은 피로워라

눈물과 한숨

덧없는 사랑

그러면……잘 있거라!

그러나 「잘 있거라」라는 가사에서 피아노 소리는 한층 더 “황”하고 울렸지만 그녀의 얼굴은 환히 빛나기 시작하여 피어나 냉정한 미소를 띤 것이다.

인생은 피로워라

희망은 사라져

꿈인지——생시인지.

그러나 이 때 「새디이」가 옆에서 말을 걸었다.

『뭘 그러니, 「새디이」?』

『저어 마님, 요리사가 샌드위치에, 꽃을 작은 깃발이 있느냐구 하는 데요.』

『샌드위치에 꽃을 깃발이라구 「새디이」?』

『서리단』부인은 피섬어 물었다.

그 안색으로 없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은 알았다.

『저어』

하더니 그녀는 「새디이」에게 확고한 어조로 일렀다.

『10분이면 주겠다고 요리사에게 일러라.』

「새디이」가 물러갔다.

어머니는 다급하게서,

『에, 「로오라」, 날 따라 꼭연실로 오너

<단편 : 원유회>

라 봉투 뒤엔가 어떤가 물건 이름을 적어 두었는데 그걸 베껴줘야겠다. 그리고 「백」. 넌 당장 이층으로 올라가서 그를 수건 벗어놓구 오나라. 「조우즈」는 냉큼 가서 옷을 갈아입고 자아 모두 말을 잘 들어야 해요. 그렇잖음 저녁 백 아버님이 돌아오심 일러바칠 테니까, 그리고 저어 「조우즈」는 부엌에 가면 요리사를 잘 달래라 아 오늘 아침따라 고것이 골탕을 먹인다니까.」 봉투는 드디어 식당의 시계 뒤에서 찾아 내었는데 하필 이런데 있었을까. 「서리단」부인은 좀처럼 알 수 없었다. 『너희들 중에서 누가 분명 내 백 속에서 훔쳐낸거야. 글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니까——크림 치즈와 페몬; 커어드, 다 됐니?』

『네.』

『계란하구——』

「서리단」부인은 봉투를 벌쩍이 치켜 들고.

『생쥐처럼 뵈는걸. 설마 생쥐일리는 없는데?』

『아이 올리브야요』

하고 「로오라」는 어깨 너머로 들여다 보며 말했다.

『그래 물론 올리브지, 원 배합도 끔찍도 해라. 계란과 올리브야.』

마침내 끝이 나서 「로오라」는 부엌으로

갔고 갔다. 부엌에서는 「조우즈」가 요리사에게 아양을 떨고 있었다. 요리사는 토라진 기색이라고는 없었다.

『이렇게 맛 있어 뵈는 샌드위치는 생전 처음이야.』

「조우즈」가 신바람이 나서 하는 소리다.

『몇 종류 됐지? 열 다섯?』

『열 다섯이에요. 「조우즈」 아가씨.』

『아유, 축하합니다.』

요리사는 길다란 샌드위치 나이프로 빵 부스러기를 긁어 모으면서 히죽 웃었다.

『고백어 상점에서 왔어요.』

하고 「새디이」가 알려면서 식료품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그 사나이가 지나가는 것을 창 너머로 보았던 것이다.

크림과자를 갖고 온 것이다.

고백어상점은 크림과자로 유명했다.

아무도 이것을 손수 집에서 만들어 보겠다고는 엄두도 못낸다.

『「새디이」 들고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놓아. 주어요.』

하고 요리사가 일렀다.

「새디이」는 안으로 옮겨 놓더니 다시 문가로 돌아갔다.

「로오라」나 「조우즈」는 이제 이런 것을 탐낼 나이는 아니었다.

하기야 그 크림과자가 썩 맛있어 보일

다는 것에는 그들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껍이나.

요리사는 그것을 가지런히 하면서 여분의 설탕을 털어 치우고 있었다.

『이걸 보면 모두 제각기 그런 파아티가 생각나겠지?』

하고 「로오라」가 말했다.

『그떨는지도 몰라요.』

「조우즈」가 맞장구 쳤다.

『현실가인 그녀는 그건 생각에 잠기게 되는건 진절머리 낳던 것이다.』

『확실히 이쁘장하게 가볍구 들떠 비는 걸.』

『아가씨들 하나씩 들어 보구려 어머니께서 될 아실라구.』

하고 요리인은 상냥한 음성으로 말했다. 안 될 소리.

조반을 방금 먹은 뒤에 크림과갈 먹다니,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러나 그로부터 2분 후에는 「조우즈」와 「로오라」는 정신없이 제란크림이 묻은 손가락을 핥고 있었다.

『뒷문으로 뜰 안에 나가보지 않을래?』

하고 「로오라」가 말했다.

『천막이 어찌 됐나 보고픈 걸 일부들은 다시없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뒷문에는 요리사, 「새디이」, 고삐어 점포사람, 「헨스」들이 모여 있었다.

무슨 사고가 생긴 것이다.

『쫓쫓쫓』

요리사는 초란스러운 암탁모양 야단이다.

「새디이」는 이빨이 쑤시는 것처럼 자기 뺨을 두드리고 있다.

「헨스」는 남득을 하려고 애쓰는 바람에 얼굴이 이그러져 있다.

고삐어 점포사람만이 재미있어 하는 것을 보니 그가 꺼낸, 이야기 같다.

『뭐야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끔찍끔찍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하고 요리사는 입을 열었다.

『사람이 죽었대요.』

『죽었다니, 저런. 어디서? 어떻게? 언제?』

그러나 고삐어 점포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남에게 헛기고 싶지가 않았는지

『아가씨, 이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마한 오막살이 집을 아시나요?』

아느냐구? 아다마다.

『거기 「스쿨」이라 하는 젊은 마찰군이 살고 있었죠. 오늘아침 「그녀석」 말이

모퉁이에서 도모기관차를 보구 경충되는 바람에 「스쿨」녀석은 뒤통수를

길바닥에 부딪고 나가 떨어졌지 뭐요. 그간 떨어 버렸죠.』

『죽었다구요!』

하고 「로오라」는 고삐어 점포사람을 유심히 보았다.

<단편 : 원유회>

『사람들이 끌어 일으켰을 때에는 벌써 죽어버린걸요.』

고백어 점포사람은 신이나서 저절로 깨었다.

『내가 이리 올 때 마침 사람들이 시체를 그 집으로 옮기고있는 참이었지요.』

하고서 그는 요리사에게 향해서

『마누라하구 꼬마놈이 다섯이 남은 셈이죠.』

『「조우즈」 이리와』

하고 「로오라」는 동생 소매를 잡고 부엌을 빠져서 초록색 나사가 걸린 문 저편으로 끌고 갔다.

거기서 그녀는 멈추어 서서 문에 기대이면서 공포에 질린 어조로

『여봐 「조우즈」 어떻게 그만 들까?』

『그만 두다니 「로오라」 그건 또 웬 말이에요?』

하고 「조우즈」는 놀라서 외쳤다.

『아이! 물론 원유회를 그만 둔다는 말이야.』

어째서 「조우즈」는 탄전을 부리는걸까?

그러나 「조우즈」는 전보다도 놀라 자빠지는 소리로

『원유회를 그만 둔다구요? 「로오라」,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릴 말아요. 그렇게는 할 수 없지 뭐요. 모두들 깜짝 놀랄걸요. 제발 그런 턱도 없는 것은 하지 말아요.』

『허지만 바루 대문 밖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원유회합시고 할 수 있니?』

사실 어이없는 것일는지 모른다.

그 까닭은 「로오라」들의 집으로 통하여 있는 험준한 언덕의 제일 밑의 골목에 오두막집들이 응기종기 있었다. 그 집들과 이곳과의 사이에는 널다란 행길이 있기는 하지만 그다져 떨어져 있다고는 할 수 없었다.

다시없이 눈에 거슬리는 건물로 이 근처에 존재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초코렛빛을 띤 갈색 칠을 한 너절한 작은 집들로서 조그마한 들에는 양배추와 여윈 닭과 토마토 깡통이 보일 뿐이었다. 골목에서 나는 연기조차 가난에 조들린 듯 했다.

그 냥마조작의 연기는 서리단가의 골목에서 몽게몽게 솟아나오는 은빛의 커다란 것과 같은 연기와는 비교도 안 된다. 그 골목길에는 세탁부, 소제인부, 구두수선공, 그리고 집 앞에 조그만 조롱을 주렁주렁 내어걸은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꼬마놈들이 득실거렸다.

서리단가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곳에 발을 들여 놓아서는 안 된다고 금지되어 있었다. 말이 쌍스러웠고 그들이 무엇을 배워가지고 올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로오라」와 「로오리」는 좀 나

이가들어 산보하는 길에 그 길을 빠져 나오는 수가 있었다.

구역질이 나는 누추한 곳이었다.

오싹 몸을 떨면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떠한 곳이라도 가서 무엇이든 보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빠져 지나가는 것이었다.

『글쎄 생각 좀 해봐. 저 가엾은 부인에게 악대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어떻게겠나.』 하고 「로오라」가 말했다.

『거 참, 「로오라」.』

하고 「조우즈」는 어쩔줄 모르게 되어 만약 누구에게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음악울 그만 둔다면 언니의 일생은 그야말로 분투적이 될거예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선 나도 언니와 동감이에요 나 두 동정은 하고 있어요.

그녀의 눈초리는 험악해졌다. '어려서 서로 싸우기가 일수였던 그 때와 같은 눈초리로 그녀는 「로오라」를 보았다.

『그처럼 감상적이 된대두 주정뱅이 노동자 되살려 놓진 못해요.』

『주정뱅이라구! 아 누가 그 사람이 술취했다면?』

「로오라」는 윙크 화를 내면서 「조우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돌이 이런 경우에 배양 입버릇처럼 외는 『엄마에게 당장 일러바칠테야』를 꺼냈다.

『그러구려.』

하고 「조우즈」는 비둘기가 꾸르르르 우는 듯이 대꾸했다.

『어머니, 들어가도 좋아요?』

하면서 「로오라」는 큼직한 유리 손잡이를 돌렸다.

『들어 오너라. 아 왜 그러니? 안색이 왜 그래!』

하면서 「서리단」부인은 화장대에서 돌아 앉았다.

부인은 세모자를 써보고 있는 참이었다.

『글쎄 어머니, 사람이 죽었대요.』

하고 「로오라」가 말을 끄집어 냈다.

『우리 안에서는 아닐테지!』

하고 어머니가 말을 가로막았다.

『아니, 아니야요!』

『아이 잠짜이야!』

「서리단」부인은 안심했다는듯 포옥 한숨을 쉬고 커다란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놓았다.

『근데 어머니 좀 들어보세요』

하고 「로오라」는 가볍게 숨을 쉬어가며 목메인양 그 무서운 이야기를 죽 했다.

『물론 원유희는 할 수 없겠지요?』

하고 애원하는듯이 그녀는

『악대랑 손님들이 모두 오실테지요.』 언덕 아래 사람들에게 들릴거야요. 이웃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들에게 말이야요.

<단편: 원유회>

「로오라」가 놀란 것은 어머니의 태로
로 「조우즈」와 매일반이었다.

아니 어머니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
서 더욱이나 전디기 어려웠다.

어머니는 「로오라」가 하는 말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두 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렴. 우리가 그 말을 들은 것은 정말
우연한 일이라구 할 수 밖에—』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죽
었다구 해서 — 히긴 저 비좁은 계막
저만한 움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모
르지만—원유회는 그만두지 않아두 되
잖아?』

「로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그저 『네.』
하고 대답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음 속으로는 이것은 전연 잘
못이라고 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소오파에 앉아서 쿠
션의 가장자리 장식에 만지작거리고 있
었다.

『어머니, 우리는 정말 너무 부정하지
뤄야요?』하고 그녀는 대들었다.

「셔리단」부인은 모자를 집어들고 일어
나서 「로오라」에게로 다가왔다.

「로오라」가 미처 말할 사이도 없이 어
머니는 「로오라」 머리 위에 그 모자를
덥썩시켰다.

『애, 이걸 너에게 주마, 너를 위해서

집짓 만든거나 다름없이 내게는 지나치
게 화려해 아유. 그림 같이 이쁜걸. 좀
보려므나.』 하면서 어머니는 손거울을
들어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

하고 「로오라」가 되풀이 했다.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 볼 생각도 없어 옆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이번에는 「셔리단」 부인이 아까 「조우
즈」가 한 것처럼 벌떡 화를 내었다.

『애는 참 이상하다니까.』

하고 그녀는 맹정하게 쏘아 붙였다.

『우리가 회생이 되기를 저런 사람들이
바라고 있을줄 아니? 너처럼 모든 사람
의 즐거움을 깨뜨려 놓는걸. 그대 정말
동정이라구 할 수 있어?』

『저는 모르겠어요.』

하고서 「로오라」는 황급히 방을 나와
자기 침실로 갔다. 거기서 유유히도 제
일먼저 눈에 띈것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었다. —

그것은 금빛 실국화와 길고 까만 벨베
트의 리본의 장식이 붙어 있는 까만 모
자를 쓴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이었다.

자기가 이렇게도 이쁘게 보이다니 여
태껏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어머니가 옳은 것일까 하고 그녀는 생
각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가 옳기를
바랐다. 내가 한 말은 터무니 없는 소리

였을까? 어쩌면 부당했을지도 모른다.
지금 또 인순 저 가엾은 부인과 조그마
한 아이들과 그리고 집안으로 옮겨지는
시체가 얼핏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신문에 실린 사진처럼
희미하게 꿈처럼 흐려졌다.

원유회를 마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
자. 하고 그녀는 마음 먹었다.

어쩐지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여
겨졌다.

한시 반까지 식사가 끝나고 두시 반에
는 한바탕 떠들석 하고 놀 준비가 다 되
어 있었다.

초록색 옷을 걸친 악대가 도착해서
테니스 코र्ट 한 모퉁이에 자리를 잡았
다. 「키티이·메이트랜드」가 떨리는 소
리로 말했다.

『아유, 마치 개구리 같잖아요? 저 패들
을 연못 변두리에 얹혀 놓구 한가운
데 앞사귀 위에 지휘자를 세워놓으면
좋았을걸.』

「로오리」가 돌아와서 웃을 갈아입으러
가는 길에 그들에게 말을 전냈다.

그의 모습을 보고 「로오라」는 다시 여
의 사진을 상기하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그에게 해 주고 싶었다.
「로오리」까지가 다른 이의 의견에 찬성

한다면 그 편이 옳은 것은 뻔한 노릇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따라 홀에 들어

갔다.

『「로오리」!』

『어어!』

그는 증계를 반쯤 올라가는 참이었다.
돌아서서 「로오라」가 보이더니 불안한
불을 불럭히 하고 빙글빙글 눈을 돌렸다.

『히, 이저 깜짝 놀란걸. 정말 근사해
보여. 자못 멋들어진 모자가 아나!』

「로오라」는 가늘게

『그래요?』

하고서 픽 웃었으나 이야기는 결국 꺼
내지 못하고 말았다.

얼마 안 되어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
여들기 시작했다. 악대가 연주를 시작했
다. 임시 고용한 급사가 집에서 천막으
로 뛰어들어다니고 있었다.

어디를 보나 쌍쌍이 베저어 거닐거나
꿇어서 꽃을 보거나 인사를 주고 받거나
잔디밭 위에 빈들빈들 걸어나다니거나 하
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명랑한 참새들
이 어디론가 날아가는 도중에 오늘 오후
만은 잠깐 「서리단」가에 내려앉은 것처
럼 보였다. 교생이라고는 모르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손을 맞잡고 뺨을 비벼대고
눈을 마주보면서 웃음을 짓는다는 것은
실상 즐거운 일이었다.

『「로오라」, 싱싱해 보이는군.』

『모자가 참 잘 어울리는걸요!』

『스케인식인걸 오늘이 제일 환해보여

<단편 : 원유회>

그러면 「로오라」는 얼굴을 붉히면서 상냥하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차를 드셨어요? 아이스크림 드릴까요? 시계꽃 아이스크림은 특제야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간청하는 것이었다.

『아버지, 악대에게 마실걸 좀 드려도 괜찮겠어요?』

이리하여 이 화려한 오후는 천천히 무르익고 천천히 시들고 천천히 꽃잎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유쾌한 원유회는 처음이에요.』

『대 성공인걸...』

『호화판이었어...』

「로오라」는 어머니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별인사를 하였다. 그들은 손님들이 다 물러갈 때까지 현관에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 고마와라. 끝났어. 겨우 끝났어.』

하고서 「서리단」부인은

『자, 「로오라」, 모두들 불러 오너라. 새로푹인 커피나 마시자. 아이 곤해, 암 대성공이었지, 어찌면 애들도 노상 파아티, 파아티 하면서 파아티를 열자 구 조를까!』

그들은 모두 텅 빈 침묵 안에 걸터 앉았다.

『아버지 샌드위치를 들어보세요. 기(旗)는 제가 쓴 거야요』

『고맙다.』

하고 「서리단」씨는 샌드위치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 그는 하나 더 먹으며,

『너희는 아바 오늘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모르지?』

『글세, 여보』

하고 「서리부」인은 한 손을 치켜 들고 말했다.

『그것 때문에 하마트면 원유회를 그만 들면 했다우. 「로오라」가 제발 다른 날

로 미루자고 하지 않겠어요.』

『아이, 어머니두!』

「로오라」는 그것으로 놀림받고 싶지 않았다.

『어찌든 무서운 사건이었어.』

하고 「서리단」씨는 말을 이어

『독신자는 아니래, 바루 요 아래 골목에 살고 있었는데 부인하구 꼬마놈 대어섯을 뒤에 남겼다나.』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서리단」부인은 컵을 막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버지도 눈치코치 없게서리...

갑자기 부인은 고개를 들었다.

테이블 위에 샌드위치, 파자, 만두등 속이 잔뜩 흩어져 있었다.

이것을 모두 먹어치우지 않고 버릴바에는...감쪽한 착안이다.

『자 광주리를 만들고 저 가엾은 것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어버리자구나. 하여간 그애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성찬이 될걸. 안 그래?』

반드시 미망인은 이웃사람들의 방문을 받거나 할꺼야. 이렇게 무엇이나 갖추어 진걸 받게 되니 얼마나 좋을까 「로오라」 하고 그녀는 벌떡 일어나며

『계단의 찬장에서 커다란 광주리를 가져온.』

『하지만 어머니 그게 정말 좋은 착안이라 생각하세요?』

또 다시 벨나게스리 「로오라」만이 그들 전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았다.

원유회의 찌꺼기를 주다니...저 가련한 부인이 정말 좋아할까?

『암 물론 너는 오늘 왜 그러니? 아까 한 두시간 전에는 제 살이라도 베어줄 듯이 동정을 해야 한다구 야단이더니 이젠...』

좋아요! 「로오라」는 황급히 광주리를 가져려 갔다.

어머니는 광주리 하나 가득 수북히 넣었다.

『네가 손수 가지고 가거라. 그대도 달려가 보아라. 아니 잠깐 기다려.

붉은 나리꽃도 함께 가지고 가렴. 그런 계급의 사람들은 나리꽃이라면 감격해서 어쩔줄 모른다.』

『나리꽃 줄기가 「로오라」의 레이스 옷을 찢을라.』

하고 실제적인 「조우스」가 걱정했다.

그말은저도 모른다. 마침 잘도 알아차렸다.

『그럼 광주리만, 그러면 「로오라」.』

하고 어머니는 천막 밖에까지 따라나갔다.

『절대루.....』

『무어야요 어머니?』

아니다. 그런 생각을 어린아이 머리에 넣지 않는게 낫겠다.

『아무것도 아냐. 다녀오너라.』

「로오라」가 나와서 마당의 문밖을 닫았을 무렵에는 밖은 어둑어둑해 가고 있었다. 커다란 개가 한 마리 그림자같이 달리고 있었다.

한길은 허영계 번쩍거려 아래의 오목한 곳에는 조그마한 오두막집들이 길은 그늘에 쌓여 있었다.

저 요란스런 오후를 겪고 난 뒤에 이것은 또 얼마나 잠잠한가.

지금 자기는 언덕을 내려가 죽은이가 누어있는 집으로 가는 것이었으나 그것은 도저히 현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왜 생각되지 않을가? 그녀는 잠시 받을 멈추었다.

키스, 사람들이 주고 받는 말소리, 스

<단편 : 원유회>

존의 딸가락거리는 소리, 웃음소리, 짓밟힌 풀냄새 등이 아직껏 그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다.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라고는 통 없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녀는 첫 빛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생각한 것은 다만 한가지 『원유회는 대성공이었어』라는 것이었다. 이제 넓다란 한길을 가로질러 골목길에 접어 들었다.

골목길은 뱀고 으슥했다. 소울을 걸친 여인이나 스콧퀴나사로 짠 모자를 쓴 여인이 종종걸음으로 지나간다.

난간에 기대어 있는 사나이며 문간에서 장난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누추한 오두막집에서 나직나직 읊성이 새어 나온다.

어떤 집에선 불빛이 나뉘려려 그림자가 개처럼 창에 어른거린다.

「로오라」는 몸을 다소곳이 굽히고서 걸음을 빨리했다.

코오트를 입고 올걸 그랬다고 후회가 되었다. 양복은 너무 화려하다! 그리고 벨베트의 리본이 달린 커다란 모자— 다른 모자면 좋았을걸.

모두들 자기를 바라볼까? 보구말구 왔다는 것이 잘못이다. 숫제 잘못된 것 같았다. 저금이라도 벼돌아 가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늦었어 예가 그 집인진

틀림없다. 바깥에 사람들이 까방게 모여 있다. 문앞에는 늙디늙은 할머니가 질름발이 지팡이를 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신문지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로오라」가 다가서자 수근거리던 소리가 딱 그쳤다 사람들이 싹 갈라졌다.

마치 그녀가 올 것을 기다리거나 했던 것처럼.

마치 그녀가 올것을 알기나 했던 것처럼.

「로오라」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벨베트의 리본을 어깨위까지 치켜올리면서 옆에서 있는 여인에게 물어 보았다.

『예가 「스콜스」 부인 백인가요?』

그 여인은 야릇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습니다. 아가씨』

아아 빨리 돌아가고 싶다! 그녀는

『하느님. 힘을 빌려 주소서』

하고 소리를 내어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골목길을 걸어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여러 사람의 이 응서로부터 얼른 사라지고 싶다.

숨을배가 있으면 무엇이냐 하다못해 이 여인의 쇼울이라도 몸을 숨기고 싶다.

광주리를 내려 놓기만 하면 곧 돌아가자 하고 그녀는 마음 먹었다. 광주리가 비어

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때 문이 열려 검은 옷으로 몸을 두른 몸집이 작은 여인이 어둠을 헤치고 나왔다.

「로오라」가

『「스콜씨」부인이세요?』

하였더니 여인은

『들어오세요. 아가씨』

하고 문을 달고 그녀를 복도 안으로 맞이하였으므로 그녀는 오싹 공포를 느꼈다.

『아니, 폐를 끼치려는건 아니야요, 그저 이 광주리란 두고 가면 되니까요, 어머니가 이걸—』

으썩한 복도에 서 있는 여인에게는 그녀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은상 싶었다.

『이리 오시죠, 아가씨』

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로오라」는 따라 들어갔다. 그곳은 너절하고 천정이 낮은 조그마한 부엌으로서 연기에 그슬린 남포가 쳐 있었다. 화로 앞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엠』

하고 그녀를 안내하여 온 몸집이 작달막한 여인이 말했다.

『「엠」! 젊은 아가씨가 오셨어요.』

하고서는 「로오라」를 향하여 뜻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이가 제 언니예요 아가씨, 저대루

실례하게 하여 주시죠?』

『네, 물론, 제발, 그대로 제시게 두세요. 저는— 저는 그저 농구 가가만 하던—』

그러나 그 때 화로 옆에 있던 여인이 몸을 틀렸다.

그 얼굴은 벌겋게 부풀고 눈과 입술이 부어서 보기에 끔찍했다.

「로오라」가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낯선 사람이 광주리론 들고 부엌에 켜져서 서 있다니 어찌된 일인가?

그 불쌍한 얼굴이 또 다시 이그러졌다.

『좋아요. 제가 이분에게 감사를 드리죠.』

하고 아까 그 여인이 말했다.

그리고는

『이대로 실례하게 하여 주시죠 아가씨 정말』

하고 역시 퉁퉁 부은 얼굴에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였다.

「로오라」는 그저 나가고만 싶었다.

그저 돌아가고만 싶었다. 그녀는 복도로 나왔다. 그때 문이 열렸다. 그녀는 골장 죽은 이가 누워 있는 방으로 향해 걸어 갔다.

『저이를 좀 들여다보아 주시지요?』

하고 엠의 동생은 「로오라」 옆을 빠져 나가 침대 가로 다가갔다.

<단편: 원유회>

『아가씨, 무서워 하실진 없어요—』

하고 이번에는 나긋나긋하나 약삭빠른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슬그머니 시이트를 치워버렸다.

『꼭 그린갈아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걸요, 자 가까이 오세요.』

「로오라」는 다가왔다. 거기에는 젊은 사나이가 늘씬하게 잠들어 있는 것이었다.

무척 깊이 푸욱 잠들어 있다. 그를 두 사람으로부터 멀리멀리 떨어져 아득히 멀리 속세를 떠나 사뭇 평화스럽게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의 극치인 것이다. 모두들 깔깔 웃어대고 있을 동안에 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을 동안에 이 기적이 이 골목길에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행복... 행복... 「나무랄 것 없다」고 잠들어 있는 얼굴은 말하여 주고 있다. 응당 이래야 한다... 이것으로 만족이다. 그래도 역시 우는 것이 사람의 정이다.

그녀는 고인에게 말 한마디 안하고 차마 흘쩍 이 방을 나갈 수는 없었다.

「로오라」는 커다란 소리로 어딘에처럼 영영을었다.

『제 모자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이번에는 「엘」의 동생을 기다리지 않고 문밖으로 나와 골목길을 걸어내려와 어둠 속에서 사람들 옆을 쭉쭉 지나

갔다. 골목길 모퉁이에서 「로오리」와 만났

『「로오라」가 아냐?』

『네』

『어머니가 걱정하고 제서 잘 되었니?』

『네 씨 글세 로오리!』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짙 삭 몸을 기대었다.

『너 울고 있는게 아니니?』

하고 오빠가 물었다. 「로오라」는 고개를 흔들었다.

기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로오리」는 누이동생 어깨에 팔을 돌리고

『울지 마』

· 하고 정답게 애정에 가득찬 음성으로 말했다.

『무서웠어?』

『아아뇨.』

「로오라」는 흐느껴 울면서

『그저 신비스러웠어요 근데 오빠—』

하고 말을 멈추더니 그를 쳐다보았다.

『인생이란— 인생이란건—』

그녀는 이렇게 더듬더듬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생이 어떤 것인지는 좀처럼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도 생판없다.

오빠는 다 이해해 주었다.

『그런거지, 응?』

하고 「로오리」가 말했다.



세 시간의 비행 공간

윌리엄 · 포크너 원작

무모한 생각이기는 했으나 몸은 진장하고 무료한데다가 진절머리 나는 일을 해치웠다든 흥가분함도 있었던 도날드로시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내렸다.

수고를 했으니 자기자신을 위로하려는 것이 없는지도 몰랐다.

중서부 지방의 어두운 여름밤, 비행장에 내리쬐는 그는 낡은 붉은 빛 철도 정거장이 넘어버린 외따로 떨어진 토인톤의 비행장으로 향하였다.

그는 그 여자가 지금도 살아 있는지 이곳에 살고 있거나 하는지 혹은 지금 발리워져고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치밀어 오르는 흥분을 간직하며 그는 전화번호책을 뒤져 이십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죽어 버렸을지도 모를 그 여자의 아버지 이름을 더듬었다.

「하몬 · 홈스」판사……산 3194—명량한 여자의 목소리가 낸시 · 홈스 양을 찾는 그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낸시는 지금은 윌터 · 기포드 부인입니다. 누구시죠?』

그러나 도날드는 대답없이 전화를 끊어 버렸다.

그가 바라던 대답은 그것이었고 시간

은 세 시간 밖에 없는 것이다.

윌터·기포드—들은 적이 없는 이름—
그는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다시 전화
번호책을 뒤졌다.

어쩌면 다른 곳으로 출가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윌터·기포드…산 1191—다시 손가락
끝에 모여드는 핏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기포드 부인을 찾는데요,
전 그분의 옛친구예요』

『제가 바로 기포드 부인인데요.』

이상한 태력을 가진 음성이었다.

아니 그 음성이라고 생각했을 뿐인지
도 모른다.

『도널드·프렌트요. 열두살 때 헤어져
고는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도널드요.』

『네에……』

무척 놀랐으면서도 매우 정중한 음조
였으나 반갑다거나 그가 누구인지를 기
억하고 있는 것 같은 눈치는 찾아 낼 수
없었다.

『……도널드라고요!』

상대방은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에는 단순히 기억을 더듬고만 있
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언제 돌아오셨어요?』

이렇게 묻고 나서 정중하게 덧붙여 물
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비행장예요……몇 시간 후면 다시 떠

나야 합니다.』

『그럼 이리 오시지요.』

『주무시려던 참은 아니겠죠』

『천만에요!』

그녀는 소리쳤다.

『전 지금 혼자서 술을 마시며 앉았어
요. 택시 운전수더러 여기라고만 일러
주세요.』

달리는 차 속에서 도널드는 주고 받은
대화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었다.

『비행장에 있다』고 한 그의 대답은 그
의 위치가 아직도 상류 브루조아지임을
일러 준 것이었다.

넌시가 홀로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상
대도 없음 만큼 텅빈 여자로 성숙하
였다는 뜻인지도 몰랐고 남편이 집에 없
거나 이미 잠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의 의
미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그
여자의 모습은 즐 잠아 열살 밖에 되지
않은 소녀였기에 술을 마시며 앉았다는
그녀의 대답은 적지않게 생소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넌시가 이미 삼십고개를
바라보는 여인임을 깨닫는 그의 입가에
는 옅은 웃음이 떠올랐다.

굽어 돌아간 찾길이 맞닿는 곳에 술
잔을 손에 든 검은 머릿털의, 키 나직한
미인이 집 안에서 흘러오는 물빛을 등
지고 문 앞에 서 있었다.

드디어 보게 된 기억 속의 여인 앞에

내려서는 도날드의 심정은 얼떨떨 했다.

『기포드부인이시죠?』

환히 현관문을 밝힌 그녀는 뜰어지게 그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도날드... 바로 당신이었군요.....참 너무도 서로 변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변했겠어요!』

집으로 들어서는 서로의 입에서는 언저루 「그 동안」이란 말이 되풀이 되었으며 도날드는 뱃속이 철렁 가라 앉음을 느꼈다.

그것은 자전거에 탄 그녀가 그를 무시하며 지나가 버렸던 그들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한 이야기 거리가 없거나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였다.

통사 대학 동창회 같기도 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쉬이 좌석이 문란해 집으로 써 과거를 되찾는 기회가 희미해 지는 법이다.

지루하고 공허한 시간이 될런지도 모른다고 깨달은 그는 아찔했다.

그래서 그는 기를 쓰고 접어들었다.

『당신은 언제나 귀염둥이였지만 지금도 다름없이 예쁜데는 정말 놀랐는데요.』

이 말은 효과적이었다.

서로의 변한 상태를 그대로 인정할 이 대담한 한 마디는 그들로 하여금 어렸을 때를 더듬어 가는 옛친구라기 보다는 서로 흥미를 느끼는 낯선 사람들의 위

치로 이끌어 줬기 때문이다.

『술 드시겠어요?』

그녀는 물었다.

『싫으세요? 저를 술꾼으로 오해치 마세요. 오늘밤은 좀 우울했어요. 주인이 오늘은 돌아올 줄 알고 있었는데 이를 더 늦어 진다는 전보가 왔지 않겠어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척 매력적이 있고요. 어떤 편인가 하면 도날드, 당신같은 타입이에요. 흰색도 그렇고요.』

그녀는 머뭇거렸다.

『...그런데 어쩔 뉴욕요오크에 좋아하는 여자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는지도 몰라요.....』

『막상 당신을 데리고 있는 나로서 이가 당신을 배반할 순 절대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는 여자를 안심시키려고 말을 이었다.

『육년동안의 나의 결혼생활에서 나도 한 때는 그런 피로움을 갖었다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나의 생활에서 질투라는 것을 영원히 없애 버렸소. 아내가 죽은 후 나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었다가를 다시 느꼈오. 그 일은 내게 수 많은 기억을 남겨 주었소... 말하자면 언제 돌이켜 생각해봐도 마음이 흐뭇해 지는 그런 기억들만을 남겨 주었다는 것이요.』
유심히 그를 바라보던 그녀는 그가 말을 이어갈 때에는 펴 동정하는 눈치

였다.

『척 안 됐군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정말 번하기도 하셨어요. 어디 머리 좀 물려 보실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저 애는 머리 속이 비어있지 않아」 하셨거든요.』

『그래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우겼겠구려』

『정말 놀랐죠. 왜냐면 머리 속이 빈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말을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군요.』

『잊혀지지 않는 일은 그 뿐인가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넌서는 소스라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재빨리 빗 걸음 물러 나서며,

『아니 그건 너무 하세요! 그래 전 말 팔랑이였었어요』

하며 그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렇진 않았소.』

그는 서슴치 않고 말하였다.

『자, 이제 술을 한 잔 주구려.』

그녀가 외면하면서 술을 따르는 동안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은 남자들이 키스해 준 어린 소녀가 당신뿐이었다고 생각하오.』

『그 얘기를 꼭 하셔야만 해요?』

그녀는 물었다.

순간적인 흥분이 가시자 다시 입을

열었다.

『참 정말! 그 때야말로 재미있었어요 노래에도 그렇듯이.』

『셀매타기도·즐거웠고.』

『참 그리고 그게 누구네 피크닉이더라.....그래 호루더·제임즈네 피크닉이었지.....그리고 프론테낙에서의 그 여름절들.』

셀매타기—그의 기억에 가장 뜨거운 것은 셀매타기였다.

얼어 붙은 차거운 별들을 쳐다보며 웃음웃던 그녀의 싸늘한 뺨에 입맞추었던 곳은 질동이 쌓인 모퉁이에서였다.

옆에 자리잡고 있던 한쌍의 남녀는 등을 돌리고 있었으므로 그는 가냘픈 그녀의 목덜미와 귀뿌리에 입을 맞추었을 뿐 입술엔 입을 맞추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우체국 놀이를 한 맥크네집 파아티.....』

난 귀가 부어서 그때는 빠졌었지.』

『전 기억나지 않아요.』

『당신은 그 놀음에 끼어 있었소.』

만애가 당신에게 키스하는 뚱에 난 질투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었소. 그렇게 심한 질투란 그 후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소.』

『이상한데요. 전 도무저 기억나지 않는군요. 아마 잊어버리고 싶었던 일인가 봐요.』

『왜 잊으려고 했을까?』

그는 흥미깊게 물었다.

『낸시, 우린 정말 순박한 어린이였다오. 난 아내에게 나의 과거를 이야기 할 적이면 의례 내가 아내를 사랑한 만큼 당신을 사랑했노라고 이르지 않은 때가 없었다오. 진정 난 그렇게 당신을 사랑했던거요. 내가 이곳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난 당신을 포탄알같이 내 가슴 속에 품고 떠났던 것이오.』

『그렇게나 저를…… 그렇게나 생각하셨나요?』

『정말이요! 난……』

그는 그녀가 바로 그의 손 닿는 곳에 서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마치 그녀를 사랑하는 애인처럼 자기가 속삭이고 있고 그녀의 반쯤 열린 그 입술이, 그리고 호리명당한 그 눈매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음을 불안간 깨달았다.

『그래서요』

여자는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는건 부끄러운 말이지만 당신 말씀이 마음을 흔드는군요. 당신이 그때 그렇게나 상심하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도리어 상심한 것은 전 줄로만 알았어요.』

『당신이!』

그는 어성을 높였다.

『그 약방 앞에서 나를 본체 만체 한것은 누구였는대요.』

그는 웃었다.

『당신은 헛바닥을 내밀었지요.』

『전 생각나지 않아요. 당신이 도리어

저를 괴롭혔겠지요.』

그녀는 마치 그의 팔을 만지려는 듯이 가볍게 손을 내댈즈렀다.

『횡등에 사진첩이 있어요 보지 않은지 몇 년이나 되었어요. 그걸 찾아 와야겠어요.』

홀로 앉은 짧은 시간동안 도날드의 머리 속은 두 가지의 생각으로 배워져 갔다.

그 하나는 같이 겪은 일이더라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그 기억을 서로 일치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낸시가 어렸을 때나 성숙한 지금에나 다름없이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이었다.

아내가 죽은 뒤에는 다시 얻어 볼 수 없었고 또 있어 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감동이 낸시와 지낸 반시간 사이에 도날드의 전신을 푹 적셔주는 것이었다.

카우치에 나란히 앉은 그들은 사진첩을 펴 들었다.

그를 바라보는 낸시의 웃음 머금은 얼굴은 행복에 젖어 있었다.

『정말 기뻐요.』

『당신이 이토록 참다랗게 저를 기억해 주셨으니 말이에요. 왜 그땐 이런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당신이 떠난 뒤론 정말 당신을 미워했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구로.』

그는 부드럽게 대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을 미워할 수 없
어요.』

이렇게 말한 그녀는 충동적으로 덧붙
었다.

『저를 안아 키스하여……좋은 아내답
지 않은 꼴이 되었군요.』

잠시 후 그녀는 말하였다.

『결혼한 후론 정말 다른 남자한테 키
스한 일은 없었어요.』

그는 흥분하였다…… 허나 도무지 갈
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했다.

도대체 키스한 여인이 낸시였는지—
혹은 기억 속의 환상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재빨리 고개를 벌여 뜨
린채 사진첩을 뒤지며 오들오들 떨고 있
는 이 귀여운 낯모르는 여자였는지 도시
알 수가 없었다.

『그대로 있어 주오.』

그는 말하였다.

『잠시동안은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
을 것 같소.』

『다시는 그러지 말시다요. 저도 마음
이 조용한 편은 아니예요.』

도날드는 애매하게 폭만 넓은 소리를
싱겁게 한 마디 하였다.

『우리는 다시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큰 야단이겠는데요.』

『제발 그러지 마아 주세요!』

그녀는 짙짙 웃기는 했으나 매우 숨
가쁘게 털떡이고 있었다.

『죄다 끝났어요. 순간적인 일이었어

요. 저르선 잊어 버려야 할 순간이
고요.』

『남편한테 얘기 마시오.』

『왜요? 건 뭣이든 모조리 그에게 아
얘기 하곤 해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을 상하게 될
거요. 남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법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하지 말지요.』

『다시 한 번 키스해 주오.』

그는 성급히 이렇게 말했으나 낸시는
펼쳐진 사진첩의 사진 하나를 열심히
손가락질 하고 있었다.

『여기 당신이 있군요.』

그녀는 소리쳤다.

그는 그것을 들여다 보았다.

뚝단배를 등지고 선창가에 서 있는 짙
은 바지를 입은 조그마한 소년의 사진이
었다.

『이 사진을 찍은 바로 그날이 생각나
는군요.』

그녀는 신이 나서 웃어댔다.

『케티가 찍은 걸 제가 훔쳐냈던 거에
요.』

얼른 보기엔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자
기같지 않았고 다시 고개를 가까이 숙여
보았더니 그건 아주 먼 사람 같았다.

『이건 내가 아닌데요.』

그는 말하였다.

『천만에요. 프론테낙의 여름 말이에요
……자주 우리가 가곤 한 그 숲 말이에

요.』

『굴이라니? 난 프론테낙에는 사흘동안 밖에 머무르지 않았었는데.』

그는 다시금 시선을 모아 약간 노랗게 퇴색한 그 사진을 살펴보았다.

『이건 내가 아니라 도널드·바워스군. 우리는 비교적 얇은 편이었지.』

『하지만 당신이 도널드·바워스잖아요.』

그녀는 약간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하였다.

『아니군요. 당신은 도널드·바워스가 아니군요. 당신은 도널드·프렌트군요』

『내가 전화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소.』

엷은 공포가 서린 얼굴로 그녀는 일어섰다.

『프렌트! 바워스! 내가 미쳤거나봐혹 술을 마신 탓이었을까? 당신이 나타나 그 순간에도 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그는 책갈피를 넘기면서 중얼이 냉정하려고 애썼다.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는 말하였다.

그와는 무관한 화면들이 수 없이 그의 눈 앞을 가로막았다.

프론테낙……굴 속……도널드·바워스

『당신이야 말로 걸 저버렸잖아요!』

방 한 귀퉁이에서 낸시가 말했다.

『이 이야기는 퍼뜨리지 않을테지요.』

그녀는 또

『말이란 잘 퍼지는 것이니까요』 라고 했다.

『뭘 퍼뜨린단 말이오』

그는 망서렸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였다.

『그리고 보니 이 여자도 어렸을 뻔 평강했었군.』

그의 생활에서 질투라는 것을 영영 쫓아버린 꼬마 도널드·바워스에 대하여 그도 모르게 갑자기 치솟는 질투를 어쩔 수 없었다.

방 안을 가로지르는 다섯발자국의 걸음 속에 그의 이십년이라는 세월과 월터·기포드의 존재를 으깨 버렸다.

『다시 한 번 키스해 줘요. 낸시.』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녀의 의자 옆에 한쪽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그러나 낸시는 몸을 피해버렸다.

『비행기를 탄다면서요.』

『그건 문제가 아니요. 그까짓 타고 안 타고가 문제겠어요. 그리 큰 일은 아니니까』

『어서 가줘요.』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리고 저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허지만 당신은 내가 누구였는지 생

자 안 나는게 하는군.』

그는 외쳤다.

『마치 이 도날드·프렌트가 생각 안 난다는 뜻이!』

『난 기억하고 있어요. 난 당신도 기억하고 있어요…… 허지막 모두가 오래된 일이었어요.』

그녀의 음성은 다시금 딱딱해 졌다.

『택시의 번호는 크레스트우드 8484예요.』

비행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날드는 그의 머리를 양쪽으로 저었다.

그는 이제 완전히 제 정신으로 되돌아 갔으나 자기가 겪은 바를 소화시킬 수가 없었다.

비행기가 으르렁 거리며 공중으로 올

라가 그 속에 탄 승객들이 아래 있는 인간들의 세계로부터는 별개의 존재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비행기가 날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별없는 오분동안 그는 동시에 두 가지 세계에서 미친사람같이 지냈다.

그는 열 두살 된 소년과 서른 두살된 어른이 어찌할 수 없이 모르게 서로 뒤얽힌 존재였다.

한 비행기에서 내려서 다음 비행기의 타기까지의 사이에 그는 많은 것을 잃어 버렸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이 사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길다란 과정이고 보면 아마 그가 겪은 경험중의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 문언록

◆ 우리에게 무엇보다 시간이 소중하다. 하루의 시간을 허비하면 조국 근대화가 하루 늦어진다는 것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의 낭비한 시간을 우리들이 회복하자는 것이다.

◆...유능한 행정가나 행정인이라는 것은 항상 국가발전의 방향을 예견한 선도적 행정인 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국가 발전의 속도에 따라 순응할 수 있는 사고와 능률의 개선자를 말한다.



가 장 자 리 장 식

필. S. 박 <원작>

『글쎄 중국인 재봉사를 쓰려면 이쪽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음 안 될테두.』
우편국장의 아내 「로우」부인은 자기 집 널다란 배란다에 있는 비둘가지를 엮어서 만든 흔들리는 의자에 어딘지 응색한 듯이 앉아 있었다.

살이 쥘 여인으로서 혈색이 좋은 붉은스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 중국 바닷가의 항도에서 저번 십 몇 년동안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취하고 또

운동 부족의 결과였다.

지금 방문객에게 이렇게 말하였을 때 살이 딱딱한 네모 난 얼굴이 한층 더 붉어졌다. 옆에는 중국인 머슴이 서 있었다. 그가 방금 상냥한 어조로,

『마님, 재봉사 왔습니다.』

하고 보고한 참이었다.

조그마한 뉴우만부인은 어저간히 경탄한 표정으로 여주인을 보았다.

『저두 정말 그렇게 했음 좋았다고 생

각하고 있어요. 아멜린.』

팔꿈치 옆에 있는 작은 버들가지로 만든 탁자에서 종려 이파리의 부채를 집어들어 느릿느릿 부채질하면서 뉴욕만부인이 종알 대었다. 그리고 꾸밈하듯 불평을 늘어 놓았다.

『때때로 전 새옷 따위로 마음을 괴롭힌다는 건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땀은 여기서든 옷이 매우 값 비싸긴 하지만 미구나 여기 명주는 말이에요. 허지만 그걸 맞추는게 여간 골치 아픈 노릇이 아니거든요. 이 나라의 재봉사는 전부가 그렇진 해두-제 집에 출입하는 재봉사두 드레스를 3인 안으로 해 드리죠 하고 땡땡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주일이구 두 주일이구 얼썩거리지 않는구먼! 로버트는 그런 옷은 보기에 창피하고 또 자선 바자에 가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버트에게 만약 당신이 이곳 재봉사에게 일을 시킨다는게 얼마나 성가신 노릇인가를 알아 주신다면 라구 했지 뭐유. 게다가 소매를 재단한다는게 이상야릇하구-아유 정말!』

그녀의 가냘픈 음성은 가늘게 한숨으로 되어서 그쳤다. 그리고 잠시 전보다 분주히 부채질을 하며니 윗 입술의 땀을 손수건으로 훔쳤다.

『이게 제 것을 보아 주세요.』

하고 로우부인은 명명하듯이 말했다.

깊숙한 야무진 음성이었다. 그리고 둥근 모질게 생긴 회색 눈은 찰싹 웨이브를 한 윤기없는 갈색 머리칼 밑에서 너무 다가가 붙은 상실게 놓여 있었다.

지금 고개를 약간 숙이고 점잖이 방바닥에 시선을 떨어뜨린채 서 있는 중국인 머슴에게 그녀는 눈을 돌려 말했다.

『저 재봉사머러 이리 오라고 일러줘』

『네, 마님.』

머슴은 나직히 말하고 살아졌다.

그러자 곧 부드러운 확고한 발소리가 문간에서 들리더니 집 뒷문에서 훑을 빠져 머슴 뒤를 따라 재봉사가 왔다. 키가 우리후리한 사대로 머슴보다 더 컸다. 중년이고 그 얼굴은 일종의 차근 차근한 고요하므로 침착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풀이 낫은 퍼런 갈포의 장삼을 입고 있었다. 두 팔꿈치에만 감쪽하게 힘걸 조각이 매어 있었는데 사뭇 말쑥했다. 흰 천으로 둘러싼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재봉사는 두 백인 여자에게 절을 하고 배란다 마주 위에 엎드려 그 보따리를 놓고 배들을 풀었다.

안에서 어떤 미국 회사에서 나온 허슬하게 남아 떨어진 스타일 - 복한 책과 반쯤 완성된 청색의 반점이 있는 명주 드레스가 나왔다.

그는 조심조심 그 드레스를 털어 펼쳐 로우부인 앞에 쳐들어 보였다.

그 험령한 크기로 보아 그것이 극장 부인을 위하여 만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부인은 저의 어린 눈으로 쌀쌀하게 훑어보고 세부를 검사하는 것이었다.

들연 부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따위 것을 내가 부탁했어요? 가장자리 장식을 한다구 했는데—보세요.』

이것이 최신 유행이라우.』

스타일·북의 페이지를 부산히 뒤져 뚱뚱한 부인용 의상란을 열어 제치는 것이었다.

『보세요, 이 귀부인과 꼭 같은 형이라구 했는데 어째서 이런 납작한 것으로 하셨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이런 것 도로 가지고 가세요!』

재봉사의 잔잔한 참을성 있는 얼굴에 보송보송 땀방울이 돌아났다.

『네, 마님』하고 그는 맥없이 말했다.

그리고 입술을 조금 꼭 다물고 숨을 죽이더니 다시 말을 배었다.

『마님께선 처음에 가장자리 장식으로 말씀하시구, 다음에는 가장자리 장식이 아닌 것으로, 라구 하셨습니다. 가장자리 장식은 너무 모양이 우스우니 보통의 것으로 하신다구 말씀하셨습니다.』

재봉사는 애원하듯 택인의 여인을 바라 보았다. 그러나 로우부인은 반지런한 살찐 손을 흔들며 상대를 가로막고 버들가지의 흔들리는 의자 속에서 기운 차게 전후로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아유, 저런 거짓말.』하고 툭 쏘아 붙였다.

『내가 한 말을 모를라구. 납작한 것으로 해 달라구 한 일이 없어요—없구 말구! 요즘 납작한 것을 한 귀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댁에서 유행이라구 한랫자 그게 무슨 소용이예요?』

『네, 마님』하고 재봉사는 말하더니 이번에는 얼굴을 좀 환히 펴면서 『천이 아직 두 남아 있습니다. 마님. 가장자리 장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염려마십시오.』 그러나 로우부인은 그리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다.

『댁에서야 말루 염려 마십시오요. 하지만 댁에선 내 천을 많이 못 쓰게 만 들었지 뭐요. 내가 이 천을 공짜로 산 줄 아세요? 댁에서는 상당한 돈을 내게 손해보이구 있는 거예요.』

부인은 몸을 전후로 흔들고 자색이 된 뺨을 힘차게 부채질하면서 손님 편을 향하여 『이 드레스를 글세 믿구 있는 거예요 미니. 그런데 대관절 이게 뭐예요! 전모래의 영사관 원우회에 이걸 입구 잘 작정이었습니다. 가장자리 장식으루, 라구 말해 주었는데루—원, 이 망칙한 것을 좀 보세요.』

『그렇다마다요, 알구 있어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 바루 그게야요.』라고 뉴우단부인이 나른한 듯한 심술궂은 음성으로 말했다.

『전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시나 궁금히 여기고 있어요.』

『네, 어떻게든 하지요.』하고 로우부

인은 쓰디 쓰게 말했다.

부인은 잠시 재봉사가 서 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머리 너머로 보이는 손이 잘 가 있는 정원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푸른옷을 걸친 한 쿠우리가 9월 오정 때의 다가온 햇살에 반짝이는 백일초 꽃밭 옆에 주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모테를 깎은 길이 네모 반듯한 푸른 잔디 주변을 달리고 있었다.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봉사는 아직도 아까 그 드레스의 어깨 근처를 가만히 는 채 몹시 불안스럽게 서 있었다.

조그만 땀 방울이 그 얼굴 양면을 굴러 떨어졌다. 그는 입술을 적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네, 마님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 필요 없어요.』하고 로우 부인은 쏘았다.

『턱에 부탁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깎아주 뭐구 모두 엉망으로 만들구—아무 소용이 없지 않아요?』

그녀는 반짝이는 정원에 시선을 보낸 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것과 꼭 같은 가장자리 장식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하고 재봉사는 열심히 설복하듯 말했다.

『네, 마님, 네 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베로의 것을 만들겠습니다. 언제 필요하시죠?』 『내일 필요한 거예요.』하고 백인 여인은 큰 소리로 흑독하게 말하고서 『내일 열두시에 가지고 오세요. 만약

그 때까지 가져구 오시잖음 한푼도 돈을 안낼테예요—시간 맞추시겠어요! 아무 아무 날에 갖구 오겠노라 큰소리 치고 태에선 빈번이 안가지구 오신걸요.』

『될 수 있습니다. 마님.』하고 재봉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재빠르게 차곡차곡 그 드레스를 접기 시작했다. 때마침 두 손은 교묘히 움직였다.

『알겠습니다. 마님. 내일 갖구 오겠습니다. 가장자리 장식도 끝마치고 근사하게 모든 걸 완성해서……』

재봉사는 점잖이 엎드려서 드레스를 다시 책보에다 싸고 눌러 썩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험렁하게 매대를 뺐었다. 그리고 일어나더니 얼굴에 웬 괴로운 표정을 짓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온 정신이이 말없는 탄원 속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탄원은 땀이 두드러진 잔잔한 얼굴 위에도 또 꼭 나쁜 입술에도 나타나 있었다. 땀이 다시 온 몸에 배었다. 로우부인마저 어쩔듯이 그 탄원의 뜻을 짐작할 수가 있었다. 부인은 흔들리는 의자를 그만 흔들고 시선을 들었다.

『왜 그러세요?』하고 날카로이 물었다.

『다른 무슨 용건이라두?』

재봉사는 다시 입술을 적시고서 가냘픈 속삭이는 듯한 소리로

『마님, 저어, 돈을 좀—1달러나 2달러 주실 수 없을까요?』

부인의 잔뜩 끝이난 표정을 앞에 두고 재봉사의 음성은 한층 낮아졌다.

『실인즉 동생 아들이 오늘 술을 거두리라 생각됩니다. 조카에게는 꼬마놈이 셋하구 아내가 있습니다만—관을 사들일 돈도 없는 처지라서 한푼도 없다보니! 오늘은 이미 위독해서—』

로우부인은 손님 편을 보았다.

『아유, 이런 뻔뻔하게서!』

부인은 어인이 병병했다. 뉴우만부인이 그 눈에 대답했다.

『제가 말한 대우예요』 하고서 무엇하나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성가시긴—그 재단이라는게—그대두 돈 밖에 모른답니다』

로우부인은 그 빙글빙글 도는 회색눈을 재봉사에게로 돌렸다. 재봉사는 얼굴도 못들고 웃 소매를 가지고 입술을 가막히 막는 것 뿐이었다. 부인은 일순 그를 응시하며니 이윽고 분노를 가득 담은 음성으로,

『아냐, 안 돼요. 이 드레스에 가장자리 장식할 달구 다 되면 치루어 드리죠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는 돈은 못치루겠단 말이에요. 절대루 날자를 어기지 말아요.』

『네, 마님』

재봉사는 한숨을 쉬었다. 희망의 빛이 지금 그의 얼굴에서는 가시었다. 애걸하는 표정도 가시고 다만 싸늘한 절망이 장식처럼 드리우고 있었다.

『내일 열두시에 대이도록 완성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마님』 하고서 그는 물러갔다.

『어김없이 해 주세요』

로우부인은 득의양양해서 재봉사의 등에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그가 사라져가는 것을 조롱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손님에게 향해서

『제가 내일이라고 해두 완성은 모래일 텐데요, 뭐』

그리고 문득 무엇이 생각났는지 의자에 앉은 채로 손을 내어 밀어 벨을 죽 눌렀다. 머슴이 나타나자 그녀는 말했다.

『얘, 너 저 재봉사에게 조심해—무얼 가지고 갈라』

부인의 커다란 음성은 집안과 재봉사의 육체에 스며들었다. 재봉사의 모습은 호울의 저편 끝에 보이고 있었다.

그는 조금 몸을 꺾듯이 펴더니 시야에서 사라졌다.

『누가 알 수 있을라구 하고 로우부인은 말했다.』

『글쎄 저런 이야긴 꾸며낸건지 무언지 알게 뭐예요. 돈이 설사 필요하면 허저만 저 사람들은 노상 돈 타령이에요. 전 이런 인종 본적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여기 항도에서 외국인의 재봉을 하여서, 한뫼 단단히 보구 있음에 틀림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여느 사람보다 더 악질이거든요. 번번히 일야 끝나기도 전에 돈부터 요구하는 거지 뭐

예요. 벌써 세번이나 그때 그때에 아이가 죽게 됐다는니 어찌느니 야단이구려. 그런 걸 한마디도 믿지는 않거만요. 영락없이 아편이거나 도박이에요. 저사람들은 모두 도박을 한 겁니다. — 그들이 말하는 건 한마디도 못 믿진대두!』

『네, 그럼요!』하고 누우탄부인은 한숨을 푹 쉬고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로우부인도 일어섰다.

『결국 이쪽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요』

부인은 다시 한 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최고 큰 양옥 박을 지나서 재봉사는 묵묵히 총총걸음으로 파가운 한길을 걸어 갔다. 그렇다. 그는 부인에게 부탁해 보았다. 그러나 부인은 무엇하나 주려고 하지 않았다. 부인은 거절을 두려워하고 있기에 갖은 용기를 다해서 부탁한 것이었으나 결국 아무것도 주려고 들지 않았다. 드레스는 가장자리 장식만 빼놓으면 절반 이상이나 되어 있었다. 부인이 명주를 그에게 넘겨준 것이 이틀전이었는때, 그는 이것으로 조카를 위하여 필요한 2~3달러의 돈이 손에 들어오려니 하그 기뻐하그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조카는 친자식과도 같았다. 자기 아들을 셋이나 신에게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나 하나 조그만 아이들이 죽어 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에는 아이라곤 하나도 남

아있지 않았다.

그러기에 그는 죽은 동생의 이 외아들에게 한층 더 애착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조카는 어느 대장간에 도제로 나가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에게도 역시 어린 것이 셋이나 있었다. 그렇게도 진장한 청년이었는데 사신에 붙잡히러가고 누가 상상하였으랴! 두달 전의 일이었다. 새빨강계 달은 길쭉한 쇠붙이를 가래날의 모양이 되게 두드리고 있을 때에 어찌된 영문인지 그것이 죽집계에서 튀어나와 발에 빠가 노출하리만큼 떼인 것이었다. 마침 여름이라 비좁은 작업장 안은 몹시 무더워서 조카는 다만 얇팍한 무명바지 바람으로 가랭이까지 진어 울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별의별 고약을 다 발라 보았다. 그러나 다시 튼튼한 살을 붙여주는 고약이 어디 있으랴? 이런 큰 상처의 고통을 가시게 하는 향유가 어디 있으랴? 더구나 여름철이라 파리가 도처에서 꿀었고 특히 썩어서 노출되고 있는 상처 주변에 성가시게 모여들었다. 다리가 온통 부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9월의 이 무더운 날에 청년은 다 죽어가며 누워있는 것이었다. 궁둥이에서 발끝까지 검정고약이 붙어 있었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그렇다, 재봉사는 이날 아침 조카를 찾아가서 자기 눈으로 본 것이었다.

거기에는 죽음이 뚜렷이 보였다. 그들

의 가정인 단칸방 입구에서는 젊은 아내가 앉아서 울고 있었다. 나이 위인 아이들 둘이 너무나 심한 충격으로 하여서 울지도 못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뚱뚱히 바라보고 있었다. 세째 것은 아직 갓난아이여서 어머니 가슴에 안겨 있었다. 그러나 지난 날 하루 이들은 짓이 잘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슬픔으로 인하여 독소가 나와 애기는 것을 토하고 내장의 장애로 울부짖는 것이었다.

재봉사는 골목길로 돌아서 울타리에다 번 문안으로 들어갔다. 왁자하거나 싸우거나 의치고 있는 발가벗은 꼬마놈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빈터를 빠져 나갔다. 머리 위에는 참대 막대기를 여러개 가로질러 놓고 부족한 물을 가지고 비수도 없이 빨래한 허름한 옷들이 드리워 있었다.

이 빈터 주위에서는 한밤마다 한 세대가 살고 있었다. 하수를 공지에 쏟아버리므로 오늘같이 건조한 날에도 그리고 벌써 한달이나 혹은 그 이상 비가오지 않았는데도 공지는 질벽질벽하였고 사방에는 짙짙한 오줌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재봉사는 이런 것을 깨달지 못했다. 그는 처음 것과 같은 세번째 공지를 가로질러 오른편에 있는 열린 문으로 가더니 창이 없는 캄캄한 방으로 들어갔다. 여기에는 또 다른 냄새가 있었다. 죽어가는 썩은 육체가 풍기는 냄새였다.

여인의 흐느끼는 울음 소리가 커튼을 친 침대 옆에서 들려온다. 그쪽으로 재봉사는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백인 여인 집을 나왔을 때의 표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젊은 아내는 그가 다가가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침대 옆의 흙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로 얼굴을 적시고 있었다. 건달란 검정 머리체는 흠어져 어깨에 떨어져 거기에서 땅에까지 내려드리우고 있었다. 몇 번이나 그녀는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아아, 여보— 여보— 건 혼자 난게 돼요— 아아, 여보』

바로 옆의 흙바닥에 누워 있는 갓난애기가 이따금 가냘프게 울어 대었다. 두 아이는 어머니에게 붙어 앉아 자기 그녀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 아이들도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잠자코 아저씨 편을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러나 재봉사는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의 대마 커튼을 들여다 보고 상냥하게 말했다.

『너 아직도 살아 있니?』

빈사의 사나이는 가카스로 눈을 들었다 손이며 알몸인 상반신이며 목이며 할 것 없이 무섭게 뚱뚱부어 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통나무처럼 부풀어 있는 화상을 입은 다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다리가 거기 덩쿨고 있는 걸 보면 다리가 그에게 붙어

있다가 보다는 그의 체통이 다리에 붙어 있다고나 할 저경이었다. 흐릿한 눈은 백부에게 뻔히 쏠리어 있었다.

그는 부풀어 오른 입술을 열었다. 그리고 한참만에 무진 애를 써서 정신을 경중하더니 까칠까칠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아이들—』

재봉사의 얼굴은 별안간 고통으로 하여서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열심히 말하기 시작했다.

『애들 걱정은 할 것 없어 마음놓고 가거라. 네 아내와 애들은 내가 말을 작정이다. 세 아이들은 나의 죽은 세 아이들의 대신이다. 네 아내는 우리들 부부의 딸로 삼지 아이들은 손자구, 글세 너는 내 동생 아들이 아니냐? 그도 죽었어 이제나 혼자야.』

재봉사는 소리를 죽여 울기 시작했다. 얼굴에 뿔뿔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은 전에도 이처럼 번번히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기 때문이었다. 울고 있을 때의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거진 다름이 없고, 다만 두 뺨에 눈물이 흘러 떨어질 뿐이었다.

한참 있다가 또 다시 빈사의 사나이의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불가불 말하여야 할 것을 말하기 위하여 웬 길은 혼수로부터 자기를 베어 내려고 하는 듯한 그런 노력을 기울인 소리였다.

『큰 아버님은 —너무—가난해서—』

그러나 큰 아버지는 다 죽어 가는 사나에게 몸을 굽혀서 재빠르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부풀어 오른 눈은 이제 달리어 있어서 이쪽에서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통하는지 팔이 몰랐다.

『걱정한 것 없다. 안심해라. 내게는 일거리가 있거든— 여기 백인 여인들은 노상 새옷을 원하고 있다. 지금 난 우체국장 부인의 명주옷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자리 장식만 빼고서는 다 된거나 다름없다. 그것이 되면 돈을 받겠지. 그리고 어찌면 더 재봉할 것을 줄 거다. 우린 유복하게 살아갈 거다.』

그러나 젊은 사나이는 더 이상 대답이 없었다. 그는 영원히 저 혼수 속으로 가버린 것이었다. 이제는 눈을 뜨지를 못했다.

허지만 지나긴 무더운 낮에는 내내 그 때도 희미한 숨이 있었다. 재봉사는 한 번 일어나서 보따리를 구석에 놓고 장삼을 벗었다. 그리고는 빈사의 병자 옆에 앉아 그대로 몇 시간이나 까딱하지 않고 있었다. 여인은 다만 연신 흐느껴 울고 있을 뿐이었는데 마침내 기진맥진하여 침대 끝에 기대어 스프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따금 가만가만 흐느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런 분위기에 점점 익숙해졌다. 죽어가는 아버지에게마저 익숙해져서 공지에 달려나가 놀았다. 한두 번 이웃의 친절한 아낙네가 와서 몽클한 가슴에 안고 달래어 주는 것이었다. 동

정하는 음성으로 그러나 명랑하게 그녀가 말하는 것이 밖에서 들렸다.

『글세, 이제 임종이에요. 흡사 한달전에 죽은 사람처럼 어찌도 냄새가 고약한지!』

이리하여 이 무더운 하루는 느릿느릿 그 종말 가까이에 갔다.

그날은 이 여름 중에서도 제일 무더운 날인 듯 싶었다. 9월에 들어서도 몹시 무더운 일이 때때로 있다. 그러므로 여름은 맹렬하게 불타면서 가을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녁 때가 되어도 도무지 서늘해지지 않고 다만 번개를 뿜은 구름이 시가 위에 솟아 있었다. 한길은 밤나체의 남자들이며 알파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우글우글 했다.

모두 집에서 가져고 나온 조금만 낮은 침대로만 든 긴 의자에 걸터앉아 있었다. 한길에 갈대의 방석이나 명석조각을 깔고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다. 아이들 이 도처에서 울어대어 어머니들은 밤의 무더움을 두려워하면서 지친듯이 갖난애기들에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다. 이러한 혼잡 속을 재봉사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종종씩 빠져나갔다. 그는 지금 대단히 피로해 있었다. 그러나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배가 곱프지 않았다.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느 골목 안의 한 방—여기가 그의 가정이었다. 거기 이르러도 먹을 수가 없었다. 초라한 흙이 빠진 우둔한 마

누라— 갖난애기를 하나도 제대로 살려서 기르지 못한 마누라가 다리를 질질 끌고 헐떡거리면서 들어오더니 식어빠진 죽그릇을 탁자 위에 내어 죽었을 때에도 입에 털 수가 없었다. 그 냄새가 옷에 스며있었다. 아직도 코에 가득한 것이었다. 그는 문득 명주 드레스가 생각났다. 만약 저 백작부인이 이 냄새를 맡는다면 그는 선뜻 일어나 보따리를 끄르고 옷을 떨어내었다. 그리고 조심조심 안쪽을 밖으로 내고 침대 옆에 있는 낡은 재봉사 용의 결상에 걸어서 공기를 쏘이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 오래 걸려 있지 않았다. 빨리 끝나치고 돈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장삼과 내복과 신과 양말을 벗고 바지바람으로 앉았다. 탄으로 옷에 얼룩을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회색 수건을 찾아 내어 땀 방울을 막아내려고 짙은 머리에 동여매고 때때로 손을 닦기 위하여 탁자위에 냅마 조각을 놓았다.

재봉사는 명주웃감을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집어들고 빠른 솜씨로 바느질을 하면서도 너무 서두르는 틈에 소홀히 되지 않도록 했다. 그 부인의 비위를 진드리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또 자기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년전에 도제를 하나 두고 있었는데 경기가 신통치 않으므로 지금은 자기의 열 개의 손가락 밖에는 써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나쁘진 않았다. 도제는 실수만 하였기에 백인 부인은 끈 끈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책에서 손수 바느질하셔야죠—꼬마가 엉망으로 만들거 않도록 말이에요』

기실 그러했다. 그러나 열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사흘동안에 옷을 한벌 더 만들 수 있을까? 만약 한벌 더 명주옷을 주문 말으면—그 두 벌로 10달러는 될 것이다. 그러면 판은 10달러는 현금을 내고 나머지는 후일에 치를 약속으로 사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인이 더 이상 일감을 주지 않는다면—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리대금업자에게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건 도저히 못할 노릇이다. 고리대금업자에게 간다는 것은 남자의 파멸이다. 이자가 호랑이 보다도 빨리 달라붙으므로 몇 달만 지나면 꾀돈의 두 갑절 세 갑절이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관을 붙고 나시는 젊은 부인과 세 아이들을 여기에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네 사람을 떠맡는 데에 방이 다만 이것 하나밖에 없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느 정도 호뜻해 지는 것이나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덜컥두려움이 솟구쳐 심장의 고통도 미치는 것 같았다.

더 일감을 맡아야지 그렇다 받드시 더 일감이 있을 것이다. 우체국장 부인은 어찌면 내인 명주옷을 한벌 더 맡겨주겠지, 부인은 부자여서 주위를 화단에

땡 돌리인 커다란 양옥에서 살고 있으니까 맡아야

자정이 다가와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딱한 것은 가장자리 장식이 아직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애의 스타일, 복을 꺼내어 조그마한 주석제 석유남포의 나뭇거리는 물 밑에서 열심히 그것을 읽었다. 이리하여 가장자리장식은 잘 되어 갔다. 꼼꼼하게 주름을 잡고 긴 폭이 넓은 가장자리 장식은 접어졌다. 조그만 주름을 잡더니 손은 피로로 하여서 하르르 떨리었다. 마누라는 이미 침대 속에서 코를 골고 있었다. 정성을 기울여 대강 케멘 가장자리장식을 박는 요란한 재봉틀의 소리마저 마누라를 깨우지 못했다. 새벽녘에 이르러 가장자리틀 손으로 감치는 것과 솟을 화토에다 다리미를 베워서 다림질하는 것만이 남았다. 그는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픈 눈을 쉬었다가 일어나서 끝내려고 하였다. 양복걸이에다 드레스를 걸어놓고 그는 마누라 옆에 드러누웠는데 곧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갔다.

그러나 오래 눈을 붙이고 있을 수 없었다. 일품시에는 일어나 다시 일에 착수하여 오정 때 가까이까지 계속했다. 그래서 전날밤에 못먹었던 음식을 한입 먹을 동안만 쉬었다. 이윽고 재봉사는 드레스를 완성하였다. 생각했던 것 보다 오래 걸렸다. 그는 하늘을 힐끗 올려다 보았다. 그렇다 정오 때까지는 간신히

거기 도착할 수 있겠다. 급히 서둘러야
겠다. 순간적인 일을 가지고서 부인의
비위를 건드려 그로 인하여 그 다음의 옷
을 거절당해서는 안 된다. 여하튼 한 벌
더 주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오늘 오
후와 밤에 걸쳐서 바느질하면 내일 하루
로 끝날택지. 재봉사는 불안스럽게 완성
된 드레스를 냄새 맡아 보았다. 아무래
도 냄새가 좀—부인은 알아챌까?

그러나 다행히도 부인은 알아채지 못
했다. 그녀는 베란다의 예의 이상한 흔
들리는 의자에 앉아서 드레스를 이모저
모 살살이 훑어보고

『다 됐어요?』하고 큰 소리로 물었다.

『네, 마님』하고 재봉사는 공손하게 대
답했다.

『좋아요, 그럼 좀 입어보겠어요』

부인은 자기 방으로 갔다. 재봉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어쩌면 아직도
웬 냄새가 붙어 있는 것일까? 하지만
부인은 그 옷을 걸치고 호뜻한 표정을
얼굴에 띠고서 돌아왔다. 그리 대단한
탄축의 표정은 아니었지만,

『얼마죠?』

물쭈 부인이 물었다.

재봉사는 망서렸다.

『5달러입니다. 마님』

그리고는 부인의 끝난 듯한 눈을 보고
는 황급하게

『명주 드레스, 5달러, 마님, 어떤 재
봉사든지 5달러 받습니다』

『너무 비싼걸...너무 비싸요』하고 부인
은 단언했다.

『백에서 내 옷감을 못쓰게 만들지 않
았어요!』

그러나 마지못해 돈을 치루긴 치루었
다. 재봉사는 부인의 손에 닿지 않도록
미심한 주의를 하면서 그 돈을 받고,

『고맙습니다. 마님』하고 상냥스레 말
했다.

재봉사는 두어 걸음 물러서서 떨리는
손끝으로 보따리를 배기 시작하였다. 저
급 부인에게 부탁해야 한다. 하지만 어
떻게 말을 꺼낼 것인가? 거절되기라도
하면 어쩌누? 그는 필사적으로 용기를
가다듬고,

『마님』하고 눈을 들어 공손한게 그러
나 그녀의 눈을 피하면서 말했다.

『제가 해들인 옷이 또 없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대답에 희망을 걸고 반
짝이는 화단을 응시하면서 기다리고 있
었다. 그러나 그 때에는 이미 부인은 몸
을 돌려 옷을 벗으려 다시 방안으로 들
어가려고 하고 있었다. 부인은 돌아서서
대수롭지 않게

『아니, 좋아요! 백에선 실수만 하시
는 걸요. 옷감을 망가뜨리구— 그런 실
수도 없구 더 싸게 먹는 재봉사가 얼마
든지 있으니까요』

그 이른날 원유회에서 부인은 조그마
한 뉴욕만부인을 만났다. 뉴욕만부인
은 머들까지 의자에 노끈한 듯이 앉아서

크로케이(잔디에서 하는 공놀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백인들의 모습이 푸른 잔디 위를 움직여다니는 것을 보고 있는 참이었다. 뉴우탄부인의 광채없는 파란 눈이 새로 맞춘 옷을 보자 조금 싱싱하게 빛났다.

『결국 드레스를 지으셨군요』

뉴우탄부인은 약간 흥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었다.

『정말 맞추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 가장자리 장식도 멋들어지게 되지 않았어요?』

브우부인은 자기의 커다란 가슴을 내

려다 보았다. 아름답게 주름잡히고 완전 무결하게 다림질 한 가장자리 장식이 있었다. 부인은 흐뭇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럼요, 이걸 멋져요? 결국 가장자리 장식으로 결정해서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구 얼마나 싸다구요. 이 가장자리 장식까지 붙여서 글세, 드레스 맞은 값이 단지 5달러랍니다. —본국돈으로 치면 2달러도 못되지 않겠어요. 게다가 그럼요. 제가 이른대투 열두시 정자에 갔구 왔어요. 진자에 제가 뭐라구 했어요 —중국인 재봉사는 이쪽만 정신 단단히 차리면 된대두!』

= (편) (집) (후) (기) =

◇.....가을.....결실의 계절——.

코발트빛 하늘이 티없이 곱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이제 마지막 맑을 뉘는다.

누구의 가슴에도 노력과 인내로 영근 보람찬 열매가 가득 하리라.

◇.....10월1일은 건군 22주년 기념일——.

온갖 시련을 겪고 우린 이제 세계적으로 막강한 「정예국군」이 되었다.

정열, 의지의 사나이로서 이 나라의 무한대한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또 영원한 평화를 꽃피우기 위해, 우리는 자조, 자립, 자주정신으로 곳곳이 전진 또 전진해야겠다.

◇.....해마다 한강백사장 상공에서 펼쳐져, 시민들을 열광케 하던, 「에어·쇼」가, 금년에 중단되리라는 소식.....아쉽다.

마하 2 「팬텀공군」으로 눈부시게 성장한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직접 국민들에게 보일 기회는 없어졌으나, 우리는 그들의 격려와 성원의 따뜻한 눈길 앞에 성스러운 사명감을 재인식, 더욱 신뢰받는 공군으로 자라야겠다.

◇.....투잡으로 「전진하는 조국이 바라는 군인상」을 엮었다.

민족중흥기에 선 조국이 필요로 하는 참된 군인상을 여러 각도에서 다뤄 보았다. 일독을 권한다.

윤종원님의 「성년공군과 자주국방」은 읽는 이에게, 감동과 공감을 함께 줄 좋은 글이라 생각되며 장병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파쁘신 가운데도 공군을 위해 알찬 글을 써주신 여러 집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회>



공군 부관상사단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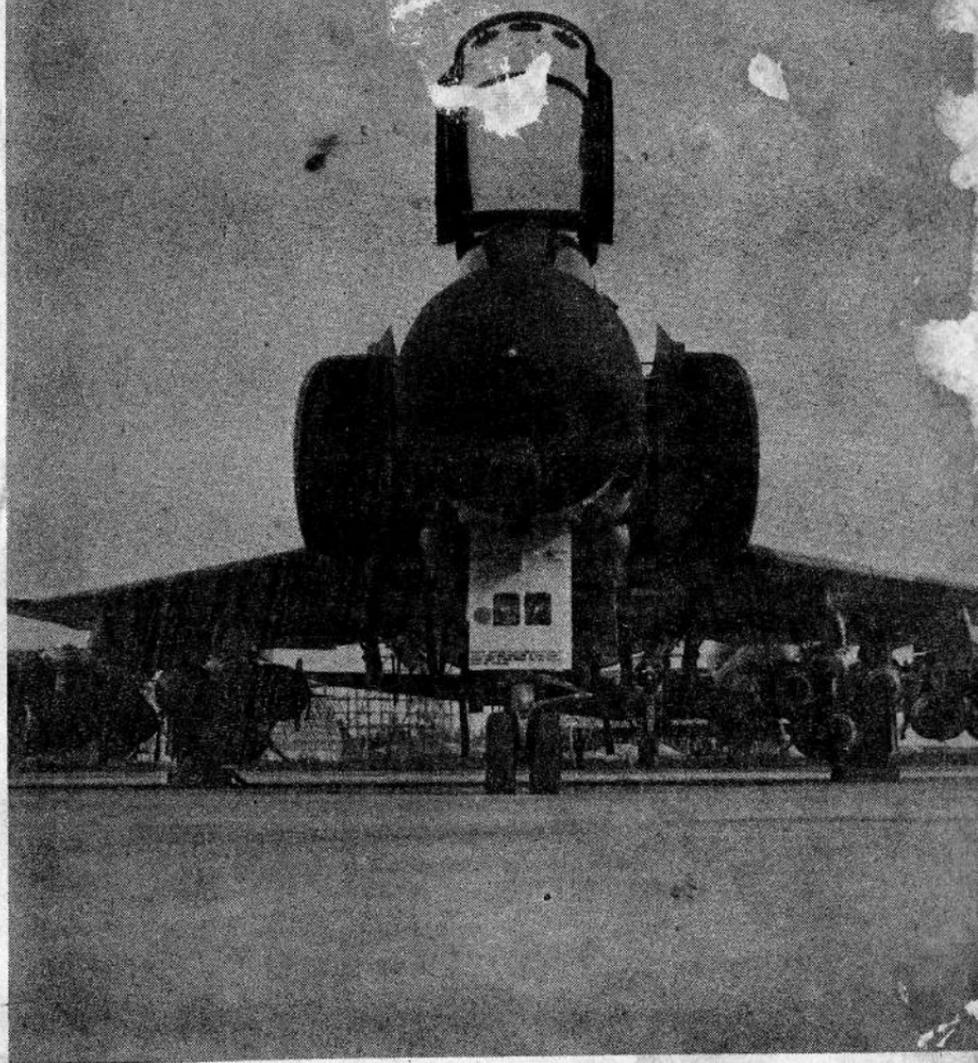
전공군의 부관상사단회의가 9월 3일 공군본부 기획상황실에서 김 두만 총장 임석리 진지하게 개최되었다.



간첩선 격침유공자 표창식

7월 28일 거진 앞바다에 침투해온 북괴 간첩선을 보기 좋게 격침시킨 우리공군 유공자에 대한 표창식이 8월 14일 3593부대에서 김 두만 총장 임석리에 거행되었다.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정 병 강 군-

-임전태세확립-

